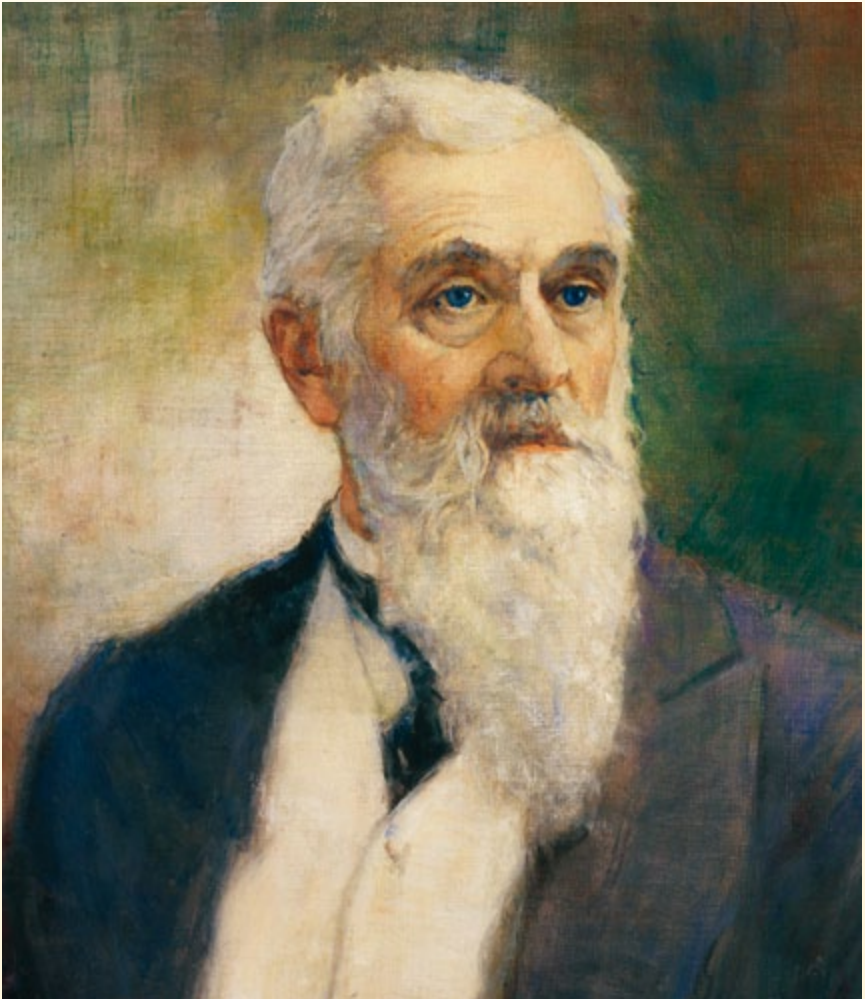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로렌조 스노우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로렌조 스노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발행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총서로 출간된 책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물품 번호 36481 320)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브리검 영 (35554 320)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존 테일러 (35969 320)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윌포드 우드럽 (36315 320)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로렌조 스노우 (36787 320)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 (35744 320)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히버 제이 그랜트 (35970 320)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지 앨버트 스미스 (36786 320)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데이비드 오 맥케이 (36492 320)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해롤드 비 리 (35892 320)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스펜서 더블유 김볼 (36500 320)

이 책들을 주문하시려면 여러분 지역에 있는 배부과에 가거나 store.lds.org에 접속하십시오. 이 책들은 LDS.org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에 관한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Curriculum Developmen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Room 2404,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이메일: cur-development@ldschurch.org

보내실 때에는 여러분의 성명, 주소, 와드 및 스테이크 명칭을 적으시고, 만드시 책 제목을 적어 주십시오. 그런 다음, 책의 장점 또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관한 의견과 제안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2012 by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the USA

영어 승인: 8/02

번역 승인: 8/02

*Teachings of Presidents of the Church: Lorenzo Snow*의 번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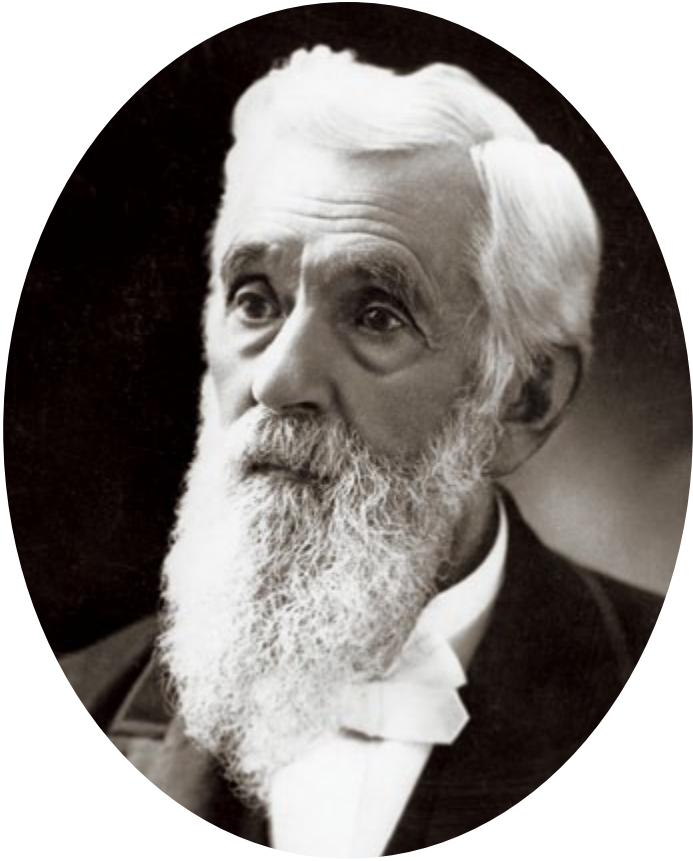
Korean

36787 320



목차

소개	v
역사적 사건 요약	ix
로렌조 스노우의 생애와 성역	1
1 신앙으로 배웁시다	37
2 침례와 성신의 은사	47
3 평생 과업인 개종: 진리의 원리 안에서 끊임없이 나아갑시다	59
4 성신의 권능으로 강화되어	71
5 충실한 사람의 원대한 운명	83
6 “날마다 조금씩 나아[져]” 주님 앞에 온전하게 됩시다	93
7 시련의 때에 충실하여 “그들로부터 빛나는 햇빛 속으로” ...	107
8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117
9 성스러운 가족 관계	127
10 “성전으로 오십시오”	137
11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147
12 십일조, 우리를 보호하고 발전하게 하는 율법	157
13 상호부조회, 참된 사랑과 순수한 신앙	167
14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175
15 하나님의 왕국에서 힘을 다하여 충실하게 봉사하여	183
16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195
17 “인류 가족의 구원을 위한” 신권	205
18 교회의 지도력과 비이기적인 봉사	215
19 선교 사업: “모든 사람의 마음에 다가[가며]”	225
20 하나님의 왕국은 전진해 나간다	237
21 세상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249
22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며	257
23 선지자 조셉 스미스	267
24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되새기며	277
시각 자료 목록	285
색인	287



Lorenzo Snow,



소개

제 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여러분이 회복된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고, 후기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배우는 가운데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돕기 위해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총서를 마련했다. 총서에 포함되는 책들이 출간될 때마다 여러분 가정에 소장하는 복음 참고 서적들도 늘어날 것이다. 이 총서에 포함된 책들은 개인 학습과 일요일 공과에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이 책들은 또한 여러분이 다른 공과나 말씀을 준비하고, 교회 교리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에는 1898년 9월 13일부터 1901년 10월 10일까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장으로 봉사한 로렌조 스노우 회장의 가르침이 담겨 있다.

개인 학습

로렌조 스노우 회장의 가르침을 공부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신의 영감을 구한다. 각 장 끝에 있는 질문은 스노우 회장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생활에 적용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이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그 내용을 가족 및 친구들과 나눌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읽은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이 책으로 가르치기

이 책은 가정과 교회에서 사용하도록 마련되었다. 다음 제언은 여러분이 이 책을 가르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가르칠 준비를 한다

가르칠 준비를 할 때 성신의 인도를 구한다. 스노우 회장의 가르침을 이해했다는 확신이 들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공부한다. 스노우 회장

의 말씀에서 직접 영향을 받을 때 더 진지하고 힘 있게 가르칠 수 있다.(교리와 성약 11:21 참조)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나 상호부조회 공과를 가르친다면, 이 책을 제쳐 놓거나 다른 자료에서 공과를 준비해서는 안 된다.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내용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본문에서 선택한다. 어떤 장에는 공과 시간에 토론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반원들에게 공과 전에 본문을 공부하고 이 책을 공과 시간에 가져오도록 권유한다. 그렇게 할 때 반원들은 토론에 참여하여 서로를 가르치고 이 끌 수 있도록 더욱더 준비될 것이다.

공과를 소개한다

공과를 소개할 때뿐만 아니라 공과 시간 내내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에 영으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한다. 공과를 시작하기 위해 반원들이 본문에 있는 가르침에 집중하도록 돕는다. 다음 사항을 고려해 본다.

- 각 장 첫머리에 나오는 “로렌조 스노우의 생애에서” 부분을 읽고 토론한다.
- 각 장에 나오는 사진이나 성구를 토론한다.
- 관련된 찬송가를 다같이 부른다.
- 주제에 관한 경험담을 짚막하게 나눈다.

스노우 회장의 가르침에 대한 토론을 이끈다

반원들이 생각을 나누고, 질문을 하고, 서로 가르치도록 격려하면서 이 책을 가르친다. 반원들은 활발하게 참여함으로써 배우고 개인적인 계시를 받도록 준비된다. 모든 가르침을 다루기보다는 바람직한 토론이 계속 이어지게 한다. 토론을 촉진하기 위해 각 장에 있는 질문을 사용한다. 각 장에는 이런 질문들을 참조하도록 곳곳에 표시가 되어 있다. 반원들을 위해 직접 질문을 만들어 보아도 좋다.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다음 제언을 고려해 본다.

- 반원들에게 개인 학습을 하며 배운 것을 나눠 달라고 한다. 주중에 반원 두세 명에게 연락하여 배운 내용을 나눌 준비를 해 오도록 부탁하는 것

도 좋은 방법이다.

- 반원들에게 (개인적으로 또는 작은 조로 나누어) 각 장 끝에 나오는 질문 몇 가지를 읽으라고 한다. 본문에서 그 질문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 보라고 한 다음, 자신이 생각하고 깨달은 점을 반원들과 나누도록 부탁한다.
- 본문에 나오는 스노우 회장의 말씀 일부를 골라 함께 읽는다. 반원들에게 스노우 회장의 가르침을 뒷받침하는 경전 구절이나 자신의 경험을 나누도록 부탁한다.
- 반원들에게 원하는 부분을 선택하여 마음속으로 읽어 보라고 한다. 같은 부분을 선택한 사람 두세 명을 묶어서 배운 내용을 토론해 보게 한다.

배운 것을 나누고 적용하도록 격려한다

반원들이 스노우 회장의 가르침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생활에 적용한다면 매우 큰 의미가 있게 될 것이다. 다음 사항을 고려해 본다.

- 반원들에게 부모나 가정 복음 교사, 또는 방문 교사로서 책임을 수행하는 데 스노우 회장의 가르침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질문한다.
- 반원들에게 스노우 회장의 몇몇 가르침을 가족이나 친구들과 나누도록 격려한다.
- 반원들에게 배운 것을 생활에 적용하고, 다음 공과를 시작할 때 그 경험을 나누도록 권유한다.

토론을 마무리한다

공과를 짧게 요약하거나 반원 한두 명에게 공과를 요약해서 말해 보도록 부탁한다. 토론한 가르침에 대해 간증한다. 다른 사람에게 간증을 나누도록 권유해도 좋다.

이 책에 실린 인용 자료 안내

이 책에 실린 가르침은 로렌조 스노우 회장의 설교, 저술, 편지, 일지에서 직접 인용했다. 편지와 일지에서 인용한 내용은 구두법, 철자법, 대문자 사용, 문단 설정을 모두 표준화했다.

스노우 회장은 남녀 모두를 지칭할 때 *men*(남자들), *man*(남자), 또는 *mankind*(인류)와 같은 용어를 사용했다. 그리고 *he*(그), *his*(그의), *him*(그를)같은 대명사를 성별에 관계없이 사용하기도 했다. 스노우 회장 당시에는 이런 어법이 통용되었다. 이런 언어 관습이 현행 어법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스노우 회장의 가르침은 남녀 모두에게 적용된다.



역사적 사건 요약

다음 연대표는 이 책에 실린 로렌조 스노우 회장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 스노우 회장의 일대기를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다.

- 1814년 4월 3일 오하이오 주 맨추아에서 로제타 리어노라 페티본 스노우와 올리버 스노우 사이에서 태어나다.
- 1832년 오하이오 주 하이럼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설교를 듣다.
- 1835년 집을 떠나 오하이오 주에 소재한 오벌린 대학에서 수학하다. 도중에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인 데이비드 더블유 패튼 장로를 만나다.
- 1836년 히브리어를 공부하기 위해 오벌린 대학을 떠나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로 이주하다.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여 6월에 침례와 확인을 받고 후에 장로로 성임되다. 12월에 조셉 스미스 일세로부터 축복사의 축복을 받다.
- 1837년 오하이오에서 복음을 전파하다.
- 1838년 10월~
1840년 5월 다시 선교 사업을 나가 오하이오, 미주리, 켄터키, 일리노이 주에서 복음을 전파하다. 1839년 말부터 1840년 초까지 겨울 동안 교사로 일하다.
- 1840년 5월 영국에서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해 일리노이 주 나부를 떠나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지시로 영국 런던과 주변 지역을 감리하다. *The Only Way to Be Saved*[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라는 제목을 붙인 소책자를 발간하다.

- 1843년 4월 12일 250명의 후기 성도 개종자와 함께 영국을 떠나 일리노이 주 나부에 도착하다.
- 1843년 말~1844년 초 일리노이 주 리마에 있는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다.
- 1844년 오하이오에서 조셉 스미스를 미합중국 대통령으로 선출하기 위한 선거 운동을 지휘하다. 조셉 스미스와 하이럼 스미스가 6월 27일에 순교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부로 돌아오다.
- 1845년 1월 브리검 영 회장의 지명에 따라 오하이오를 두루 여행하며 나부 성전 건축 헌금을 모으다.
- 1845년 샬럿 스콰이어스 및 메리 애덜린 고더드와 당시 교회에서 행하던 복수결혼을 하다.
- 1846년 2월 나부 성전에서 엔다우먼트 및 인봉 의식을 받은 후, 식구들을 이끌고 다른 후기 성도들과 함께 나부를 떠나다.
- 1846년~1848년 가족과 함께 마운트 피스가라 불리는 아이오와 주 정착지에 거처를 정하다. 한동안 이 정착지를 감리하다가 1848년 봄이 되자 성도들을 솔트레이크시티로 이끈다.
- 1849년 2월 12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사도로 성임되다.
- 1849년 영구 이민 기금(Perpetual Emigrating Fund)을 마련하기 위한 기부금을 모으다.
- 1849년~1852년 이탈리아에서 선교 사업을 하다. 또한 영국에서 선교 사업을 하며 이탈리아어 몰몬경 출판을 감독하다. 스위스 및 몰타에서도 선교사로 봉사하다. *The Voice of Joseph*[조셉의 음성]이라고 제목을 붙인 소책자를 발간하다.

- 1852년 유타 주 의회 의원으로 선출되다.
- 1853년 브리검 영 회장으로부터 유타 북부 박스엘더 카운티에 있는 후기 성도 정착지를 감리하라는 부름을 받다. 그 정착지의 주요 도시를 브리검시티라고 명명하다. 교회와 지역 사회에서 수년 동안 지도자로 봉사하다.
- 1864년 3월~1864년 5월 십이사도 정원회의 에즈라 티 벤슨 장로가 이끄는 그룹의 일원으로 하와이 제도에서 단기 선교 사업을 하다.
- 1872년 10월~1873년 7월 제일회장단 제1보좌인 조지 에이 스미스 회장이 이끄는 그룹의 일원으로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 및 유럽 일부 나라들을 여행하다. 이 여행은 브리검 영 회장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 1882년 미국 의회가 복수결혼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일부다처주의자에게서 투표권을 박탈하며, 공직 생활 및 배심원의 의무 행사를 금지시키는 에드먼즈 법안(Edmunds Act)을 통과시키다.
- 1885년 8월~1885년 10월 미국 북서부 지역과 와이오밍 주에서 아메리카 원주민에게 선교 사업을 하다.
- 1886년 3월 12일~1887년 2월 8일 복수결혼 실행이라는 죄목으로 투옥되다.
- 1887년 미 의회가 또 다른 일부다처 반대 법인 에드먼즈-터커 법안(Edmunds-Tucker Act)을 통과시켜, 연방 정부가 교회 부동산을 상당 부분 몰수할 수 있게 되다. 이 법안은 1887년 3월 3일에 제정되었다.

- 1888년 5월 21~23일 유타 맨타이 성전 헌납식에서 헌납 기도문을 낭독하다. 이 성전은 5월 17일에 윌포드 우드럽 회장이 헌납했다.
- 1889년 4월 7일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지지받다.
- 1893년 5월 19일~1898년 9월 솔트레이크 성전 초대 회장으로 봉사하다
- 1898년 9월 2일 윌포드 우드럽 회장이 별세하자 선임 사도이자 교회를 감리하는 지도자가 되다.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성스러운 시현이 열려 주님으로부터 제일회장단을 재구성하라는 지시를 받다.
- 1898년 9월 13일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교회 회장으로 지지되다. 회장으로서 봉사를 시작하다.
- 1898년 10월 9일 연차 대회에서 교회 회장으로 지지되다.
- 1898년 10월 10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장으로 성별되다.
- 1899년 5월 유타 주 세인트조지로 여행하면서 성도들에게 십일조의 법을 전파하라는 계시를 받다. 세인트조지를 시작으로 이 메시지가 교회 전체에 전해지도록 지휘하다.
- 1901년 1월 1일 20세기를 환영하는 뜻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인사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선언문을 발표하다.
- 1901년 10월 10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87세에 서거하다.



로렌조 스노우의 생애와 성역

1835년 어느 날, 당시 스물한 살이던 로렌조 스노우는 부모님 집에서 나와 말을 타고 오하이오 주 오벌린에 있는 오벌린 대학으로 향했다. 당시 그는 이 짧은 여행이 그의 인생 행로를 뒤바꿀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로렌조 스노우는 말을 타고 고향인 오하이오 주 맨추아를 지나는 길에 그와 마찬가지로 말을 타고 가던 한 사람을 만났다. 데이비드 더블유 패튼이라는 그 남성은 최근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성임된 사람으로, 선교 사업을 마치고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 있는 후기 성도들에게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두 사람은 약 50킬로미터를 동행했는데, 후에 로렌조 스노우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했다.

“우리의 대화는 주로 종교와 철학에 관한 것이었는데, 당시 열기왕성한 젊은이였으며 학문적인 면에서 배운 것도 더 많았던 저는 처음에 그분의 이야기를 얹잡아 들었습니다. 그분이 어법에 어긋난 말을 사용할 때에는 더더욱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진지하면서도 겸손한 자세로 구원의 계획을 설명하며 제 마음의 문을 여셨고, 저는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분이 나누는 간증은 진실하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¹

패튼 장로를 만났을 당시 로렌조 스노우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이 아니었지만 교회의 몇몇 가르침들은 이미 알고 있던 상태였다. 사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스노우 가족을 방문한 적도 있었고, 어머니와 두 누나 리어노라와 엘리자는 침례를 받고 교회 회원으로 확인을 받았었다. 하지만 로렌조의 표현에 따르면 당시에 그는 “다른 일로 바빠서” 그런 일은 “안중에도 없었다.”² 그러나 패튼 장로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그날의 경험을 떠올리며 “그날은 제 인생에 전환점이 된 날이었습니다.”³라고 말했고, 대화를 나누는 동안 받은 느낌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저는 마음이 찢렸습니다. 그걸 알아차린 패튼 장로님은 간증을 전한 다



로렌조 스노우의 아버지, 올리버 스노우

음, 대화가 끝나갈 무렵, 제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주께 나아가 직접 여쭙어 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사도를 만난 날부터 저는 그 말대로 해 보았고, 그 결과 제 모든 열망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높아졌습니다.”

“더없이 신실하고 진지하며 영적인 힘이 컸던”⁴ 패튼 장로가 한 젊은이에게 준 그 영향력은 오래도록 지속되었으며, 훗날 그 젊은이 또한 사도가 되었다. 차분하게 나눈 그 대화는 로렌조 스노우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장, 즉 지상에서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도록 준비시키는 또 다른 경험들로 그를 이끌었다.

신앙과 근면함이 깃든 가정에서 자라다

1800년 5월 6일, 올리버 스노우와 로제타 리어노라 페티본이 결혼함으로써 깊은 신앙심과 종교적 전통을 가진 두 집안이 결합하게 되었다. 신랑 신부는 1600년대에 종교적 박해를 피해 대서양을 건넌 영국 이주민으로, 미국 초기 개척자들의 후예였다. 올리버와 로제타는 결혼 초에 몇 년 동안 매사추세츠 주에서 살았는데, 그곳에서 두 딸인 리어노라 에비게일과 엘리자 록시가 태어났다. 그 후 그들은 당시 미국에서 서쪽 맨 가장자리에 위치한 정착지 중 하나인 오하이오 주 맨추아로 이주하여 열한 번째로 그 지역에 정착한 가족이 되었다. 맨추아에서는 두 딸, 즉 어맨다 퍼시와 벨리사가 더 태어났으며, 1814년 4월 3일에는 올리버와 로제타의 다섯째 아이이자 장남인 로렌조가 태어났다. 얼마 후 로렌조에게는 루시어스 오거스터스와 새뮤얼 피어스라 이름 붙여진 두 남동생이 생겼다.⁵

올리버와 로제타는 가족의 전통대로 자녀들에게 신앙과 노동, 교육을 강조했다. 자녀들은 부모가 가정을 꾸리기 위해 감내해 온 어려움에 대해 들으면서 좌절을 이겨 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베풀어 주신 축복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 엘리자는 이렇게 기록했다. “부모님은 더할 나위 없이 고결한 분들이셨으며, 인간 관계나 사업상 거래에서도 평생 신뢰를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근면과 검약하는 습성, 엄격한 도덕성을 키워 주셨습니다.”⁶ 로렌조 스노우는 늘 “관심을 가지고 다정하게”⁷ 대해 준 부모님에게 고마워했다.

로렌조는 성장하면서 현세적인 일이나 배움을 추구하는 일에서 부지런

했다. 종종 아버지가 지역 사회 “공무”를 수행하느라 집을 비우게 되면 로렌조는 장남으로서 농장 일을 맡아 진지한 태도로 책임을 다했다. 그리고 일이 없을 때면 늘 책을 읽었다. 엘리자는 “동생은 늘 책을 끼고 다녔죠.”⁸라고 이야기했다.

로렌조 스노우가 성숙해 가는 과정을 지켜본 엘리자는 이렇게 회상했다. “어려서부터 동생은 활력과 결단력을 보여 주었고, 그 점 때문에 그는 그 이후로 더욱 발전했습니다”⁹

젊은 시절의 열망을 넘어서서

올리버와 로제타 스노우 부부는 자녀들에게 종교에 관해 진지하게 조사해 보도록 격려했고 다른 교회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허락했으며, “모든 종파의 선하고 지적인 교인”들에게 문호를 개방했다. 이 같은 부모님의 격려에도 로렌조는 “종교 문제에 거의, 아니 어쩌면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어떤 특정 종파를 선호하지도 않았다.”¹⁰ 로렌조의 꿈은 군 지휘관이 되는 것이었고, 그 꿈을 향한 열망이 너무 큰 나머지 그 밖의 다른 것들은 그에게 큰 의미가 없었다. 역사가인 올슨 에프 휘트니에 따르면 당시 로렌조 스노우가 그런 꿈을 가진 것은 “전쟁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군인의 모험담과 기사도 정신에 반했었기 때문이었다.”¹¹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포부는 다른 것으로 바뀌었다. 로렌조는 “대학 교육”¹²을 받기 위해 집을 떠나 근처에 있는 오벌린 대학에 들어갔다.

오벌린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로렌조는 종교에 대해 새롭게 관심을 기울였다. 패튼 장로와 나눈 대화의 영향은 계속되었고, 로렌조는 회복된 복음 교리에 몰두했을 뿐 아니라, 오벌린에서 알게 된 사람들, 심지어 목사나 성직자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기도 했다. 로렌조는 성도들과 함께 집합하고자 커틀랜드로 간 누나 엘리자에게 편지를 보내어 이렇게 말했다. “목사나 목사 지망생 사이에서 몰문을 변호하고 옹호하면서 꽤 성과를 거두었다고 장담해. 나부터가 개종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심시킨 사람이 많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그들 가운데는 누나 교회의 교리에서 [지혜]를 얻었다고 고백하다시피 한 사람도 있었어. 오벌린 학생의 뇌리에서 몰문에 대한 강한 편견을 불식시키기가 쉽지만은 않지만 말이야.”

과거 엘리자는 로렌조에게 자신과 함께 커틀랜드에 머물며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 몇 사람이 참석하는 히브리어 강좌를 듣지 않겠냐고 권유했었는데, 이에 대해 로렌조는 같은 편지에서 이렇게 답했다. “누나가 커틀랜드에서 것처럼 큰 행복을 누리고 있다니 참 기뻐. 현재로서는 누나가 있는 곳으로 거처를 옮길 마음이 없지만, 그곳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이곳 못지않다면 옮기지 않을 이유도 없겠지. 무엇보다도 내가 이곳 오벌린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옹호하고 지지하려고 애썼던 교리들을 그곳에서 직접 듣게 된다면 무척 흥미롭고 유익할 거라 생각해.”

로렌조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교리에 감명을 받았지만 교회 가입은 망설였다. 그러나 여전히 관심은 가지고 있었다. 엘리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로렌조는 교회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했다. 목사가 되려고 준비하는 오벌린 학생들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교도들에게 알리려면 7년 이상의 시간을 힘겨운 공부와 연구에 바쳐야 해. 법정에서 진술하려면 특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변호사처럼 말이야. 그러나 누나네 교회 사람들은 교리를 전파할 때 대학에서 배우는 지식보다는 하늘로부



로렌조 스노우는 이곳 커틀랜드 성전이 헌납된 지 두 달 후인 1836년 6월,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침례와 확인을 받았다.

더 오는 도우에 더 의존하는 것 같아.”라고 말하면서, 로렌조는 성신이 “이 시대의 세상” 사람들에게도 부여될 수 있느냐고 물으며 영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고 싶다고 했다. 그는 만일 사람이 성신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제3자를 통해서만 성신을 부여하시는 거야?”¹³라고 물었다. 즉, 로렌조 스노우는 성신을 받는 데 신권 권세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알고 싶었던 것이다.

로렌조 스노우는 오벌린 대학에서 얻은 우정과 지식이 훌륭하다고 여겼지만 그곳에서 가르치는 종교 가르침에 대해서는 불만이 쌓여 갔다. 결국 그는 대학을 떠나 커틀랜드에서 히브리어를 공부해 보라는 누나의 권유대로 하기로 했다. 로렌조는 히브리어 강좌에 참석하는 이유가 미 동부 지역 대학에 다닐 준비를 하기 위해서일 뿐이라고 이야기했다.¹⁴ 하지만 엘리자는 동생이 히브리어 공부 외에도 “영원한 복음에 대해 많이 배워 신앙이 부풀어 오르는”¹⁵ 것을 보게 되었다. 로렌조는 곧 오벌린 대학에서 느낀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았으며, 1836년 6월, 이 경륜의 시대에 조직된 십이사도 정원회 초대 회원인 존 보인턴 장로에게서 침례를 받았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으로 확인받았다.

그로부터 2주 정도가 지났을 때 한 친구가 이렇게 질문했다. “스노우 형제, 침례를 받고 나서 성신이 임하는 것을 느껴 보았나?” 로렌조 스노우는 이렇게 회상했다. “그 질문에 저는 깜짝 놀랐으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받아야 할 것들을 모두 받았지만 실상 제가 기대하고 바라던 것은 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확인은 받았지만 성신으로부터 오는 특별한 느낌은 얻지 못했던 것이다. “저는 불만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일에 대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에게 말입니다. 저는 삭여지지 않은 그 마음을 간직한 채 그날 밤, 늘 주님께 기도를 드리던 장소로 갔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자 즉시 응답이 왔다. 후에 로렌조 스노우는 “제가 살아 있는 한 그날 일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또 “…… 저는 하나님께서, 갈보리에서 돌아가신 예수는 그분의 아들이며, 선지자 조셉이 자신에게 있다고 천명한 권세를 받았다는 완전무결한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 느낌에서 비롯된 만족감과 영광스러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확실한 지식을 얻었기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주신 복음이 회복되었고, 조셉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하도록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¹⁶

이 경험으로 신앙이 굳건해진 로렌조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기 시작했다. 누나인 엘리자가 말했듯이, 로렌조 스노우의 개심은 그동안 그가 품어 왔던 마음 속 열망을 바꾸었으며 “그의 앞에 새로운 세상을 펼쳐 주었다.” 엘리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제 이 세상의 군인으로서 명성을 얻는 대신, 하늘 군대와 함께 승리를 쟁취하려 경기장으로 들어갔다.”¹⁷

전임 선교사로서 어려움에 직면하다

로렌조 스노우는 1837년 봄, 오하이오 주에서 선교 사업을 시작했다. 교회에 가입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랬듯이,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관점을 바꾸고 계획을 변경해야만 했다. 그는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1837년에 [나는] 마음에 간직했던 모든 의향과 계획을 단념했다.”¹⁸ 로렌조는 미 동부 지역 대학에서 ‘고전 교육’을 공부하려던 계획을 포기했다.¹⁹ 또한 지갑이나 전대 없이, 다시 말해 선한 사람들이 음식과 잠자리를 줄 것이라 믿고 돈 없이 여행하는 데에도 동의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특히 로렌조 스노우에게는 쉽지 않았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도와 가족 농장에서 번 돈으로 자신의 일을 항상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누군가에게 제 음식과 잠자리를 의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딘가로 멀리 간다고 하면 아버지는 틀림없이 돈을 충분히 갖고 떠나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을 떠나 먹을 것과 누울 곳을 누군가에게 의탁하게 되니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몹시 힘듭니다. 제 몸에 밴 것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²⁰ 하지만 그는 “그렇게하기로 결심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셨다는 확실한 지식”²¹을 얻었기 때문이다.

스노우 장로가 선교사로서 처음으로 진행한 모임에 삼촌들과 숙모들, 사촌들과 친구 몇몇이 참석했다. 처음 설교를 한 날을 회상하며 로렌조는 이렇게 말했다. “당시 저는 꽤 숫기가 없었으므로 …… 그 자리를 찾아 준 친척과 친구들에게 연단에 서서 설교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날 밤까지 거의 온 종일 기도만 했던 것이 떠오릅니다. 저는 혼자 밖으로 나가서 말할 내용을 알려 주시도록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나중에 숙모님은 말씀하러 일어서는 제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떨릴 정도였다고 말씀



로렌조 스노우 장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입을 열었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도통 기억할 수는 없지만 숙모님 말씀으로는 제가 거의 45분에 걸쳐 훌륭하게 말씀했다고 합니다.”²² 로렌조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당시를 회상했다. “저는 영감의 영이 할 말을 생각나게 하고 제가 말하게 도와준다는 것을 믿었으며 확신했습니다. 저는 금식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거룩한 신권 권능과 영감을 주시기를 힘 있는 기도로 간구했습니다. 회중 앞에 섰을 때 저는 할 수 있는 말이 한 마디도 없었으나, 입을 열자마자 성신이 강하게 임하여 제 마음을 빛으로 채웠으며, 떠오르는 생각을 적절한 언어로 청중에게 전하게 해 주었습니다.”²³ 그 지역을 떠날 때까지 스노우 장로는 삼촌 한 분과 숙모 한 분, 사촌들과 친구 몇몇에게 침례를 주고 확인 의식을 베풀었다.²⁴

스노우 장로는 친족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 다른 도시와 마을에

서 일 년 가까이 선교 사업을 계속했다. 그는 이렇게 보고했다. “저는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오하이오 주 여러 곳을 다니며 많은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으며, 그들은 여전히 진리에 충실하게 남아 있습니다.”²⁵

로렌조 스노우는 이 첫 번째 선교 사업에서 돌아온 후 다시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소망 때문에 집에 오래 머물지 못했다. “선교사 부름에 따른 영이 마음을 너무나 강하게 재촉해서 한시바삐 그 일에 종사하고 싶었습니다.”²⁶ 이번에는 미주리 주, 켄터키 주, 일리노이 주에서, 그리고 다시 오하이오 주에서 회복된 복음을 전파했다.

스노우 장로와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 적개심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다. 한 예로, 그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들으려고 켄터키에 있는 어느 집에 모였을 때 겪은 일을 들려주었다. 설교를 마친 스노우 장로는 자신이 그곳을 떠날 때를 노려 몇 사람이 공격을 가할 것임을 알아챘다. 그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집안에 “뻑뻑이 들어선 사람들 사이에서” 한 남자의 손이 “우연히 내 외투 호주머니에 닿았다.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스노우 장로 호주머니에 뭔가 단단한 물건이 있다는 걸 느낀 그 남자는 즉시 동료들에게 이 선교사가 권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스노우 장로는 그 일에 관해 나중에 이렇게 기록했다. “그것으로 끝이 났다. 범법을 저지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못된 계획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스노우 장로는 약간의 웃음과 함께 덧붙였다. “그들을 놀라게 하여 나를 지켜준 문제의 권총은 다름 아닌 작은 휴대용 성경으로, 친애하는 축복사 조셉 스미스 [일세]가 준 소중한 선물이었다.”²⁷

다른 사람들은 스노우 장로를 환영했으며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였다. 미주리에 있는 한 정착지에서는 스노우 장로를 통해 복음을 배운 다섯 사람이 한겨울에 침례를 받기도 했다. 그때 스노우 장로와 사람들은 침례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 얼어붙은 강의 얼음을 잘라내야만 했다. 그 추위 속에서도 개종자들 중 몇몇은 “물에서 올라오더니 손뼉을 치고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했다.”²⁸

스노우 장로가 처음으로 수행한 두 차례 선교 사업은 1837년 봄부터 1840년 5월까지 이어졌다. 그가 쓴 편지를 살펴보면 당시 스노우 장로가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위해 봉사했는지를 알 수 있다. “나는 남은 겨울

[1838~1839년]을 여행과 설교를 하며 보냈다. …… 그동안 다양한 성공을 거두었고, 내가 받은 대우도 그러했다. 어떤 때는 정말 극진히 대접하며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을 만났고, 어떤 때는 무례하고 사나우며 모욕을 주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내가 따르기로 공언한 예수님이 받은 대접보다 더 심한 대접을 받은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²⁹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 놀랍고 경이로울 뿐이다.”³⁰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셨고, 힘든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나는 크나큰 축복을 받았다.”³¹

영국에서의 선교 사업

1840년 5월초에 로렌조 스노우는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성도들과 합류했지만 그곳에 오래 머물지는 않았다. 그는 대서양을 건너 영국에서 선교 사업을 하라는 부름을 받고 그 달에 나부를 떠났다. 출발 전에 스노우 장로는 시간을 내어 영국에서 이미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 아홉 사도 중 몇몇의 가족들을 찾아갔다.

브리검 영의 가족을 찾아가던 로렌조는 그들이 사는 통나무 오두막에 나무 틈새가 벌어져 그들이 “바람과 폭풍우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영 자매는 키우던 젖소를 잃어버려 이를 찾아 나섰다가 허탕을 치고 막 돌아온 터여서 지쳐 있었다. 형편이 말이 아니었지만 영 자매는 스노우 장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제 처지를 보셨겠지만 [그이에게는] 저에 대해서 조금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이가 명예롭게 해임될 때까지 임지에 남아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스노우 장로는 영 자매가 감당하고 있는 “치절한 가난과 웅색한 형편”에 동정심이 일어 도움을 주고 싶었다. “나는 임지까지 가는 총 경비의 십 분의 일에 해당하는 돈밖에 없었고, 모자란 돈을 구할 가망도 없었으며, 그날은 임지로 떠나기 전날 밤이었다. 주머니에서 얼마를 꺼내 드렸지만 …… 자매님은 받으려 하지 않았다. 재차 드렸지만, 한사코 거절했다. 그때 받은 고의로, 받은 우연히 돈을 마루에 떨어트렸는데, 그 돈은 험거운 판자 틈새로 들어가 버렸다. 그로써 실랑이는 끝이 났다. 나는 작별 인사를 하고, 돈은 시간이 있을 때 꺼내 쓰시도록 그대로 두고 나왔다.”³²

스노우 장로는 일리노이에서 뉴욕까지 간 후, 그곳에서 대서양을 건너

는 배를 탔다. 42일에 걸친 항해 동안 극심한 폭풍우가 세 차례나 몰아쳤다. 승객들은 두려움에 울기도 했으나 스노우 장로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리라 믿었기에 평정을 유지했다. 배가 영국 리버풀에 정박하자 스노우 장로의 가슴은 “하나님께서 지상의 나라들에 구원의 성역자로 불러 파견한 이들을 보호하고 지탱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찼다.”³³

영국에서 선교사로 봉사한 지 4개월이 지난 후, 스노우 장로는 다른 임무를 맡게 되었다. 그는 현 지방부 회장 부름과 흡사한 런던 컨퍼런스(London Conference) 회장으로 봉사하도록 지명되었고, 복음을 계속 전파하면서도 지역 내 지부 회장 등의 신권 지도자들을 감독했다. 스노우 장로는 그 부름에서 봉사하는 동안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이자 선교부 회장이었던 팔리 피 프랫 장로에게 종종 보고를 올렸다. 그는 보고서에 “구원받을 방법을 묻는” 많은 사람들과 일요일 모임을 하는 방에 “넘치도록 모인 사람들”에 대해, 그리고 우리 주님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개종자들]을 침례 주는 기쁨”에 대해 적었다. 그 일에 열정적이고 낙관적이던 스노우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이루 다 표현할 수 없는 흥포와 사악함 속에 둘러싸여 있지만, 시온은 이를 뚫고 나가기 시작했으며, 머지않아 이 도시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³⁴

스노우 장로가 회장으로 봉사하면서 런던 컨퍼런스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는 이러한 성공을 기뻐했지만, 그런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 십이사도 정원회 히버 시 킴블 장로에게 보낸 편지에서, 스노우 장로는 “이러한 과제들이 [그가] 이전에 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하도록” 자신을 이끌었음을 밝혔다.³⁵ 그리고 킴블 장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장로님과 [월포드] 우드립 장로님은 이 시간이 제게 경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그 말이 맞았습니다. …… 제가 이곳에 온 이래, 성도들 사이에서 새로운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일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스노우 장로는 새로운 책임에 임하면서 곧바로 알게 된 진리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나님께서 많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어려움을 이겨 내지 못할 것입니다.”³⁶ 그는 십이사도 정원회 조지 에 이 스미스 장로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비슷한 심경을 토로했다. “제가 이룬 작은 일들은 조금도 제가 한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교사로서 제 직분을 영화롭게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제가

온전히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감리하도록 임명된 지도자들의 지시나 권고를 따르지 않고서는 어떤 성도도 결코 변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한, 주 하나님께서는 제가 직분을 수행하는 동안 저를 지탱하고 지지해 주신다고 굳게 믿습니다. …… 그분 앞에서 겸손히 길을 가면, 계시의 영을 지니고 의롭게 권고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³⁷

복음을 전파하고 런던 컨퍼런스 회장으로 봉사하는 것 이외에도, 스노우 장로는 선교사들이 회복된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종교 소책자, 혹은 팸플릿을 만들었다. *The Only Way to Be Saved*[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이 소책자는 후에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19세기 후반까지 널리 사용되었다.

스노우 장로는 1843년 1월까지 영국에서 봉사했다. 영국을 떠나기 전에 그는 브리검 영 회장으로부터 받은 한 임무를 수행했는데, 그 일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스노우의 일지 한쪽 여백에 짧게 남겨진 것이 전부이다. “브리검 영 회장님의 요청대로 몰몬경 두 권을 빅토리아 여왕과 앨버트 왕자에게 전함.”³⁸

스노우 장로는 영국을 떠날 때 나부로 이민하는 한 무리의 영국 후기 성도들을 인도했다. 일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었다. “나는 250명에 달하는 부대를 책임지게 되었다. 그중 상당수는 내가 지도자로 있던 시절에 성약 안으로 들어온 친한 벗들이었다. 친구들에 둘러싸여 다시 대서양을 건너게 되었다. 2년 반 전에 외롭게 홀로 서 있던 때에 비해 이는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³⁹ 스완틴 호에서 겪은 일화에서는 스노우 장로의 지도력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엿볼 수 있다. 다음 일화는 로렌조 스노우의 일지에서 옮긴 것이다.

“나는 [성도들을] 모두 불러 서로 간의 합의에 따라 소대와 분대로 나누고 적합한 사람을 각각 소대장과 분대장으로 임명하였고, 각 무리들을 관리하기 위한 자치 규약을 만들었다. 우리 가운데는 대제사 몇 명과 서른 명 정도의 장로들이 있었다. 나는 몇몇 장로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소 구분될 정도로 작은 일이라도 맡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바람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았다. 어떻게든 그렇게 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했기에 나는 그들이 할 일을



유럽에 있는 초기 성도들 상당수는 미합중국에 있는 성도들과 합류하기 위해 이민을 떠났다.

직접 나서서 정해 주기로 작정했다. 나는 이런저런 직책에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을 임명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모두가 어떤 책임을 갖게 했다. 주중에는 기도를 [위해] 밤마다 모든 사람을 모았다. 일주일에 두 번 설교 시간이 있었고, 일요일에도 따로 모임을 하고 성찬을 취했다.

내가 친분을 쌓기 바라던, 우리 배의 선장은 매우 냉담하고 말을 삼가는 듯이 보였으며 …… 마음속에 우리에게 대한 편견이 있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었다. 바다로 나온 지 약 2주가 지났건만, 바다에서 통상 일어나는 일 외에는 주목할 만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다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했다.

선장 휘하인 젊은 독일인 승무원이 사고를 당해 목숨이 위태로워졌다. 품행이 단정하고 착실하며 규율을 잘 지키는 그 젊은 승무원은 선장과 여러 차례 항해를 함께했으며 선장, 항해사, 선원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는 사

람이었다. 성도들 또한 그와 매우 가까워지게 되었다. 따라서 그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 배 전체가 슬픔과 비통함에 휩싸였다.

그는 입에서 피를 토했고, 심한 발작과 경련을 일으켰다. 여러 치료법을 써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고, 그가 살아날 가망은 전혀 없어 보였다. 선장은 선원들에게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사람씩 선실에 가서 그에게 작별을 고하라고 했으며, 선원들은 다음 날 아침 살아 있는 그를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선장의 지시에 따랐다. 선실에서 나오는 선원들의 눈은 대부분 눈물로 젖어 있었다.

[그 배에 탔던 후기 성도 중 한 사람인] 마틴 자매는 환자의 침대 곁을 지키고 있었는데, 나에게서 병자 축복을 받으면 회복될지도 모르니 축복을 받는 게 어떠냐고 환자에게 물었다. 이 제안을 환자는 흔쾌히 수락했다. 나는 잠을 자고 있었는데, 나를 필요로 한다는 전갈이 와서 시계를 보니 거의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었다. 곧바로 일어나 선실로 가다가 일등항해사를 만났는데 그는 환자를 막 보고 오는 길이었다. 나를 지나치자마자 그는 스테인스 형제를 만나 스노우 씨가 선원에게 가서 안수를 할 것이라고 알려 주면서 ‘하지만 그 모든 게 소용없을 거예요. 이제 불쌍한 그 친구는 끝났어요.’ 라고 [슬픈 어조로] 말했다. 스테인스 형제가 ‘오, 아닙니다. 안수를 하면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수도 있어요.’라고 대답하자 그 선원은 ‘……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라고 소박하게 반문했다.

나는 통로를 따라가다가 선실 문 앞에서 선장을 만났는데, 울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스노우 씨, 와 주셔서 기쁩니다. 곧 모든 게 끝나기 때문에 아무 소용없겠지만 말이죠.’라고 말했다. 나는 승무원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 곁에 앉았다. 그는 숨이 몹시 가빴고 거의 죽어 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소리 내어 말을 할 수도 없었기에 축복을 해 달라는 뜻만 겨우 보였다. 그에게는 독일 함부르크에 부양해야 할 아내와 두 자녀가 있었고, 그 가족들을 남겨놓고 떠난다는 생각에 몹시 상심한 듯싶었다.

나는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병자 축복을 했고, 축복이 끝나자마자 그는 일어나 앉더니 두 손을 모으고 자신의 병을 낫게 해 주신 주님을 소리 높여 찬미했다. 곧이어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선실 밖으로 나가 갑판 위를 걸어갔다.



스완턴 호에서 심하게 다친 사람이 로렌조 스노우 장로의 병자 축복을 받고 즉시 나았다.

다음 날 아침, 그 승무원이 살아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으며, 평소처럼 일을 할 수 있는 그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선원들은 하나같이 기적이라고 외쳤고, 성도들은 그 일을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했다. 선장도 이를 굳게 믿었고 깊은 감사를 느꼈을 뿐 아니라 그 이후로 그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또한 자신의 권한으로 해 줄 수 있는 모든 호의와 관용을 우리에게 베풀었으며, 끊임없이 우리의 편의를 살폈다. 게다가 우리가 여는 모든 모임에 참석하고, 우리 책을 사서 읽었다. 항해사들 역시 그 같이 행동했으며,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스에서 헤어질 때에는 침례를 받겠다고 약속했다. 약 1년 후, 그들 중 일등항해사에게서 편지를 받았는데 그들은 약속을 지켰다고 알려 주었다. 선장 또한 언젠가 복음을 받아들여 성도들과 함께 생활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 승무원은 우리가 뉴올리언스에 도착했을 때 침례를 받았으며, 나는 그와 헤어질 때 그가 선물했던 성경책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⁴⁰

스노우 장로는 이렇게 적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스완턴호를 떠날 때 몇몇 선원들은 눈물을 흘렸다. 실로 우리 모두는 매우 엄숙한 느낌에 사로잡혔다.”⁴¹ 스노우 장로는 뉴올리언스에서 동행한 성도들과 함께 나룻배를 타고 미시시피강을 거슬러 올라갔으며, 1843년 4월 12일 나부에 도착했다.

주님의 사업에 대한 끊임없는 헌신

로렌조 스노우는 거의 7년간 전임 선교사로 봉사한 후, 한동안 다른 봉사를 할 기회를 맞았다. 지역 학교 이사회에서 1843년 말과 1844년 초 겨울 동안 교사로 일하겠느냐는 제의를 해 온 것이다. 그는 여러 학생들이 “교사들을 괴롭히고 수업을 망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긴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위해 그들을 존중하기로 했다. 누나인 엘리자는 이렇게 말했다. “로렌조는 학생들에게 말할 때, 그들을 가장 존경받을 만한 신사로 대했어요. ……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그들이 학업에 정진하도록 돕겠다는 소망으로, 그들 마음을 움직이려고 온 힘을 기울였죠. …… 이렇게 친절과 설득을 다하자 마음이 누그러진 학생들의 신뢰를 얻게 되었고, 끈기 있게 계속 노력한 결과 거칠고 버릇없는 학생들이 공손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로렌조의 계약 기간이 끝나기 훨씬 전부터 학생들은 놀라운 발전을 보이며 학구적인 태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⁴²

1844년에 로렌조 스노우는 새로운 교회 부름을 받았다. 오하이오로 가서 조셉 스미스를 미합중국 대통령으로 선출하기 위한 선거 운동을 감독하도록 지명 받았던 것이다. 선지자는 미합중국 정부가 후기 성도들을 대하는 방식에 실망하여 대통령 출마자들에게 교회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서한을 보냈다. 답장이 탐탁지 않자 조셉 스미스는 직접 대통령직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십이사도 정원회는 로렌조 스노우와 몇몇 사람들에게 “대통령직에 출마한 조셉을 홍보하도록 오하이오 주 전체에 정치 단체를 조직하라.”⁴³는 임무를 주었다. 그 일을 통해 그들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성도들의 권리가 어떤 식으로 짓밟혔는지를 널리 알렸다. 로렌조는 “매우 흥미로운 시간”⁴⁴을 보냈다고 말했다. 선지자의 출마를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조셉 스미스가 나라를 성공과 번영으로 이끌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로렌조 스노우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했다. “이렇게 극단적인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서 내가 추진하던 일은 갑자기 종언을 고하게 되었다. 선지자와 그의 형 하이럼이 학살되었다는 확인된 보도를 들었기 때문이었다.”⁴⁵ 그는 “참담한 심정”⁴⁶으로 나부로 돌아왔다.

이런 비극적인 시기를 겪으면서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후에 로렌조가 언급했듯이 “전능자의 인도로 왕국은 앞으로 나아갔다.”⁴⁷ 성도들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서로를 강화했으며 자신들이 있는 도시에서 성전을 완공하고자 힘을 모아 일했다.

로렌조 스노우는 성도들과 함께 나부로 집합할 당시 결코 결혼하지 않고 남은 생애를 복음 전도에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누나인 엘리자는 후에 “로렌조는 시간과 재능,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이 성역에만 바치겠다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정을 꾸리면 주님의 일을 하는 “그의 영향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생각했다.⁴⁸

결혼과 가족에 대한 로렌조의 시각은 1843년에 그가 미시시피 강둑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단 둘이 대화를 나누면서 바뀌기 시작했다. 선지자는 복수결혼에 관해 계시를 받았다고 간증했다. 조셉 스미스는 로렌조에게 이렇게 말했다. “주님은 형제님이 해의 왕국의 결혼이라는 율법을 받아들이고 준수하도록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⁴⁹ 이 권고에 따라 로렌조는 결혼이 주님이 주신 계명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행복의 계획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1845년에 로렌조 스노우는 샬럿 스콰이어스, 메리 애들린 고더드와 당시 교회에서 행하던 복수결혼을 했으며, 후에 다른 여성들과도 인봉되었다. 그가 부인들과 자녀들에게 한 헌신은 주님의 사업에 바친 헌신의 일부였다.

성도들은 나부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을 계속했지만 박해 또한 끊이지 않았다. 1846년 2월, 추운 겨울에 성도들은 폭도들을 피해 집과 성전을 포기해야 했으며,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 서쪽으로 오랜 여행을 시작했다.



로렌조 스노우는 1848년에 솔트레이크밸리에 도착한 개척자 부대 대장으로 봉사했다.

솔트레이크밸리에 집합하는 성도들을 돕다

로렌조 스노우 가족은 남은 성도들과 함께 나부를 떠나긴 했으나 첫 번째 개척자 부대가 도착한 지 1년 이상이 지난 뒤에야 솔트레이크밸리에 도착했다. 대부분 초기 후기 성도 개척자들처럼 그들은 가는 길에 있는 임시 정착지에 머물렀다. 로렌조 가족은 아이오와에서 가든 그로브라 불리는 거

류지에 잠시 머물면서 뒤이어 오게 될 성도들을 위해 통나무집을 여러 채 지었다. 그런 후 같은 아이오와에 있는 마운트 피스가라 불리는 정착지로 이동했다.

마운트 피스가에서 로렌조는 솔트레이크밸리로 같이 가고자 뒤따라 올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족과 다른 성도들과 함께 일하였다. 그들은 통나무집을 지었으며 다른 이들이 수확하도록 작물을 심고 경작까지 해 두었다. 마운트 피스가에 있는 동안 로렌조는 정착지를 감리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자신의 가족뿐 아니라 사람들이 질병과 죽음으로 슬픔과 괴로움을 겪자 그는 사람들이 희망을 찾고, 서로를 강화하고, 주님의 계명에 계속 순종하도록 돕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⁵⁰

1848년 봄, 브리검 영 회장은 로렌조 스노우에게 마운트 피스가를 떠나 솔트레이크밸리로 이동하라고 지시했다. 로렌조는 개척자 부대 대장으로 서 다시 지도자 위치에 서게 되었다. 이 부대는 1848년 9월 솔트레이크밸리에 도착했다.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하다

1849년 2월 12일, 로렌조 스노우는 십이사도 정원회 모임에 참석해 달라는 전갈을 받았다. 이미 시작되어 진행 중인 그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그는 하던 일을 멈추고 즉시 움직였다. 가는 길에 로렌조는 왜 십이사도 정원회가 자신을 불렀는지 궁금해했다. 혹시 잘못된 일이 있다고 누가 자신을 고발한 것은 아닐까 하고 걱정했으나 늘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기에 이내 그 걱정을 떨쳐 버렸다. 그러나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았다. 모임에 도착한 로렌조는 정원회 일원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무척 놀라워했다. 그 모임에서 로렌조 스노우는 찰스 시 리치 장로, 프랭클린 디 리차즈 장로와 먼 사촌인 에라스티스 스노우 장로와 함께 사도로 성임되었다.⁵¹

사도 직에 성임된 일은 뒤이은 로렌조 스노우의 삶을 정의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스도의 이름의 특별한 증인”(교리와 성약 107:23)으로서 그가 받은 이 부름은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미쳤다. 후에 그는 사도로서 느낀 책임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다.

“첫째,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예수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한 지식을 지녀야 합니다.

둘째로, 사도는 성신을 약속할 수 있는 신성한 권세를 받아야만 합니다. 성신은 구주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며, 그분의 뜻과 목적을 알려 주고, 진리로 이끌며, 다가올 일들을 보여 주십니다.

셋째로, 사도는 성스러운 복음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며, 그 권능은 하늘로부터 오는 증거를 통해 각 개인에게 확증됩니다. 제 설교를 듣고 의식을 받아 지금 이 분지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참됨을 증거할 수 있는 산 증인들입니다.”⁵²

스노우 장로는 부름을 통해 주어진 개인적인 책임 외에도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우리 십이사도는 의무를 수행하는 길에서 우리의 주의를 산만하게 할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로써 우리는 [제일]회장단이 하나이듯이 우리도 하나가 되며, 하나님의 아들과 그 아버지를 하나로 매어 주는 사랑의 원리로 함께 묶이게 됩니다.”⁵³

이와 같이 로렌조 스노우는 자신에게 주어진 부름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사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자 생애를 바쳤다. 그는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봉사하라는 부름에 응했다.

이탈리아 선교부

1849년 10월 연차 대회 기간에 스노우 장로는 이탈리아에 선교부를 세우라는 부름을 받았다. 그 나라와 문화, 언어가 낯설었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고 그 부름을 받아들였다. 대회가 끝난 지 채 2주가 되기도 전에 스노우 장로는 자신이 없는 동안 남아 있을 식솔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떠날 준비를 마쳤다.

그는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대서양을 건널 배에 오르기 위해 미 동부로 여행하던 중에, 남겨진 가족과 자신이 섬겨야 할 사람들 양편으로 생각이 미쳤다. 그는 누나인 엘리자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다. “만감이 교차하더군. …… 강력한 자석과도 같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집과 고향에서 멀어지기 위해 우리는 더 서둘렀지. 하지만 우리가 종사하는 일이 어둠과 사

막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이들에게 빛을 전하는 사업임을 알고 있기에 가슴은 사랑으로 불타올랐고, 우리는 눈물을 닦을 수 있었어.”⁵⁴

1850년 7월, 스노우 장로와 동반자들은 이탈리아 제노바에 도착했다. 그들은 주님의 사업이 그곳에서 매우 더디게 진행될 것임을 느꼈다. 스노우 장로는 이렇게 적었다. “나는 이 드넓은 도시에 홀로 있는 나그네와 같다. 사랑하는 가족은 12,800킬로미터나 떨어져 있고, 주위에는 풍습이나 생활 방식이 낯선 사람들뿐이다. 그들의 마음을 밝혀 주고 의의 원리를 가르쳐 주려고 이곳에 왔건만 그 목적을 이룰 방법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다. 어두운 전망만이 가득할 뿐이다.” 자신이 부름을 받아 섬겨야 할 사람들이 “어리석음, …… 사악함, 심한 무지와 미신”에 빠져 있는 것을 염려하며 스노우 장로는 이렇게 쓰기도 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백성들을 자비롭게 보아 주시기를 간구한다. 오 주여, 그들이 모두 멸망 당하지 않도록 동정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아버지를 알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또 아버지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 이 백성 가운데 선택된 이가 없다면 누구에게 저를 보내셨나이까? 그들에게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 당신의 이름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⁵⁵

스노우 장로는 이런 “선택된 사람들”을 “발도파”라고 불리는 교도 중에서 찾았다. 발도파는 이탈리아와 스위스 국경 바로 남쪽, 그리고 이탈리아와 프랑스 국경 동쪽에 있는 피에몬테 지방 산골짜기에 살았다. 그들의 선조는 고대 사도들에게 있었던 권세를 믿었기에 그 당시의 종교에 가입하기 보다는 고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원했으며, 이러한 이유로 박해를 받고 여기저기로 쫓겨 다녀야 했었다.

스노우 장로는 브리검 영 회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발도파는 “암흑과 잔혹함”으로 여러 세대 동안 고통을 받아 왔으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닷속의 바위처럼 꿈쩍도 않고 서 있었다.”고 썼다. 그러나 후기 성도 선교사들이 이탈리아에 발을 들여놓기 바로 직전에 발도파는 “깊은 고요의 시기”를 만끽하기 시작했으며, 이탈리아 내 다른 어떤 사람들 못지않게 종교적 자유를 누리는 듯 보였다. 스노우 장로는 “그리하여 선교사가 임명되기 불과 얼마 전에 길이 열렸는데, 이탈리아에서는 어떤 지방도 이처럼 호의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라고 말했다.

스노우 장로는 그 사람들에게 관해 더 알아보려고 도서관에 가서 발도파에 관한 책을 찾아보았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전했다. “신청서를 접수한 도서관 사서는 제가 문의한 내용을 담은 책이 있기는 한데, 바로 조금 전 대출이 되었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한 숙녀분이 그 책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사서는 ‘참 특별한 경우군요, 이 신사분이 마침 이 책을 찾고 계셨는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곧 발도파가 이탈리아 내에서 복음을 처음으로 받아들일 만한 사람들이라고 확신했습니다.”⁵⁶

스노우 장로와 동반자들은 발도파 사람들이 거주하는 피에몬테 지방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먼저 우정을 쌓고 신뢰를 얻는, 조심스러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 후 발도파 사람들과 훌륭한 관계를 맺었다고 느꼈을 때, 그들은 근처 산으로 올라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후, 이탈리아 땅을 선교 지역으로 헌납하는 기도를 올렸다. 또한 주님의 일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으며, 스노우 장로는 동반자들이 책임을 잘 수행하도록 신권 축복을 주었다. 그 산에서 경험한 일로 영감을 받아 스노우 장로는 그곳을 브리검 산이라 불렀다.⁵⁷

이 일이 있고 나서 거의 두 달이 지났을 무렵, 한 사람이 교회에 가입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1850년 10월 27일, 선교사들은 드디어 이탈리아에서 처음으로 침례와 확인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어 무척 기뻐했다.⁵⁸ 후에 스노우 장로는 이렇게 보고했다. “이곳 일은 느려서 따분할 정도입니다. …… 그럼에도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나무가 심어져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⁵⁹

어느 날 밤, 스노우 장로는 자신이 이탈리아에서 행하는 선교 사업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꿈을 꾸었다. 꿈에서 그는 친구들과 낚시를 하고 있었다. “우리는 큼직하고 멋진 물고기들이 저 멀리까지 수면 위에 올라와 가득한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 물가에 그물이나 낚싯줄을 드리우고 있는 사람도 많이 보였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정지해 있는 듯 보였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그 정지해 있는 듯한 사람들 중 한 명 걸을 지나치려는 순간, 물고기가 제 낚시에 걸렸습니다. 저는 타인의 구역이라 할 수 있는 곳에서 고기를 낚아 올리면 그 사람이 언짢아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개의치 않고 계속 낚싯줄을 당기며 물가로 걸어갔습

니다. 그러나 낚시줄을 당긴 저는 매우 놀라고 낙담했습니다. 제 포획물이 너무나 불품없었기 때문입니다. 귀하고 멋져 보이는 고기들이 그토록 많이 달려 있는데 어찌면 그렇게 조그만 고기가 걸려들었는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비범한 물고기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모든 실망감이 사라졌습니다.”⁶⁰

스노우 장로가 꿈은 예언적인 것이었다. 그는 이탈리아에서 많은 개종자를 보지는 못했으며, 후에 다른 선교사가 말했듯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부자도 지위 높은 사람”⁶¹도 아니었다. 스노우 장로와 동반자들은 선하고 신실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데려오는, 주님이 쓰시는 도구였다. 그 사람들은 “새롭고 끝없는 생명의 길을 걷기 시작하게”⁶² 된 것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스노우 장로가 발휘한 지도력의 결과로 물론경이 이탈리아어로 번역되었다.

그로부터 약 150년이 지난 후, 스노우 장로와 동반자들의 노고 덕분에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대해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그들 중 일부는 솔트레이크밸리에 온 첫 번째 손수레 부대에 합류했습니다. …… 그들의 후손 중 많은 이들이 새로 회복된 교회라는 포도원에서 수고했으며, 오늘날에는 이 세계적인 교회에 뛰어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선조가 믿었듯이 사도들에게는 결코 녹슬지 않을 열쇠가 있다고 믿습니다.”⁶³

교회를 세우다

스노우 장로는 후에 또 다시 선교 사업에 나섰으며,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으로서 “교회의 제일회장단의 지시 아래 …… 교회를 세우며, 모든 나라에서 교회의 제반사를 조정하[는]”(교리와 성약 107:33) 일에 종사하며 자신의 부름을 영화롭게 했다.

1853년에 브리검 영 회장은 로렌조 스노우에게 유타 북부 박스엘더 카운티에 있는 정착지로 일단의 가족들을 인도하라는 부름을 주었다. 기존에 있던 정착지는 규모도 작고, 체계적이지 않았으며, 정체된 상태였다. 스노우 장로는 곧장 일에 착수하여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가르친 헌납의 법 원리에 따라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조직했다. 사람들은 번성하는 도시를 이룩했고, 스노우 장로는 영 회장을 기리기 위해 그 도시를 브리검시터라고

칭했다. 시민들은 함께 일하고 서로 돕는 가운데 학교 교육 제도를 수립하고, 공장을 세웠으며, 관개 체계를 갖추고, 상업 조직을 조직하고 연극 모임까지 만들었다. 그들은 헌법의 법을 온전히 실행하지는 못했지만 그 원리에 따라 인도되었으며, 하나의 공동체가 협동과 근면을 통해 어떤 성취를 거둘 수 있는지를 보여 주었다. 스노우 회장의 딸인 레슬리는 이렇게 기록했다. “브리검시티에는 게으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활력과 번영이 넘치는 시기였는데, 정착지 역사상 이 도시에 필적할 만한 곳은 이 주에서는 없었을 것입니다.”⁶⁴

스노우 장로 가족은 여러 해 동안 브리검시티에서 살았다. 스노우 장로는 그곳 성도들을 감리하며 틈날 때마다 다른 곳에서 단기간으로 선교 사업을 했다. 1864년에 스노우 장로는 당시 또 한 명의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이었던 에즈라 티 벤슨 장로와 그 밖에 조셉 에프 스미스 장로, 엘마 스미스 장로, 윌리엄 더블유 클러프 장로를 대동하고 약 3개월의 단기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해 하와이 제도로 떠났다.⁶⁵ 1872~1873년에는 몇몇 사람과 함께 제일회장단 제1보좌인 조지 에이 스미스 회장을 보좌하며 이스라엘을 위시한 중동과 유럽 일부 지역을 9개월 동안 여행했다. 이 여행은 브리검영 회장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는데, 영 회장은 그들의 의로운 영향력을 통해 다른 나라들도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기를 소망했다.⁶⁶ 1885년에 스노우 장로는 미합중국 북부와 와이오밍 주에 거주하는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들을 방문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8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그는 그 지방에 선교부를 세웠으며, 침례와 확인을 받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교회 지도자들을 조직했다.

성전 사업

제7대 교회 회장인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은 로렌조 스노우 회장이 “그의 생애 중 여러 해를 성전에서 일하는 데 바쳤다.”⁶⁷고 말했다. 개종 초기부터 시작된 성전 사업에 대한 스노우 회장의 애정은 사도로 봉사하면서 더욱 깊어졌다. 그는 침례와 확인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어 커틀랜드 성전 모임에 참석했으며, 후에는 나부에 성전을 짓기 위한 헌금을 모으라는 부름에 열정적으로 임했다. 그는 나부 성전이 지어지자 의식 집행자로 봉사하며 성도들이 서부로 대장정을 떠날 때까지 엔다우먼트와 인봉 의식이 집행되도록 도왔다. 성전에 관한 로렌조 스노우의 책임은 사도로 부름 받



유타 주 브리검시티의 이 건물에서는 장화, 신발, 마구 및 모자를 만들었다.

면서 계속되고, 더 확대되었다. 그는 유타 로건 성전 헌납식에서 말씀했으며, 윌포드 우드럽 회장이 유타 맨타이 성전을 헌납한 다음 날 열린 모임에서 헌납 기도문을 낭독하기도 했다. 솔트레이크 성전 맨 꼭대기 침탑에 관석이 놓일 때에는 많은 성도들과 함께 호산나 외침을 인도했다. 솔트레이크 성전이 헌납되었을 때 그는 초대 성전 회장으로 부름 받아 봉사했다.

스노우 회장이 팔순을 맞은 날, 한 지방지는 이런 찬사가 담긴 기사를 실었다. “황혼을 넘긴 나이에든 스노우 회장은 지금까지 생애를 바쳐 온 위대한 대업을 수행하느라 여전히 바쁘고 열심히 일한다. 그는 성스러운 성전 경내에서 동료들과 더불어 자신을 바친 영광스러운 과업, 즉 죄와 죽음으로 고통받는 이 세상에 그토록 중요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⁶⁸

사람들을 보살피다

스노우 회장은 이곳 저곳을 다니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어 개인과 가족들을 보살폈다. 한 예로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봉사하던 시절인 1891년 3월에 브리검시티에서 열린 어느 대회에서 말

씀을 전할 때 있었던 일화를 들 수 있다. 설교 도중 쪽지가 단상 위에 놓여졌다. 한 목격자에 의하면 스노우 회장은 “말씀을 멈추고 쪽지를 읽은 다음, 깊은 슬픔에 잠긴 누군가를 방문해 달라는 요청이 그 쪽지에 담겨 있음을 성도들에게 설명했다.” 그런 뒤 스노우 회장은 양해를 구하고 연단을 내려갔다.

그것은 제이콥 켄슨이라는 브리검시티 주민이 보낸 쪽지였는데, 딸 엘라가 성홍열로 일주일 동안 발작을 일으키다가 그날 사망했다는 내용이였다. 사실 켄슨 형제는 단순히 스노우 회장에게 딸의 죽음을 알리고 장례를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하려고 쪽지를 쓴 것이었다. 그러나 스노우 회장은 말씀을 중단하고 감리하던 모임을 뒤로한 채 즉시 그 가족을 방문하길 원했다. 스노우 회장은 모임 장소를 떠나기 앞서 당시 박스엘터 스테이크 회장이던 루저 클로슨을 불러 함께 가자고 했다.

제이콥 켄슨은 스노우 회장과 클로슨 회장이 자신의 집에 도착했던 당시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스노우 회장님은 엘라의 침대 곁에 일이 분가량 서 계시더니 집에 성별된 기름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무척 놀랐지만 예라고 대답하고 기름을 갖다 드렸습니다. 회장님은 클로슨 형제님께 기름병을 건네시더니 엘라를 위해 기름 부음 의식을 하도록 요청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스노우 회장님]은 기름 부음을 인봉하며 축복을 주셨습니다.

의식이 집행되는 동안 저는 그분이 말씀하신 언어에 특히 감동을 받았으며, 지금도 그것을 기억합니다. ‘엘라,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돌아와 깨어날지어다. 그대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도다. 그대가 위대한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대의 생명이 보존될지니라.’

회장님은 엘라가 살아남아 대가족을 양육할 것이며 부모와 친구들에게 큰 위안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그 말씀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

…… 스노우 회장님은 축복을 마친 후 아내와 저를 향해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더는 슬퍼하거나 비통해하지 마십시오. 잘 될 겁니다. 클로슨 형제와 저는 바쁘기 때문에 더 머무르지 못하고 가야만 합니다. 허나 두 분은 조금만 참고 기다리십시오. 모든 게 잘 될 테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

스노우 회장이 축복을 주신 후에도 엘라는 한 시간이 넘도록 그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사망한 지 세 시간이나 지난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와 제가 침대 곁에 앉아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엘라는 방안을 둘러본 후 앉아 있는 저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누군가를 찾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 계시죠? 그분이 어디 계시나요?’ 저희는 ‘누구 말이니? 어디에 누가 있다는 거니?’ 하고 물었고, 엘라는 ‘그야, 스노우 형제님이죠. 돌아오라고 절 부르셨잖아요.’라고 말했습니다.”⁶⁹

영의 세계에 간 엘라는 참으로 평화롭고 행복한 그곳에서 돌아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엘라는 스노우 회장의 음성에 순종했다. 바로 그날부터 엘라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위안이 되었으며,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슬퍼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 주었다.⁷⁰ 후에 엘라는 결혼하여 여덟 자녀를 두었으며 교회에서 충실히 봉사했다.⁷¹

주님의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서 교회를 이끌다

1898년 9월 2일, 윌포드 우드럽 회장은 아홉 해 이상을 교회 회장으로 봉사하고 세상을 떠났다.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었던 로렌조 스노우 회장은 브리검시티에서 이 소식을 들었다. 이제 교회를 인도할 책임은 십이사도 정원회에게 맡겨졌음을 안 그는 기차를 타고 서둘러 솔트레이크시티로 떠났다.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기는 했지만 주님의 뜻을 따를 준비가 된 그는 솔트레이크 성전에 들어가 기도를 드렸다. 그 응답으로 주께서 친히 그를 방문하셨다. 훗날 스노우 회장은 자신이 “실제로 성전 안에서 …… 구주를 보았으며, 그분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누었다.”고 간증했다. 주님은 그에게 이전 교회 회장들이 사망했을 때처럼 기다리지 말고, 가서 즉시 제 일회장단을 다시 조직하라고 말씀하셨다.⁷² 1898년 9월 13일, 십이사도 정원회는 스노우 회장을 교회 회장으로 지지했으며, 그때부터 그는 교회 회장으로 봉사하게 되었다. 로렌조 스노우는 10월 9일에 교회 회원들의 지지를 받고 이튿날인 10월 10일에 다섯 번째 교회 회장으로 성별되었다.



1898년의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 맨 윗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안톤 에이치 린드, 존 더블유 테일러, 존 헨리 스미스, 히버 제이 그랜트, 브리검 영 이세, 조지 터즈데일, 루저 클로슨, 마리너 더블유 메릴. 가운데줄: 프란시스 엠 라이먼, 조지 큐 캐넌, 로렌조 스노우, 조셉 에프 스미스, 프랭클린 디 리차즈. 맨 밑줄: 매티아스 에프 카울리, 에이브러햄 오 우드렘.

스노우 회장이 보인 모범과 그가 받은 계시를 통해 후기 성도들은 그가 선지자임을 알게 되었다. 로렌조 스노우 회장은 타 종교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경을 받았다.

성도들과 함께한 사람

스노우 회장은 교회 회장으로 봉사하던 시절에도 종종 스테이크 대회를 감리했다. 성도들을 만날 때면 스노우 회장은 자신의 사랑과 존경을 표했다. 그는 성스러운 부름을 받았음에도 자신이 섬기는 사람들 위에 군림하지 않음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 주었다.

스노우 회장은 한 스테이크 대회에서 스테이크 어린이들을 위해 열린 특별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다. 어린이들은 한 사람씩 선지자에게 다가가 악수를 하도록 질서 있게 줄을 서라는 권고를 받았다. 어린이들이 그렇게 하기 전, 스노우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했다. “악수를 할 때 여러분이 내 얼굴을 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늘 저를 기억할 수 있겠지요.

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특별한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은 저에게 커다란 책임을 맡기셨어요. 주님이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그분을 제게 나타내 보이신 이래로 저는 맡은 임무를 다하려고 늘 애를 썼어요. 제가 맡고 있는 높은 직분으로 인해 여러분이 저를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장과 악수를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또 저와 두 보좌인 캐넌 회장님과 스미스 회장님, 그리고 사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⁷³

스노우 회장의 아들인 리로이는 유타 주 리치필드의 한 스테이크 대회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이렇게 전했다. “로렌조 스노우 회장님과 [십이사도 정원회] 프란시스 엠 라이먼 장로님은 리치필드에서 열린 어느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개회 찬송이 끝나자 스테이크 회장님은 라이먼 형제님에게 누구에게 개회 기도를 시켜야 할지 물었습니다. 라이먼 형제님은 ‘스노우 회장님에게 부탁해 보세요.’라고 대답하셨는데, 그 말은 누가 기도해야 할지를 스노우 회장님에게 여쭙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스테이크 회장님은 스노우 회장님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스노우 회장님은 이를 자애롭게 받아들이시고 기도를 시작하기 전, 부탁을 받아 즐겁다고 하시며 정말 오랜만에 이런 기도를 해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기도는 참으로 훌륭했다고 합니다.”⁷⁴

다른 종교 사람들과의 관계

스노우 회장의 영향력은 후기 성도들 너머에까지 미쳤다. 종교가 다른 사람들도 스노우 회장을 만나면 그와 그가 대표하는 교회에 대해 존경심을 보였다. 한번은 다른 교회 목사인 더블유 디 코넬이 솔트레이크시티를 방문하여 스노우 회장과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다.

“예의 바르고 세련된 비서의 안내를 받아 당당하게 서 있는 스노우 회장님과 악수를 나누면서 저는 지금까지 만나 본 사람 중 가장 마음이 맞고 호감이 가는 이를 만나게 되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만나는 사람에게서 거북한 감정을 일시에 사라지게 하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으며, 대화하는 기술도 정말 능숙하고, 찾아오는 사람에게 편안하게 환대받는다든 기분을 느끼게 해 주는 비범한 능력을 지닌 분이었습니다.

스노우 회장님은 몸과 마음과 영혼 모두에 교양을 갖춘 분이었습니다. 말도 세심하게 골라 쓰는 듯 재치가 있고, 친절하며, 학자다웠습니다. 스노우 회장님은 다양한 방식의 수양을 통해 몸에 밴 품위와 어린 아이처럼 온화한 영을 갖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소개받는다면, 그분으로부터 좋은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분과 대화를 하게 되면, 그분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과 충분한 시간을 함께하면, 그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코넬 목사는 이 교회에 대해 분명히 편견을 지녔을 독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그럼에도 그분은 ‘몰몬’입니다! 행여 ‘몰몬교’가 그분을 거칠고 악랄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아마도 몰몬교는 무척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몰몬교’가 스노우 회장님이 지닌 것과 같은 고요한 영을 형성시키고 지성을 이루게 하는 힘의 원천이라면, 결국 ‘몰몬교’에는 선한 무언가가 존재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⁷⁵

또 다른 성직자인 프렌티스 목사도 스노우 회장을 만나 본 소회를 이렇게 적었다. “영혼에 평강의 왕이 임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그분의 얼굴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보여 준다. 사는 동안 이따금 인간에 대한 연구를 하며 그런 증거를 찾아 왔는데, 바로 오늘 나는 그런 얼굴을 보았다. …… 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장의 얼굴에서 지성과 박애, 기품과 평정, 그리고 힘을 그려 볼 수 있으리라 예상은 했지만, 로렌조 스노우 회장을 소개받은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다. …… 그분의 얼굴에는 평강의 힘이, 품모에는 평화의 기도가 서려 있었다. 잔잔하고 깊은 눈 속은 ‘고요한 기도의 본향’이자 영적 힘이 거하는 곳 같았다. 그분은 자신이 지닌 ‘더 확실한 예언’과 분명한 희망, 또 비극으로 점철된 인생 역정에서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살아 있는 신앙에 대해 말했다. 나는 그분의 얼굴에 스치는 감정들을 살피며, 자기 영혼의 행적을 것처럼 간결하고 오묘한 표현을 써서 이야기하는 그분에게 매료된 채 주의를 기울여 그분의 말씀을 경청했다. 그러는 동안 나는 ‘거룩한 땅에서 있구나.’ 하는 기이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방침이나 흥미 또는 편의와 같은 혼한 동기에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저 멀리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시에 따라 행동했다.’ …… 만일 몰몬 교회가 이런 교인들을 양성하는 교회라면, 탁월한 글 솜씨를 가진 사람이나 뛰어난 설교자의 능변 따위는 그다지 큰 필요가 없을 것이다.”⁷⁶

십일조에 관한 계시

스노우 회장은 아마도 십일조의 법에 관한 계시로 가장 잘 알려져 있을 것이다. 1899년 5월, 그는 지도자들과 함께 유타 주 세인트조지로 여행하라는 영의 속삭임을 느꼈다. 왜 그곳에 가야 하는지는 몰랐지만, 그와 형제들은 그 속삭임에 신속히 반응하여 2주도 채 안 되어 세인트조지에 도착했다. 5월 17일, 세인트조지에 도착한 후에 스노우 회장은 십일조의 법을 가르치라는 계시를 받았다. 다음 날 그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다음과 같은 선언문을 작성했다. “여러분에게 전하는 주님의 말씀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 말씀입니다. 이제 미래를 준비하며 올바른 기초 위에 굳게 발을 디디고자 하는 모든 후기 성도들은 주님의 뜻을 행하고 온전한 십일조를 바칠 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며 시온 전역에 자리 잡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⁷⁷

세인트조지에서 이 메시지를 전한 후 스노우 회장과 그 일행은 같은 메시지를 남부 유타에 있는 도시들에 전했으며 또한 세인트조지와 솔트레이크시티 사이에 있는 공동체들에게도 전했다. 5월 27일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스물네 번의 모임을 하는 동안 스노우 회장은 스물여섯 차례에 걸쳐 설교를 했으며 어린이 4,417명과 악수를 했다. 그들은 기차로 676킬로미터를, 마차로는 494킬로미터를 여행했다.⁷⁸ 이 여행에서 스노우 회장은 힘을 얻었으며 십일조의 법을 온 교회에 계속 가르치겠다고 갈망하게 되었다. “저는 이번 방문으로 얻은 성과를 기쁘게 생각하며 가까운 미래에 시온의 스테이크를 모두 방문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⁷⁹ 그는 스테이크 대회를 여러 차례 감리하면서 교회 회원들이 이 법에 순종하는 것은 현세적으로나 영적으로 축복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성도들에게 약속했다.⁸⁰ 또한 십일조의 법에 순종하면 교회가 부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약속했다.⁸¹

교회 전체적으로 회원들은 스노우 회장의 권고에 응하여 새롭게 헌물을 바쳤다. 후에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이 된 역사가 올슨 에프 휘트니는 1904년에 이렇게 기록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즉시 효과를 거두었다. 십일조와 헌물이 유례가 없는 속도로 넉넉하게 쏟아져 들어와 교회 재정 상태가 여러 면에서 개선되고 전망 또한 밝아졌다. 스노우 회장은 이전부터 회

원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아 왔지만, 이제 그런 느낌은 더욱 커지고 굳건해졌다.”⁸² 스노우 회장이 십일조에 관한 계시를 받을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이었던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은 후에 이렇게 말했다. “로렌조 스노우 회장님은 여든다섯에 교회 회장직을 맡으셨지만, 그 후 3년 간 이루신 업적을 보면 그저 경이로울 따름입니다. ……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미 노쇠하여 능력을 발휘할 나이가 지났으며 재무 관련 분야에 종사한 적도 없이 일생을 성전에서 일하는 데 바치신 그분은 그리스도 교회 재정을 맡자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3년이란 짧은 기간 내에 재정에 관한 모든 것을 어둠에서 빛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⁸³

성역 막바지에 남긴 간증

1901년 1월 1일, 스노우 회장은 20세기를 맞이하기 위해 솔트레이크 테버내클에서 열린 특별 모임에 참석했는데, 이 모임에는 모든 종교인들이 초대되었다. 스노우 회장은 그 행사를 위해 메시지를 준비했으나 심한 감기로 낭독할 수가 없었다. 개회 찬송과 개회 기도, 테버내클 합창단의 국가 연주가 끝난 다음, 스노우 회장의 아들 리로이가 일어나 “로렌조 스노우 회장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인사 말씀”⁸⁴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대신 낭독했다. 이 말씀 마지막 부분은 주님의 사업에 대한 스노우 회장의 소감을 잘 나타낸다.

“이 세상에 온 지 여든일곱 해를 맞는 제 마음은 인류의 유익을 위한 간절한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 저는 손을 들어 지상에 있는 주민들에게 하늘의 축복이 내리기를 간구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햇빛이 여러분을 환하게 비추기를 기원합니다. 땅에 있는 소중한 것들과 흙에서 나는 열매들이 여러분을 위해 넉넉하게 생산되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빛이 여러분 영혼에서 어둠을 몰아내기를 기원합니다. 의로움이 커지고 불의가 소멸되기를 소망합니다. …… 정의가 승리하고 부패가 근절되기를 빕니다. 악이 사라지고 지구가 사악함에서 깨끗해질 때까지 정결함과 순결과 명예가 번성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정서들이 유타의 산들에서 나오는 ‘물몬’의 음성으로서 온 세상에 울려 퍼져, 우리의 소망과 사명이 온 인류의 축복과 구원에 있음을 만인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 죄악과 슬픔과 비참함과 죽음을 이기는 승리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평강이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빕니다!”⁸⁵

1901년 10월 6일, 로렌조 스노우 회장은 연차 대회 마지막 모임에서 성도들에게 말씀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며칠간 심하게 병을 앓았지만 그는 연단에 올라 말씀을 시작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오후 여러분께 말씀할 수 있다는 사실이 경이로울 뿐입니다.” 그는 교회 지도력에 관한 짧은 말씀을 전했다. 그런 후 교회 회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했다.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빕니다. 아멘.”⁸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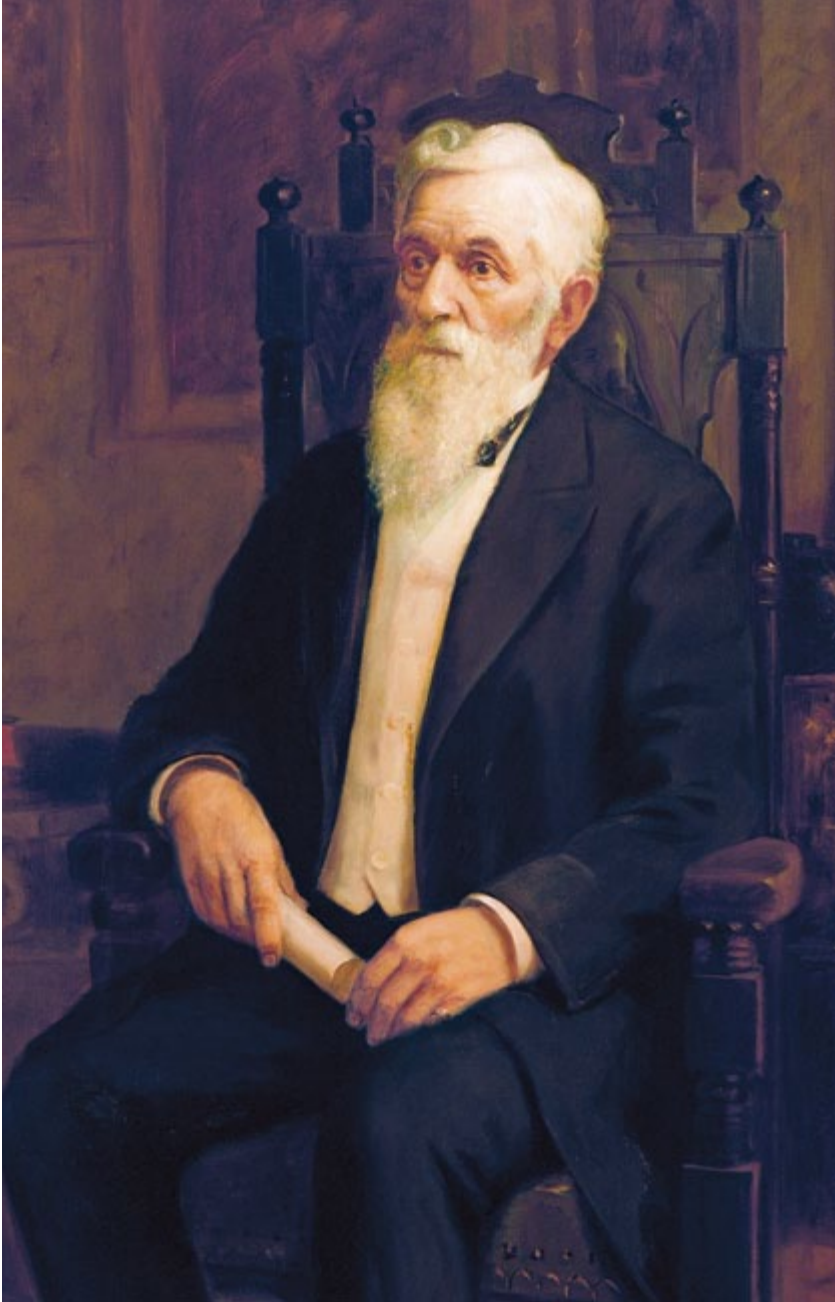
4일 뒤 스노우 회장은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다. 솔트레이크 태버네클에서 장례식이 거행되었고, 그 후 그는 정든 브리검시티에 있는 한 묘지에 묻혔다.

주

1. Lorenzo Snow, in Lycurgus A. Wilson, *Life of David W. Patten, the First Apostolic Martyr* (1900), v.
2. Lorenzo Snow, “The Grand Destiny of Man”, *Deseret Evening News*, July 20, 1901, 22.
3. Lorenzo Snow, in *Life of David W. Patten, the First Apostolic Martyr*, v.
4. Lorenzo Snow, in *Life of David W. Patten, the First Apostolic Martyr*, v.
5. Eliza R. Snow Smith, *Biography and Family Record of Lorenzo Snow* (1884), 1~2 참조.
6. Eliza R. Snow Smith, *Biography and Family Record of Lorenzo Snow*, 2.
7. Lorenzo Snow, *Journal and Letterbook, 1836-1845*, Church History Library, 18.
8. Eliza R. Snow Smith, *Biography and Family Record of Lorenzo Snow*, 2~3.
9. Eliza R. Snow Smith, *Biography and Family Record of Lorenzo Snow*, 3.
10. Eliza R. Snow Smith, *Biography and Family Record of Lorenzo Snow*, 2, 3.
11. Orson F. Whitney, *History of Utah*, 4 vols. (1892~1904), 4:223.
12. *Biography and Family Record of Lorenzo Snow*, 4 참조.
13. Lorenzo Snow, *Journal and Letterbook, 1836-1845*, 57~62.
14. Lorenzo Snow, *Journal and Letterbook, 1836-1845*, 32 참조.
15. Eliza R. Snow Smith, *Biography and Family Record of Lorenzo Snow*, 6.
16. Lorenzo Snow, “The Grand Destiny of Man”, 22. 로렌조 스노우의 개종에 관해 더 알아보려면 제3장을 참조한다.
17. Eliza R. Snow Smith, *Biography and Family Record of Lorenzo Snow*, 6.
18. Lorenzo Snow, *Journal and Letterbook, 1836-1845*, 33.
19. Lorenzo Snow, *Journal and Letterbook, 1836-1845*, 33; 또한 “The Grand Destiny of Man,” 22 참조.
20. Lorenzo Snow, “The Grand Destiny of Man,” 22.
21. Lorenzo Snow, in *Biography and Family Record of Lorenzo Snow*, 15.
22. Lorenzo Snow, “The Grand Destiny of Man,” 22.
23. Lorenzo Snow, in *Biography and Family Record of Lorenzo Snow*, 16.
24. *Biography and Family Record of Lorenzo Snow*, 16, 19 참조.
25. Lorenzo Snow, in *Biography and Family Record of Lorenzo Snow*, 19.
26. Lorenzo Snow, in *Biography and Family Record of Lorenzo Snow*, 30.
27. Lorenzo Snow, in *Biography and Family Record of Lorenzo Snow*, 37~38.
28. Letter from Lorenzo Snow to Oliver Snow, quoted in a letter from Eliza R. Snow to Isaac Streater, Feb. 22, 1839, Church

- History Library.
29. Lorenzo Snow, in *Biography and Family Record of Lorenzo Snow*, 37.
 30. Letter from Lorenzo Snow to Oliver Snow, quoted in a letter from ElizaR. Snow to Isaac Streator, Feb. 22, 1839.
 31. Lorenzo Snow, in *Biography and Family Record of Lorenzo Snow*, 19.
 32. Lorenzo Snow, in *Biography and Family Record of Lorenzo Snow*, 47.
 33. Lorenzo Snow, in *Biography and Family Record of Lorenzo Snow*, 50~51. 영국으로의 항해에 관해 더 알아보려면 제14장을 참조한다.
 34. Lorenzo Snow, in *Biography and Family Record of Lorenzo Snow*, 58~59.
 35. Letter from Lorenzo Snow to HeberC. Kimball, Oct. 22, 1841, in Lorenzo Snow, Letterbook, 1839~1846, Church History Library.
 36. Letter from Lorenzo Snow to HeberC. Kimball, Oct. 22, 1841, in Lorenzo Snow, Letterbook, 1839~1846.
 37. Letter from Lorenzo Snow to GeorgeA. Smith, Jan. 20, 1842, in Lorenzo Snow, Letterbook, 1839~1846.
 38. Lorenzo Snow, Journal and Letterbook, 1836~1845, 45
 39. Lorenzo Snow, Journal and Letterbook, 1836~1845, 65~66.
 40. Lorenzo Snow, Journal and Letterbook, 1836~1845, 72~83.
 41. Lorenzo Snow, Journal and Letterbook, 1836~1845, 91.
 42. ElizaR. Snow Smith, *Biography and Family Record of Lorenzo Snow*, 74~75; 또한 73 참조.
 43. Lorenzo Snow, Journal and Letterbook, 1836~1845, 49.
 44. Lorenzo Snow, in *Biography and Family Record of Lorenzo Snow*, 79.
 45. Lorenzo Snow, in *Biography and Family Record of Lorenzo Snow*, 79.
 46. Lorenzo Snow, in *Biography and Family Record of Lorenzo Snow*, 79, 82.
 47. Lorenzo Snow, in "Laid to Rest: The Remains of President John Taylor Consigned to the Grave", *Millennial Star*, Aug. 29, 1887, 549. 로렌조 스노우가 조셉 스미스의 순교에 관해 평한 내용을 더 알아보고 싶다면 제23장을 참조한다.
 48. See ElizaR. Snow Smith, *Biography and Family Record of Lorenzo Snow*, 84.
 49. Joseph Smith, quoted by Lorenzo Snow in *Biography and Family Record of Lorenzo Snow*, 70.
 50. 마운트 피스가에서 겪은 경험을 더 알아보려면 제7장을 참조한다.
 51. *Biography and Family Record of Lorenzo Snow*, 94~95 참조.
 52. Lorenzo Snow, "Address of Apostle Lorenzo Snow", *Millennial Star*, Feb. 15, 1886, 110.
 53. Lorenzo Snow, *Deseret News*, Jan. 14, 1857, 355.
 54. Letter from Lorenzo Snow to ElizaR. Snow, in *The Italian Mission* (1851), 5.
 55. Letter from Lorenzo Snow to FranklinD. Richards, in *The Italian Mission*, 8~10.
 56. Letter from Lorenzo Snow to Brigham Young, in *The Italian Mission*, 10~11.
 57. letter from Lorenzo Snow to Brigham Young, in *The Italian Mission*, 15~17 참조.
 58. letter from Lorenzo Snow to Brigham Young, in *The Italian Mission*, 7 참조.
 59. Letter from Lorenzo Snow to Franklin D. Richards, in *The Italian Mission*, 20.
 60. Letter from Lorenzo Snow to Orson Hyde, in *The Italian Mission*, 23.
 61. Letter from Jabez Woodard to Lorenzo Snow, in *The Italian Mission*, 26.
 62. Quoted in a letter from Jabez Woodard to Lorenzo Snow, in *The Italian Mission*, 26.
 63. Conference Report, Oct. 1894, 97; or *Ensign*, Nov. 1894, 74
 64. Leslie Woodruff Snow, "President Lorenzo Snow, as the Silver Grays of Today Remember Him", *Young Woman's Journal*, Sept. 1903, 391.
 65. 하와이 제도에서 겪은 스노우 장로의 경험에 대해 더 알아보려면 제4장을 참조한다.
 66. 이스라엘에서 겪은 스노우 장로의 경험에 대해 더 알아보려면 제24장을 참조한다.

67. Heber J. Grant, in Conference Report, June 1919, 10.
68. *Deseret Evening News*, Apr. 3, 1894, 4.
69. Jacob Jensen, quoted in LeRoiC. Snow, "Raised from the Dead", *Improvement Era*, Sept. 1929, 884~886.
70. LeRoiC. Snow, "Raised from the Dead", 886; LeRoiC. Snow, "Raised from the Dead (Conclusion)", *Improvement Era*, Oct. 1929, 975~979 참조.
71. LeRoiC. Snow, "Raised from the Dead (Conclusion)", 980 참조.
72. LeRoiC. Snow, "An Experience of My Father's", *Improvement Era*, Sept. 1933, 677 참조. 또한 교회 역사 자료실에 나오는 1945년 10월 30일과 1946년 11월 12일에 존 에이 윗소 장로와 앨리스 아메다 스노우 영 폰드의 남편 노아 에스 폰드 장로가 주고받은 편지 참조. 브리검 영 회장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순교한 후 다시 제일회장단을 구성할 때까지 3년 넘게 기다렸으며, 존 테일러 회장이 역시 브리검 영 회장 서거 후 3년 이상을 기다렸다. 또 우드럽 회장은 테일러 회장 서거 후 거의 2년을 기다렸다. 스노우 회장이 성전에서 받은 시현에 관해 더 알아보려면 제20장을 참조한다.
73. Lorenzo Snow, in "President Snow in Cache Valley", *Deseret Evening News*, Aug. 7, 1899, 1.
74. Biographical Notes on Lorenzo Snow, comp. LeRoiC. Snow, Church History Library, 2.
75. W. D. Cornell, quoted in "Mormonism in Salt Lake," *Millennial Star*, Sept. 14, 1899, 579.
76. Reverend Prentis, quoted in Nephi Anderson, "Life and Character Sketch of Lorenzo Snow", *Improvement Era*, June 1899, 569~570.
77. Lorenzo Snow, *Millennial Star*, Aug. 24, 1899, 533; 또한 *Deseret Evening News*, May 17, 1899, 2; *Deseret Evening News*, May 18, 1899, 2 참조. *Millennial Star*에는 스노우 회장이 이 설교를 5월 8일에 했다고 나와 있으나 당시 다른 기록에는 5월 18일에 전한 것으로 나온다. 또한 스노우 회장은 5월 17일에 십일조에 관해 말씀했다. 십일조에 관한 계시가 나오는 전체 이야기를 보려면 제12장을 참조한다.
78. "Pres. Snow Is Home Again", *Deseret Evening News*, May 27, 1899, 1 참조.
79. Lorenzo Snow, in "Pres. Snow Is Home Again," 1.
80. 한 예로 *Deseret Evening News*, June 24, 1899, 3 참조.
81. 한 예로 *Improvement Era*, Aug. 1899, 793 참조.
82. Orson F. Whitney, *History of Utah*, 4:226.
83. Heber J. Grant, in Conference Report, June 1919, 10.
84. "Special New Century Services", *Deseret Evening News*, Jan. 1, 1901, 5 참조.
85. Lorenzo Snow, "Greeting to the World by President Lorenzo Snow", *Deseret Evening News*, Jan. 1, 1901, 5.
86. Lorenzo Snow, in Conference Report, Oct. 1901, 60, 62.



로렌조 스노우 회장은 평생 '연구와 또한 신앙으로(교리와 성약 88:118) 배움을 추구했다.

신앙으로 배움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배움을 계속합니다. 매일같이 지식과 예지를 키움으로써 어떠한 상황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합시다.]”

로렌조 스노우의 생애에서

로렌조 스노우의 가족들은 그가 어린 시절에 농장에서 할 일이 없을 때면 으레 “책에 빠져” 독서로 소일했다고 말했다. 누나인 엘리자는 로렌조가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늘 배우는 학생”¹이었다고 표현했다. 성장하면서 로렌조의 학구열은 높아만 갔다. 그는 실제로 교육이 청소년 시절에 자신을 “인도하는 별”²이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공립학교를 다닌 후에 로렌조는 1835년 오하이오 주에 있는 사립학교인 오벌린 대학에서 수학했다. 교회에 가입하기 전인 1836년, 그는 오하이오 커틀랜드로 오라는 엘리자의 권유를 받아들여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여러 사도가 참석하던 수업에서 히브리어를 공부했다.

침례와 확인을 받아 로렌조는 결국 “책을 통한 공부”³보다는 “영의 가르침”⁴에 더 관심을 돌리게 되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그는 늘 배움에 목말라 했다. 한 예로, 80세의 나이로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었던 그는 1894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성도들 앞에 서게 되었다. 스노우 회장은 자신보다 경험이 부족한 형제들이 앞서 전한 설교를 되짚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앞서 연단에 서신 분들의] 말씀을 통해 저는 이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배웠으며, 이는 제게 매우 유익했습니다.”⁵ 그로부터 6년 후에 스노우 회장은 교회 회장으로서는 주일 학교 조직이 마련한 회의에 참석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한 후 그는 마지막 연사로서 연단에 섰다. 스노우 회장은 말씀을 시작하며 이렇게 말했다. “오늘 보고 들은 것에 기쁨과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든여섯 살인 제가 배움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모임에 참석하는 다른 성인들이 즐거움과 유익을 얻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⁶ [44쪽 제언 1 참조]

로렌조 스노우의 가르침

배움에는 신앙과 노력, 인내가 따른다.

여러분과 제가 받아들인 이 종교의 바탕에는 매일 배워야 하는, 원대하고 영화롭고 새로운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은 위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지식을 얻는 일은 우리의 특권일 뿐 아니라 꼭 필요한 일입니다.⁷

물론이즘에 담긴 전체적인 개념은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면에서, 또 도덕적이고 영적인 면에서 향상하는 것입니다. 어중간한 교육은 후기 성도들에게 절대 충분치 않습니다.⁸

이 지상에 오래 거하면서 경험과 지식을 쌓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 까닭은 우리가 이생에서 얻는 예지는 어떠한 것이든지 부활 때에 우리와 함께 일어날 것이고, 만일 어느 사람이 이생에서 더 많은 지식과 예지를 얻는다면, 장차 올 세상에서 더 큰 유익을 얻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⁹[교리와 성약 130:18~19 참조]

배우지 않는 사람, 자기 능력만큼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데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눈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도 않으며 알아야 할 지식을 습득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얻을 수도 있는 것들을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영속적인 행복을 얻으려면 먼저 지식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을 인식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시간을 잘 사용하여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을 지금은 소홀히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언젠가 그런 향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오늘 배울 것을 배우지 않는다면, 내일은 그만큼 더 많이 배워야 할 것입니다.¹⁰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발휘하려면 정신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단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성신의 은사와 권능으로 깨우침을 받아 앞으로 닥칠 일을 대비하는 데 필요한 방안과 예지, 그리고 다른 축복들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과 관련된 모든 행위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



“영으로부터 오는 가르침”은 “가장 집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는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나태하게 머문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확실한 행동과 결단 없이 이도 저도 아닌 상태에 있으면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계시된 모든 원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¹¹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굳이 노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우리가 받는 매우 중요한 축복들의 근거가 되는 원리들이 무엇인지 찾아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후기 성도들을 구원으로 이끌고 곤경과 문제들로부터 지켜주기 위해 단순하고도 분명하게 계시된 원리들이 있지만, 이를 배우고 따르려는 우리의 노력이 없다면 그 원리들에 순종함으로써 오게 되는 축복을 우리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¹²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배움을 계속합시다. 매일 같이 지식과 예지를 키움으로써 어떠한 상황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고, 신앙과 예지를 늘려 나갑시다.¹³ [44쪽 제언 2 참조]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은 영으로부터 오는 가르침이다.

우리 모두가 집중할 만한 가치가 있고,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바로 영으로부터 오는 가르침입니다.¹⁴

자그만 영적 지식 하나가 단순한 의견이나 개념, 생각, 또 때로는 열띤 토론보다 훨씬 낫습니다. 영적인 지식은 작은 것이라도 매우 중요하며 가장 큰 가치를 지닙니다.¹⁵

세상적인 부를 구하는 동안에도 영적 향상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현세적인 축복과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들을 우리 주변에 확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빛과 지식의 원리 안에서 자신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리에게 부과된 의무입니다.¹⁶

만일 우리의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쳐 세상의 재물을 획득하는 데 너무 많은 주의를 쏟고 영적인 부를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결코 현명한 청지기가 될 수 없습니다.¹⁷ [44쪽 제언 3 참조]

우리는 복음 원리를 반복해서 들음으로써 유익을 얻는다.

[어떤 원리들은] 수백 번을 넘게 들었어도 여전히 거둬들여서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교리와 성약을 읽을 때 그와 같이 느낍니다. 그 책에 있는 계시를 읽을 때마다 새로운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읽은 계시인데도 말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혹 그렇지 않다면 저와는 매우 다른 경험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¹⁸

이 점은 어린이가 글자를 배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교사가 아이에게 말합니다. “여기 7자가 있다. 기억할 수 있겠니?” 아이가 대답합니다. “네, 기억할게요.” 교사는 그 다음 글자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이 글자는 2이야. 잘 보고 기억해 뒤.” “아, 네.” 아이가 말합니다. 그런 뒤 교사는 7자로 다시 돌아가서 “이게 무슨 글자이지?”라고 물어봅니다. 하지만 아이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교사는 이 글자가 7자라고 다시금 알려 주고 이제 2자로 가 보지만, 아이가 그 글자도 역시 잊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사는 또 한 번 2자를 아이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아침이 지나고, 오후에 다시 아이를 불러 물어보았을 때 교사는 아이가 그 글자들을 또 잊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사는 또다시 그것들을 아

이에게 가르칩니다. 만일 수업이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된다면, 경험이 없는 교사는 아이가 또 그 글자들을 기억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낙담하게 될 것입니다. 후기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귀가 따갑도록 되풀이해서 들었을지라도 철저하게 배우도록 반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원리들을 익혀야 합니다. 저는 후기 성도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계명을 배우고, 이를 엄격하게 지키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 그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¹⁹ [44쪽 제언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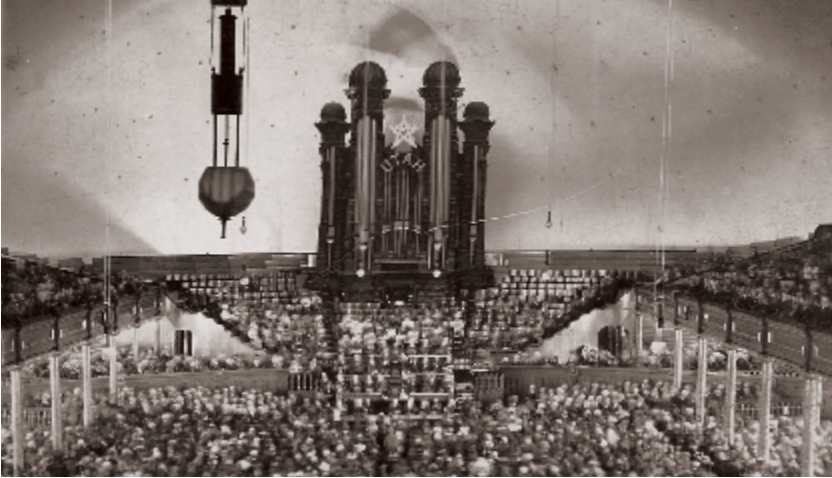
복음을 공부하기 위해 모일 때, 교사와 반원들 모두 영의 인도가 필요하다.

[교사는] 사람들 앞에 서서 가르칠 때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사는 반원들이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이고 거룩한 원리가 담긴 교육을 통해 진보함으로써 영혼에 진리를 얻고 의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일은 정신적인 노력과 신앙에서 나오는 동력 없이는, 또 온 마음을 다해 주 하나님의 영을 구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듣는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연단에서 말씀하는 사람이 종종 부탁하는 대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주님께 기도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온 생각과 힘을 기울이는 정신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듣는 자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도움과 유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²⁰

제가 후기 성도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이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총관리 역원이 말씀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 말씀하는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하고 신앙을 행사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말씀할 수 있고, 우리도 영을 통해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무언가 유익이 되는 것을 얻기를 기대하며 이 대회에 왔습니다.²¹

여러분은 [연사들이]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것을 말해 주고, 뭔가 유익이 되는 것들을 알려 주도록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 알고자 한다면, [그분들이] 여러분의 골칫거리에 관해 마음을 밝혀 주는 말씀을 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연차 대회와 다른 모임에서 연사들이 전하는 말씀에서
'유익을 얻도록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과거 어느 연차 대회보다 더 나은, 멋지고 영광스러운 대회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늘 최근에 열린 연차 대회가 가장 훌륭한 대회였다고 여기기 마련이며, 이번 대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형제님들이 말씀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고 신앙을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 또한 매우 풍성한 축복을 받았다고 느끼며 이 대회장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²²

제 앞에 계신 청중 중 많은 분들이 이 연차 대회에서 저희를 만나기 위해 먼 곳에서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쓸모 있는 일꾼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향상시키고 온전한 사람이 되겠다는 소망을 품고, 순수한 동기로 이곳에 왔습니다. 이런 면에서 실망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연사들이 주님의 영으로 영감을 받아 전하는 권고를 받아들여 유익을 얻도록 우리 마음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화될 수 있는가는 연사들보다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해 왔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믿습니다.²³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특권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르침을 얻지 못한다면, 잘못된 보통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²⁴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다지 올바른 태도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자신을 의 가운데 굳게 세우는 가르침을 얻기 위해 함께 모인다고보다는 …… 연사의 웅변술에 더 흥미를 느끼거나 말씀하는 방식에 더 매료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단지 연사를 보거나 연사의 성품을 가늠해 보는 데 더 마음을 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않아 주님의 영을 얻지 못한다면, 연사가 아무리 훌륭하고 가치 있는 내용을 전하더라도 얻는 것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청중이 마음을 기울여 듣는다면 …… 비록 연사의 말씀씨가 서툴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서 유익을 얻었다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²⁵

후기 성도들은 일반적으로 장황한 설교에서 큰 유익을 얻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다양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얻거나, 마음 속에 어떤 원리가 불현듯 떠오르고 이해됩니다. 그 후 시간이 지나고 되돌아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임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²⁶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지상에 진리의 대업을 진척시키는 데 필요한 일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가르침의 성격은 우리 마음 상태에 주로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서 세속적인 일을 떨쳐 버리고 이 대회의 목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²⁷

우리가 얻게 되는 정보와 영적 지식은 전적으로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행사하는 정도에 비례하여 주님의 종을 통해 전해지는 정보를 얻습니다. ……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런 모임에 함께 모이면, 주님은 그분의 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²⁸ [44쪽 제언 5 참조]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제언

본 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다음 제언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v~vii쪽을 참조한다.

1. 스노우 회장이 평생에 걸쳐 학습과 배움에 기울인 노력을 서술한 37~38쪽을 복습한다. 평생 배움을 계속하도록 이끄는 것은 무엇인

가? 여러분 자신의 학구열은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 보고, 평생 배움을 계속할 방안을 숙고해 본다.

2. 복음 공부에 끈기 있게 매진하라는 스노우 회장의 권고를 공부한다.(38~39쪽) 여러분이 진정으로 노력할 때 공부 방식은 어떻게 바뀌는가? 어떻게 하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배움에 힘쓰도록 도울 수 있을까?
3. 스노우 회장은 ‘영의 가르침’을 추구하라고 성도들을 격려했다.(40쪽) 이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교육이 세상적인 부의 획득에 지나치게 치우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4. 글자를 배우는 아이의 예(40~41쪽)는 복음을 배우는 우리의 노력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고대와 후기의 선지자들 말씀을 공부하면서 반복되고 있다고 느낀 원리들은 무엇인가?
5. 교회 공과 반이나 모임에서 무언가를 배울 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 단순히 성찬식 모임이나 대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더 효과적으로 배우기 위해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가?(몇 가지 예로 41~43쪽을 참조한다.)

관련 성구: 니파이후서 9:28~29; 28:30; 모사이야서 2:9; 교리와 성약 50:13~22; 88:118, 122; 136:32~33

교사를 위한 도움말: “우리가 경전 및 후기 선지자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돕기 위해, 교회에서는 공과 책과 기타 자료들을 발행했다. 논평이나 기타 참조문 자료가 필요한 경우는 별로 없을 것이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복음 교육을 위한 참고 지도서[1999], 52쪽)

주

1. Eliza R. Snow Smith, *Biography and Family Record of Lorenzo Snow* (1884), 3.
2. *Biography and Family Record of Lorenzo Snow*, 28.
3. *Biography and Family Record of Lorenzo Snow*, 28.
4. *Deseret News: Semi-Weekly*, Mar. 31, 1868, 2.
5. “Glory Awaiting the Saints”, *Deseret Semi-Weekly News*, Oct. 30, 1894, 1.
6. “Tithing”, *Juvenile Instructor*, Apr. 1901, 214-215.
7. Conference Report, Apr. 1898, 13.
8. “‘Mormonism’ by Its Head”, *The Land of Sunshine*, Oct. 1901, 257.
9. “Old Folks Are at Saltair Today”, *Deseret Evening News*, July 2, 1901, 1; 로렌조 스노우가 말씀을 준비하고 아들인 리로이가 읽었다.
10. *Deseret News*, Oct. 21, 1857, 259.

11. *Deseret News*, Jan. 28, 1857, 371.
12. *Deseret News: Semi-Weekly*, July 16, 1878, 1
13. *Deseret News: Semi-Weekly*, Dec. 7, 1869, 7.
14. *Deseret News: Semi-Weekly*, Mar. 31, 1868, 2.
15. *Deseret News*, Nov. 22, 1882, 690.
16. *Deseret News*, July 19, 1865, 330.
17. *Deseret News*, July 19, 1865, 330
18. *Deseret Semi-Weekly News*, Mar. 30, 1897, 1.
19. *Deseret Semi-Weekly News*, July 28, 1899, 10; 기욤임체 첨가.
20. *Deseret News*, Jan. 28, 1857, 371.
21. Conference Report, Oct. 1899, 2.
22. Conference Report, Oct. 1900, 5.
23. Conference Report, Oct. 1898, 1-2.
24. Conference Report, Apr. 1898, 61.
25. *Deseret News*, Jan. 28, 1857, 371.
26. Conference Report, Apr. 1899, 2.
27. *Deseret News*, Apr. 11, 1888, 200; 로렌조 스노우가 1888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전한 말씀을 상세하게 풀어 쓴 데에서 발췌함.
28. *Salt Lake Daily Herald*, Oct. 11, 1887, 2.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침수로 침례를 받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다.

침례와 성신의 은사

“이것이 사도 시대에 있었던 복음 체계였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회개,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서의 침례, 성신을 받기 위한 안수례입니다. 이 체계를 이해하고 준수했을 때 권능과 은사, 축복과 영화로운 특권이 즉시 뒤따랐습니다.”

로렌조 스노우의 생애에서

로렌조 스노우는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라는 간증을 얻은 후에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가입할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다. 그는 자신이 교회 회원이 된다면 그동안 품어 왔던 세상적인 열망 몇 가지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스노우 회장은 자신이 말한 바와 같이 “마음과 영혼의 극심한 갈등”을 겪은 후, 침례를 받는 데 동의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분명 주님이 도와주셨다고 느낍니다. 주님의 도움에 힘입어 저는 자존심과 세상적인 야망과 포부를 제단 위에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침례의 물속으로 들어가서 복음 의식을 받았습니다. …… 저는 신성한 권세를 지녔다고 밝힌 사람에게서 침례와 안수례를 받았습니다.”¹

로렌조 스노우는 이 축복을 받자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를 갈망했다. 그가 이탈리아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면서 쓴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하나님의 왕국 문을 여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많은 곤경과 불안이 뒤따랐습니다. 우리 또한 감내해야 할 몫이 작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크나큰 기쁨을 느끼며 영생을 지망하는 첫 번째 개종자와 함께 물속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성스러운 의식을 집행하며,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열던 그 신나는 순간에 사용했던 이탈리아 말이 그토록 감미롭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² [57쪽 제언 1 참조]

로렌조 스노우의 가르침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을 따를 때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정한 원칙이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고 지키는 사람은 영적인 지식과 은사, 축복을 얻습니다. 이 세상 초창기뿐 아니라 사도가 있던 시절에도 사람들은 주께서 제정하신 일정한 규칙을 이해하고 충실하게 준수함으로써 영적인 힘과 여러 특혜를 얻었습니다. 한 예로, 아담의 아들 아벨은 제물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이 내린 명령이며, 이를 통해 사람이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하고 그 명에 따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 영광스럽게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창세기 4:4; 히브리서 11:4 참조]

또한 [대홍수 이전에 살던] 고대인들이 타락하여 파멸이 임박했을 때, 주님은 의로운 이들에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방법을 이해하고 준수한 사람들은 모두 약속된 축복을 분명히 받았습니다.[창세기 6~8장 참조]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탈취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정한 단계를 밟아야 했습니다. 명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자 여리고 성은 곧장 그의 손에 떨어졌습니다.[여호수아 6장 참조]

다른 예로,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의 경우를 들겠습니다. 나병으로 고통받던 그는 선지자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서 그에게 병을 낫게 해 달라고 청했습니다. 성신이 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선지자는 나아만에게 요단 강물로 일곱 번 씻으면 나을 것이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처음에 나아만은 그 말이 너무나 단순하여 탐탁지 않았고, 것처럼 단순한 방법을 따를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충분히 생각한 끝에 자신을 낮추고 규칙을 따랐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 보십시오! 곧장 축복이 왔습니다.[열왕기하 5:1~14 참조] ……

복음의 경륜의 시대가 도래할 때마다 은사와 축복은 비슷한 원리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원리는 일정하게 정해진 규칙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일정한 행위를 정하시고 그것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따른 독특한 특혜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런 행위를 세세한 부분까지 준수했을 때 약속된 축복은 틀림없이 성취되었습니다.³

침례와 확인이라는 외적 의식은 신앙과 회개라는 내적 행위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복음의 경륜의 시대에는 외적인 것들의 준수와 외면적 행위를 통해 은사와 축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과는 상관없이 단지 정신적 수행인 신앙과 회개를 통해서만 얻는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이나 미신, 인간의 신조는 제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복음의 경륜의 시대에는 외면적 행위 또는 외적 의식이 신앙과 회개라는 내적 행위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제가 살펴본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주께서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누가복음 6:4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마태복음 7:24]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마가복음 16:16]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그분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한복음 3: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주께서 주신 이런 말씀에 따라, 사람은 구원을 얻으려면 외적인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오순절에 베드로는 주위의 군중을 향해 말했습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신의 은사를] 받으리니”[사도행전 2:38] 이 예언적인 말씀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또 나중에 성신의 은사를 받으려면 외적인 행위인 침수로써의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나 외면적인 행위를 하기 전에 신앙과 회개라는 내적 행위를 먼저 수행해야 합니다. 침례에 앞서 신앙과 회개가 선행되어야 하며, 죄 사함을 받고 성신의 은사를 받기 전에 침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오순절 날, 약 3천 명이 침례를 받았다.

어떤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필수 원리에 침례를 포함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대답으로, 구주와 사도들도 우리에게 앞서 그렇게 하셨으므로 우리도 그분들의 모범을 따라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 침례는 …… 이제 위대한 속죄를 믿는 신앙을 통해 우리 영혼이 죄와 더러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줍니다. ……

복음이 주는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신앙과 회개뿐 아니라 외적인 행위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⁴ [57쪽 제언 2 참조]

침례는 침수로써, 성신의 은사는 안수로써 베풀어져야 한다.

물의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 한 부분으로서, 고대 주님의 종들은 그 의식을 매우 각별하게 집행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

이제 침례를 집행하는 방식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확립하기 위해 잠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 의식이 집행된 방법, 혹은 방식은 한 가지밖에

없었다는 것이 매우 분명한데, 그 방식은 사도들에게 밝혀졌으며 그들은 모든 의식을 집행할 때마다 엄격하게 그 방식을 지켰습니다. 이 주제에 관해 올바른 개념을 파악하려면 침례가 집행된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애논에서 침례를 주었는데, 그 까닭은 거기 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요한복음 3:23 참조] 그런데 그 방식이 물을 뿌리는 것이었다면 물이 많은 애논까지 가야만 했다고 생각하기는 힘듭니다. 정말 아주 적은 물만 필요했다면 애논까지 여행하지 않고도 유대 땅 어디에서든 뿌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요한이 요단 강에서 침례를 주었으며, 우리 구주에게 그 의식을 베푼 후, 물에서 올라왔다고 배웠습니다. 이는 그가 올바른 방법으로 의식을 베푼기 위해 물속으로 들어갔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마태복음 3:16 참조] 또한 에디오피아 내시도 빌립과 함께 물에 내려갔다가 물에서 올라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사도행전 8:26~38 참조] 이제 머리 위에 물을 몇 방울 뿌리는 것으로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한사코 주장하는 사람들과, 이 의식을 받으려고 물속에 들어간 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보낸 글에서 침수를 뒷받침해 주는 간증을 단순하게 전했습니다. …… 이 사도는 성도들이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말했습니다.[로마서 6:4; 골로새서 2:12 참조]

물속에 완전히 잠기거나 물로 뒤덮이지 않고서는 침례를 받음으로써 물속에 장사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한 이치입니다. 어떤 물체가 한 부분이라도 덮이지 않고 남아 있다면 그것은 묻혔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온몸이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장사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침례 방식에 관한 이 사도의 설명은 “사람이 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구주께서 하신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어떤 사물로 난다는 말은 그 사물 안에 들어 있다가 모습을 나타내거나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뜻합니다. 물로 난다는 말도 물이라는 모태 안에 들어 있다가 다시 나오는 모습을 나타내야 합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편견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순수하고 충만한 복음이 전파된 기독교 초창기에는 침수가 바로 침례 의식을 집행하는 방식이었다는 사실을 이미 충분히 납득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점에 관해 제가 살펴본 바는 이것으로 마칠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6장에서 안수례가 복음 원리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오늘날 기독교 교회에서 이 의식을 죄 사함을 위해 침수로 받는 침례와 더불어 상당히 도외시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제에 관해 몇 가지 언급해 드리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병자에게 안수하여 병을 고쳐 주신 몇 가지 예를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마지막 장을 보면 그분께서는 사도들을 보내시며,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이 의식을 집행하자 사울은 즉시 시력을 찾았습니다.[사도행전 9:17~18 참조] 바울은 배가 난파되어 멜리테 섬에 상륙했을 때, 섬의 통치자인 보블리오의 부친에게 안수하여 열병을 고쳤습니다.[사도행전 28:8 참조] 이런 몇 가지 사례들은 안수례가 하늘의 축복을 받게 해 주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방법]임을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병 고침이 이 의식과 연관되어 있기는 하나 이 주제를 깊이 연구해 보면 더 큰 축복이 이 의식과 결부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에게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은 일로 서로 크게 기뻐했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들은 아마 신앙과 회개, 침례를 통해 죄 사함을 얻고, 죄를 사함 받음으로써 선한 양심을 얻게 되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하나님의 성령을 얼마간이나마 받게 되어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 받은 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신 구주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구주께서는 사람이 두 번 더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물로, 그 다음에는 영으로 말입니다.[요한복음 3:3~5 참조]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그 사람들은 물로 태어났으므로 첫 번째 탄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보고, 신앙의 눈으로



우리는 안수로 성신의 은사를 받는다.

하나님 왕국의 여러 축복과 특혜, 영광을 주시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즉 영으로 태어나지는 못했으므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즉, 복음이 주는 특혜를 충만하게 얻지는 못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빌립이 이룬 결실에 대해 듣자 안수례를 집행하도록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사도는 사마리아에 도착하여 침례를 받은 이들에게 손을 얹고 성신을 받게 했습니다.[사도행전 8:5~8, 12, 14~17 참조]⁵ [57쪽 제언 3 참조]

**침례와 확인에 따른 축복은 합당한 권세를 지닌
사람이 그 의식을 집행할 때만 주어진다.**

[의식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집행하지 않으면 동일한 축복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사도와 칠십인은 주님으로부터 복음 의식을 집행

하도록 성임을 받았으며, 이로써 영원한 세상에 있는 은사와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에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한복음 20:23 참조] 이 말씀은 겸손한 마음으로 와서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사도로부터 침례를 받는 사람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피를 통해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안수를 통해 성신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들로부터 이런 체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죄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 복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는 권능과 권세는 사도들이 부여했으며, 이로써 사도가 아닌 사람들도 이런 책임 있는 직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 이제 이런 직분을 지니고 침례와 안수를 할 권세가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런 의식을 받아야 할 의무도 없고, 또 합법적으로 의식이 집행되지 않는다면 축복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 복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는 권세는 수백 년 동안 상실되어 있었습니다. …… 사도들이 세운 교회는 점차 사라졌고, 광야로 들어갔으며, 권세와 신권을 잃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체계를 바꾸었습니다. 은사와 기쁨도 잃어버렸습니다. 율법을 어기고 복음 의식을 변경하여 침수를 물 뿌리기로 바꾸었으며, 안수례를 상당히 도외시켰습니다. 예언을 경시하고 표적을 믿지 않았습니다. ……

요한은 계시록에서 교회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면서 …… 복음 회복에 관해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므로 이 계시는 구주의 재림에 앞서 어느 때인가 성취되어야 했던 예언임이 분명합니다.

……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를 통해 받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확신으로, 이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간증드립니다. 또한 이 마지막 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천사가 인간을 방문했으며 오랫동안 잃어버린 것들, 즉 왕국의 열쇠인 신권과 영원한 복음의 충만함을 회복시켰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⁶ [57쪽 제언 4 참조]

우리가 침례 성약을 지키고 성신의 인도를 구하면, 틀림없이 약속된 축복이 따른다.

이것이 사도 시대에 있었던 복음 체계였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회개,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서의 침례, 성신을 받기 위한 안수례입니다. 이 체계를 이해하고 준수했을 때 권능과 은사, 축복과 영화로운 특권이 즉시 뒤따랐습니다. 시대와 때를 막론하고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른 순서로 이런 절차를 제대로 지키고 준행한다면, 분명히 똑같은 축복이 따릅니다. 그러나 전체 또는 일부를 소홀히 한다면 이런 축복은 전혀 따르지 않거나 엄청나게 감소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을 보내시며 이 체계에 순종한 사람이 받게 될 초자연적인 은사 몇 가지를 언급하셨습니다.[마가복음 16:15~18 참조] 바울은 충만한 복음에 따르는 여러 은사를 더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아홉 가지 은사를 언급하며 그 은사는 성령의 영향력 또는 성령의 열매라고 알려 주었습니다.[고린도전서 12:8~10 참조] 이제 주께서 부르시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성신을 약속받게 되었습니다.[사도행전 2:37~39 참조] 이 은사는 본질과 기능 면에서 변경될 수 없으며, 이 방식 또는 체계에 따른 약속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로써 경전에 바탕을 둔, 합리적이고 지속적인 은사와 축복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은 후에야 약속에 따라 현세적 구원을 요구하고 획득할 수 있었으며[모세서 7:42~43 참조],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지시받은 수만큼 돈 후에야 무너진 성벽을 넘어 그 성 주민을 사로잡을 수 있었습니다.[여호수아 6:12~20 참조] 이스라엘 민족은 명 받은 대로 제물을 바친 후에야 약속된 죄 사함을 받았고[레위기 4:22~35 참조],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에 따라 요단 강물에 일곱 번 씻은 후에야 병 고침을 얻었으며[열왕기하 5:1~14 참조], 마지막으로 맹인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은 후에야 약속된 보상을 받았습니다.[요한복음 9:1~7 참조] 그렇기에, 편견이나 종교적 관념, 그릇된 전통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른 모든 체계에 순종할 때, 사도 시대에 있었던, 복음에 관한 모든 축복과 성신의 은사를 요구하고 얻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하늘나라 아래에는 전혀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타당하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신앙을 얻으려면 성신을 받아야 하며, 성신을 받기 위해서는 주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이는 죄를 버림을 뜻하며, 그런 다음 죄 사함을 받기 위해 물 속에 잠긴 후 안수례를 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⁷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와 지시를 받으며 성령이 제시하는 것들, 곧 생명과 지식을 주고, 하나님의 일들을 알게 해 주며,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는 성신의 속삭임을 따르겠다고 성약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면 그 어느 것도 아니다.”라는 삶의 모토를 받아들여, 인간 가족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기로 성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이 성약을 얼마나 잘 지켰으며…… 또 성령의 명령을 얼마나 잘 따랐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이 일에 대해 우리가 행한 만큼 우리는 천능자의 축복을 받고, 우리 마음이 밝아지며, 이해력이 커지고, 거룩함에 이르는 길, 완전함에 이르는 길로 나아왔습니다.…… 우리가 충실하지 못했다면 그만큼…… 영생을 얻는 일과, 주위의 악과 유혹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성스러운 예지를 얻는 일과 관련된 과업에서 패배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성스러운 영이 주는 제언을 따랐기에, 그만큼 우리는 영혼에 화평과 기쁨을 느꼈으며, 원수를 좌절시키고, 쯔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는 보물을 우리를 위해 쌓으며, 해의 왕국에 이르는 길로 나아왔습니다.⁸ [57쪽 제언 5 참조]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제언

본 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다음 제언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v~vii쪽을 참조한다.

1. 47~48쪽 이야기를 읽는 동안 자신이 침례와 확인을 받았을 때나 다른 사람이 이 의식들을 받던 때를 돌이켜본다. 이 의식을 받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성약을 맺었는가? 이 성약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2. 의식이 수반되지 않는 신앙과 회개는 왜 충분하지 않은가? 신앙과 회개가 선행되지 않는 의식은 왜 충분하지 않은가? 이 질문을 숙고하거나 토론할 때, 내적인 행위와 외적인 의식에 관한 스노우 회장의 가르침을 복습한다.(49~50쪽)
3. 스노우 회장이 언급한 성구들을 살펴보고, 50~53쪽에 나오는 가르침을 공부한다. 그 성구들은 침수의 필요성에 관해 어떤 점을 더 알려주는가? 왜 성신의 은사를 받기 위한 안수례가 병 고침을 얻기 위한 안수례보다 “더 큰 축복”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4. 54쪽 첫머리를 읽는다. 신권이 회복됨으로써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은사와 기쁨”이 더해졌는가?
5. 본 장에 나오는 마지막 두 문단을 공부한다. “성령이 제시하는 것들로 인도와 지시를 받는다는 말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6. 교리와 성약 68편 25~28절은 본 장에 있는 가르침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부모는 자녀가 신앙, 회개, 침례, 성신의 은사를 이해하도록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관련 성구: 니파이후서31:12, 17~20; 모사이야서 18:8~10; 엘마서 5:14; 교리와 성약 20:37; 36:2; 39:6; 130:20~21

교사를 위한 도움말: “너무 많은 자료를 다루려는 유혹을 …… [피하십시오.] 우리는 공과 내용이 아니라 사람을 가르칩니다. …… 제가 여태껏 보아 온 모든 공과 개요에는 우리에게 할당된 시간 안에 다룰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제프리 알 홀런드, “교회에서의 가르침과 배움”, *리아호나*, 2007년 6월호, 59쪽)

주

1. "How He Became a 'Mormon'", *Juvenile Instructor*, Jan. 15, 1887, 22.
2. "Organization of the Church in Italy", *Millennial Star*, Dec. 15, 1850, 373.
3. *The Only Way to Be Saved* (pamphlet, 1841), 2-3; 원본에 있는 기욤임체를 제거하고 구두법을 표준화시켰음. 로렌조 스노우는 사도로 부름 받기 8년 전에 이 소책자를 썼다. 이 소책자는 후에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덴마크어, 독일어, 스웨덴어, 벵골어, 터키 아르메니아어, 터키 그리스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다. 이 소책자는 그가 사도로서 성역을 베풀던 1,800년대 나머지 기간 내내 수시로 재발행되었다.
4. *The Only Way to Be Saved*, 3-4, 6; 원본에 있는 기욤임체를 제거함.
5. *The Only Way to Be Saved*, 6-9.
6. *The Only Way to Be Saved*, 10-12; 원본에 있는 기욤임체를 제거함.
7. *The Only Way to Be Saved*, 9-10.
8. Conference Report, Apr. 1880, 79-80.



평생 과업인 개종: 진리의 원리 안에서 끊임없이 나아갑시다

“우리의 종교는 우리 자신과 융화되어, 분리할 수 없는 우리 존재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로렌조 스노우의 생애에서

로렌조 스노우는 1836년 6월에 침례와 확인을 받았다. 그는 간증이 자라나던 시기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저는 [후기 성도들이] 참된 종교를 따른다고 믿었기에 이 교회에 가입했습니다. 그때까지 제 개종은 단순히 이성적인 면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¹ 그는 이렇게 회상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한 일이 지혜로웠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척 흡족했습니다.”² 이런 생각에 한동안은 불만스러울 게 없었으나 곧 로렌조 스노우는 성신이 특별하게 나타나시기를 갈망하게 되었다. “성신이 제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 되기를 고대했습니다.”³

“성신은 기대처럼 침례를 받은 즉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지체되었지만, 그것을 받았을 때는 간절한 소망에서 비롯된 기대 이상으로 확실하고 실체적이며 기적적인 방법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침례를 받고 약 두세 주가 지난 어느 날, 저는 공부를 하면서 이 사업의 진실성에 대한 지식을 얻지 못했다는 사실에 생각이 미치게 되었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을] ...알리라’[요한복음 7:17]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깨달아 마음이 몹시 불편했습니다.

책을 덮고 집을 나와 우울하고 참담한 심정에 답답하여 들판을 배회하는데, 형용할 수 없는 어두운 구름이 저를 뒤덮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하루를 마칠 때면 가까운 숲으로 들어가 은밀히 기도를 드렸는데, 이번만은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영은 떠났고, 하늘은 제 머리 위에서 닫힌 듯이 보였습니다. 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연구하여, 우리 안에 있는 생수가 끊임없는 영생의 원천이 될 때까지 우리의 기초를 반석 위에 세워야 합니다.”

욱고 은밀히 기도할 시간이 되었음을 느꼈을 때 저는 저녁 예배를 포기하지는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가던 그 한적한 곳에서 늘하던 대로 무릎을 꿇어 형식을 갖추었는데, 평소와는 색다른 느낌이 왔습니다.

기도하려고 입술을 움직이자 곧 제 머리 바로 위로 비단옷이 부스러거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 이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저를 뒤덮으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아, 그 기쁨과 행복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 정신과 영에 질게 드리운 검은 구름이 찬란한 빛과 지식으로 바뀌며 제 이해력이 밝혀지던 그 순간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로써 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거룩한 신권과 충만한 복음이 회복되었다는 완전한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성신이라는 하늘의 원리, 요소 안으로 온 몸이 잠기는 완전한 침례였으며, 제 온 몸에 미치는 효과 면에서 물속에 잠기는 것보다 더욱 실제적이고 실감이 났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전해 내려온 바와 같이 ‘베들레헴의 아기’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이제 그분께서 사도 시대와 같이 사람의 자녀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며 지식을 전하신다는 사실에 관한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제 이성과 기억이 남아 있는 한 영원히 떨쳐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일이 더할 나위 없을 정도로 훌륭하게 실현되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더없이 행복한 기쁨과 하늘에서 내리는 깨달음이 충만하게 흘러 넘치는 그런 상태에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를 채우고 둘러쌌던 하늘의 요소가 점차 사라졌다는 것을 몇 분이 지난 뒤에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무릎을 펴고 일어나자 제 가슴은 하나님에 대한 형언할 수 없는 감사로 부풀었습니다. 오로지 전능하신 존재만이 부여할 수 있는 것을,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보화와 영예보다도 더욱 가치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저는 알았다고 느꼈습니다.”⁴

로렌조 스노우는 그날 받은 증거에 충실했으며, 영적인 지식을 쌓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도록 돕고자 부지런히 노력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때부터 저는 주님의 거룩한 영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생활하려고 애썼으며, 이기심과 그릇된 야망을 버리는 데 힘쓰고, 그분의 뜻에 부합하는 일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⁵ “제 기억력이



로렌조 스노우는 침례와 확인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고요하게 성신이 임하는 경험을 했다.

지속되고 이성을 잃지 않는 한, 저는 제게 전해진 강력한 간증과 지식을 절대 묵혀 두지 않을 것입니다.”⁶ [68쪽 제언 1 참조]

로렌조 스노우의 가르침

간증을 얻는 일은 후기 성도들에게 좋은 출발점이 된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며,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그분의 선지자라는 가장 완전한 지식을 얻었습니다. 인간은 그런 지식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계시를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후기 성도들에게는 그런 지식을 얻는 것이 매우 훌륭한 출발점

이 되며, 이 길에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필요하게 될 지식입니다. 각 사람은 힘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 힘은 자신이 가는 길이 가장 높고 훌륭한 소망을 얻도록 인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아는 데서 나옵니다.⁷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이 서 있는 기초에 관해 직접 알아야 할 때가 옵니다. 우리 모두는 조금이라도 주께 가까이 다가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더욱 완전히 이해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지식을 충만하게 얻어야 합니다. 그것은 모든 후기 성도가 누리는 특권입니다.⁸ [68쪽 제언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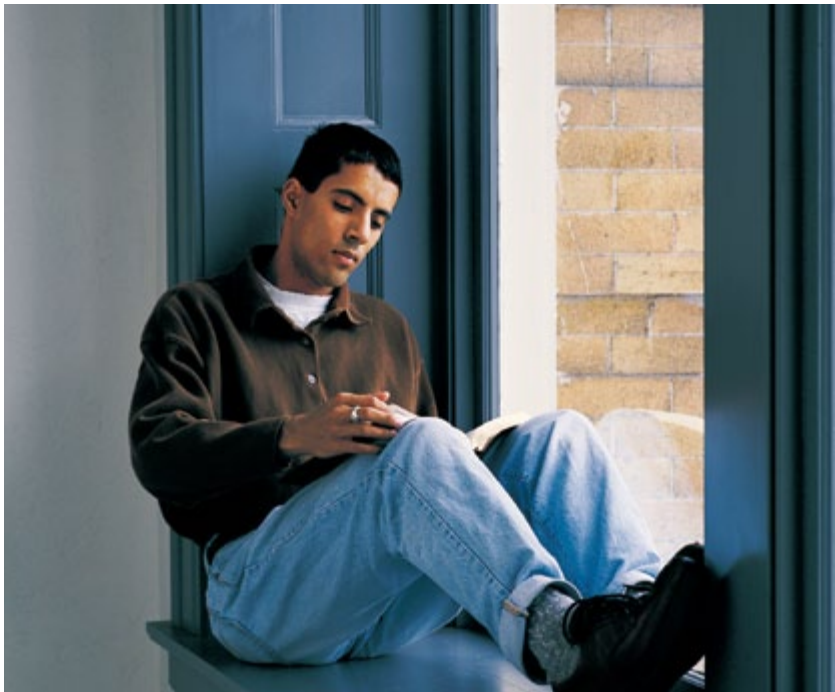
우리는 신앙과 영적인 지식을 키울 수 있다.

사람은 영적인 지식을 키울 수 있으며, 살아온 햇수가 늘어남에 따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⁹

저는 후기 성도들이 전진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교육을 받고, 위를 향해 나아갑니다. 더 나은 상태와 영역, 더 나은 국면으로 나아가며, 세상에 떠도는 모든 지식과 그릇된 가르침과 원리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만큼 후기 성도들은 높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인간이 만든 이론이나 가설에 굴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마음을 고양시키며 이해력을 키우고, 생명과 영광에 이르는 참된 원리 안에 더욱 온전히 자리 잡게 하는 진리 안에서 솟아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슴은 이러한 진리들로 차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증가한 날이나 시각을 알려 주지는 못하나 지나간 주나 달, 또는 해를 돌이켜보면 신앙 면에서 발전했으며, 신앙과 하나님의 권능에 관한 지식 또한 증가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갔음을 알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¹⁰ [69쪽 제언 3 참조]

신앙과 영적인 지식을 키우려면 열의를 다해 노력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지식에 의지해야 하며, 이웃에게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야 하며, 스스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곤경을 이겨 내고 인생 노정에서 진보



“사람은 영적인 지식을 키울 수 있으며, 살아온 햇수가 늘어남에 따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를 가로막는 장애를 극복하려면 자신에게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 다가가 자신이 부지런히 노력한 만큼 신앙을 키울 수 있습니다.¹¹

우리가 판단력을 발휘하지 않고 올바른 방법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진리의 원리 안에서 발전하고 하늘에 관한 지식을 쌓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교리와 성약에는 이 원리를 접한 올리버 카우드리가 어떻게 잘못 이해했는지 나옵니다. 주님은 그에게 고대 기록을 번역할 수 있는 은사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중 많은 사람처럼 올리버 카우드리는 그 은사를 행하는 문제를 그릇되게 인식했습니다. 그는 그 은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사인 만큼, 자신이 해야 할 일은 그저 그 은사가 저절로 작용할 때까지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게을리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기록들이 올리버 앞에 놓였을 때 그에게는 아무런 지식도

전해지지 않았으며, 기록은 여전히 인봉된 채로 있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그에게는 번역할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올리버 카우드리는 자신 안에 있는 은사를 발전시킬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노력을 해야 했는데, 이를 하지 않은 탓으로 번역할 수 있는 은사가 주어졌음에도 그 일을 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로써 그는 크게 실망하게 되었는데, 선하고 자비로우신 주님은 다음과 같은 말로 그의 잘못을 알려 주셨습니다.

“보라, 너는 이해하지 못하였나니, 너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다만 내게 간구하기만 하면, 내가 네게 그것을 줄 줄로 여겼도다. 그러나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네 생각으로 그것을 연구해야만 하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것이 옳은지를 내게 물어야 하나니, 만일 그것이 옳으면, 내가 네 가슴을 네 속에서 뜨겁게 할 것이라.”[교리와 성약 9편]

우리가 맡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 앞에 놓인 일을 향상하고 진척시키며, 최종적으로 그런 은사와 영광을 획득하여 고대하는 승영 상태로 올라가려면, 우리는 생각하고 신중히 고려할 줄 알아야 하며 능력이 닿는 데까지 직접 노력해야 합니다.¹²

우리는 반드시 …… 직접 영을 얻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빛 속을 걷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이 우리의 영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

플루트를 배우는 사람은 음을 내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다는 것을 알며, 곡을 제대로 연주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하다가 멈추고, 다시 돌아와 새로 시작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 그 곡을 숙달하게 됩니다. 또 후에 그 곡을 연주하도록 부탁받으면 손가락을 어디에 대야 하는지를 기억할 필요도 없이 자연스럽게 곡을 연주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연스럽지 않더라도 많은 인내와 노력을 기울이면 자연스럽게 곡을 연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한 문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노력하고 조금씩 발전해 나가야 하며, 그러한 행동 법칙이 우리 몸에 배어 우리에게 요구되는 일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¹³ [69쪽 제언 4 참조]

하나님의 일을 연구하고 한결같이 충실하면, 종교는 우리 존재의 일부가 된다.

겉만 발전하는 피상적인 진보에 만족하면 위험합니다. 우리는 영이 비취 주는 빛 속을 걷고 그 빛을 느끼는 문제에 관해 이야기합니다만, 과연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연구하여 우리 안에 있는 생수가 끊임없는 영생의 원천이 될 때까지 우리의 기초를 반석 위에 세워야 합니다.¹⁴

우리 가운데에는 한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여 머물렀으며, 천사와 같이 훌륭하고 순수한 의도를 지니고,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분을 섬기고 계명을 지키겠다는 성약을 하나님과 맺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 그러나 그 장로들 중 몇몇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오늘날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얻게 해 주신 세상적인 것들에 애착을 두고, 자신을 부름 때까지 기다리기만 합니다. 또 부름이 주어지더라도, 부름 받은 일에 대해 가슴에서 우리나라 오는 진정한 사랑에서 순종하기보다는 자기가 지닌 신분이나 위치를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순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작은 얼마나 잘 했든 간에, 이것이 바로 세상과 세상이 따르는 길에 생각과 애착을 두는 모든 사람이 처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사람은 주님과 지상에 있는 주님의 일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영원한 복음의 빛을 받았고, 왕국에서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었으며, 이스라엘의 자손이자 위대하고 영화로운 약속의 상속자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 계획하신 일들에 충실하고 근면하게 매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할 뿐 아니라 신앙과 힘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자신이 조금이라도 부주의하거나 무관심하다고 생각되면, 그것만으로도 잘못된 방법을 시정하고 의무를 다하는 사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¹⁵

자신의 종교를 망토나 의복처럼 내팽개치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자기를 내팽개치지 않고서는 자신의 종교를 내팽개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종교는 우리 자신과 융화되어, 분리할 수 없는 우리 존재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종교를 내팽개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렇게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아는 것이 전혀 없는 땅에 발을 들여놓음으로써 자신을 어

뚝의 세력에 내어 주는 것이며, 그 땅에서는 아무런 권리가 없으므로 할 일도 없게 됩니다. 맹세와 거짓말을 일삼고 주벽에 빠진 이스라엘 장로의 생각은 자기 수준보다 매우 낮은 곳에 머물러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넘어서야 합니다. 모든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갑시다.[교리와 성약 98:11 참조] 활기 있고 야심 차게 우리에게 부여된 모든 의무를 굳게 받아들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 진리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함께하도록 합시다.¹⁶

시온의 배 위에 머무르십시오. 보트들이 곁에 와서 화려한 색상을 뽐내며 솔깃한 약속을 하더라도 배에서 내려 해안으로 가려고 그 어떤 보트에도 올라타서는 안 됩니다. 그냥 배에 남아 계십시오. 배에 있는 이들 중 올바른 영을 지니지 않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나쁜 목적으로 이용하더라도 배 자체는 믿을 수 있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무슨 짓을 하더라도 분개하지 마십시오. 배는 안전하고 선원들도 훌륭하니, 배에 머문다면 아무 탈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배가 여러분을 영광의 땅으로 데려다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¹⁷

저는 이 영을 불러와 우리 안에 머물게 하며 폭풍우가 몰아칠 때라도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깊이 간직하는 방법에 관해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오이를 식초 통에 넣으면 처음 한 시간 동안에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12시간이 지나도 그렇습니다. 잘 살펴보면 겨우 껍질에만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절여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침례를 받아 이 교회로 들어온 사람도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곧장 절여질 만큼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처음 12시간 또는 24시간 동안에는 자기 안에 의와 의무에 관한 율법을 확립하지 못합니다. 식초 속 오이처럼 의로운 영에 흠뻑 젖어 들고, ‘물몬이즘’과 하나님의 율법으로 절여져 교화될 때까지 그 사람은 교회에 남아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 내부에서 융화되게 해야 합니다.

……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의 영을 그분의 백성에게 부어 주시도록 기도하며, 여러분이 이 주제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 고려하고 숙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 면전에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도록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그분의 영으로 채워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에 관한 것들을 분별하도록 눈이 맑아지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깨어 있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면 영과 성신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는 때가 속히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영이 과거와 현재의 일과 또 다가올 일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주님의 도움을 받아 그들 안에 의로움과 진리의 원리를 확립하여 다가오는 어려움을 대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¹⁸ [69쪽 제언 5 참조]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제언

본 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다음 제언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v~vii쪽을 참조한다.

1. 59쪽 및 61~62쪽에 기록된 로렌조 스노우의 경험담을 복습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실제적인 간증을 얻게 되었는가? 가족 구성원 또는 여러분이 가정 복음이나 방문 교육을 하는 사람 등에게 여러분이 겪은 경험을 나눌지 고려해 본다.
2. 스노우 회장은 간증을 얻는 일이 “후기 성도들에게 좋은 출발점이 된다.”(63쪽)라고 말했다. 간증은 왜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출발점에 지나지 않는가?
3. 63쪽 밑에서 시작되는 부분에서 스노우 회장은 세상에서 행해지는 교육을 주께서 주시는 ‘더 높은’ 교육과 대조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더 높은 교육’을 추구할 수 있는가?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졌는가?
4. 64쪽에서 시작되는 부분을 읽는다.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이] 지닌 지식에 의지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가? 부모와 교사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의 지식에 의지하도록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5. 본 장 마지막 부분(66~68쪽)에 나오는 스노우 회장의 권고를 복습한다 “하나님의 일을 연구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가? 우리 종교가 “우리 자신과 융화되어[야]” 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가?

관련 성구: 니파이후서 31:20; 모사이야서 5:1~4, 15; 엘마서 12:9~10; 제3 니파이 9:20; 모로나이서 10:5; 교리와 성약 50:24

교사를 위한 도움말: “교회에서 행해지는 꽤 많은 가르침이 너무나 딱딱합니다. 그것은 강의입니다. 우리는 교실에서 하는 강의에 그다지 잘 반응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찬식이나 대회에서는 반응을 보입니다. 가르침은 주고받는 것이므로 여러분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과 시간에 쉽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보이드 케이 팩커, “가르침과 배움의 원리들”, 리아호나, 2007년 6월호, 55쪽)

주

1. FrankG. Carpenter, “A Chat with President Snow”, quoted in *Deseret Semi-Weekly News*, Jan. 5, 1900, 12.
2. “The Grand Destiny of Man”, *Deseret Evening News*, July 20, 1901, 22.
3. “A Chat with President Snow”, 12.
4. *Juvenile Instructor*, Jan. 15, 1887, 22–23.
5. “The Object of This Probation”, *Deseret Semi-Weekly News*, May 4, 1894, 7.
6. *Millennial Star*, Apr. 18, 1887, 242.
7. “Glory Awaiting the Saints”, *Deseret Semi-Weekly News*, Oct. 30, 1894, 1.
8. *Millennial Star*, Apr. 18, 1887, 244.
9. *Deseret News: Semi-Weekly*, Mar. 31, 1868, 2.
10. *Salt Lake Daily Herald*, Oct. 11, 1887, 2.
11. *Deseret News*, Apr. 11, 1888, 200; 로렌조 스노우가 1888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전한 말씀을 상세하게 풀어서 쓴 기사에서 발췌함.
12. *Deseret News*, June 13, 1877, 290.
13. *Deseret News*, Jan. 28, 1857, 371.
14. *Deseret News*, Jan. 28, 1857, 371.
15. *Deseret News: Semi-Weekly*, Aug. 15, 1882, 1.
16. *Deseret News: Semi-Weekly*, Mar. 31, 1868, 2.
17. *Deseret Semi-Weekly News*, Mar. 30, 1897, 1.
18. *Deseret News*, Jan. 28, 1857, 371.



[개종한 지 얼마 안 되어] 하와이 제도에서 선교 사업을 하던 시절



성신의 권능으로 강화되어

“주님의 영이 늘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겸손하게 살겠다고 굳게 다짐하십시오.”

로렌조 스노우의 생애에서

로렌조 스노우는 교회 회장이 되어 첫 번째로 맞은 연차 대회에서 이렇게 가르쳤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특정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가 달성해야 하는 일에 필요한 것들을 그때 그때 알려 주는 주님의 영에 의지합니다.”¹ 34년 전에 스노우 회장의 두 친구가 특별한 상황에서 주님의 영에 의지하지 않았더라면 그분은 살아서 이 말씀을 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1864년, 로렌조 스노우 장로와 십이사도 정원회의 에즈라 티 벤슨 장로는 하와이 제도로 선교 사업을 떠났다. 다른 세 선교사인 조셉 에프 스미스 장로, 윌리엄 클러프 장로, 엘마 엘 스미스 장로가 이들과 동행했다. 그들이 탄 배가 마우이 섬 앞바다에 정박하자 조셉 에프 스미스를 제외한 일행 모두는 물으로 가기 위해 작은 배로 옮겨 탔다. 섬 근처에 다다랐을 무렵, 높은 파도가 갑자기 들이닥쳐 키잡이는 배를 가누지 못했다. 배는 뒤집혔고 사람들은 모두 물에 빠졌다. 이윽고 모든 사람이 물 위로 떠올랐으나 스노우 장로는 보이지 않았다. 이들을 구조하러 달려온 섬사람들은 윌리엄 클러프와 엘마 엘 스미스를 구명정에 태운 후, 그들의 친구를 찾으러 나섰다. 클러프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뒤집힌 배 꼬트머리 부근에서 스노우 형제의 머리카락이 처음으로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를 배에 태우자마자 사공에게 최대한 빨리 해변으로 가자고 재촉했습니다. 몸은 뻗뻗했고, 숨도 끊어진 듯 보였습니다.



로렌조 스노우 장로는 하와이 제도에서 선교 사업을 할 때, 영감에 따라 보살펴 준 동반자들 덕에 목숨을 구했다.

에이 엘 스미스 형제와 저는 나란히 앉아 스노우 형제를 무릎 위에 눕혔습니다. 해변으로 가는 동안 저희는 조용히 병자 축복을 하며 주님께 그의 목숨을 구해 주셔서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해변에 닿자 저희는 모래밭에 있던 큰 통들 근처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얼굴을 아래로 향하게 해서 통 위에 스노우 형제를 올려놓고 삼킨 물을 토해낼 때까지 앞뒤로 통을 굴렸습니다. ……

그를 구하려고 한동안 애를 써 봤지만 숨이 돌아오는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은 이제 다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 믿으며 기도와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저희는 입을 그의 입에 대고, 가능한 한 실제로 숨쉬는 과정을 흉내 내어, 공기를 불어 넣고 다시 빼기를 번갈아 하며 폐를 부풀게 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일을 폐가 부풀 때까지 끈기 있게 반복하다 보니, 잠시 후 숨이 돌아오는 징후가 어렴풋이 느껴졌습니다. 그때까지 죽은 듯이 멍하니 떠 있던 눈이 살포시 실룩거리고, 목에서 매우 희미한 소리가 나는 것이 생기를 되찾는 첫 번째 조짐이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갈수록 뚜렷해지더니 마침내 의식이 회복되었습니다.”

월리엄 클리프 장로는 이 경험을 돌아보며 자신과 엘마 엘 스미스 장로가 왜 스노우 장로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저희는 그런 경우에 통상 해야 했을 일뿐만 아니라 영이 저희에게 속삭인 것으로 생각된 일을 했습니다.”² [80쪽 제언 1 참조]

로렌조 스노우의 가르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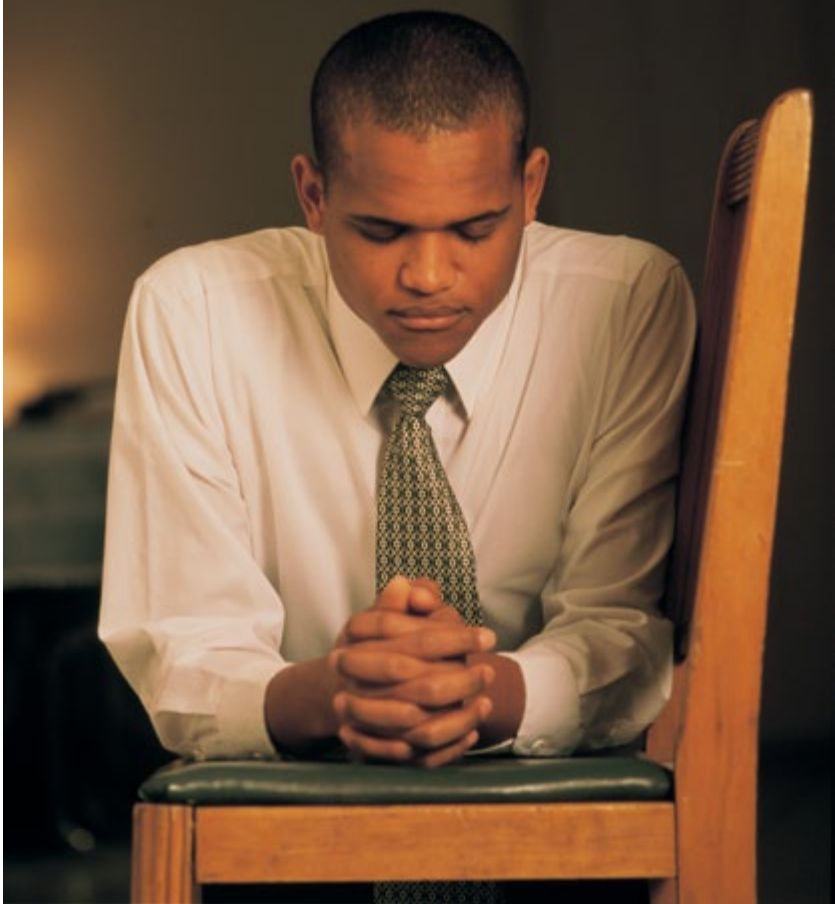
우리는 성신의 은사를 통해 모든 진리로 인도되며 신앙 안에서 굳건해진다.

오직 복음에 순종할 때만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신의 은사입니다. …… 이 은사에 따른 속성과 특징을 분명하게 잘 아시는 구주께서는 이 은사가 이를 받는 사람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며 장래의 일을 알려 준다고 가르치셨습니다.[요한복음16:13 참조] 성신의 은사는 하나님에게서 나와 광활한 우주를 채우며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는 영[교리와 성약 84:46 참조]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 은사는 모든 진리로 인도하며 다가올 일을 알려 줍니다.

이 외에도 사도 [바울]은 성신의 영향력에 관해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나니.]”[고린도전서 12:7, 9 참조] 오늘날 일부 사람들이 가진 척하는 평범하고 일반적인 신앙이 아니라, 톱으로 잘리고, 사자 굴이나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넣어지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더라도 부인하지 않는 신앙을 말합니다. 성신이 성신을 지닌 사람들에게 부여한 신앙이 바로 그런 종류의 신앙이었으며, 이런 신앙의 소유자는 자신이 옹호하는 대업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그것을 이겨 내고, 모든 반대를 견디며, 필요할 경우에는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신앙에는 엄청난 영감을 주는 권능이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성신을 통해 부여하시는 것으로서 다른 원리로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는 지식을[고린도전서 12:8 참조] 주시는데, 이 지식은 단지 책을 읽는 것으로는 얻지 못하고 전능자에게서만 받을 수 있는 지식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영감을 얻는 원리가 분명하게 주어져 자신이 옹호하는 대업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됩니다. 이 지식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자신이 따르는 대업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도 논란의 여지가 없는 방식으로 밝혀졌으며, 그들은 이를 스스로 터득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 계시의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³

베드로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신의 은사를]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면에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사도행전 2:38~39] 세상에는 술한 종파들이 난립해 있지만 이 성신의 은사는 그들에게서 살펴볼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다른 원리입니다. 성신의 은사는 예지의 원리이자 계시이며, 과거와 현재, 또 다가올 일을 알려 주는 원리입니다. 성신의 은사는 사도 시대에 전파되었듯이, 그리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장로들이 전파하듯이, 복음이 요구하는 바에 순종함으로써 얻게 됩니다. 이 은사는 그들 신앙의 바탕인 이 반석 위에 있으며, 이 기반 위에서 그들은 자신이 옹호하는 교리에 관한 지식을 얻습니다. 그리고 구주께서는 “지옥의 문이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제3니파이 11:39]고 말씀하셨습니다. ……



“사는 동안 영이 나타내 주시는 것들을 매일같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계시라는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예수께서 이 반석 위에 그분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마태복음 16:17~18 참조] 말씀하신 바로 그 반석 말입니다. 우리는 이 지식을 혈과 육을 통하거나 사람이 전한 간증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며, 성경이나 …… 물몬경을 읽어 얻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알려 주고, 과거와 현재, 또 앞으로 다가올 일을 가르쳐 주며, 하나님이 지니신 것들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 주는 성신의 작용을 통

해 그 지식을 얻었습니다. 이런 지식은 옥에 가두거나 어떤 박해를 가하더라도 앗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지식을 죽을 때까지 간직할 것입니다.⁴ [80쪽 제언 2 참조]

모든 후기 성도는 성신을 조연을 주는 친구로 삼을 수 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을 깨끗이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모든 남녀에게 계시를 주는 영인 하나님의 영을 자기 안에 지니는 것입니다. 그 영은 암시를 줌으로써 아주 사소한 문제까지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 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이 암시해 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 속성을 알고자 힘써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항상 옳은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모든 후기 성도가 지닌 당연한 특권입니다. 우리는 사는 동안 영이 나타내 주시는 것들을 매일같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압니다.

사람들은 어떤 주제나 문제에 관해 권고를 받으려고 몹시 갈망하며 저에게 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매우 적절한 경우도 있지만)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영이 그들 안에 거하므로 늘 제게 올 필요는 없습니다. …… 권고를 받기 위해 교회 회장이나 십이사도, 또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로만 가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은 그들 내부에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 주어야 할지를 정확히 아는 친구가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여 침례의 물속으로 내려간 다음에 안수례로 성신의 은사를 받은 이후로 그릇된 일을 해서 쫓아내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그 친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친구는 성령, 즉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며 그 일을 우리에게 알려 주는 성신을 말합니다. 성신은 우리가 빛을 알고 끊임없이 어둠 속을 헤매지 않게 하려고 주께서 마련해 주신 엄청난 도구인 것입니다.⁵ [80쪽 제언 5 참조]

성신은 우리에게 행복과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준다.

주님은 우리 가슴 속에 어떤 자연적인 소망과 느낌을 갖게 하셨는데, 그것은 온 인류, 모든 인간 가족에게도 존재합니다. 사람들 내면에는 기쁨을 얻기 위한 어떤 소망과 역량, 평화와 복리를 증진시키는 것들에 대한 소망

이 심어져 그들 존재를 구성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느낌에 응하고 행복감을 고취시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세상이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런 역량과 소망에서 나오는 만족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충실하고 성령의 빛 안에서 걸으며 진리를 받아들이면, 주님은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길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⁶

후기 성도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고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복음 안에서 살 특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나중에 생각하면 부끄러워하게 될 일을 저지를 때도 있습니다만, 그 일을 마음으로 회개하고 더는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든 것이며, 그렇게 사는 사람은 질책을 받지 않고 성신 안에서 의로움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⁷

우리 내부에 영이 발하는 빛을 간직한다면, 우리는 복음 안에서 걸으며 이 세상에서 눈에 필 정도로 화평과 행복을 구가하게 됩니다. 화평과 행복을 찾아 힘쓰며 우리 앞에 놓인 아득히 먼 길을 따라가는 동안,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만이 맞볼 수 있는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⁸ [80쪽 제언 3 참조]

**시련을 견디고, 맡은 의무를 수행하며, 해의 영광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성신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 쪽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많습니다. 또한 거의 실현할 수 없어 보이는 일일지라도, 주님의 영이 도우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⁹

저는 형제 자매들에게 ……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하나님의 영에 의지하고 있음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올바르게 양육되면, 그 영은 우리에게 영감과 계시를 주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관한 우리의 이해력을 높여 주며, 우리에게 부과된 의무와 책임을 가르쳐 주고, 우리가 해야 할 바를 분명하게 밝혀 줍니다. …… 우리에게 성도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곤경과 어둠 속에 처하게 될 행위를 저지르는 것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만, 주께서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보혜사의 도움을 받아, 그 속삭임을 주의 깊게 듣고 그 언어의 속성을 이해한다면, 슬한 곤경과 심각한 어려움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¹⁰

우리는 전적으로 영감을 주는 영에 의지합니다. 아담이 에덴동산에 거한 이래, 이 시대보다 하나님의 영을 더 필요로 했던 때를 저는 알지 못합니다. 시대의 표적과 더불어 성도들의 마음과 고결성이 시험받을 때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과 하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곧 닥칠 사건들에 대처하려면 그 영과 도움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그런 도움이 필요했음을 압니다. 만일 여러 상황을 헤쳐 나오는 동안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의 영을 얻지 못했다면, 지금처럼 승영과 영광에 대한 즐거운 기대를 품지 못했을 테고, 우리 처지도 훨씬 여의치 못했을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했듯이, 앞으로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절실히 깨닫습니다.¹¹

대개 아시리라고 짐작은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니게 된 예지만으로는 이 세상에 와서 수행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큼, 또는 우리가 만족할 만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특정한 환경에서 일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수시로 파악하고 도움을 얻기 위해 주님의 영에 의지합니다.¹²

초자연적인[하늘로부터 오는] 권능으로 지지받지 않는다면, 해의 왕국의 율법, 하나님에게서 나온 율법을 준수하며 그분 백성을 그분 면전으로 들어 올리려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계획을 따르기를 이 시대 후기 성도들에게 기대하기란 그야말로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복음에는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신성한 인격체인 성신의 은사가 약속되어 있는데, 이는 다른 어떤 부류의 사람도 누릴 수 없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은사가 모든 진리로 인도하며, 이를 지닌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예수님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 아버지께 관한 지식을 전해 주며, 해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알려 준다고 구주에게서 들었습니다. 성신의 은사를 지닌 사람은 앞으로 다가올 일과 지나간 일에 대한 지식을 영감으로 얻습니다. 또한 방언과 예언의 은사, 안수로 병자를 고치는 은사와 같은 초자연적인 은사를 누리게 됩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초자연적 권능[들]과 은사와 더불어, 자신이 받아들인 종교에 담긴 진리를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알게 된다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종교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유래되었고, 복음도 아버지로부터 비롯되었

으며, 그분의 좋은 의식들을 집행할 권한과 권세를 지녔다는 지식을 그분에게서 얻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 어떤 교훈의 풍조에도 흔들리거나 가던 길에서 밀려나지 않으며, 계시된 영광을 받을 준비를 하여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들은 어떤 시련이나 환난이 닥치더라도 그것이 해의 영광을 더욱 온전히 준비하도록 주어진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여기며 참아 냅니다. 또 그런 지식을 얻으면 어둠 속이 아닌, 빛과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생활하며 세상적인 것들을 초월하고 주변에 있는 것들에 초연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늘나라 아래를 혼자서도 걸어갈 수 있으며, 하나님과 하늘이 보기에 자유인으로서 성신이 알려 준 노정이자 스스로를 지식과 권능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노정을 추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부여하기로 작정하신 영광을 받아, 그들을 들어 올리려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승영의 자리를 차지할 준비를 갖추니다.¹³

우리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지를 알 수 있게 생활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과 속삭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늘이 구름으로 가려지지 않은 날에 우리는 주위의 사물에 담긴 아름다움과 목적을 발견합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진리와 구원의 원리에 관한 빛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영에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인도에 자신을 맡기고 그에 따라 생활하지 않는다면, 후기 성도를 자처하는 사람일지라도 수준 높은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¹⁴ [80쪽 제언 4 참조]

겸손하게 생활하면 성신은 앞으로 전개될 여정에서 우리를 도와준다.

주님의 영이 늘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앞으로 처하게 될 독특한 상황에서 필요한 암시들을 수시로 얻을 수 있도록 겸손하게 살겠다고 굳게 다짐하십시오. ……

…… 저는 제가 얼마나 더 살지 전혀 알지 못하며, 그 점에 대해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소망하는 것은, 또 여러분도 소망해야 하는 것은 계시의 영을 누리기 위해 겸손하고 온유하며, 단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는 해야 할 올바른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도록 계시의 영을 넉넉하게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전반의 유익을 위해 내일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특권을 받았듯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영을 지닐 특권이 있습니다.¹⁵

우리는 가능한 한 우리를 슬프게 하거나 괴롭히는 모든 세상 일을 잊고, 주님의 성령을 충분하게 지니며 마음을 주께 향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전개될 여정에서 우리를 도와줄 지식과 암시들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¹⁶ [아래 제언 5 참조]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제언

본 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다음 제언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v~vii쪽을 참조한다.

1. 71~73쪽에 나오는 일화를 복습하며 누군가가 성신의 속삭임을 따름으로써 여러분이 축복을 받았던 때를 생각해 본다. 또한 여러분이 누군가를 돕기 위해 속삭임을 따랐던 때를 생각해 본다.
2. 73쪽 서두 부분을 읽는다. “계시의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가?(몇 가지 예를 보려면 73~75쪽을 참조한다.) 어떻게 개인적인 계시는 “어떤 어려움 속에 처하더라도 그것을 이겨 내고” 또 “모든 반대를 견디[도록]” 힘을 주는가?
3. 스노우 회장은 성신이 “이 세상에서 화평과 행복을 구가하게” 우리를 도와준다고 말했다.(77쪽) 여러분이 행복감과 평화를 느끼도록 성신이 도운 때는 언제인가? 성신이 우리를 돕는 다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몇 가지 예를 보려면 77~80쪽을 참조한다.)
4. 77쪽에서 시작되는 부분을 공부하며, 여러분은 성신에게서 오는 속삭임을 인식하는 것을 어떻게 배웠는지 생각해 본다. 어떻게 하면 가족이나 친구가 영의 속삭임을 인식하도록 도울 수 있는가?
5. 본 장은 친구로서의 성신에 관한 두 가지 참고 사항을 담고 있다. (76~79쪽) 성신을 친구로 삼기 위해서는 왜 겸손함과 단순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관련 성구: 누가복음 12:12; 요한복음 14:26~27; 로마서 14:17; 고린도전서 12:4~11; 갈라디아서 5:22~25; 니파이전서 10:17~19; 니파이후서 32:5

교사를 위한 도움말: “토론을 촉진하기 위해 각 장에 있는 질문들을 사용한다. …… 반원들을 위해 여러분 나름대로 질문을 만들어도 좋다.”(본서 vi 쪽에서)

주

1. Conference Report, Oct. 1898, 2.
2. ElizaR. Snow Smith, *Biography and Family Record of Lorenzo Snow* (1884), 276-279 참조.
3. *Deseret News*, Jan. 24, 1872, 597.
4. *Deseret News: Semi-Weekly*, Dec. 2, 1879, 1.
5. Conference Report, Apr. 1899, 52.
6. *Deseret News*, Oct. 21, 1857, 259.
7. *Deseret Weekly*, Nov. 4, 1893, 609.
8. *Deseret News*, Oct. 21, 1857, 259.
9. Conference Report, Apr. 1898, 12.
10. *Deseret News: Semi-Weekly*, July 16, 1878, 1.
11. *Deseret Semi-Weekly News*, June 4, 1889, 4.
12. Conference Report, Oct. 1898, 2.
13. *Deseret News*, Jan. 14, 1880, 786.
14. *Millennial Star*, Oct. 31, 1895, 690-691; 로렌조 스노우가 1895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전한 말씀을 상세하게 풀어서 쓴 기사에서 발췌함
15. “Anniversary Exercises”, *Deseret Evening News*, Apr. 7, 1899, 9.
16. *Millennial Star*, Nov. 25, 1889, 737; 로렌조 스노우가 1889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전한 말씀을 상세하게 풀어서 쓴 기사에서 발췌함.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딸들에게 부여하려고 계획하신 위대한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어서 크나큰 기쁨을 느낍니다.”



충실한 사람의 원대한 운명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딸들에게 부여하려고 계획하신
위대한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우리가 충실하면 이를 얻게 될 것입니다.”

로렌조 스노우의 생애에서

1840년 봄, 로렌조 스노우가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영국으로 선교 사업을 떠날 준비를 하던 때였다. 그는 친구인 헨리 지 셔우드를 찾아가 한 성구를 풀이해 달라고 부탁했다. 스노우 회장은 후에 이렇게 회상했다. “셔우드 형제가 하는 설명을 주의 깊게 듣는 동안 주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고, 이해의 눈이 열려 놀랍고도 경이롭게 하나님과 인간이 지향하는 길을 한낮의 태양처럼 분명하게 보았다. 나는 내가 본 그 계시를 표현하는 시를 지었다. ……

“하나님도 한때는 지금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으니

우리 인간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될 수 있으리”¹

로렌조 스노우는 조심스럽게 간직해야 할 “성스러운 전갈”을 받았다고 느끼고,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이 교리를 가르쳤다는 사실을 알기까지 공개적으로 이 교리를 가르치지 않았다.² 그러나 그는 이 교리가 공공연한 지식이 되었다는 것을 안 다음부터는 이 교리에 관해 수시로 간증했다.

이 진리를 여러 차례 설교 주제로 삼은 것 외에도 로렌조 스노우는 이 진리를 인생의 주제로 채택했다. 스노우 회장의 아들 리로이는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는 다른 모든 것보다도 계시 받은 이 진리에 더 많은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 진리는 아버지의 영혼 속에 너무나도 깊이 파고들었기 때문에 사시는 동안 늘 영감의 원천이 되었으며, 아버지는 자신의 위대한 미래와 교회에 부과된 엄청난 사명과 일을 원대한 시야로 바라보셨습니다.”³ 스노우 회장에게는 이 진리가 “변함없는 빛이자 안내자”였으며, “가슴과 영혼 속에서, 또 그가 하는 모든 일에서 언제나 그의 앞을 비추는 밝은 별”이었다.⁴

본 장에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교리를 가르친 스노우 회장의 말씀이 실려 있다. 제6장에는 스노우 회장이 이 교리를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말씀한 실질적인 권고가 나온다.

로렌조 스노우의 가르침

우리 내면에는 신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입고 태어났으니, 즉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적 유기체를 구성하는 성분에는 신성한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태어날 때, 마치 어머니 품 속에 있는 아기가 미성숙한 상태이기는 하나 부모에게 있는 능력과 힘과 감수성을 타고나듯이, 아버지께서는 자신에게 있는 능력과 힘과 역량을 우리에게 물려주셨습니다.⁵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딸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부를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는 무한한 지혜와 지식을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고 들었으며, 인간의 영혼에는 불멸이라는 속성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 장막[육체] 안에는 영적 유기체가 존재하며, 이것은 본질적으로 신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아기와 같은 상태일지는 모르나 마치 아기가 어머니로부터 자양분을 얻듯이 그것은 본래 향상하고 진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기는 아무 것도 알지 못할지라도, 어린 시절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여러 시련을 겪으며 젖먹이 때의 무지한 상태와는 완전히 다른 뛰어난 존재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⁶

우리 안에는 신성이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는 불멸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유기체는 죽지 않고, 파괴되지 않으며,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어집니다.⁷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딸들에게 부여하려고 계획하신 위대한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우리가 충실하면 이를 얻게 될 것입니다. …… 승영에 이르는 이 여정은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인도하며, 아버지 면전에 서서 그분께서 누리시는 충만함을 받고 끝이 없는 세상에서 후손을 증식시키는 기쁨을 누리도록 인도해 줄 것입니다. 또한



경전을 공부하면 우리가 지닌 신성한 속성을 알게 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맺은 유쾌한 교분을 계속 나누도록 해 줄 것이며, 우리의 아들딸들과 배우자가 하늘이 부여할 수 있는 모든 즐거움 속에 둘러싸이게 해 줄 것입니다. 우리 몸은 구주와 같이 영화롭게 되고, 우리는 모든 질병과 해악에서 벗어나며, 이 세상에서 겪는 실망과 괴로움, 또 유쾌하지 못한 희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끊임없이 진보하는 과정을 통해 승영과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분은 권능과 권세와 영광의 옷을 입고 계시므로 우리에게도 똑같은 길을 일러 주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일어나 내가 가진 것과 같은 영광과 행복을 얻도록 나아올지니라.”⁹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 보시기에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까지나 지속될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영향력과 힘과 애정 안에서 승리하며, 정복자 못지않은 일을 해낼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처럼 될 운명을 타고 났습니다. ……

…… 이것이 바로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그분께서 순결하시듯 자신을 순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받은 고귀한 운명입니다.

니다. 그들은 하나님처럼 될 것이며, 하나님을 참모습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영광 가운데 그분과 함께 세상을 통치할 것이며, 모든 면에서 그분처럼 될 것입니다.¹⁰ [91쪽 제언 1 참조]

경전은 우리의 신성한 잠재력을 일깨워 준다.

주님은 우리 앞에 고귀한 성격의 장려책을 마련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에서, 이 지식의 여로를 걷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이 어디까지 이를 수 있는지를 발견합니다. 저는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 아들이 주신 복음에 계속 순종함으로써 사람이 어디까지 이를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지식은 끊임없이 제 앞을 인도하는 별이 되었으며, 그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옳은 일을 하고자 각별한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 하늘나라에 관한 교육을 받았음에도, 후기 성도 중 어떤 이들은 단순히 이 사업이 참되다는 것을 아는 데에서 쉽게 만족하고 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성도들은 우리를 기다리는 위대한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해 주어도 놀라워하기만 할 뿐 자신과는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시자 요한은 첫 번째 서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요한1서 3:2]

…… 이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요한1서 3:2~3]

…… 하나님의 영은 이와 같은 표현에 확실하고 엄숙한 진리가 담겨 있다고 알려 줍니다.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에게 말씀하면서 후기 성도들에게는 그렇지 않지만,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생소한 열망을 키우라고 권고했습니다. 특별히 그는 하나님에 관한 것을 조금 밖에 알지 못해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교”[빌립보서 2:5~6]

……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르친 것이며, 그는 자신이 무엇에 관해 말 하는지 알았습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가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고린도 후서 12:1~7 참조] ……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이런 종류의 열망을 키우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일까요? 성경, 특히 신약전서에서는 주님의 영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상하게 보일 만한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요한계시록 21:7]

이 표현은 무엇을 뜻할까요? 누가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부디 충실하고 내 권고를 따르거라. 그러면 나이가 들었을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면 무언가 의미 있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진실을 말했다면, 아들은 충실하도록 고무하는 무언가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속이려고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을까요?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그분께서 하신 말씀에는 속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뜻하신 것은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요한계시록 3:21]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진리가 있느냐고요? 모두가 진리입니다. 전능하신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경전에서 사도 바울이 한 다음 말씀을 듣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고린도후서 5:1]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빌립보서 3:21]고 말했는데, 저는 그 말씀도 믿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을 후기 성도는 믿습니까? 물론 여러분은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릇 나의 종을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나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의 아버지의 왕국을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그에게 주어지리라.”[교



사도 바울은 그의 서한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간증했다.

리와 성약 84:36~38]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이 주어지리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 “꽃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빌립보서 3:14]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바울은 이를 잘 이해했습니다.

제가 언급한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받으신 고귀한 부름의 속성에 관해 무언가를 알 수 있습니다.

…… 이런 것들에 대한 진정한 지식을 마음속에 얻은 사람이 몇 분이나 여기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지식을 얻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요한이 말한 바와 같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요한1서 3:3]

……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승영에 이르는 이 길을 여행하면 어떤 결과를 얻는지 알려 주셨으며, 그 약속은 확실합니다. 주님은 그분께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어떤 재료를 써서 일해야 하는지 아시며,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를 아십니다. 주께서 시키신 부분을 행하고 둘째 지체를 지킨다면, 우리는 이런 약속들이 여러분과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이상으로, 모든 세세한 것까지도 성취된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¹¹
[91쪽 제언 2 참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축복을 기억하면, 이생에서
근심과 괴로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기쁨을 발견한다.**

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후기 성도는 첫째 부활의 아침에 나와 영화롭게 되며, 하나님 면전에서 승영하여 지상의 아버지와 대화하듯 하나님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는 특권을 누린다는 기대를 분명히 갖습니다.¹²

성도들 앞에 놓인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기대는 주어질 수 없습니다. 이보다 더 위대하거나 중국에 더 큰 만족을 줄 만한 기대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한 평화와 행복, 영광과 승영에 관한 모든 것이 후기 성도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담긴 참뜻을 즐겨야 하며, 늘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께 받아들여지지 못할 행동을 함으로써 이러한 전망을 조금이라도 어둡게 해서 안 됩니다.¹³

미래의 삶에 대한 제 희망은 지극히 원대하고 영광스러우며 저는 이같이 밝은 전망을 계속 간직하도록 힘쓸 것입니다. 이는 모든 후기 성도들이 지닌 특권이자 의무입니다.¹⁴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마련된 복음이 주는 축복과 특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들과, 이생에서 평화와 행복을 증진시키고 마음속 소망에 대한 해답을 주려고 마련된, 우리를 기다리는 것들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에 대한 시각을 갖고 있지도 못합니다. ……

우리는 걱정으로 둘러싸인 나머지 이런 것을 잊고 나중에 두지 못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이란 본래 영광과 존귀, 승영에 이르게 하고 행복과 평화, 영예를 가져다주는 것들을 우리에게 부여하기 위해 계획되고 의도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 근심과 고뇌에 파

묻히다 보면 이런 것들을 잊기가 쉽습니다. 또 우리에게 그런 특권이 있다는 것과, 우리가 추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음을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에 두심으로써 우리 안에 항구적인 평화가 깃들게 하셨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

슬퍼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후기 성도가 슬픈 얼굴을 할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거나 불만스러워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것은 생명 아니면 죽음입니다. 계속 충실하면 통치권과 권능을 얻게 되지만, 복음을 무시하면 슬퍼하며 쫓겨날 것입니다.

우리 종교에 내포된 것 이상으로 우리가 무엇을 더 바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반석 위에 굳게 서서 가슴에 자리 잡은 영을 따른다면, 우리는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올바르게 처신할 것이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올바르게 대하고, 빛 가운데나 어둠 속 어느 곳에 있던 간에 올바르게 행동할 것입니다.

길에서 벗어나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이 담고 있는 그런 기대를 저버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 안에 만족이 있으며 기쁨이 있고 안정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우리 몸이 쉬을 얻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며, 우리는 그 안에 분명한 기반을 세울 수 있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¹⁵

우리의 전망을 결코 흐리게 하지 말고, 낮이나 밤이나 생생하게 간직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날이 가고 해가 감에 따라 우리는 놀라운 성장을 하게 될 것임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¹⁶

우리 모두는 해의 영광을 목표로 하며, 우리 앞에 펼쳐진 전망은 너무나 장엄해서 인간이 쓰는 말로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종사하는 일에 계속 충실하면 이 영광을 얻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더욱 기뻐할 것입니다. 이 일은 노력할 가치가 있고 희생할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충실하여 그 영광을 얻는 남녀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¹⁷ [91쪽 제언 3 참조]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제언

본 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다음 제언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v~vii쪽을 참조한다.

1. 로렌조 스노우 회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수시로 가르쳤다.(84~86쪽) 이 진리는 우리가 자신과 타인에 대해 느끼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어린이와 청소년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도록 도울 수 있는가?
2. 스노우 회장이 우리의 신성한 잠재력을 가르치려고 인용한 성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86~89쪽 참조)
3. 89쪽 첫머리를 읽는다. 어떻게 “세상 근심과 고뇌”는 복음이 주는 영원한 축복을 잊게 만드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닌 잠재력을 “생생하[게]” “우리 마음에” 간직할 수 있는가? 우리의 운명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4. 본 장을 공부하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 관해 무엇을 배웠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또는 딸로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운명에 관해 무엇을 배웠는가?

관련 성구: 로마서 8:16~17; 고린도전서 2:9~10; 앨마서 5:15~16; 모로나이서 7:48; 교리와 성약 58:3~4; 78:17~22; 132:19~24

교사를 위한 도움말: “꼭 공과를 마칠 때가 아니더라도 영이 간증하라고 속삭일 때마다 간증한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도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45쪽 참조)

주

1. Eliza R. Snow Smith, *Biography and Family Record of Lorenzo Snow* (1884), 46; 또한 “The Grand Destiny of Man”, *Deseret Evening News*, July 20, 1901, 22 참조.
2. *Biography and Family Record of Lorenzo Snow*, 46-47; “Glory Awaiting the Saints”, *Deseret Semi-Weekly News*, Oct. 30, 1894, 1 참조.
3. LeRoi C. Snow, “Devotion to a Divine Inspiration”, *Improvement Era*, June 1919, 656.
4. LeRoi C. Snow, “Devotion to a Divine Inspiration”, 661.
5. *Deseret News*, Jan. 24, 1872, 597.
6. Conference Report, Apr. 1898, 63.
7. “Anniversary Exercises”, *Deseret Evening News*, Apr. 7, 1899, 10.
8. *Millennial Star*, Aug. 24, 1899, 530.
9. *Deseret News*, Oct. 21, 1857, 259.
10. *Deseret Semi-Weekly News*, Oct. 4, 1898, 1.
11. “Glory Awaiting the Saints”, 1.
12. Conference Report, Oct. 1900, 4
13. Conference Report, Oct. 1898, 3.
14. Conference Report, Oct. 1900, 4.
15. *Deseret News*, Oct. 21, 1857, 259.
16. Conference Report, Apr. 1899, 2.
17. “Prest. Snow to Relief Societies”, *Deseret Evening News*, July 9, 1901, 1.



산상수훈에서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태복음 5:48)



“날마다 조금씩 …… 나아[져]” 주님 앞에 온전하게 됩시다

“한 번에 온전해지기를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면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어제보다 낫고,
내일이 오늘보다 나은 사람이 되십시오.”

로렌조 스노우의 생애에서

언젠가 로렌조 스노우 회장이 참석한 신권 모임에서 각 장로 정원회를 대표하는 형제들이 일어나 자기 정원회에서 한 일을 발표한 적이 있다. 그 젊은이들이 하는 발표를 들으면서 스노우 회장은 여러 해 전에 겪은 일을 떠올렸다. 말씀을 전하고자 일어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이 결코 잊지 못할 무언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젊은 장로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거의 언제나, 또 사실 중년이 된 장로들이 함께한 곳에서도 청중 앞에서 말씀하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오늘 아침 이곳에서 자기 의견을 발표하고, 자신이 해 온 일을 상세히 알리는 젊은이들에게서도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제가 장로가 되기 바로 전에 대중 앞에서 말씀을 시작했을 때 했던 경험을 조금 말씀드려도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간증을 전하라는 요청을 처음 받았을 때가 생각납니다. …… 한편으로는 상당히 두려웠으나 일어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제 의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한 사람이 간증을 전하자 다른 사람이 간증하고, 또 다른 사람이 간증을 이어 가며 거의 모두가 간증에 참여했지만, 저는 여전히 일어서기

가 두려웠습니다. 청중 앞에서 말한 적이 한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 [마침내] 일어날 때가 되었다고 여겨지자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약 30초, 길어 봤자 1분을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의 첫 경험이었으며, 두 번째도 거의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줍음을 많이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 그러나 저는 단호하고 굳은 마음으로, 그런 종류의 의무나 다른 의무가 주어질 때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할 일을 다 하리라고 다짐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스라엘 장로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계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스노우 회장은 그 경험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임 선교사가 되어 처음으로 모임을 했던 일도 들려주었다. “제 평생 그 모임처럼 두려움이 컸던 적은 없습니다. 저는 온종일 기도했고, 홀로 있을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간중 모임을 제외하고는 [대중 앞에서] 말을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에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대해 그 당시의 저보다도 더 두려움을 느낀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임이 시작되었고, 방 안에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 말을 시작했는데 제 생각으로 약 45분은 말했던 것 같습니다.”¹ 그는 다른 곳에서도 그 모임을 언급하며 이렇게 기록했다. “회중 앞에 섰을 때 할 수 있는 말이 한 마디도 없었으나 입을 열자마자 성신이 강하게 임하여 마음이 빛으로 가득 찼으며, 저는 떠오르는 생각을 적절한 언어로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모임을 한 번 더 하자고 요청했습니다.”²

스노우 회장은 자신의 경험에서 젊은이들이 배우기를 바라는 교훈에 대해 말씀했다. “젊은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는 만큼 위대해질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인생에서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몹시 힘들긴 해도 이를 가능성이 있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계속 노력해도 성공했다고 할 만한 결과를 거두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실하게 노력하는 한, 또 여러분의 소망이 의로움에 기초를 두는 한, 마음속 소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얻는 경험은 분명히 유익할 것입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유익이 될 것입니다.”³

이것은 스노우 회장이 즐겨 말하던 주제였다. 그는 종종 성도들에게 온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을 상기시키며, 열심히 노력하면 주님의 도움을 받아 이 명을 준행할 수 있다고 그들을 안심시켰다. 그는 이렇게 가르쳤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가 잘못을 범하기도 하고 연약할지라도 가능한 한 거의 온전하게 생활한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생각해야 합니다.”⁴

로렌조 스노우의 가르침

**우리는 근면과 인내, 그리고 하늘의 도움으로,
온전하라는 주님의 명을 따를 수 있다.**

“아브람이 구십구 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창세기 17:1]

이 말씀과 관련하여 저는 구주께서 산상수훈으로 남기신 마태복음 5장 마지막 구절 중 일부를 인용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태복음 5:48] ……

우리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위대한 약속을 하셨으며, 그 약속을 얻을 준비가 되기 전에 주님 앞에서 온전해져야 한다는 특별한 요구가 그[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배웁니다. 또한 구주께서는 자신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같이 온전해지라는 동일한 요구를 그분의 제자들에게도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후기 성도들이 관심을 두는 주제가 되어야 한다고 믿으며, 흥미를 느끼는 사람들이 돌이켜 생각해 보도록 제안 형식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후기 성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과 같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온전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여느 때처럼 따를 수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창세기 17:1)라고 명하셨다.

없는 요구를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주님은 그분의 거룩한 명을 따르도록 후기 성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요구를 하셨을 때, 그 율법을 준수하고 요구받은 일을 모두 성취할 자격을 갖추도록 방안을 주셨습니다. 복음이 아브라함에게 전파되었다고 알려진 것으로 보아 그는 성령이라는 특권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는 신성한 도움을 복음을 통해 받았습니다. 복음이 없다면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으며, 또 복음이 없다면 주님 앞에 온전한 상태로 이를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후기 성도 역시 초자연적인 [하늘의] 도움이나 지원 없이는 그와 같은 도덕적, 영적 수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후기 성도라고 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율법을 한 번에 다 준수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계명을 지키려면 많은 인내와 더불어 마음과 정신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첫 시도에서 실패하더라도 위대한 요구

를 따르려는 결의를 실천하려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서 이 신성한 율법에 따라 행하는 신앙이 있었음에도, 호되게 시험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결의를 불태웠기에 계속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율법에 따라 살기란 불가능하며, 온전해지는 일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는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일은 전능자께서 명하신 일이며, 우리는 그것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어려운 시기가 닥치면 그때가 바로 힘과 이해력, 예지와 은혜를 주시도록 주께 간구하는 위대한 특권을 사용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영속적으로 싸워야 할, 육신이 지닌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⁵ [104쪽 제언 1과 2 참조]

주께서 요구하시는 바를 따른다면, 우리는 그렇게 행하는 범위 내에서 온전하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던 나라와 친척들을 떠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아브라함서 2:1~6 참조] 그가 이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면 주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에 응했으며, 집을 떠날 때 그가 이 온전하라는 성스러운 율법에 따라 생활했으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일에서 실패했다면 그는 분명 전능자의 요구에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친의 집을 떠날 때, 이 시험을 받을 때 양심과 하나님의 영이 용납한 일을 행한 것이며, 이 일을 수행할 때 잘못을 범하지 않는 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해낼 수 있었습니다.

후기 성도들이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리고 전능자의 음성이 아브라함처럼 부친이 살던 땅과 친척들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 요구를 받아들이고 그 율법에 순종하는 한, 그들은 그들이 행하는 상황과 범위 내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온전한 사람들입니다. 지식이나 능력 등과 같은 면에서 온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감정, 성실성, 동기, 결의 면에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큰 바다를 건널 때 투덜거리거나 불평하지 않고 권고를 따르며 모든 면에서 알맞게 처신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바라신 만큼 온전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해의 왕국으로 데려가려고 계획하십니다. 주님은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 우리가 영원한 세상에서 태어난 그분의 자녀이며, 우리가 아버지 면전으로 돌아갈 때 그분의 영광을 충만하게 받을 준비를 갖추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동기, 소망, 감정, 애정이 순수하고 거룩하며 성결하게 되도록 이 율법을 지킬 능력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면에서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종속시키며, 아버지의 뜻을 행하겠다는 것 외에는 사사로운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행동에서 온전한 사람이며, 무엇을 하거나 어디를 가든 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기 쉽고 육신의 연약함에 굴복하기 쉬우며 다소 무지하기 때문에 잘못을 범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점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명령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여길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그분께서 우리 손이 미치는 곳에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두셨다는 것을 알면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것이 바로 (신약의) 구주께서 언급하시고 (구약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온전’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온전하나 다른 면에서는 그렇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충실히 지키는 사람은 이 율법에 관한 한 온전합니다. 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위한 침례를 받는다면 우리는 그 문제에 관해서는 온전합니다.⁶ [104쪽 제언 3 참조]

실패했을 때, 낙심하기보다는 회개하고,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힘을 구해야 한다.

우리는 사도 요한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요한1서 3:2~3] 후기 성도들은 이런 온전한 상태에 이르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되고 그분 면전에 거하기에 적합하고 합당한 자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하나

님의 아들이 나타나실 때 육신이 새롭고 영화롭게 되어 “우리의 낮은 몸을 [그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기를]”(빌립보서 3:21) 기대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이제 참석하신 모든 분은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대는 타당한 바탕 위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달리 말씀드리며, 우리는 순결해지려고 노력합니까? 후기 성도가 하나님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순결하고자 힘쓰지도 않고, 일상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해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노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자신이 올바르다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틀림없이 우리 중 많은 이들은 매일, 매주, 매달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행동을 하지 않고 올바르게 처신하여 하나님의 영이 매일의 삶을 주관하시기를 참을성 있게 간절히 구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엄청난 시험이 닥치거나 어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힘과 결의를 배가하여 목적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⁷

주님은 지상에 사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관대함을 보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녀들이 범법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참된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이 순종하고 모든 죄를 버리려 애쓰며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여 그분의 진정한 백성이자 성도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로써 자녀들은 그분 면전으로 나아갈 준비를 갖추고 모든 면에서 그분처럼 되어 영광 가운데서 그분과 함께 통치하게 됩니다. 이를 이루려면 더욱 빛을 발하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신앙과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인 자애로 가득하며, 복음 안에서 모든 의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험잡하고 좁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⁸

아브라함의 생애나 다른 위대하고 거룩한 분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로워지려고 노력했더라도 늘 성공을 거둔 것만은 아님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때 약해졌더라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실수나 잘못을 곧바로 회개하고 가능한 한 빨리 고치며, 그런 다음 계속 더 나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새로운 힘을 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부친의 집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서 매일같이 온전하게 처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자가 조카인 롯의 목자와 다룰 때 문제 해결을



우리는 날마다 가족들과의 관계를 향상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위한 제안 과정에서 뛰어나고 잘 단련된 심성을 보여 주었습니다.[창세기 13:1~9 참조]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몹시 힘든 시기가 닥쳤으니, 사실상 이보다 더 혹독한 시련은 거의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주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외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주께서 자신에게 주신 위대한 약속을 성취할 것으로 기대했던 바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올바른 성품을 나타내 보임으로써 시험을 이겨내고 자신의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진실성을 입증했습니다.[창세기 22:1~14 참조] 아브라함이 그런 심성을 우상을 섬긴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마찬가지로 육신과 싸우면서 육신에 굴복 당할 때도 틀림없이 있었겠으나, 그런 다음에 것처럼 혹독한 시험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육신을 극복한 뒤에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그런 마음의 상태를 얻었다고 믿는 것이 일관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 하시고”[빌립보서 2:5~6]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분 앞에서 이런 목표를 따

르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순결하게 하고 그분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기를 힘씁니다. 우리는 다소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나약합니다만, 되도록 빨리 이를 극복하도록 힘써야 하며, 자신을 순결하고 온전히 지키려는 마음을 자녀들에게 심어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아주 어릴 때부터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한 외경심을 가질 수 있고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분 앞에서 올바르게 처신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와 다투지 않고, 또는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에게 불친절하거나 하나님의 영을 슬퍼하게 하지 않고 하루를 보낼 수 있다면, 지금까지는 잘 한 것이며, 온전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런 후 다음 날도 똑같이 해 봅니다. 그러나 다음날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셋째 날에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

후기 성도들은 앞 시대에 사도들이 분명히 제시한 이 대망을 꾸준히 키워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도록 행하고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기 위한 방편, 즉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등[에베소서 4:11~12 참조]을 두셨습니다. 또한 확실한 안내자인 성령을 주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천사로서 우리 곁에 서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 주며, 우리가 가는 길에 역경이 닥칠 때 힘과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합함을 깨달을 때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고대나 현대 선지자들이 확립한 모든 영예로운 본보기 가운데에는 악한 자의 원대로 낙심한 사례를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도리어 연합을 이겨 내고 상을 타기 위해 끊임없이 힘썼으며, 그리하여 충만한 영광을 받을 준비를 갖추었습니다.⁹ [104쪽 제언 4 참조]

하늘의 도움을 받아 세상의 어리석고 헛된 것보다 차원 높은 삶을 살 수 있다.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을 통해 걱정과 욕망을 극복하고, 모든 면에서 우리 뜻을 하나님 아버지 뜻에 복종시킬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한 번 각인시키면, 또 집안 식구들이나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불쾌한 감정을 유발하는 대신 지상에 작은 천국을 이룩하는 데 크게 일조한다면 싸움의 절반은 이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겪는 주된 어

려움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필멸의 육신을 얻도록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인, 위대한 인생의 목적과 부름 받은 거룩한 소명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성스러운 도움이 역사하면 그것만으로도 어려움을 이겨 낼 수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여 사소하고 덧없는 것들을 딛고 일어서는 대신 자신을 세상의 수준으로 떨어트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하게 되겠다는 태도를 키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게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비슷한 욕망과 미혹되기 쉬운 품성을 지녔던 고대 성도들에게 구주께서 주신 훈계였으며, 그분은 사람들이 그 훈계를 따르지, 따르지 않을지를 아셨습니다. 주님은 자녀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신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 비뚤어지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악과 부패로 가득 찬 사람들 속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장로들은 특별히 이런 정신을 함양해야 합니다. 그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 이 교회에 소속되어 성도라 불리기에 합당한 모든 젊은 남녀는 이런 요건에 따라 생활하겠다는 소망을 길러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을 지녀야 합니다.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들이 이런 목표를 세우는 것은 멋진 일이며, 젊은이들이 얼굴에서 하나님의 빛과 예지를 발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인생에 대한 올바른 이해력으로, 세상의 어리석고 헛된 행동과 인간이 범하기 쉬운 잘못이나 악을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¹⁰

후기 성도는 세상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지나갑니다. 우리는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어야 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온전함을 이루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분은 모든 면에서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셨으며, 이로써 위대한 승영을 얻고 형제들에게 본이 되셨습니다. 우리 운명이 그토록 원대하고 영광스러울진대, 왜 그런 일시적인 것들로 안달하거나 걱정해야 합니까? 주께 충실하고, 계명을 지키고, 그분이 보이신 온전한 본을 따르며 영원히 실재하는 그분의 하늘 왕국을 얻으려 힘쓰다면, 매사가 잘 되고 크게 성공하며 종국에는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¹¹

무슨 일이나 행동을 하더라도 여러분은 지금 영원으로 이어지는 인생을 준비하고 만들어 나간다는 의식을 늘 잃지 마십시오. 수치를 당할 만하거나 하늘에서는 따르고 싶지 않을 원리에 따라 행동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얻기 위해 하늘이 깨우쳐 준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방법을 동원하지는 마십시오. 기분이나 걱정이 여러분의 행동을 부추길 때면 순수하고 명예로우며, 거룩하고 유덕한 원리를 언제나 행동 방침으로 삼고 따르십시오.¹²

한 번에 온전해질 수는 없지만, 날마다 조금씩 온전해질 수 있다.

아이는 자라서 유년기에서 소년기로, 소년기에서 성년기로 성장해 나갑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언제 또는 어떻게 성장이 이루어졌는지를 알지는 못합니다. 자신이 성장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건강의 율법을 지키고 신중하게 처신하는 과정을 거쳐 마침내 어른이 됩니다. 후기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장하고 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지금은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해가 가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말하자면 언덕을 올라 산꼭대기에 이르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신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섭리는 항상 유익하며, 우리는 그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실제로 우리 아버지이시며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십니다.¹³

한 번에 온전해지기를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면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어제보다 낫고, 내일이 오늘보다 나은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은 유혹에 일부분 굴했다고 하더라도 내일은 그만큼 굴하지는 마십시오. 그리하여 날마다 조금씩 계속 나아지십시오. 인생이 자신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선을 행하지도 못한 채 막을 내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¹⁴

이제 막 지난 하루나 일주일의 우리가 보낸 어느 때보다 좋은 날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지식과 지혜 면에서, 또 선을 행하는 능력 면에서 날마다 조금씩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서 매일 전날보다 더 주님께 다가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¹⁵ [104쪽 제언 5 참조]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제언

본 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다음 제언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v~vii쪽을 참조한다.

1. 스노우 회장은 온전하게 되라는 명령이 어떤 후기 성도들에게는 염려를 불러일으키리라는 것을 알았다.(95~97쪽) 본 장을 공부하면서 온전하게 되라는 명 때문에 근심하는 이들에게 위안이 될 만한 권고를 찾아본다.
2. 95쪽 첫머리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도움”이라는 구절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말한다.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도록 도우시는가?
3. 97쪽에서 스노우 회장이 아브라함과 초기 성도들에 관해 한 말을 살펴본다. “[우리가] 행하는 …… 범위 내에서는” 온전하게 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이 “감정, 성실성, 동기, 결의” 면에서 더욱 온전해지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숙고한다.
4. 스노우 회장은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마다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101쪽)라고 말씀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낙심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가?(몇 가지 예를 보려면 98~101쪽을 참조한다.)
5. “한 번에 온전해지기를 기대”(103쪽 참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날마다 조금씩 …… 나아지[라]”는 스노우 회장의 권고를 따를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생각해 본다.
6. 본 장에서 특별히 감동적인 말씀을 한두 가지 찾아본다. 이런 말씀의 어떤 점이 여러분의 마음을 끄는가?

관련 성구: 니파이전서 3:7; 제3니파이 12:48; 이더서 12:27; 모로나이서 10:32~33; 교리와 성약 64:32~34; 67:13; 76:69~70

교사를 위한 도움말: “사람들은 자신의 업적이 인정되었을 때 감동을 받게 된다. 여러분은 각 사람의 의견을 인정하고자 하는 특별한 노력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반 토론의 일부로 의견 발표 시간을 마련할 수도 있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36쪽)

주

1. "Anniversary Exercises", *Deseret Evening News*, Apr. 7, 1899, 9.
2. Eliza R. Snow Smith, *Biography and Family Record of Lorenzo Snow* (1884), 16.
3. "Anniversary Exercises", 9.
4. "Impressive Funeral Services", *Woman's Exponent*, Oct. 1901, 36.
5. *Deseret News: Semi-Weekly*, June 3, 1879, 1.
6. *Deseret News: Semi-Weekly*, June 3, 1879, 1.
7. *Deseret News: Semi-Weekly*, June 3, 1879, 1.
8. *Deseret Semi-Weekly News*, Oct. 4, 1898, 1.
9. *Deseret News: Semi-Weekly*, June 3, 1879, 1.
10. *Deseret News: Semi-Weekly*, June 3, 1879, 1.
11. *Deseret Semi-Weekly News*, Oct. 4, 1898, 1.
12. *Millennial Star*, Dec. 1, 1851, 363.
13. Conference Report, Apr. 1899, 2.
14. *Improvement Era*, July 1901, 714.
15. *Improvement Era*, July 1899, 709.



후기 성도들이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쫓겨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고통 중에서도 기쁨을 찾았다.



시련의 때에 충실하여 “그들로부터 …… 빛나는 햇빛 속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든 남자와 여자는 아무리 충실하더라도
힘든 시간을 겪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충실히
생활한다면 빛이 비치고, 위안을 받을 것입니다.”

로렌조 스노우의 생애에서

1846년 2월, 후기 성도들은 일리노이 주 나부에 있는 집을 두고 떠나야 했다. 새로운 약속의 땅을 찾아 서부를 향해 여행을 준비하면서 성도들은 가는 길에 거류지를 세우라는 브리검 영 회장의 권고를 따랐다. 사람들은 임시로 만든 오두막에 살면서 뒤따라올 성도들을 위해 농작물을 심었다. 로렌조 스노우 가족은 아이오와 주에 있는 가든그로브라는 거류지에 잠시 머물다가, 아이오와 주 내에 있는, 성도들이 마운트 피스가라 불렀던 곳으로 옮겨 갔다. 이 정착지는 모세가 그의 백성이 살게 될 약속의 땅을 보았던 산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마운트 피스가에 도착하고 몇 달이 지난 뒤, 로렌조 스노우는 정착지를 감리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그는 후에 이렇게 기록했다. “이 무렵 피스가에 있는 성도들은 식량과 의복뿐 아니라 여행을 계속해 나갈 우마와 마차도 없는, 매우 절박한 사정에 처해 있었다. 몇몇 가족은 식량이 완전히 바닥나 이웃이 베푸는 자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웃들 대부분도 그런 미덕을 베풀 형편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병자를 간호할 만한 성한 사람이 없는데도 질병이 정착지를 휩쓸고 지나가 그 여파로 죽음이 뒤따랐으며, 아버지, 어머니, 자녀, 형제, 자매, 사랑하는 친구들이 파피자의 희생물이 되었다. 그들은 거의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또 더러는 변

변한 수의도 입지 못한 채 매장되었다. 이리하여 궁색한 생활에 가슴 저미는 슬픔과 애통이 더해졌다.”

로렌조도 이런 시련을 겪었다. 그와 가족은 갓 태어난 딸 리어노라의 죽음을 포함하여 질병과 실의, 심적 고통을 겪었다. 그는 이렇게 썼다. “어린 리어노라는 병이 들어 죽었다. 우리는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 생명을 준 아빠 엄마로부터 멀리 떨어진 적막한 안식처에 그 아이의 시신을 홀로 남겨 두고 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로렌조 스노우는 성도들이 신앙으로 시련에 대처하도록 도왔다. 누나 엘리자는 이렇게 기록했다. “실제적인 방편을 마련하려는 의지와 결코 낙담하지 않는 확고한 목표를 지닌 로렌조는 평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두려워했을 긴급한 상황을 불굴의 활력으로 대처하는 힘을 보여 주었다.” 또 그녀는 이렇게 회상했다. “로렌조는 먼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힘을 불러일으켜 한데 모았다.” 로렌조는 형제들을 몇 개의 작업조로 조직했다. 일부는 부근 마을에 가서 식량과 의복을 살 돈을 벌었다. 남은 사람들은 야영지에서 가족을 보살피고 농작물을 경작했으며, 인근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만한 물품을 제작하고 수리했다.

로렌조는 성도들이 함께 일하도록 돕는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영적 자양분을 취하고 유익한 오락을 즐기라고 독려했다. “긴 겨울 동안 나는 정착지 내 여러 지역에서 예배와 활동을 위한 모임을 열었을 뿐 아니라, 식량을 준비하고, 적절한 오락거리를 다양하게 누리도록 성도들을 격려함으로써 피스가에 있는 성도들의 영을 고취시키고 용기를 북돋우는 일을 했다.
.....

한 가지 예를 들면, 나는 없으면 없는 대로 가급적 여러 사람들이 여흥을 즐길 수 있도록 불품없는 내 집에 최대한 많이 모이게 했다. 그 집은 흙지붕에 마루는 맨 바닥인 단층 통나무 가옥으로, 폭이 4.5미터, 길이가 9미터였으며, 한쪽에는 어머니 품 같은 대지에서 뗏장을 떠서 만든 적당한 높이의 굴뚝이 드러나 있었다. 우리는 특별히 그 모임을 위해 깨끗한 밀짚으로 마루를 얇게 덮고 깃털 없는 흰색 침대보로 벽을 가렸다.

다가오는 행사를 위해 흠을 알맞게 밝히는 문제를 놓고 우리는 오랫동안 안 골몰했으며 상당한 창의력을 발휘해야 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다. 우리는 순무가 묻힌 구덩이에서 크고 모양 좋은 순무들을 골라 속을 파내고



이 스케치는 마운트 피스가에 정착한 어느 후기 성도가 일지에 그린 것이다.

그 안에 작은 초들을 넣은 후, 벽을 따라 적당한 간격으로 배치하고 일부는 천장까지 매달아 대지에서 뻗어 나온 줄기를 연상케 하는 모습을 만들어 냈다. 그곳에서 나오는 불빛은 매우 평화롭고 고즈넉한 …… 분위기를 자아냈으며, 순무 껍질을 통해 비치는 불빛은 그야말로 그림 같은 장면을 연출했다.

저녁 활동을 하는 동안 몇몇 친구는 것처럼 독특하면서도 저렴한 장식 물로 집안을 꾸민 우리 가족의 남다른 취향과 기발함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따뜻한 찬사를 보냈다.”

로렌조는 “활기 넘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라고 회상했다. 그와 손님들은 말씀과 노래를 하고, 글을 낭송하며 서로를 즐겁게 했다. 그는 말했다. “마칠 때는 모두가 매우 흡족해 보였으며, 집 없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행복해하며 돌아갔다.”¹ [115쪽 제언 1 참조]

로렌조 스노우의 가르침

시련과 환난은 우리가 영적으로 발전하고 해의 영광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는 시련이나 희생 없이는 구원을 이루거나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²

후기 성도들은 시련과 환난을 겪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 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있던 전세에서 이 시험의 장소에 와서 지금 겪는 경험을 통과하도록 제의받았을 때, 그 경험은 아마 전적으로 즐겁고 유쾌하게 보이지만은 않았으며, 바라는 것처럼 모든 면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승영과 영광을 얻으려면 이런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한다는 것을 그곳에서 분명히 알고 이해했습니다. 유쾌하게 보이지는 않을지언정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했으며, 그 결과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³

주께서는 우리에게 대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 때까지 우리를 시험하기로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셨습니다. …… 그[구주]가 지구에 오기 전,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행적을 지켜보시고 세상의 구원이 위태로워지면 그분이 아버지를 의지하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실 것이며, 우리를 인생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두고 가장 성스러운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계속 우리를 시험하실 것입니다.⁴

만일 우리가 다가오는 호된 시련을 나무랄 데 없이 충직하고 고결하게 통과한다면 시련이 끝날 무렵에는 성령과 하나님의 권능이 크고 힘차게 부

어지리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맺은 성약에 충실한 모 두에게 주어질 위대한 축복입니다. ……

몇몇 형제들은 자신이 이제부터 시련과 박해를 이겨 낸 고대 선지자와 성도들, 또 커틀랜드에서, 그리고 미주리 주와 일리노이 주에서 고통을 겪은 …… 성도들과 완전한 유대감을 느낄 만한 자격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말씀드린 형제들은 그런 고통을 당하던 때에 동참하지 못했던 점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중 누구라도 이곳에 계시다면, 저는 잠시 기다려야 하며, 그러면 마음이 흡족할 만큼 비슷한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고통을 겪지 않고는 여러분이나 제가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히브리서 2:10 참조] 켈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고뇌에 찬 기도에서 예수께서는 해의 왕국의 영광을 얻기를 양망하는 이들의 삶에 필요한, 성결하게 되는 과정을 예시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타협적인 방법에 안주하여 이를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⁵

성도들이 영적 발전을 이루고 해의 왕국의 상속자가 되도록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는 환난을 통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지식이 커지고 궁극적인 평화가 어느 곳에서나 확립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이 평화롭고, 거기서 우리가 번영을 누린다면 우리는 그저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것이라는 말을 들어 왔습니다. 물론 그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상태일지는 모르나,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것들을 얻으려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다.⁶

개인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우리는 고통을 받았으며, 또 앞으로도 다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성결하게 되도록 주께서 이를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⁷ [115쪽 제언 2 참조]

시험과 유혹이 닥칠 때 우리가 충실한 것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뜻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우리 종교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입증하게 될 유혹이란 시험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여러분은 욥의 경험을 잘 압니다. 그는 부활과 구속주에 관한 지식을 얻었으며, 비록 죽는다 하더라도 후일에 땅 위에 서신 구속주를 보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욥기 19:25~26 참조] 욥이 겪은 유혹들은 그가 다른 무엇보다도 하늘에서 관심을 두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김을 여실히 증명해 보였습니다. ……



우리는 시련을 겪는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하여 위안과 힘을 얻을 수 있다.

…… 하나님은 우리 친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계속 유쾌하지 못한 상태에 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더 사랑함을 천사들에게 보여 줄 수 있습니다.⁸ [115쪽 제언 3 참조]

**계속 충실하면, 주님은 우리가 유혹을 극복하고
시련을 참아 내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가혹한 시련을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의 신앙은 더 온전해지고, 확신이 커지며, 하늘의 권능에 관한 지식이 늘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구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검은 구름이 지평선을 뒤덮고 …… 쓰라린 고통의 잔이 건네져 이를 마실 수 밖에 없으며, 사탄이 교활한 속임수를 동원하여 여러분 가운데 온갖 미혹하는 힘을 마구 휘두르고 엄청난 박해가 혹독하게 가해질 때면,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머리를 들고 자신이 예수님과 성도들, 거룩한 선지자들과 함께 고통을 겪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헤아림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또 구속의 시간이 여러분께 다가왔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진심을 다해 권고드립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기운을 내십시오. 틀림없이 눈물이 마르고 마음에 위안을 얻을 날이 급속히 다가옵니다. 그때가 오면 여러분의 노고로 얻은 결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

정직하고, 유덕하며, 명예롭고, 온유하며, 겸손하십시오. 용기 있고 담대하며, 순박한 성품을 함양하여 주님처럼 되십시오. 불이나 검, 고문이나 죽음을 통과해야 하더라도 진리를 붙드십시오.⁹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이래 지금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종종 시련과 환난을 주셨습니다. 굳이 그렇게 불러도 된다면 말입니다. 이러한 시련은 투덜대거나 불평 없이는 받아들이기 매우 힘든 속성이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며 유혹을 이기고 시련을 참아 낼 수 있도록 그분의 영을 풍성하게 부어 주셨습니다.¹⁰

주님을 섬기는 모든 남자와 여자는 아무리 충실하더라도 힘든 시간을 겪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충실히 생활한다면, 빛이 비치고 위안이 올 것입니다.¹¹

어떤 곤란한 상황이나 박해 속에서도 철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정직하고, 충실하며, 우리가 받은 원리에 계속 헌신하는 일이 전부입니다. 또 서로 올바르게 행하고,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분의 성령이 우리를 돕고 지원하여, 우리의 집, 가정, 가족, 농토가 풍성한 축복을 받아 우리는 그런 상황을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지식에 지식을, 예지에 예지를, 지혜에 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축복을 더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충실하고, 받은 모든 원리에 충실하며, 온 마음을 다해 서로의 유익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을 우리 위에 부어 주시며, 우리는 마지막에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¹² [115쪽 제언 3 참조]

어려운 시절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시련을 겪는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주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하신 일과 지금 우리의 처지, 그리고 향후 전망을 살펴볼 때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은 백성입니까! 저는 가끔 후기 성도가 지닐 수 있는 매우 훌륭한 미덕 가운데 하나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을 걷는 것이 항상 즐겁지만은 않았을지라도, 나중에는 것처럼 매우 불유쾌했던 상황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을 안겨 주었다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¹³

만일 어떤 사람이 통과해야 하는 모든 시련 가운데서도 충실하고 자신이 옹호하는 신앙과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시련 또는 환난의 끝에서 그 사람은 신앙, 지혜, 지식과 능력 면에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그 결과 자신이 소망하는 바에 대해 더욱 자신 있게 주님의 도움을 청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어떤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생각에 떨기는 했으나, 유혹을 이겨 낸 다음에 더 큰 확신을 품고 주께 다가가 자신의 원하는 축복을 구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

우리 사방에 어려움이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감으로 충만해야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멀리 전진했으며, 얼마나 많은 지식을 얻었습니까? 그리고 일이 년, 또는 오 년 전에 비해 지금은 얼마나 더 참을 수 있으며, 몇 년 전에 비해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성장하도록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키워 주셨습니다. 어린 아이는 자라는 동안 어떻게 점차 힘이 세지고 키가 커졌는지 그 과정을 알지 못하지만 지난해에 비해 올해에는 더 커져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작년보다 더 강해졌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¹⁴

여러분이 바친 희생, 참아 낸 어려움, 겪었던 궁핍함과 같은 것들은 ……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여러분은 그런 일들을 통해 경험을 얻었다는 사실에 기뻐할 것입니다. …… 우리가 고통을 통해 배워야만 하는 것들과 그 과정에서 얻는 지식은, 비록 그 과정이 힘들더라도 다른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크나큰 가치를 안겨 줄 것입니다. ……

…… 저는 여러분의 삶에 늘 햇빛이 비치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은 온갖 시험을 거쳤으며, 어쩌면 극심한 환난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계속 고결함을 유지함으로써 머지않아 그들로부터 해의 왕국이라는 빛나는 햇빛 속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¹⁵ [아래 제언 4 참조]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제언

본 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다음 제언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v~vii쪽을 참조한다.

1. 107~110쪽에 나오는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여러 성도들은 어떻게 고통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었는가? 우리는 시련을 겪는 사람들을 격려해 주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2. 스노우 회장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반드시 시련을 겪어야 하는 이유에 관해 공부한다.(110~111쪽) 왜 시련 없이는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것들을 얻으려 노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3.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시험과 유혹에 대응해야 하는가?(몇 가지 예로, 112~114쪽을 참조한다.) 주님은 시험의 시기에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
4. 본 장 마지막 부분을 읽는다. 여러분은 어려움을 겪으며 무엇을 얻었는가?
5. 본 장에서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는 한두 말씀을 찾아본다. 여러분이 고른 말씀에 대해 어떤 감사를 느끼는가? 격려가 필요한 가족이나 친구에게 그런 진리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

관련 성구: 신명기 4:29~31; 시편 46:1; 요한복음 16:33; 로마서 8:35~39; 고린도후서 4:17~18; 모사이야서 23:21~22; 24:9~16; 교리와 성약 58:2~4

교사를 위한 도움말: 사전에 몇몇 반원에게 연락하여 본 장과 관련 있는 경험을 나누도록 부탁한다. 예를 들자면, 본 장을 가르치기 전에 두세 사람에게 시련으로부터 배운 것을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주

1. Eliza R. Snow Smith, *Biography and Family Record of Lorenzo Snow* (1884), 89-93 참조.
2. *Millennial Star*, Apr. 18, 1887, 245.
3. *Deseret Weekly*, Nov. 4, 1893, 609.
4. *Millennial Star*, Aug. 24, 1899, 532.
5. *Deseret News: Semi-Weekly*, Feb. 9, 1886, 1.
6. *Deseret News*, Apr. 11, 1888, 200; 로렌조 스노우가 1888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전한 말씀을 상세하게 풀어서 쓴 기사에서 발췌함.
7. *Deseret News*, Oct. 28, 1857, 270.
8. *Deseret News*, Apr. 11, 1888, 200.
9. "Address to the Saints in Great Britain", *Millennial Star*, Dec. 1, 1851, 364.
10. *Deseret Weekly*, Nov. 4, 1893, 609.
11. *Millennial Star*, Aug. 24, 1899, 531.
12. *Deseret News: Semi-Weekly*, Dec. 2, 1879, 1.
13. Conference Report, Apr. 1899, 2.
14. *Deseret News*, Apr. 11, 1888, 200.
15. "Old Folks Are at Saltair Today", *Deseret Evening News*, July 2, 1901, 1; 나이 든 일부 교회 회원들에게 전한 말씀; 이 말씀은 로렌조 스노우가 88세 때 준비하고 아들인 리로이가 읽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의로운 후기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시련의 시기에
필요한 성품[을] …… 갖추[려고]” 힘쓴다.

로렌조 스노우의 생애에서

1899년 12월 15일, 당시 교회 회장이었던 로렌조 스노우 회장은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봉사했던 프랭클린 디 리차즈 장로의 장례식에서 말씀했다. 설교를 마칠 무렵에 스노우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스라엘의 주께서 후기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순결하게 하여 가까운 미래에 맞이하게 될 일들을 대비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스노우 회장은 “주님 앞에 마음을 순결하게” 간직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리차즈 회장과 함께 1850년대 신임 사도 시절에 경험한 일을 들려주었다. 그 당시 브리검 영 회장은 교회 내 개혁을 이끌며, 후기 성도들에게 어디에 있든지 회개하고 의롭게 살겠다는 결의를 새로이 하라고 촉구했다.

스노우 회장은 이렇게 회상했다. “영 회장님이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개심하라고 촉구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셨을 때, 그분은 일부 사람들과 더불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강하게 말씀하시며, 그들은 마땅히 해야 할 바대로 신권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닌 신권은 거두어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계셨던 형제님들은 영 회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격렬하게 말씀했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은 프랭클린 형제님과 제 마음을 감동시켰으며,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우리 자신은 어떤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영 회장님께 가서 우리 신권을 내놓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일 그분이 주님 이름으로 우리가 신권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고 느낀다면 신권을 단념할 요량이었습니



프랭클린 디 리차즈 회장

다. 우리는 그분이 홀로 계신 것을 보고 그분께 가서 이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대답하실 때 눈물을 머금었던 것 같습니다. ‘로렌조 형제님, 프랭클린 형제님, 여러분은 주님께 여러분의 신권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님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¹

스노우 회장은 평생 주님 앞에서 마음을 순결하게 하기를 바랐으며, 또한 성도들에게도 자신이 합당한지를 살피도록 권고했다. 그는 “이해를 높이고자 힘 있는 어조”로 “후기 성도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성품을 갖춰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다.”² [125쪽 제언 1 참조]

로렌조 스노우의 가르침

우리가 올바른 성품을 갖춘다면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살피시도록 자신 있게 요청할 수 있다.

우리가 영의 세계로 돌아갈 때 가장 가치 있고 유용하게 여겨질 것은 이 시험의 상태에서 충실하고 한결같은 후기 성도로서 연마한, 올바르고 분명한 성품일 것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취업 신청을 하거나 신뢰를 요하는 자리에 지원하면,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당사자의 자격을 입증할 만한 추천장이나 소개장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종종 받습니다. 이런 문서는 다른 방법으로는 얻기 힘든 호감이나 특전을 얻는 데 대단히 쓸모가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성품이라고 해서 품행 증명서라고 불리는 이 문서는 얻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지켜본 바에 따르면 품행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의 진면모는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교회 회원으로 알려진 사람으로서 주위 사람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 무진 애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런 이들의 실제 성품이나 소위 내적 자아는 베일에 가려져 있거나 위장되어 있습니다. …… 지금 제가 [인용하려] 하는 이 기도, 즉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시편 139:23~24]라는 기도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 기도는 다윗의 인생이 본 궤도에 올랐을 때, 진심이 담겨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자신을 갖고 주께 드린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다윗도 연약함 때문에 이런 종류의 기도를 드리는 것에 대해 망설이거나 떨린 적이 있

었습니다.

저에게는 많은 후기 성도들이 사는 동안 대부분 주께 나아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와 같은 기도를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다고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백성으로서 어느 때든지 주님 앞에 엎드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생활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으며, 의로운 가운데 선행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일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 저는 [모든 사람이] 이 다윗의 기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자기가 받은 빛에 대하여 얼마나 그 빛에 걸맞은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그 기도를 하나님에 대한 진심 어린 헌신의 일부로 삼으시기를 권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같이 탁월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을 전능자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영을 슬프게 해서 떠나가게 만들 직접적인 소지가 있는 행동을 사람들 눈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몰래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혼자 있더라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들은 죄를 회개하고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고치며, 향후로는 과거보다 더 나은 행동을 하겠다고 다짐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 앞에서 시련의 시기에 필요한 성품, 영의 세계로 들어갔을 때 거룩한 존재들과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친교를 나눌 만한 성품을 갖추겠다고 결심하지 않으면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 우리는 참된 남성과 참된 여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크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의로운 일을 하는 동안 항상 도움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 우리 뜻을 희생하며, 타락한 본성에 대항하여 싸우고 옳은 일을 위해 바르게 행동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할 수 있도록 성신의 동반을 받기에 합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감이라고 할 수 있는, 내적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느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음을 의식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그 행동을 야기시키는 동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영과 일치하는[조화를 이루는]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³ [125쪽 제언 2 참조]

정전에 나오는 본보기들은 성품을 향상시키는 법을 알려 준다.

저는 선지자들의 성품을 보며 감탄하는 일이 많은데, 모세가 특히 그렇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수행하려고 한

그의 결의와, 사람의 힘이 미치는 한 전능자의 도움을 받아 무슨 일이든 하려고 했던 그 준비성을 높이 평가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주님에 대한 그의 고결함과 충성심을 경모합니다. ……

하나님은 오늘날 바른 길을 추구하는 남녀를 높이 평가하십니다. 사탄의 세력이 그들에 맞서 전투 대형을 이루고 있지만, 그들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누가복음 4:8 참조,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이 부분 번역이 누락되어 있음-옮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하므로 그들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니다.[야고보서 5:16 참조] 한 예로, 모세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전능자와 함께하는 가운데 그분[하나님]의 의도를 바꾸는 힘을 지녔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점차 화가 나서서 모세에게 그들을 멸하고, 모세를 데려다가 그를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며,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것을 모세와 그의 후손에게 부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위대한 지도자이자 입법자인 그는 의무에 충실했으며,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백성을 대신하여 주께 간청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행사한 적이 있고, 또 행사할 수 있는 권능을 통해 백성을 멸망으로부터 구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출애굽기 32:9~11; Joseph Smith Translation(조셉 스미스 역 성경), Exodus(출애굽기) 32:12(후기성도판 영어 성경, 출애굽기 32장 12절 각주 b, 조셉 스미스 역 성경에는 한글 성경 32장 12절 “뜻을 돌이키사” 부분이 “Thy people will repent of this evil[당신의 백성들이 이 죄악을 회개하리니]”로 나옴-옮긴이) 참조] 주님 눈에 모세는 얼마나 고귀하고 멋지게 보였겠습니까! 또 주님은 그분이 택한 백성이 완악하고 무지한 상태에 있는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두었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흐뭇하셨겠습니까!

요나에게서 우리는 흥미로운 성격상의 특징을 다시금 발견합니다. 요동치는 바다 위에서 사공들이 배를 구할 수 없다고 두려워할 때, 주께서 명하신 대로 니느웨로 가는 길을 택하지 않아 죄책감을 느낀 요나는 앞으로 나와서 곧 닥치려 하는 재앙의 원인이 바로 자신임을 고백하고, 배에 탄 사람들의 안위를 위해 흔쾌히 희생을 하려고 했습니다.[요나 1:4~12 참조] 다른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요나와 같이 특별한 경우가 닥쳤을 때 연약함을 드러내기는 했어도 그 성품에는 참으로 당당하고 존경할 만한 무언가가 있습니다.⁴ [125쪽 제언 3 참조]



요나는 비록 “연약함을 드러냈[지만]” 그의 “당당하고 존경할 만한” 특성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신앙을 행사하고 잘못된 행동을 회개할 때,
의로운 성품이 차츰차츰 계발된다.**

고대에 살았던 훌륭한 사람들에게서 뚜렷이 보게 되는 그런 성격상 특징은 저절로, 또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며 하루나 일주일, 또는 한 달이나 한 해 만에 얻어진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칭찬이나 비판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과 진리에 끊임없이 충실한 결과, 차츰차츰 계발된 것입니다.

…… 후기 성도로서 우리는 구원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또 앞서 말한 의로운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렸던 원리들을 우리 안에 계발함으로써 주어진다 것을 이해하고 명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으려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써 우리 내면의 경건이 발전되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점점 경건과 관련을 맺게 되며, 때가 되면 경건이 우리 존재의 일부가 됩니다. ……

이따금 자신이 한심스럽게 여겨질 만한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까?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런 일을 하기를 멈춘다면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잘못을 느꼈을 때 그것을 개선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며, 이러한 것은 또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는 자체보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더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에게 뭐라고 할지를 걱정합니다. 반면에,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결과 자기가 한 행동이 호평이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자신은 헛수고를 했다고 생각하며, 옳은 일을 했더라도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느끼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바란다면, 자신을 영원한 세상의 선한 영들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기를 바란다면, 또 우리가 읽은 바대로 고대 성도들이 것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는 원동력이 된 그런 신앙이 자기 안에 확립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성령을 얻은 후, 그 속삭임을 듣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성령을 우리에게서 몰아내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을 슬프게 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사실이긴 해도, 잘못을 발견한 즉시 그릇된 행동을 회개하고 저지른 잘못을 가능한 한 고치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밟음으로써 우리의 성품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대업이 진척되며 유혹을 이길 힘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자울과 향상이란 면에서 우리가 이룩한 발전에 스스로가 놀랄 만큼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⁵ [125쪽 제언 4 참조]

의로운 성품을 유지할 때 주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

우리가 받아들인 이 복음은 놀라운 효력을 발휘합니다. 복음이 요구하는 바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의 모든 시대에서 인류에게 약속되었거나 부여된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과 진리에 관한 위대하고 영원한 원리를 계발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장난감이나 노리개를 얻은 아이처럼 덧없는 것들에 만족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와 더 가깝고 친근한 관계를 맺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됴됨이와 예지가 발전하기를 바라시는데,

이는 이 목적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영원한 복음이라는 매체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사도 요한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요한1서 3:3]라고 말했습니다. 후기 성도 여러분은 복음 원리를 생활에 적용하고 있으며, 또 그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 있습니까?

…… 우리는 하나님의 의 안에서 더 높이 향상하기 위해 지금 형편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준수해 온 이 구원 체계가 제공하는 유익과 축복, 특혜는 무엇이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사용할 수단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만일 그 일에 희생이 요구된다면 그것은 자신이 믿는 종교를 탐구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매우 시의 적절한 희생이 될 것입니다. 또 매일 종교가 가르치는 대로 살며, 역경에 처하더라도 번영을 누릴 때처럼 역사하시는 여호와와 손길을 깨닫고 자신의 뜻을 그분 뜻에 복종시킴으로써 종교가 요구하는 바에 부합하려고 힘쓰는 이들에게도 그렇습니다.

……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인지 알려면 …… 스스로를 살피고 깊이 성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필요하다면 근면하고 충실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고 선행을 더 많이 행할 수 있습니다.

백성 전체로 말하자면 우리는 의심할 여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운데에는 함양해야 할 영적 은사를 부여 받은 사람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마음만 먹는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그런 은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거룩한 방법으로 더욱 빨리 나아가 주님께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일에 관여하는 영은 그러한 영적 힘과 축복들을 증가시킬 정도로 그들에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주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을 특권을 받았는데도 그럴 수 있는 위치로 가지 않습니다.⁶

후기 성도로서 우리는 어떤 값이나 희생이 따르더라도 성품을 신성하게 간직해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성품은 끊임없는 자기 부인이라는 값을 평생 치르더라도 획득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딸과 함께 면류관을 얻고 해외 왕국의 부와 영광을 얻으리라는 것을 …… 추호의 의심도 없이 …… 기대할 수 있습니다.⁷ [125쪽 제언 5 참조]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제언

본 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다음 제언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v~vii쪽을 참조한다.

1. 여러분은 117쪽과 119쪽에 나오는 이야기를 복습하면서 로렌조 스노우 장로와 프랭클린 디 리차즈 장로가 한 행동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어떻게 하면 이런 원리들을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지 숙고해 본다.
2. 스노우 회장은 “우리는 참된 남성과 참된 여성이 되어야 합니다.” (120쪽)라고 말씀했다. 참된 남성과 참된 여성이 되는 것은 무엇을 뜻한다고 생각하는가?
3. 스노우 회장이 모세와 요나의 모범에 관해 언급한 부분(121~122쪽)을 숙고한다. 각 이야기에서 우리의 성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점을 발견했는가?
4. 123쪽 두 번째 문단 전체를 깊이 생각해 본다. 왜 우리의 성품을 강화하려면 잘못을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고 자신의 결점을 볼 수 있는가?
5. 본 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스노우 회장의 권고(123~125쪽)를 복습한다. 시간을 내어 자신을 살피고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관련 성구: 시편 24:3~5; 베드로후서 1:2~11; 모사이야서 3:19; 엘마서 48:11~13, 17; 이터서 12:25~28; 교리와 성약 11:12~14; 88:63~68

교사를 위한 도움말: 반원들에게 본 장에서 한 부분을 골라 마음속으로 읽으라고 한다. 같은 부분을 고른 사람끼리 두세 명씩 모이게 한 후, 배운 것을 토론하라고 한다.

주

1. *Deseret Semi-Weekly News*, Dec. 19, 1899, 5.
2. *Deseret News: Semi-Weekly*, Aug. 15, 1882, 1.
3. *Deseret News: Semi-Weekly*, Aug. 15, 1882, 1.
4. *Deseret News: Semi-Weekly*, Aug. 15, 1882, 1.
5. *Deseret News: Semi-Weekly*, Aug. 15, 1882, 1.
6. *Deseret News: Semi-Weekly*, Aug. 15, 1882, 1.
7. *Deseret News: Semi-Weekly*, Feb. 9, 1886, 1.

성스러운 가족 관계

“우리가 충실하기만 하다면 불멸과 영광을 누리는 상태에서 서로 친교를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이곳에서 형성된 관계는 그 성격상 가장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로렌조 스노우의 생애에서

로렌조 스노우는 일흔 번째 생일을 고대하며, ‘대가족 모임과 생일 축하’를 위해 모든 자녀와 그들 가족에게 유타 주 브리검시티에 모이도록 초대했다. 그는 자녀들의 가족이 머물 숙소와 음식, 어린 자녀들을 포함하여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집안 잔치]라는 이 문제를 생각하면 할수록, 살아 있는 동안 온 가족을 한꺼번에 만나서 아버지의 축복을 주어야겠다는 갈망과 소원이 더욱 커졌다.”라고 로렌조 스노우는 적었다. 그는 자녀들에게 “중대한 일이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참석하도록 당부했다.¹

스노우 가족은 1884년 5월 7일부터 9일까지 함께 모여 음악, 연극 작품, 연설, 시, 놀이, 음식, 다정한 대화를 즐겼다.² 스노우 회장의 누나인 엘리자는 그가 행사 내내 “여러 가족 모임에 참여하고, 축복사 자격으로 …… 집안 식구들에게 축복을 주었으며” 또한 “아버지로서 많은 조언과 가르침과 훈계”를 전했다고 말했다. 가족 모임이 끝나갈 무렵, 가족들은 스노우 회장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다. 엘리자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대가족이 유쾌하게 웃는 얼굴을 바라보면서 지금 느끼는 행복과 이번 모임으로 기대되는 좋은 성과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표했다고 한다. 가족을 둘러보며 스노우 회장은 “내 마음은 하늘 아버지에 대한 뜨거운 감사로 차고 넘친다. …… 여기에 서서 내 칠순을 축하하는 이 영광스럽고 천국에 있는 듯한 광경을 보니, 이처럼 거룩하고 성스러운 기회를 주신 것에 대



자녀들은 “주님이 주신 소중한 유산”이다.

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느낌을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구나.”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노우 회장은 말을 이었다. “우리가 영의 세계로 가기 전 이 세상에서 기대해 볼 만한 가족 모임으로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우리 선조들의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명예로운 삶을 살며, 덕과 고결함을 훼손하지 않고, 성신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며, 순결한 생활을 부지런히 추구하여 곧고 좁은 길에서 벗어나 길을 잃는 사람이 우리 가족 가운데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가 첫째 부활의 아침에 나아올 자격이 있음을 스스로 입증하여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불멸 가운데 가족의 결합이 계속 유지되며, 영원이라는 끝없는 세대를 통해 증식이 이어지기를 기원한다.”³ [134쪽 제언 1 참조]

로렌조 스노우의 가르침

가족 관계는 성스러우며 영원을 두고 더 돈독해질 수 있다.

결혼을 권장하십시오. …… [사람들에게] 결혼 관계의 신성함과 아울러 하나님께서 우리의 첫 부모에게 주신, 변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세기 1:28 참조]는 위대한 계명을 지키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키십시오. 이 계명을 무시하고 결혼 성약을 내팽개치는 현재의 세상 풍조를 보면 이 일은 더욱더 절실합니다. 이 땅에서 이혼이 잦아지고, 자녀를 주님이 주신 소중한 유산으로 여기는 대신 부담으로 여기는 경향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슬퍼집니다.⁴

[주님]은 우리가 충실하기만 하다면 불멸과 영광을 누리는 상태에서 서로 친교를 나눌 수 있으리라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형성된 관계는 그 성격상 가장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⁵

이곳에서 만들어진 관계는 영원한 세상에서도 지속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자매, 형제, 특히 사랑스러운 자녀가 숨을 거두는 것을 지켜보는 어머니는 그 자녀가 영의 세계에서 자신의 자녀가 되며, 이 세상을 떠나던 때와 같은 모습으로 다시 품에 안기게 되리라는 것을 압니다. 남편의 임종을 지켜보는 아내는 남편이 생을 다하더라도 다시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에 평안을 얻고 위안과 기쁨을 느낍니다. 이러한 것은 전능하신 분의 계시로 주어졌으며, 그녀는 영원한 세상에서 다시 남편을 소유하게 될 것

입니다. 이 세상에서 맺은 관계는 휘장 저편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며, 이곳에서 형성된 유대 관계는 다음 세상에서 더 돈독해질 것입니다. 후기 성도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확신을 심어 주셨기 때문입니다.⁶
[134쪽 제언 2 참조]

이생에서 결혼하거나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충실한 후기 성도들은 다음 세상에서 모든 승영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일전에 한 여성이 사무실로 찾아 와 개인적인 일로 만남을 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얻은 기회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심히 유감스럽다고 했습니다. …… 그녀는 만약 이 세상에서 남편을 얻지 못한다면 다음 세상에서 어떤 상태에 처하게 되는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의문은 우리 젊은이들 마음속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 위안과 위로를 받으시도록 약간의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실한 생활을 한 후기 성도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어떤 일을 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죽은 뒤에 잃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꿔 말한다면, 만일 젊은 남성이나 여성이 결혼할 기회는 없었지만 죽을 때까지 충실하게 살았다면, 이런 기회를 얻은 다른 남녀들이 결혼 관계를 통해 받는 모든 축복과 승영과 영광을 그들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

현세에서 결혼할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죽는다면, 그들에게는 결혼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축복을 받도록 방편이 마련될 것입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친절하시며, 불공평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는 불공정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결혼할 기회 없이 죽은 여성이나 남성이 다른 세상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 이는 공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불공정해 보이는 면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불공평한 분이 아니심을 압니다. 저는 누나인 엘리자 알 스노우가 지금까지 있었던 어느 후기 성도 여성 못지않게 훌륭한 여성이었다고 믿습니다만, 누님은 미혼 상태로 있다가 가정을 꾸릴 기회를 끝내 얻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 저는 누님이 그 이유 때문에 어느 한 가지라도 잃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순간도 없습니다. 누님에게는 이생에서 가족을 양육할 기회가 있었다면 얻게 되었을 위대한 왕국이 다른 세상에서 똑같이 마련될 것입니다.⁷

남편과 아내가 하나임을 느낄 때, 가정에서 사랑과 친절을 북돋우게 된다.

집안 문제에서 생긴 작고 하찮은 오해가 여러분의 행복을 해치는 독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⁸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충실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못마땅한 일을 참아야 할 때도 많고, 남편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를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은 남편 때문에 시험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남편이 무얼 잘 몰라서, 또 어떤 때에는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해서 말입니다. ……

……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편들도 여러분만큼 서툴며, 더러는 더 심하게 서툴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개의치 마시고 가끔 일어나는 불쾌한 일을 참아 내려고 노력하십시오. 다음 세상에서 서로 만나면 여러분은 그런 일들을 참아 낸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남편 여러분, 여러분 중 상당수는 응당 해야 할 만큼 아내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 아내에게 친절하십시오. 아내가 모임에 가면 모임 시간 중 적어도 반 이상은 여러분이 아기를 돌보십시오. 아기를 흔들어 달래 주어야 한다면, 많은 일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저 흔들어만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다소 희생이 되더라도 친절함을 잃지 마십시오. 어떤 희생을 치르든 간에 부디 다정하게 대하십시오.⁹

남편은 가정에서 더욱 자애롭고 아내와 자녀, 이웃과 친구들을 더 좋은 마음으로 대하며 더욱더 친절하고 신실해야 합니다. 어떤 가정을 방문했을 때, 가장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신으로 가득 차 천국처럼 지혜와 이해심으로 친절하고 온화하게 가정을 보살피는 모습을 보면 존경심이 절로 우러납니다.¹⁰

시온의 가정에서 단합을 이루려면, 천국과 같은 화합을 이루려면, 가족을 하나로 결합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에게는 주님의 영이 임하여 그 빛과 예지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것들이 가족 각자의 일상과 행동에 투영된다면 그 가족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가족의 구원은 가장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은 힘닿는 데까지 자신의 감정과 애정을 가족들의 감정 및 애정과 결합시키려고 애쓰며, 가족의 평안과 복지에 필요한 모든 것을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가족들도 똑같은 감정과 똑같은 친절, 똑같은 성향을 나타내며 자신이 받는 축복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최대한 드러내게 됩니다.

가족은 감정, 곧 정서의 일치와 그에 상응하는 애정 면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가족은 결속되어야 합니다.¹¹

[남편은] 아내 및 자녀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성신의 은사와 권능으로 영감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남편은 착한 아내로부터 존경 받을 만한 사람이 되며, 가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이 끊임없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가족이 하나가 되어야 성신이 그 가족에게 임할 수 있으며, 아내는 기도를 통해 성결하게 되고, 남편과 자녀들 앞에서 자신을 성결하게 할 필요를 깨닫게 됩니다. 부부는 하나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고 설립될 때, 어느 한 곳을 점하기에 적합한, 깨끗한 구성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녀들은 물론 자녀의 후손에게도 순수한 영을 불어넣으며 순전한 가르침을 전해 주게 될 것입니다.¹² [135쪽 제언 3 참조]

자녀는 부모가 영감을 구하고 좋은 모범을 보일 때 복음을 가장 잘 배운다.

우리가 참여하는 이 일은 우리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뛰어난 예지를 지닌 분의 지시를 받아 움직입니다. …… 이 왕국의 미래는 우리 후손에게 달려 있으며, 왕국의 힘과 궁극적 승리는 그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적절하게 훈련하느냐에 좌우됩니다. 가족에게 적절한 영향을 끼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훌륭한 교훈을 줄 뿐만 아니라 좋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내가 말한 대로 말하고, 내가 행한 대로 행하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¹³

자녀들을 모범과 교훈으로 가르치도록 힘쓰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은 망설임 없이 여러분의 발자취를 따르고 여러분이 그랬듯이 용감하게 진리를 수호할 것입니다.¹⁴



부모는 “가족을 하나로 결함시[키려고]” 힘써야 한다.

거룩한 신권 소유자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를 바라는 남성이라면 예언의 영을 지녀야 하며, 사람들의 생명과 구원을 돌볼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가정에서 가족에게, 직장이나 길거리에서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난롯가에서 자녀와 이웃에게 복음을 가르칠 때에도 마음은 이 연단에서 형제들에게 말씀할 때처럼 생명의 말씀으로 감화되어야 합니다. 대중 앞에서는 영을 조금 지녔다가 그 영을 이내 팽개치고 만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들에게 말씀한 다음, 집에 돌아가서, …… 자기 안에 생명의 말씀을 간직하는 대신에 철저하게 메마르고 무감각해지면서 영적인 생명력을 잃게 되는데, 그러한 행위는 더 이상 주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들은 깨어 일어나 다른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어야 하며 이는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그들은 가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줄 능하신 분으로부터 오는 영감이 늘 그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신앙의 힘과 단호한 행동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에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고, 서로 사랑하는 법을 알게 해 주는 결연한 태도를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께 주신 사랑을 우리 각자의 마음에 깃들게 하시고, 선한 지식을 계속 쌓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¹⁵

자녀를 가르치고 훈계하며 원리를 제시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는 것은 아버지의 본분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본질적으로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녀들은 그러한 가르침에 따름으로써 가장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었을 때에는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원리를 배웁니다.¹⁶

우리 안에 삶과 구원에 필요한 순수한 원리들을 부지런히 함양한다면 자녀들은 이러한 지식 안에서 자라게 되어, 천국 같은 사회 건설을 촉진시키고 주변에 행복과 평화를 확립하는 데 우리보다 더 나은 역량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¹⁷ [135쪽 제언 4와 5 참조]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제언

본 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다음 제언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v~vii쪽을 참조한다.

1. 스노우 회장은 온 가족을 한데 모이게 했을 때 기분이 어떠했는지 다시 살펴본다.(127쪽 및 129쪽) 가족이 함께 모이면 어떤 좋은 결과가 생길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가족이 단합을 유지하도록 도울 수 있는가?
2. 129쪽 두 번째 전체 문단은 어떤 면에서 오늘날과 관련이 있는가? 교회 젊은이들이 결혼 성약의 신성함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들이 결혼하여 부모가 되는 것을 고대하도록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3. 스노우 회장은 가정에서 생기는 “작고 사소한 오해”가 “[우리의] 행복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다고 말씀했다.(131쪽) 이러한 “독”을 피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몇몇 사례를 보려면 131~134쪽을 참조한다.)

4. 132쪽 서두 부분을 공부한다. 왜 여러분은 부모가 “내가 말한 대로 말하[라.]”고 하는 외에도 “내가 행한 대로 행하라.”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부모는 어떻게 모범으로 가르칠 수 있는가? 여러분이 부모님의 좋은 모범에서 배운 원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5. 스노우 회장은 교회에서 권능으로 가르치지만 집에서는 그렇지 못한 부모에 대한 염려를 표했다.(133~134쪽) 여러분이 가정에서 “생명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생각해 본다.

관련 성구: 니파이전서 8:10~12; 힐라맨서 5:12; 교리와 성약 68:25~28; 93:40~50; 132:19~20

교사를 위한 도움말: “여러분은 필요 이상으로 말한다거나 너무 자주 여러분의 의견을 말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행동은 반원들의 흥미를 잃게 한다. …… 여러분의 주요한 관심사는 감명 깊은 공과를 하는 데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공부하도록 돕는데 있다. 이것은 반원들이 서로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을 포함한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64쪽)

주

1. Eliza R. Snow Smith, *Biography and Family Record of Lorenzo Snow* (1884), 453-454 참조.
2. *Biography and Family Record of Lorenzo Snow*, 461-483 참조.
3. *Biography and Family Record of Lorenzo Snow*, 484-486.
4. “Prest. Snow to Relief Societies”, *Deseret Evening News*, July 9, 1901, 1; 이 말씀은 상호부조회 여성들에게 직접 주어졌다.
5. *Deseret News*, Apr. 11, 1888, 200; 로렌조 스노우가 1888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전한 말씀을 상세하게 풀어쓴 기사에서 발췌함.
6. *Salt Lake Daily Herald*, Oct. 11, 1887, 2.
7. *Millennial Star*, Aug. 31, 1899, 547-548.
8. *Deseret News*, Oct. 21, 1857, 259.
9. “The Grand Destiny of Man”, *Deseret Evening News*, July 20, 1901, 22.
10. *Deseret News: Semi-Weekly*, Mar. 31, 1868, 2.
11. *Deseret News*, Mar. 11, 1857, 3; 원문에서는 3쪽이 419쪽으로 잘못 표기됨
12. *Deseret News*, Jan. 14, 1857, 355.
13. *Deseret News*, July 26, 1865, 338.
14. “Scandinavians at Saltair”, *Deseret Evening News*, Aug. 17, 1901, 8.
15. *Deseret News*, Jan. 14, 1857, 355.
16. *Deseret News*, Jan. 28, 1857, 371.
17. *Deseret News*, Oct. 21, 1857, 259.



1892년 4월 6일, 솔트레이크 성전의 가장 높은 첨탑에 갓돌을 고정시키는 광경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모였다.



“성전으로 오십시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시야를 밝혀 주셔서 아무리 상상력을 발휘해도 마음에 그릴 수 없을, 놀랍고 장엄한 미래를 내다보게 하셨습니다. 성전으로 오십시오. 그러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로렌조 스노우의 생애에서

로렌조 스노우는 침례와 확인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어 커틀랜드 성전에서 열리는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곳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다른 지도자들과 더불어 크나큰 영적 축복을 받았다. 그는 일지에 이렇게 기록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를 받고, 시현과 놀라운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하늘 합창단의 노랫소리를 듣고, 장로들이 집행한 병자 축복을 통해 놀라운 치유력이 나타나는 모습을 목격했다. 아픈 사람이 병 고침을 받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맹인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그 일은 그 거룩한 건물에 퍼진 영적인 기운인, 성스럽고 신성한 영향력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었다.”¹

로렌조 스노우는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중에 친히 나타나셔서 커틀랜드 성전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 성전을 사랑했다. 따라서 그는 가르치기 위해 처음 그곳 설교단에 섰을 때 경외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청중에게 말씀하기 위해 생애 처음으로 그 연단에 섰을 때 받은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그 설교단 흥벽 위에는 ‘머리털은 깨끗한 눈같이 희고 눈은 불꽃같은’ 거룩한 분이 서 계셨으며, 또한 모세와 엘리야, 일라이어스가 나타나 그들이 지녔던 경륜의 시대의 열쇠를 조셉 스미스에게 맡긴 곳도 바로 그곳이었기 때문입니다.”² [교리와 성약 110편 참조]

여러 해가 지난 1892년 4월 6일, 로렌조 스노우 회장은 다른 회중 앞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완공된 솔트레이크 성전 앞이었다. 대략 4만 명에 이르는 후기 성도들이 템플 스퀘어 주변 지역에 운집했으며, 약 만 명은 “행사장을 볼 수 있는 근처 집이나 건물 꼭대기를 차지했다.”³ 군중은 성전의 가장 높은 첨탑에 갓돌(지붕이나 탑 같은 물체 위에 덮거나 올려놓는 돌, ‘관석’이라고도 함-옮긴이)을 고정시키는 의식을 보려고 모여들었다. 모로나이 천사상은 그날 늦게 갓돌 위에 설치될 예정이었다.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었던 스노우 회장은 제일회장단의 지명에 따라 성도들을 인도하여 호산나 환호를 외치도록 되어 있었다. 군중에게 호산나 환호를 외치는 법을 설명하면서 그는 성전 사업에 대한 애정과 열의를 표현했다.

스노우 회장은 말했다. “오늘 갓돌을 놓은 후 외치게 될 호산나 환호는 조셉 스미스 회장님이 커틀랜드 성전에서 도입했으며,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전능자의 시현이 열린 엄숙한 모임에서 사용된 바 있습니다. 이 환호는 범상한 외침이 아닙니다. 이 환호는 우리가 똑똑히 이해하기를 바라는 성스러운 외침으로, 지금 우리 앞에서 거행되는 행사처럼 특별한 모임에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바라건대, 형제 자매님들은 그 말을 외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개입시켜 이 웅장하고 보기 드문 일을 성취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마음을 가득 채우십시오. 39년 전 오늘, 이 성전의 모퉁잇돌인 초석이 놓였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그 때로부터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인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축복을 돌아보고 되새기는 가운데 마음에서 우리나라 환호를 외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감사로 채우십시오.” 그는 호산나 환호를 시범으로 보인 후 말했다. “이제 우리가 성전 앞으로 가서 이 환호를 외칠 때, 모든 남녀는 이 도시에 있는 모든 집들이 흔들리고, 이 도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소리를 들으며, 그 소리가 영원한 세상까지 미칠 수 있도록 이 말을 목청껏 외치시기 바랍니다.”⁴

갓돌을 올려놓는 의식에 관한 다음 보도는 성도들이 행사 도중 감격한 가운데서도 얼마나 경건했는지를 보여준다.

“정오가 되자마자 윌포드 우드럽 회장은 군중 모두가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단상 맨 앞으로 걸어 나왔으며, 군중 가운데는 엄숙한 정적이 감돌았다. 그가 말씀할 때 사람들은 북받치는 감정을 가누지 못했다.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여, 땅 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여 주목 하십시오! 우리는 이제 선지자요 선견자며 계시자였던 브리검 영이 기초를 놓고 부지를 헌납한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갓돌을 놓겠습니다.’

그런 후 우드럽 회장은 전기 단추를 눌렀으며, 성전 갓돌은 제 위치로 옮겨져 단단히 박혔다. 그 다음 일어난 장면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 경애하는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로렌조 스노우 사도가 앞으로 나와 4만 명의 성도들에게 일제히 합성을 지르도록 인도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과 어린 양께. 아멘, 아멘, 아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과 어린 양께 호산나. 아멘, 아멘, 아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과 어린 양께. 아멘, 아멘, 아멘!’

매 환호 뒤에는 손수건을 흔드는 일이 뒤따랐다. …… 기쁨이 넘쳐 눈시울을 붉히는 사람이 수천 명에 달했다. 땅은 주변 언덕에서 메아리 치는 합성 소리로 흔들리는 듯 했다. 성전 갓돌을 놓는 이 의식보다 더 장엄하거나 인상적인 광경은 일찍이 역사에 기록된 적이 없다. 그 어마어마한 회중이 영광과 영감에 찬 찬송가 ‘타는 듯한 하나님의 영’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에도 호산나 소리는 좀처럼 찾아들지 않았다.”⁵

우드럽 회장은 그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난 1893년 4월 6일, 성도들이 40년에 걸쳐 수고하여 완성시킨 솔트레이크 성전을 헌납했다. 로렌조 스노우 회장은 이 성전의 초대 회장으로 부름 받았으며 1898년 9월에 교회 회장이 될 때까지 봉사했다. 오늘날 솔트레이크 성전에는 스노우 회장이 “우리가 행하는 위대한 사업”이라고 부른 주님의 집에서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그의 초상화가 걸려 있다.⁶ [144쪽 제언 1 참조]

로렌조 스노우의 가르침

우리는 성전에서 충실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놀라운 축복에 관해 배운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시야를 밝혀 주셔서 아무리 상상력을 발휘해도 마음에서 그릴 수 없을, 놀랍고 장엄한 미래를 내다보게 하셨습니다. 성전으로 오십시오. 그러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미 성전에 가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그분께 충실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경이로운 것들을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 그분은 후기 성도들이 광활한 영원까지 완전한 행복을 가져가도록 우리가 바라거나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마련하셨습니다.⁷ [144~145쪽 제언 2 참조]

우리는 성전 의식을 통해 가족이 현세에서는 물론이고 영원토록 함께 묶이는 성스러운 유대를 형성한다.

성전 내 결혼 성약에 사용되는 아름답고 영화로운 의식에서 여러분이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두 후기 성도가 결혼으로 결합되면 영원에서 영원까지 후손이 이어진다는 약속이 주어집니다.⁸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소스라치게 놀랄 만한 지혜와 지식에 관해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죽음으로도 분리되지 않고 영원까지 이어지는 유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가족을 현세에서는 물론이고 영원토록 함께 묶는 성스러운 유대 말입니다.⁹ [145쪽 제언 3 참조]

우리는 성전에서 돌아가신 친족을 대신하여 승영 의식을 받는다.

하나님의 모든 아들딸들은 승영과 영광에 필요한 기회를 얻습니다.…… 그러나 승영과 영광을 얻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위한 침례와 성신을 받기 위한 안수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저런 의식들은 승영과 영광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접할 수 없었던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친지들을 통해 이런 의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일을 하려고 이 세상에 왔으며, 적어도 그 일은 우리가 온 주된 목적 중 하나입니다. 이 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¹⁰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왔으며, 우리가 거하던 다른 세상에서 어떤 합의를 통해 이곳에 온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성전에서 돌아가신 친족을 대신하여 위대한 사업을 수행합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승인하셨다는 것을 보여 주는 중요한 현시를 종종 받습니다. 범상치 않은 현시들은 대부

분 자신의 조상을 위해 힘쓰는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냅니다. 수천에 이르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죽은 자들을 위해 침례를 받았 습니다. ……

이제 성전에서는 사람들이 조상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 다음, 몇 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든지 간에 추적만 할 수 있다면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 아버지 등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후 찾아 낸 조상의 계보를 따라 각 남편을 아내에게 인봉시켜 드립니다. 사람의 자녀에게 복음이 알려지기 전에 살았을 유덕한 젊은이를 예로 들어 봅시다. …… 그는 아내와 결혼하여 가족을 부양했지만 여러분이나 저처럼 복음을 받아들이는 특권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족에게 도덕적 원리를 가르쳤으며 아내와 자식에게 다정하고 친절했습니다. 무엇을 더 할 수 있었 겠습니까? 그에게는 받아들일 복음이 없었으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 다고 해서 책망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결혼할 때 성전에 가서 현세 와 영원을 위해 아내를 자신에게 인봉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를 잃어 서는 안 됩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최선에 따라 행동했으며, 아내는 나라 관습에 따라 현세를 위한 결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가 속한 나 라 법에 따라 엄숙히 거행된 그 결혼을 존중합니다. …… 우리는 계보를 따 라 자녀를 부모에게, 아내를 남편에게 인봉합니다.¹¹

구주께서는 언젠가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 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이 어서 그분은 다음과 같은 놀라운 표현도 하셨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 라”[요한복음 5:25] 저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아들이 보낸 신권 소 유자의 음성을 들으며, 진리를 받아들여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그토록 부지런하게 수고하는 형제 자매들은 친족과 친구들을 위해 그런 의 식을 집행하므로 어떤 면에서 그들에게는 구주가 되는 영예를 얻게 될 것 입니다.¹² [145쪽 제언 4 참조]

우리는 희생이 따르더라도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을 힘써 수행해야 한다.

이제 모든 남녀의 마음속에는 성전에 가서 이 일을 수행해야 하겠다는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은 위대하면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다



부모는 자녀들이 성전에 오라는 권유를 받아들이도록 도울 수 있다.

음 세상으로 가서 그곳에서 생활하는 친지들을 볼 때, 그들의 승영과 영광을 위해 필요한 일을 해 주지 못했다면 우리는 무척 송구스러울 것이며, 매우 불편한 상봉이 될 것입니다.

항상 유쾌하고 마음에 드는 기회만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쪽에서 다소 희생이 따르더라도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힘써야 합니다. …… 형제 자매님들이 이처럼 중요한 일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남은 [복천년] 동안 하게 될 주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후기 성도들에게 지금 수행하라고 애써 강권하는 일입니다. 이 땅 곳곳에 성전이 세워지며, 인자가 그분의 왕국을 아버지께 바치기 전에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 형제 자매님들은 그곳에 가서 아마 밤낮으로 서둘러 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은 인자가 오셔서 그분의 왕국을 받아들여 아버지께 바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¹³ [145쪽 제언 5 참조]

순결한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가면 주님은 그분이 아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축복하신다.

우리는 이 성전들에 들어가면 다른 어떤 장소보다 주님의 영을 더욱 충만하게 누릴 수 있음을 느낍니다. 성전은 주님의 건물이며, 성전 벽 안에서는 그분의 가장 중요한 일이 수행됩니다. ……

…… 저는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더 나은 기분을 느끼며, 지금까지 해 온 것보다 더 나은 행동을 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면서 성전을 [나서는] 모습을 보면 참 흐뭇합니다. 성도들이 지냈으면 하고 우리가 바라는 감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

…… 형제 자매 여러분, 부디 충실하고 인내하십시오. 성전에 와서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기쁨을 얻고 세상에서 부딪치는 언짢은 일을 감당하도록 더 잘 준비될 것입니다.¹⁴

순결한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예상과는 다를지언정 특별한 축복을 얻고 성전을 나서게 될 것입니다. …… 어떤 성도는 성역을 베푸는 천사의 모습을 찾을 수도 있고, …… 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시현이 주어진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꼭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각 개인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아시며, 받는 사람이 가장 좋은 결실을 거두도록 상황에 맞게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충실한 성도는 받는 사람에게 큰 만족을 주는 축복이 주어질 것이라고 기대해도 무방합니다. 성전에 왔다가 [가는] 사람은 앞으로의 삶에 유용한 무언가를 마음속에 떠올리거나 이해하고 성전 문을 나서게 됩니다. 참된 성도라면 그런 것을 얻을 자격이 [있습니다.]¹⁵ [145쪽 제언 6 참조]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제언

본 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다음 제언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v~vii쪽을 참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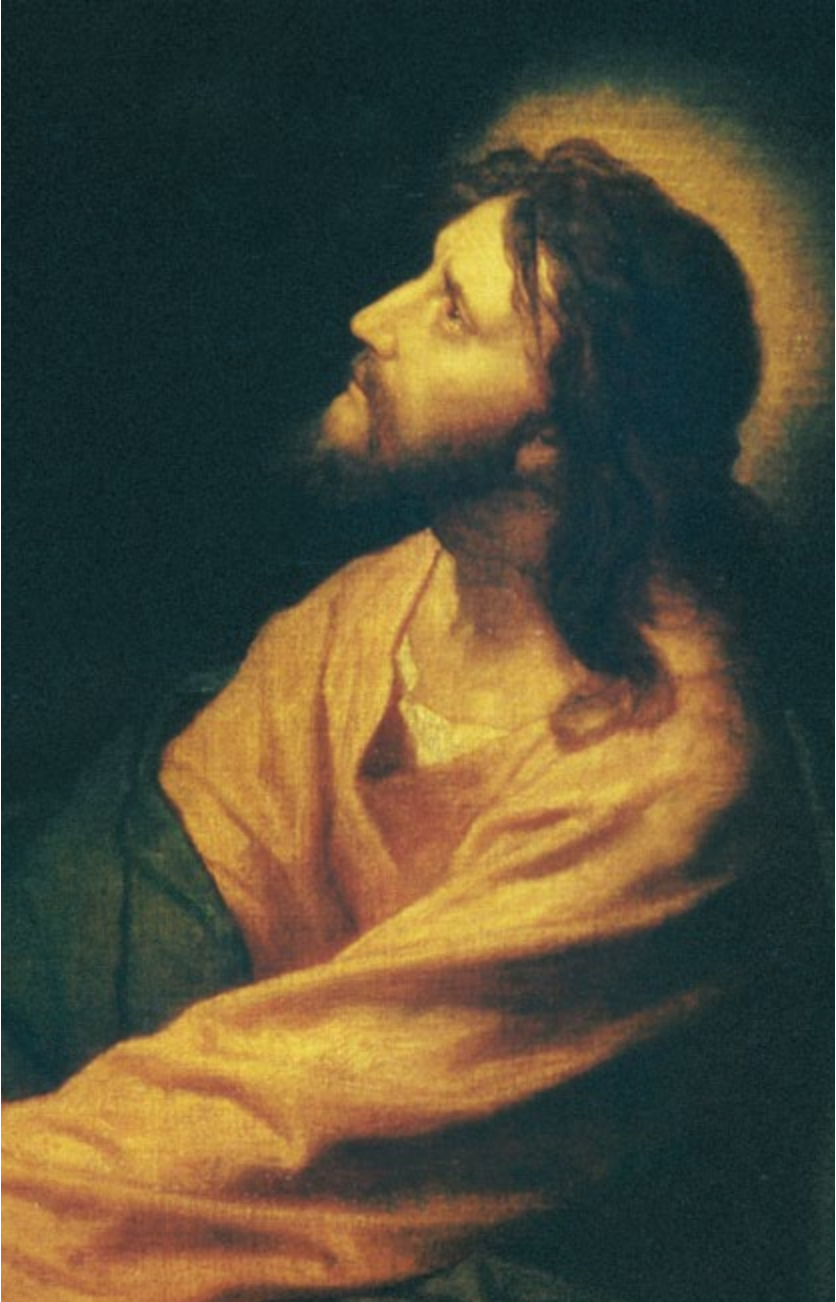
1. 솔트레이크 성전에 갖들을 놓는 의식에 관한 이야기(137~139쪽)를 읽는다. 여러분이 성전 헌납식에 참석한 적이 있다면 그 당시 느낌이 어땠는지 생각해 본다. 호산나 환호에 참여할 때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표현하는가?
2. “성전으로 오십시오”라는 스노우 회장의 권유(140쪽)를 복습한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 권유를 받아들일지, 그리고 어떻게 이 권유를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전할지 생각해 본다.
3. 140쪽 두 번째 부분을 공부하며 성전 의식을 받고 성전 성약을 맺음으로써 오는 축복을 곰곰이 생각해 본다. 이러한 축복은 여러분과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4. 140쪽 밑에서 시작되는 부분을 읽는다. 이 일을 수행할 때 우리는 어떤 면에서 “[우리] 친족과 친구들에게 구주” 역할을 하게 되는가? 교회는 우리를 돕기 위해 어떤 자원을 제공해 왔는가?
5. 우리는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에 마땅히 바쳐야 할 관심과 시간을 쏟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143쪽 맨 위에서 시작되는 부분을 복습한다.)
6. 우리가 성전 사업에 참여할 때 받을 수 있는 개인적, 영적 축복은 무엇인가?(몇 가지 예를 보려면 143~144쪽을 참조한다.)

관련 성구: 교리와 성약 97:15~17; 109:1~23; 128:15~18; 132:19; 138:57~59

교사를 위한 도움말: “여러분이 진지한 모든 의견에 긍정적으로 응답해 주는 경우, 여러분은 반원들이 토론에 참여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더욱 더 자신감을 느끼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여러분의 대답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사려 깊은 대답이었습니다.’ …… 또는 ‘좋은 예입니다.’ 또는 ‘오늘 여러분이 말씀해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64쪽)

주

1. Eliza R. Snow Smith, *Biography and Family Record of Lorenzo Snow* (1884), 11.
2. *Biography and Family Record of Lorenzo Snow*, 11-12.
3. J.H.A., *Millennial Star*, May 2, 1892, 281 참조.
4. *Millennial Star*, July 4, 1892, 418.
5. *Millennial Star*, May 2, 1892, 281-282.
6. *Millennial Star*, June 27, 1895, 403.
7. *Deseret Semi-Weekly News*, Mar. 30, 1897, 1.
8. *Deseret Semi-Weekly News*, Mar. 30, 1897, 1.
9. “Funeral Services of Apostle Erastus Snow”, *Millennial Star*, July 2, 1888, 418.
10. *Millennial Star*, June 27, 1895, 405.
11. *Millennial Star*, June 27, 1895, 403-404; 또한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윌포드 우드럽* (2004), 177쪽 참조.
12. *Deseret Weekly*, Nov. 4, 1893, 609.
13. *Millennial Star*, June 27, 1895, 404-405.
14. *Deseret Semi-Weekly News*, Mar. 30, 1897, 1.
15. 1893년 4월 8일자 *Deseret Weekly* 495쪽에 실린 스노우 회장의 말씀을 상세하게 풀어서 쓴 기사에서 발췌함.



구주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누가복음 22:42)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우리는 우리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복종시켜야 하며,
이 지상에서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성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로렌조 스노우의 생애에서

1899년 3월 31일, 로렌조 스노우 회장은 브리검 영 학교(현 브리검 영 대학교)를 방문했다. 그곳에는 후기 성도들이 스노우 회장의 85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많이 모여 있었다. 그날 오전에 스노우 회장은 형제들에게 영적 말씀을 전했으며, 같은 시각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아내들은 자매들과 함께 유사한 모임을 했다. 오후에는 모두가 함께 모였다.

오후 모임에서는 어린이 스물세 명이 “연단으로 줄 지어 올라가 스노우 회장을 마주 보고 서서 노래 두 곡을 불렀다. …… 그런 다음 어린이들은 스노우 회장에게 각기 꽃다발을 전달했다.” 스노우 회장은 어린이들에게 사의를 표한 후 축복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서 브리검 영 학교 학생 여덟 명이 한 명씩 연단에 섰다. 학교에서 각 조직을 대표하여 나온 그 학생들은 신중하게 준비한 찬사를 선지자에게 바쳤다. 사랑과 존경이 담긴 찬사에 대한 응답으로 스노우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모든 것에 관해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라서 집에 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무슨 말이든 해주기를 기대하시는 것 같고, 저 또한 무엇인가를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만은 꼭 해야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개인으로서의 저 로렌조

스노우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 아니라,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과 보좌들, 그리고 형제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의 로렌조 스노우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제가 성취한 일이 무엇이건 간에 그 일은 로렌조 스노우가 한 것이 아니며, 저를 교회 회장 자리까지 이르게 만든 지난 일들도 로렌조 스노우가 아닌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느낍니다. 예수께서는 지상에 계셨을 때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관해 생각해 보았으며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말씀은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께서는 당신의 심판이 의롭다고 하셨을까요? 그분은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요한복음 5:30 참조]라고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원리는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하늘에 계신 제 아버지이자 여러분의 아버지이기도 하신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이 원리를 따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또 그분의 뜻을 행하고자 애썼습니다. ……

“여러분이 십이사도 정원회와 제 보좌들과 저를 존중하면 이는 곧 주님을 존중하는 셈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오래 전부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 따르셨던 원리에 따라 일했을 때에만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¹

로렌조 스노우의 가르침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우리가 가는 길에 실패는 없다.

사람들은 실패가 없는 길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실패감이 감돌거나 결국은 실패한 듯싶어도, 넓게 보면 실제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 우리에게는 되보하는 듯이 보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온전히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랬습니다. 교회는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일들을 헤쳐 나가야 했으며, 사람들은 엄청난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희생을 통해 전진할 수 있었기에, 한 백성으로서 실패하지 않았습다. 왜 실패하지 않았을까요? 그 까닭은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참된 원리에 전념하여 맡겨진 의무를 이행했기 때문입니다.

…… 사람들은 대부분 주님의 영을 지니고 그 영을 따랐습니다. 그런 이유로 실패는 없었던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가 없는 길이 누구 앞이나 놓여 있습니다. 이 원리는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현세적인 일에도 적용됩니다. 주님은 교리와 성약에 나오는 다음 성구에서 그 열쇠가 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너희 눈이 순전하여 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면, 너희 온 몸은 빛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요, 너희 안에 어둠이 없으리니, 빛으로 충만하게 된 그 몸은 모든 것을 이해하느니라.”[교리와 성약 88:67]

이 말씀은 언제나 성공을 거두게 하는 열쇠가 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꽃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빌립보서 3:14]

이는 모든 후기 [성도]가 주님 앞에 한결같이 지녀야 할 원대한 목표입니다. 그에 대해 어떤 상이 주어질까요? …… “내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그에게 주어지리라”[교리와 성약 84:38]

구주께서는 언젠가 여느 때와는 다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다음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요한복음 5:30]

세상을 지으시고, 육신을 입고 이곳에 오셨으며, 큰 기적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구원을 위해 갈보리 산에서 생명을 바치신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요한복음 5:30]

이 놀라운 말씀에는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무슨 일을 하거나 무슨 일을 맡든지 간에, 또 그 일이 현세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간에, 자신을 잊고 영을 동반하기를 바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돈과 지식을 사용하는 법을 알려고 힘써야 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전한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세상을 떠나 이곳으로 [온] 이유가 바로 그 일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

나님의 유익을 증진하려고 힘쓰며, 예수께서 느끼셨던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하고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과 내일,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하나님을 위하여 눈이 순전하여 그분의 영광만을 전념으로 구한다면, 결단코 실패는 없을 것입니다.² [154쪽 제언 1 참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그분은 이 사업에서 성공하도록 힘을 주신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요한복음 5:19] 예수님은 당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지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결심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 쪽에서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복종시켜야 하며, 이 지상에서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성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이나 내일 당장은 결실을 얻지 못할지라도, 결국은 성공할 것입니다.³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출애굽기 3:11] ……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뻗뻗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출애굽기 4:10] ……

제가 읽은 이 구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특정한 일을 성취하시려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그 일을 할 그릇이 못 되며 또 능력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너무나 큰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임무의 본질과 성격이 너무나 엄청나서 모세는 그럴 만한 힘도, 능력도 없다고 느꼈으며, 또 자신의 약점을 알았기에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찾으시도록 간청했습니다. …… 모세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느꼈기에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가서 이 위대한 사업을 성취하겠나이까? 제 능력으로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없으리이다. ……

모세는 그런 생각과 느낌에 사로잡혀 있었기에 그 같은 말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태초부터 있어 왔습니다. 주께 부름을 받은 이들은 그 일을 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 하라고 부탁을 받는 장로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복음 사역자가 되어 세상의 나라들로 나아가도록 부름 받는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부족하고 부적합하다고 느낍니다. ……

예레미야 역시 부름을 받았을 때 모세와 똑같이 느꼈습니다. 그는 주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닌 모든 주변 국가의 선지자로 부르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는 조셉 스미스처럼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조셉은 열네 살이었지만 세상의 지혜와 학식에 관한 한, 이를 테면 무지한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예레미야 또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부르셨을 때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어찌 당신께서 제게 맡기시는 이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으며, 제 어깨에 짊어지게 하시려는 이 큰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겠나이까?” 예레미야는 자신이 그 큰일을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꼭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이르시기를 ……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라고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세]에서부터 예레미야를 아셨고, 주님이 명하시는 일을 예레미야가 성취하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 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예레미야 1:5~6 참조] 예레미야는 앞으로 나아갔고 전능하신 분의 힘을 통해 주께서 명하신 일을 해냈습니다. ……

주님은 사람과는 매우 다르게 행하십니다. 쓰시는 방법이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지적한 바와 같습니다. “너는 부름을 받았느니라. 부름을 받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나니,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부르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셨음이라.”[고린도전서 1:25~27 참조]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도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부르시고 안수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도록 신권과 권세를 주신 사도들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과학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유대에서 높은 직책에 있지도 못했습니다. 가난하고 무식했으며 비천한 생업에 종사했습니다. …… 그렇다면 주님은 다른 방법을 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과는 다른 방식으로 부름을 주십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름을 주시는 방법에 대해 [혼란]을 느끼기 쉽습니다. 매우 훌륭하고 지혜가 출중한 사람들도 종



모세는 “모든 성공을 자신을 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중 [혼란]을 느낍니다. 모세는 명하신 일을 해내도록 주님이 어떻게 능력을 주실지 알지 못해 [혼란스러웠지만] 나중에 정확한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위대한 여호와로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의 형제들인 이스라엘 백성을 확신시킬 수 있도록 놀라운 방법으로 도움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타이르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알려 주자 백성들은 결국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권고와 지도력을 받아들였으며, 그는 속박의 땅인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모세는 성공했으나 자기의 지혜로 성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모든 성공을 자신을 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설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장로서 복음을 전파하고 맡겨진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도록 부름 받을 때 기쁨이 철렁 내려앉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연단에 서서 말씀하신 최

고의 연사 중에도 말씀 부락을 받으면 두려운 마음에 회중에게 신앙과 지지를 구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신 것을 압니다. 그분들은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도 여호와와의 권능으로 나아가 주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지닌 힘과 지혜로 후기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대학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자기 힘보다는 복음의 힘과 능력에 의지하여 연단 앞에 섭니다.⁴

우리는 항상 하고 싶은 일만 할 수는 없지만, 해야 할 일을 하도록 힘을 받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⁵ [154쪽 제언 2 참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도록 부름 받았으며,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일에서 그분의 손길을 느낍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며,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닿고 있음을 주저 없이 인정합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하도록 세우심을 받았을 때, 모세는 평범한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능과 권세로써 구원을 이루라고 명하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 자격을 지니고 그들 앞에 나타난 순간부터 모세는 맡겨진 과업을 이를 때까지 시종일관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으며, 결코 자신의 지혜나 재주, 혹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지성에 의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은 불이 붙은 떨기나무의 불꽃 안에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위대한 민족의 평화, 행복, 구원에 관한 일을 이루도록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일의 성공과 변영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계시로써 명하신 일들을 모세가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모세가 성공과 변영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스스로 창안해 낸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

그런 점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성취되고 있는, 지상 여러 나라에서 백성을 모으는 이 위대한 사업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짜낸 생각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⁶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과 세상사 모두를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는 수고하여 성공을 거두더라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⁷

우리는 우리 만행이신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뜻과 사업을 행하겠다는 위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 안에 평화와 기쁨, 행복이 있으며,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권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약속된 축복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로운 일에 헌신하며, 모두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행복해지도록 서로 도우시다. 만민에게 선을 행하고 아무에게도 악한 일을 하지 마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의 신권에 순종합시다. 밝은 양심을 키우고 보존하며, 성령을 따릅시다. 지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굳게 잡고, 끝까지 견딥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잔이 기쁨으로 차고 넘칠 것입니다. 유혹과 극심한 시련, 가슴 저미는 갈망과 눈물로 겪었던 고난과 고통에 대한 크나큰 보상이 여러분께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퇴색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여러분께 씌워 주실 것입니다.⁸ [아래 제언 3 참조]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제언

본 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다음 제언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v~vii쪽을 참조한다.

1. 148쪽 서두 부분을 공부한다. 우리의 눈이 순전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으로 구하는 때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부모는 자녀가 계속 순전한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으로 구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2. 스노우 회장이 모세와 예레미야에 관해 설명한 부분(150~152쪽)을 다시 살펴본다. 이 이야기는 신권 정원회, 상호부조회, 기타 교회 조직에서 수고하며 봉사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3. 스노우 회장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153쪽) 봉사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해야 하는 기회에 관해 생각해 본다.
4. 스노우 회장은 본 장에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했다.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성공은 세상이 정의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를 때 성공을 확신할 수 있는가?

관련 성구: 빌립보서 4:13; 니파이후서 10:24; 모사이야서 3:19; 힐라맨서 3:35; 10:4~5; 제3니파이 11:10~11; 13:19~24; 교리와 성약 20:77, 79; 모세서 4:2

교사를 위한 도움말: “침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한다. 사람들은 종종 질문에 대해 생각하고 대답하거나, 자신들이 느끼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질문을 한 후나 영적인 경험을 나눈 후, 또는 어떤 사람이 자신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잠시 멈추고 기다릴 수 있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67쪽)

주

1. “Anniversary Exercises”, *Deseret Evening News*, Apr. 7, 1899, 9-10.
2. “The Object of This Probation”, *Deseret Semi-Weekly News*, May 4, 1894, 7.
3. Conference Report, Oct. 1899, 2.
4. *Salt Lake Daily Herald*, Oct. 11, 1887, 2.
5. *Deseret News*, May 15, 1861, 82.
6. *Deseret News*, Dec. 8, 1869, 517.
7. *Salt Lake Daily Herald*, Oct. 11, 1887, 2.
8. Eliza R. Snow Smith, *Biography and Family Record of Lorenzo Snow* (1884), 487



세인트조지 태버네클. 이 건물에서 로렌조 스노우 회장은 십일조의 법에 관한 첫 번째 설교를 했으며, 이후 같은 주제로 수 차례 말씀했다.



십일조, 우리를 보호하고 발전하게 하는 율법

“이제까지 성도들에게 주어진 율법 중에서도 십일조의 법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 이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성도들은 번영하고 성공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로렌조 스노우의 생애에서

1899년 5월 초에 로렌조 스노우 회장은 유타 주 남부에 있는 세인트조지시와 다른 정착지를 방문하라는 영의 속삭임을 느꼈다. 스노우 회장은 여러 총관리 역원을 포함하여 이 긴 여행에 함께할 사람들을 신속히 조직하기 시작했다.

스노우 회장은 여행을 준비하면서 왜 가는지를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는데 자신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후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솔트레이크시티를 떠날 때만 해도 이 남부 정착지들을 방문해야 하는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¹ 하지만 5월 17일, 세인트조지에 도착한 직후 주님은 당신의 뜻을 선지자에게 “명백히 나타내[셨다.]”² 1899년 5월 18일에 열린 모임에서 스노우 회장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영광스러운 승영과 영광을 누리하고자 하는 백성에게 요구되는 이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시시때때로 귀가 따갑도록 들어온 이야기라서 아마 질리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 여러분께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 말씀입니다. 이제 미래를 위해 준비하며 제대로 된 반석 위에 자기 발을 단단히 붙들어 두고자 하는 모든 후기 성도는 주님의 뜻을 행하고 완전한 십일조를 낼 때가 되었습니다. 이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며, 시온 땅 모든 정착지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떠난 후에 이에 관해 생각해 보신다면, 모든

사람이 일어나 완전한 십일조를 내야 할 때가 왔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지난 세월,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은 더는 지체하지 말고 일어나 명에 따르라고 요구하십니다. 제가 이 시온의 스테이크에 계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은 모든 스테이크에도 전해질 것입니다. 제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면 어떤 남성이나 여성도 완전한 십일조를 바치지 않고서는 만족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³

스노우 회장은 사도로서 50년간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십일조의 법을 거의 언급한 적이 없었으나 유타 주 세인트조지에서 계시를 받게 된 후부터는 달라졌다. “저는 십일조에 관해 받은 [계시]보다 더 완전한 계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⁴라고 스노우 회장은 후에 말했다. 스노우 회장 일행은 세인트조지에서 솔트레이크시티까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부 유타 곳곳에 있는 마을을 모두 들러서 24차례 모임을 했고, 스노우 회장은 26차례 말씀을 전했다. 스노우 회장은 말씀할 때마다 성도들에게 십일조의 법에 순종하도록 권고했다.

일행은 5월 27일에 솔트레이크시티로 돌아왔다. 한 신문기자는 “스노우 회장은 솔트레이크시티를 떠난 날보다 더 힘과 활력이 넘쳐 보인다.”고 말했다. “이 여행을 매우 잘 견뎠다.”는 그의 평에 여든다섯인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네, 모두가 그렇게 말합니다. …… 세계는 유익한 여행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보다 더 기분 좋았던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주님이 저를 지지하시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느낍니다.”⁵

스노우 회장은 자신의 건강에 관해 언급한 후, 남부 유타 성도들의 신앙과 의로움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그는 자신과 일행이 “지극히 따뜻한 감사와 기쁨에 찬” 환대를 받았다고 말했다.⁶ 성도들에게 십일조의 법에 순종하라고 권고했을 때는 “사람들 위에 주님의 영이 임했으며, 사람들은 무척 기뻐하며 그 영에 따라 십일조 원리를 철저히 지키겠노라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⁷라고 스노우 회장은 보고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전반적인 상태를 묻는 질문에는 이렇게 말했다. “그네들은 안락한 집에 살며 꽤 잘 차려입었고 땅에는 먹고 마실 수 있는 유익한 것들이 풍성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세인트조지 스테이크 사람들은 이 나라에서 전례가 없는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곧 비가 오리라는 믿음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⁸

5월 29일과 30일, 스노우 회장은 처음에는 청년 상호 향사회 직원들에게, 다음에는 청남 상호 향사회 직원들에게 두 번에 걸쳐 십일조의 법에 관해 말씀했다.⁹ 두 번째 말씀이 끝나자 칠십인인 비 에이치 로버츠 장로는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발표했으며, 참석자 모두가 이를 만장일치로 지지했다. “결의문. 우리는 지금 스노우 회장이 발표한 대로 십일조 교리를 주께서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자 뜻으로 온 마음을 다해 받아들인다. 우리는 이 법을 준수할 것이며, 다른 후기 성도들도 이 법을 지키도록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¹⁰ 7월 2일, 모든 총관리 역원과 교회의 모든 스테이크 및 와드 대표자는 금식과 기도로 모임을 준비한 가운데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열린 엄숙한 회합에 참석하여 이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였다.¹¹ 스노우 회장 스스로도 이 결의문에 충실했으며, 여러 스테이크에 십일조의 법을 가르쳤고, 다른 교회 지도자들 또한 그와 같이 하도록 이끌었다.

남부 유타를 방문하고 몇 달이 지난 뒤, 스노우 회장은 후기 성도들이 십일조의 법을 지키고자 새롭게 헌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소식을 들은 스노우 회장은 “크나큰 기쁨과 만족감”¹²을 느꼈다. 왜냐하면 이 법에 계속 순종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이 백성 위에 부어[질 것]이며 교회는 이전에 경험한 [적이] 없는 힘과 속도로 발전[할 것]”¹³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스노우 회장은 십일조의 법에 순종한다면 현세적인 면과 영적인 면에서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다.¹⁴ 이 약속은 세인트조지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가뭄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1899년 8월에 일부분 성취되었다. 그들은 지난 13개월간 내린 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74밀리미터의 강수량으로 자신들의 신앙에 대한 보답을 받았다.¹⁵ 또한 스노우 회장은 십일조의 법에 순종하면 교회 전체에도 축복이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했다. 스노우 회장은 교회가 충실한 사람들이 바친 십일조 덕분에 부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리라 확신했는데, 그 부채는 상당 부분이 박해 때문에 비롯된 것이었다.¹⁶ 이 약속은 스노우 회장이 타계한 지 5년이 지난 1906년에 성취되었으며,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은 1907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이 사실을 발표했다.

“교회 역사상 성도들이 십일조의 법을 요즈음보다 더 널리, 또 정직하게 지킨 적은 없었습니다. 1906년 동안 성도들이 바친 십일조는 다른 어느 해

보다도 많았습니다. 이는 후기 성도들이 각자 맡은 의무를 다하며, 복음을 믿는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꺼이 지키며,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충실하게 십일조의 법을 지키고 있다는 좋은 지표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축하하고 싶은 소식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축복과 십일조를 바치는 성도 여러분의 충실함 덕택에, 우리를 구속했던 부채를 청산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이제 즉시 갚지 못할 부채가 한 푼도 없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언제든지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돈을 빌릴 필요가 없으며, 후기 성도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종교에 따라 생활하고 이 십일조의 법을 지킨다면 앞으로도 그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¹⁷ [164쪽 제언 1 참조]

로렌조 스노우의 가르침

십일조의 법은 이해하기 쉬우므로 모든 사람이 순종할 수 있다.

저는 모든 남녀와 어린이가 …… 수입에서 십분의 일을 떼어 십일조로 바치기를 기도하며,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¹⁸

[십일조]는 어려운 율법이 아닙니다. …… 10달러를 받는다면 바쳐야 할 십일조는 1달러이고, 100달러를 받는다면 10달러가 십일조입니다. …… 이해하기 매우 쉽습니다.¹⁹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십일조로 얼마를 낼까? 내 몫을 챙길 수는 없을까? 주님은 부자시니까 내 몫을 조금 남기더라도 어려움을 겪지는 않으실 거야. 그렇게 해서 약간을 남겨 둡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후기 성도와 같은 양심을 지닌 사람이라면, 따로 떼어 둔 그 돈 몇 푼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을 것입니다. 낮 동안만이 아니라 밤에도 그 생각을 하면 골치가 아플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마땅히 누려야 할 특권인 행복을 놓쳐 버리고 불행하게 지낼 것입니다.²⁰

부분 십일조는 결코 십일조라 할 수 없으며, 침례식에서 몸을 반만 담그는 것과도 같습니다.²¹



스노우 회장은 부모와 교사에게 어린이들이 십일조를 바치도록 가르치라고 권고했다.

자신이 받은 것에서 십분의 일을 바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²²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이 일에 관해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몇몇 사람들처럼 돈에 관해 합당치 못한 생각을 하는 대신 우리는 십일조를 바쳐야 합니다. ……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십일조를 바치라고 요구하십니다. 또 주님은 장차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십일조를 바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십분의 일이 무엇인지 압니다. 주님께 십일조를 바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당당한 얼굴로 감독님에게 가서 성전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추천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²³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리건대 만일 지금부터 십일조를 바친다면 주님은 과거의 모든 것[십일조를 바치지 않은 일]을 용서하실 것이며 전능하신 이의 축복이 이 백성 위에 부어질 것입니다.²⁴

이 원리를 마음에 새기고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두어 차례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십일조 바치기를 소홀히 했더라도 이제 회개하고

지금부터라도 양심적인 십일조를 바친다면 주님은 그 후기 성도를 용서해 주시리라는 것을 압니다.²⁵ [165쪽 제언 2 참조]

우리는 십일조를 바침으로써 교회의 사업에 기여한다.

재원이 없다면 이 교회는 유지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십일조의 법을 통해] 우리에게 재원을 마련해 주십니다. 필멸의 인간에게 가장 높은 축복이 주어지는 성전이 바로 그런 수입으로 건립됩니다. 만일 선교 사업을 위한 재원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세상에 복음을 전파할 장로들을 …… 절대 내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 또한 돈이 필요한 일이 천 가지도 넘을 만큼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만일 후기 성도가 십일조를 바치지 않았다면 이곳에 있는 성전[1899년도 기준] 네 곳은 결코 세워지지 못했을 것이고, 승영과 영광에 관련된 하나님의 심판과 법규도 지켜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후기 성도에게 첫째 되는 행동 원리는 이 십일조의 법을 지키고, 죽은 자들의 승영과 영광에 관련된 의식을 받을 수 있는 곳에 감으로써 땅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²⁶ [165쪽 제언 3 참조]

**십일조의 법에 순종하면 주님은 우리를
현세적으로, 영적으로 축복하신다.**

이제까지 인간에게 밝혀진 율법 가운데 십일조의 법은 가장 중요한 율법 중 하나입니다. …… 이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성도들은 번영하고 성공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²⁷

이 율법을 지키면 …… 땅이 성결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해아림을 받아 재정적인 문제뿐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현세적, 영적인 일에서 도움과 지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²⁸

이 교회의 현세적 구원은 …… 이 율법에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²⁹

후기 성도 사이에는 가난이 엄연히 존재하며, 적어도 십일조의 법에 순종할 때까지 가난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³⁰

저는 후기 성도가 이 율법에 따른다면 우리에게 닥칠 모든 악에서 구해 주시도록 주께 요청할 수 있음을 진심으로 믿습니다.³¹



십일조 기금은 성전 건축 및 유지를 위해 사용된다.

우리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또 의롭고 거룩한 길에서 발전하도록 특별히 계시된 율법이 있습니다. 이 율법은 우리가 거하는 땅을 성결하게 하는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사악하고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절대로 전복하거나 멸망시킬 수 없는 시온을 세우고 강화하는 율법입니다.³²

우리에게는 여러 성전이 있어, 성전에 관련된 축복과 아울러, 이제까지 지상에 살았던 인간에게 집행되었던 가장 높은 의식까지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이 율법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³³

우리가 십일조와 기타 헌금을 양심적으로 바칠 때까지는 결코 하나님의 얼굴을 뵈 준비를 갖추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³⁴

간결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십일조에 관해 드린 이 말씀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영에 따라 행하시면, 여러분의 눈이 열릴 것입니다.³⁵ [165쪽 제언 4 참조]

부모와 교사는 십일조를 바치고 자녀에게도 그와 같이 하도록 가르칠 책임이 있다.

[자녀가] 어릴 때 십일조를 바치도록 가르치십시오. 어머니 여러분, 아무 돈이라도 생기면 얼마 안 되더라도 그중 십분의 일을 주님께 바쳐야 한다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십시오. 자녀들이 완전한 십일조를 바치도록 교육하십시오.³⁶

[교회] 역원과 교사들은 이 율법에 담긴 정신을 마음으로, 또 영혼을 다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라나는 세대에게 이를 전하고 이 율법의 중요성과 신성함을 인식시킬 자질을 온전히 갖추게 됩니다. …… 적절하고도 지당한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만 이 율법에 순종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특히 자라나는 세대에게도 가르쳐야 합니다. …… 여러분은 이 율법에 담긴 정신을 받아들이는 정도에 비례하여 그만큼 이 율법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

…… 여러분은 이 율법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후기 성도 자녀에게 이 율법을 가르치고 기억 속에 단단히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스스로 분별할 나이가 되었을 때, 자신은 이 율법을 배웠으며 어릴 적부터 계속 지켜 왔다고 말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³⁷ [165쪽 제언 5 참조]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제언

본 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다음 제언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v~vii쪽을 참조한다.

1. 스노우 회장이 십일조에 관해 계시받은 부분을 다시 살펴본다.(157~160쪽) 스노우 회장이 세인트조지로 기꺼이 여행한 것과 사람들이 십일조의 법에 순종할 준비를 갖춘 것에 관해 생각해 본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2. 어떤 면에서 십일조는 “어려운 율법이 아[닌가]”? (몇 가지 예로 160~161쪽 참조) 일부 사람들이 십일조의 법을 순종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스노우 회장의 가르침은 십일조를 바치는 것에 관한 간증을 얻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3. 162쪽 첫머리를 공부한다. 십일조로 자금이 지원되는 건물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축복을 받고 있나? 십일조를 바치는 것이 특권인 이유는 무엇인가?
4. 스노우 회장은 우리가 십일조의 법에 순종할 때 축복받을 것이라고 간증했다.(162~164쪽) 십일조의 법을 통해 여러분의 삶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는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5. 스노우 회장이 부모와 교사에게 준 권고를 생각해 본다.(164쪽) 자녀가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십일조를 바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자녀가 십일조와 헌금을 바치도록 가르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관련 성구: 말라기 3:8~10; 교리와 성약 64:23; 119:1~7

교사를 위한 도움말: “여러분이 미리 준비한 공과를 모두 다 가르치려는 마음에 훌륭한 토론을 너무 일찍 끝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공과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원들이 영의 영향력을 느끼도록 돕고, 그들의 질문에 답해 주며, 복음에 대한 그들의 이해력을 증진시켜 주고, 계명을 지키려는 그들의 결심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64쪽)

주

1. “In Juab and Millard Stakes”, *Deseret Evening News*, May 29, 1899, 5.
2. “In Juab and Millard Stakes”, 5.
3. *Millennial Star*, Aug. 24, 1899, 532-533; 또한 *Deseret Evening News*, May 17, 1899, 2; *Deseret Evening News*, May 18, 1899, 2 참조. *Millennial Star*에는 스노우 회장이 이 말씀을 5월 8일에 전했다고 되어 있으나, 다른 동시대 자료에서는 5월 18일에 이 말씀을 전한 것으로 나온다. 스노우 회장은 5월 17일에도 십일조에 관해 말했다.
4. “President Snow in Cache Valley”, *Deseret Evening News*, Aug. 7, 1899, 1.
5. “Pres. Snow Is Home Again”, *Deseret Evening News*, May 27, 1899, 1. 당시 교회에는 40개 스테이크가 있었다.
6. “Pres. Snow Is Home Again”, 1.
7. *Deseret Evening News*, June 24, 1899, 3.
8. “Pres. Snow Is Home Again”, 1.
9.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Young Men’s and Young Ladies’ Mutual Improvement Associations”, *Improvement Era*, Aug. 1899, 792-795 참조; 또한 Ann M. Cannon, “President Lorenzo Snow’s Message on Tithing”, *Young Woman’s Journal*, Apr. 1924, 184-186 참조.
10. B.H. Roberts, quoted in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Young Men’s and Young Ladies’ Mutual Improvement Associations”, 795.
11. B.H. Roberts, *Comprehensive History of the Church*, 6:359-360 참조.
12. Conference Report, Oct. 1899, 28.
13. “President Snow in Cache Valley”, *Deseret Evening News*, Aug. 7, 1899, 2.

14. 일레로 *Deseret Evening News*, June 24, 1899, 3 참조. 스노우 회장의 말씀에 관한 동시대 기록과 그의 여행에 관한 신문 기사를 보면, 스노우 회장은 성도들에게 십일조의 법에 순종하면 영적 및 현세적 축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했을 때, 남부 유타에 가뭄이 끝나리라는 구체적인 약속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5. Western Regional Climate Center, <http://www.wrcc.dri.edu/cgi-bin/cliMONtpre.pl?utstge> 참조.
16. 일레로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Young Men’s and Young Ladies’ Mutual Improvement Associations”, 793 참조.
17. Conference Report, Apr. 1907, 7.
18. Conference Report, Oct. 1899, 28.
19. *Deseret Semi-Weekly News*, July 28, 1899, 10.
20. Conference Report, Apr. 1899, 51.
21. *Deseret Evening News*, June 24, 1899, 3.
22. “President Lorenzo Snow’s Message on Tithing”, 185; 1899년 5월 29일 솔트레이크시티 Assembly Hall(회의장)에서 열린 모임의 공식 기록.
23. *Deseret Semi-Weekly News*, July 28, 1899, 10.
24. “President Snow in Cache Valley”, 2.
25. Conference Report, Oct. 1899, 28.
26. Conference Report, Oct. 1899, 27-28.
27. “In Juab and Millard Stakes”, 5.
28. *Deseret Evening News*, June 24, 1899, 3.
29.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Young Men’s and Young Ladies’ Mutual Improvement Associations”, 794.
30. *Deseret Semi-Weekly News*, July 28, 1899, 10.
31. “President Lorenzo Snow’s Message on Tithing”, 185.
32. “Tithing” *Juvenile Instructor*, Apr. 1901, 216.
33. “Tithing”, 215.
34. “Conference of Granite Stake”, *Deseret Evening News*, May 21, 1900, 2; 1900년 5월 20일, 그레나이트 스테이크 대회에서 스노우 회장이 말씀한 것을 상세히 풀어 쓴 기사.
35. *Deseret Semi-Weekly News*, July 28, 1899, 10.
36. *Millennial Star*, Aug. 31, 1899, 546.
37. “Tithing”, 215-216.



상호부조회, 참된 사랑과 순수한 신앙

“이보다 더 고귀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없습니다. 상호부조회는 참된 사랑,
즉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입니다.”

로렌조 스노우의 생애에서

1901년 여름,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솔트레이크밸리에 있는 상호부조회 자매들을 위해 일일 활동을 계획했다. 로렌조 스노우 회장은 이곳에 참석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는 서두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오늘 오후 자매님들과 한두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영광에 감사하며, 여러분 모두 오늘 이 시간을 즐기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적절한 오락과 활동은 유익하기에, 자매님들이 잠깐이라도 휴식과 활동을 마음껏 즐기시는 모습을 보니 기쁩니다. 가정과 상호부조회에서 날마다 열심히 일하시는 자매님들은 분명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모두 경험하셔야 마땅합니다.”

스노우 회장의 누나인 엘리자 알 스노우는 제2대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했다. 스노우 회장은 상호부조회가 하는 일에 감사를 표했으며, 교회 여성들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그 자매님들이 없었다면 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었을지, 또 주님의 사업이 어떻게 발전했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한 예로 스노우 회장은 교회 선교사 프로그램을 언급했는데, 당시에는 결혼한 남성들도 전임 선교사로 부름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남편들이 외국으로 선교 사업을 나가 있는 동안 부인들이 집에서 감당해야 하는 임무는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하는 일 못지않게 고되었습니다. 온갖 시련과 궁핍함 속에서도 자매님들은 우리에게 참으로 영감을 주는 인내와 불굴의 정신과 자립심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 교회 여성들에 대



교회 초기 시절부터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함께 일하며
현세적으로나 영적으로 서로를 강화했다.

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이 모임에 함께하면서 받는 느낌입니다.”¹ [172쪽 제언 1 참조]

로렌조 스노우의 가르침

참된 사랑과 순수한 신앙의 본이 되는 상호부조회 회원들

상호부조회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주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 조직했습니다. …… 오늘날 상호부조회는 교회에서 선을 행하는 가장 강력한 힘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

상호부조회의 사명은 고통받는 사람을 구조하고, 병들고 약한 이를 보살피며, 가난한 이들을 먹이고, 헐벗은 사람을 입히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고귀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없습니다. 상호부조회의 기초는 참된 사랑, 즉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며[모로나이서 7:47 참조] 사람들 사이에서 상호부조회가 행한 보살핌 하나하나에 그 정신은 깃들어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야고보서 1:27]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상호부조회 회원들은 자신들의 생활 속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가장 확실하게 모범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두 팔로 고아와 과부들을 껴안아 주었으며,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켰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상호부조회에 속한 분들보다 더 정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은 찾아볼 수 없다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² [172쪽 제언 2 참조]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신권 소유자들과 함께 하나님 왕국을 이롭게 하기 위해 일한다.

상호부조회 자매님들이 어떤 상황에서든 충실히 주님의 종들을 지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항상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늘 신권이 있는 곳에 함께해 왔으며, 신권 소유자의 손에 힘을 실어 주고 도움을 주어 하나님 왕국을 이롭게 하기 위한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일에 함께했듯이 주님께서 그분의 충실한 자녀에게 주실 승영과 영광, 그리고 이 사업의 승리 또한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 현명한 감독이라면 와드에서 상호부조회가 기울이는 노고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상호부조회가 없다면 감독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저는 교회의 모든 감독님이 상호부조회 자매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행하는 사랑과 자비의 사업을 뒷받침한다면, 자매들은 감독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³ [173쪽 제언 3 참조]

상호부조회는 모든 가정에 선한 영향을 미친다.

저는 형제님들에게 아내가 상호부조회에 [참여하도록] 다독여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 이 조직은 모든 가정에 선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저는 자매 여러분이 후기 성도의 가정을 방문할 때, 가시는 곳마다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그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아내와 어머니인 여러분에게 어떤 기대를 품고 계신지 명확하게 보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들, 특히 젊은 숙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

자매들이여, 여러분은 순수한 모성과 더불어 결혼 성약에 충실함을 지지하며 …… 상호부조회 회원으로서, 또한 이스라엘의 어머니로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⁴ [173쪽 제언 4 참조]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상호부조회 자매들에게는 봉사할 수 있는 더 큰 기회가 올 것이다.

상호부조회가 과거에 어떠한 일을 했는지 일일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상호부조회에서 이룩한 훌륭한 성과는 시온 전역과 세상의 많은 곳에 알려졌습니다. 상호부조회는 그 임무에 충실했으며, 다른 어떤 자선단체도 이에 버금가거나 능가할 만한 업적을 쌓지는 못했습니다. 후기 성도는 상호부조회와 그 업적을 자랑스러워하며, 이러한 단체를 설립하도록 그분의 종인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영감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상호부조회의 미래는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상호부조회가 활동해야 할 분야도 확대될 것이며, 과거에 해 왔던 것보다도 더 강력하게 선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자매가 상호부조회를 지지하기 위해 단결한다면 상호부조회는 큰일을 성취할 것이며, 교회에도 계속 축복이 될 것입니다. 중년인 자매님들이 연로한 자매님들과 더불어 이



“상호부조회 회원들은 자신들의 생활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가장 확실하게 모범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단체에 관심을 두는 것을 보면 흐뭇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신앙이 강화되고 인생과 그 책임에 관한 이해의 폭이 더 넓어질 뿐만 아니라 진보와 완전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 크게 발전하게 됨을 깨달을 것입니다.⁵

이 일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교회 여성들] 위에 축복을 내려 주셨으며, 저는 큰 기쁨과 즐거움과 깊은 관심을 갖고 그들이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 상호부조회 자매님들이 거둔 성공은 실로 놀라우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분의 영을 부어 주셨는지를 생각하면 정말 경이롭습니다. 상호부조회 자매님들은 세상 사람 앞에 서 있는 천사와 다름없게 되었다고 말씀드려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⁶ [173쪽 제언 5 참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봉사하는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도 축복받을 것이다.

우리가 자매들의 마음속에 심어 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영역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도중에 장애물이 앞을 가리더라도 낙담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가려는 의지

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부어지리라고 약속합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경험이 될 것입니다. …… 거듭 말씀드립니다. 낙담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 선을 이루고, 신앙을 행사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쌓은 선을 더욱 발전시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재능을 모두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여러분이 기대하는 성공과 관련된 것입니다. 주께서 표시해 놓으신 길을 따라 여행을 시작하여 그분의 뜻에 따라 선을 이루려 한다면 분명히 성공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으며, 그곳은 하나님께 축복을 구할 가장 적절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⁷

저는 하나님께서 상호부조회 역원과 회원들을 축복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원대한 사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선을 행함에 지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교리와 성약 64:33 참조] 우리는 모두 해의 영광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 앞에는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원대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관여하는 일에 변함없이 충실하다면, 여러분은 이 영광에 이를 뿐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언제나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은 노력하고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이것을 얻는 데 충실한 남녀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길 빕니다.⁸ [173쪽 제언 6 참조]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제언

본 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때 다음 제언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v~vii쪽을 참조한다.

1. 스노우 회장은 교회에서 여성 없이 주님의 사업이 발전하기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167쪽) 오늘날 여성은 어떤 방법으로 주님의 사업에 이바지하는가?
2. 상호부조회의 임무에 관한 스노우 회장의 말씀을 숙고한다.(169쪽)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을 도움으로써 이 임무를 수행했던 때를 생각해 본다. 이런 행동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3. 169쪽 아래에서 시작하는 부분을 다시 읽는다.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하나님 왕국을 이롭게 하기 위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가? 상호부조회 자매들과 신권 소유자들이 함께 일하는 실례를 본 적이 있는가?
4. 스노우 회장이 상호부조회 자매들에게 “순수한 모성과 더불어 결혼 성약에 충실함을 지지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간절히 부탁한 것에 관해 깊이 생각해 본다.(170쪽) 오늘날 세상에서는 왜 이러한 영향력이 필요한가?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젊은 여성들이 성전 결혼을 하고 어머니가 되는 준비를 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5. 스노우 회장은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상호부조회] 활동해야 할 분야도 확대될 것이며, 과거에 해 왔던 것보다도 더 강력하게 선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170쪽)라고 말씀했다. 오늘날 세상에서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선을 향한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6. 171쪽 첫 부분을 공부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여러분이] 있[도록] 인도받은 방법을 깊이 생각해 본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노력을 하는 여러분을 어떻게 도우셨는가?

관련 성구: 이사야 1:17; 마태복음 25:34~40; 모사이야서 4:26~27; 엘마서 1:29~30; 모로나이서 7:44~48

교사를 위한 도움말: “여러분은 가르칠 준비를 하면서 매 공과마다 다양한 교수법을 활용하도록 한다. 즉 한 공과에서 다채로운 포스터라든가 벽 차트를 사용했다면 다른 공과에선 칠판에다 질문 목록과 같은 단순한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89쪽)

주

1. “Prest. Snow to Relief Societies”, *Deseret Evening News*, July 9, 1901, 1.
2. “Prest. Snow to Relief Societies”, 1.
3. “Prest. Snow to Relief Societies”, 1.
4. “Prest. Snow to Relief Societies”, 1.
5. “Prest. Snow to Relief Societies”, 1.
6. *Young Woman’s Journal*, Sept. 1895, 577-578.
7. *Young Woman’s Journal*, Sept. 1895, 578.
8. “Prest. Snow to Relief Societies”, 1.



“맹인을 고치시기 전에 구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요한복음 9:4)”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어느 누구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이 없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들을 본질적으로 따를 수 없습니다. …… 그분은 이런 도움을 약속하셨습니다.”

로렌조 스노우의 생애에서

로렌조 스노우 회장은 자신이 자주 반복해서 권고한 것을 그대로 따랐던 노력가였다. “우리는 온 힘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 행동에 옮기지 않고 게으르게 지내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 스스로 행하지 않고 게으르게 지내는 것은 무익합니다.”¹ 하지만 스노우 회장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는 소망에 따라 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곧 그가 종종 언급한 표현대로 “초자연적인 도움” 없이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알았다.² 따라서 스노우 회장은 교회 회원들이 “[의로운] 원리를 발전”시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격려하는 한편, “우리는 후기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구원이 온다는 것을 이해하고 기억해야 합니다.”라고 가르쳤다.³ 스노우 회장은 우리가 노력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힘을 더해 주신다고 간증했다. “주께서 어디든 우리를 보내시면 우리는 그곳에서 있어야 합니다. 이 거룩한 원리를 뒷받침하도록 힘쓰라고 요구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쓸 일은 그게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⁴

누나인 엘리자는 스노우 회장이 이 가르침에 부합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했다. 엘리자는 그를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과 은혜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지닌 사람으로 묘사했다. 엘리자는 스노우 회장이 “누구를 의뢰하여 왔는지를 아는” 사람이며, 따라서 그는 “모든 고난과 반대”를 견뎌 내고,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⁵

로렌조 스노우는 1840년에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해 영국으로 향하는 여정에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 크나큰 신뢰를 나타내 보였다.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42일간의 항해에서 그와 동료들은 세 번의 엄청난 폭풍을 겪었다. 훗날 스노우 회장은 그 폭풍이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조차 매우 위험하다고 말할 정도로 끔찍한 폭풍”이었다고 보고했다. 그는 폭풍에 대해 일부 여행자들이 자신과는 다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보았다. “조금도 과장하지 않고 말하건대, 공포에 질릴 만한 무서운 상황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줄 모르는 남녀와 어린아이들이 두려움으로 두 손을 움켜쥐고 울부짖는 데도 놀라운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다를 창조하시고 그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권세를 가지고 이 선교 사업에 파송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폭풍우가 맹위를 떨치고 격렬한 파도 속에서 배가 요동쳤지만, 하나님께서 키를 잡고 계셨기에 제 생명은 그분의 보살핌 안에서 아무 탈이 없었습니다.”⁶

여러 해가 지난 후, 교회 회장이 되었을 때도 로렌조 스노우는 주님이 인도하심을 알았기에 다시금 위안을 얻었다. 1898년 9월 13일에 열린 모임에서 십이사도 정원회는 그를 교회 회장으로 지지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표명했다. 이 모임의 기록을 보면 스노우 회장이 일어서서 “이 직책에 따른 방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데 무능력하다는 따위의 변명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적혀 있다. 또한 “그는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주께 의지해야 한다고 느꼈다.”고 기록되어 있다.⁷ [181쪽 제언 1 참조]

로렌조 스노우의 가르침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것 가운데 우리가 교훈을 얻고 함께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가르침과 예지를 얻으려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믿는 모든 분들이 신앙을 행사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또 어떤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를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초자연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

…… 예수께서는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자 찾아온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청년은 구주께서 말씀하신 계명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구주께서는 청년을 훑어보시더니 아직도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청년이 모세가 받은 율법, 즉 도덕적 율법을 잘 따랐기에 그를 좋게 보시는 했으나, 한 가지 부족한 점을 찾아내셨습니다. 청년은 부유했기에 막대한 부로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청년이든 다른 누구든 간에, 모든 면에서 순종해야만 해의 왕국으로 들어 올려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에, 해의 왕국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셨습니다. 또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해의 왕국의 면류관을 얻으려면 그 어느 것도 하늘이 요구하는 순종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아셨습니다. 구주께서는 그 청년이 해의 왕국의 율법에 걸맞지 않은 무언가에 집착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어쩌면 그 청년은 자신에게 해롭기만 한 감정에 집착하는 성향을 지녔기에 복음이 요구하는 모든 것에 기꺼이 순종하지 않거나 순종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여긴다고 보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청년에게,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계명 때문에 청년은 슬퍼하고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재물이 세상의 영향력과 자신이 바라는 모든 것을 가져다주는, 인생에서의 커다란 목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는 동안 축복과 즐거움을 얻게 해 주고,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도록 해 주는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재물 없이는 인생에서 어떤 축복이나 즐거움도, 어떤 특권도, 또 본성이 갈망하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사람이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과 행복해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할 힘이 있습니다. 재물은 그런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청년이 그런 생각을 뇌리에서 떨쳐 내어 버리고 모든 면에서 주님의 종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주님은 청년이 봉사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고, 온 마음을 다해 일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해의 영광을 위해 준비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그렇게 하려면 너무나 큰 희생을 치러야 한다고 여겼기에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참으로 어렵도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에 제자들이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라고 물었습니다. 재물을 가진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구주의 말씀을 듣고보니 그런 생각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라고 답하셨습니다.⁸ [마태복음 19:16~26 참조; 또한 후기 성도판 영어 성경, 마태복음 19:26, 각주 a 및 마가복음 10:27, 각주 a 참조] [181쪽 제언 2 참조]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우리 혼자서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을 따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도 아버지께서 온 하늘의 도움 없이는 그분의 일을 성취할 수 없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요한복음 5:30] 우리의 주님이신 그분께도 하늘의 도움이 필요했다면,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받는 것은 더욱더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후기 성도들은 의무를 수행할 때 성령으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은 후기 성도들이 처한 다양한 상황에서 그들이 행해야 할 의무를 다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 승영과 영광을 얻고, 또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위대한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 자신이 하려 하는 일을 완수할 수 없다고 느껴지더라도 누구도 실망해서는 안 되며, 우리는 모두 원대한 사업을 이루기 위해 이곳에 온 만큼,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합니다.⁹

우리가 믿는 종교는 우리가 아는 다른 어떤 종교도 그 신자들에게 요구하지 않는 특정한 행동 양식을 요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어느 누구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이 없다면 우리에게 요



*“여러분과 제가 참여하는 이 사업은 충실하고 정직한 노력과 더불어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져야만 번창하고 진척될 수 있습니다.”*

구되는 것을 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크고 중요한 축복은 결국 우리가 받아들인 종교나 복음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따름으로써 주어 진다는 것을 적어도 부분적으로나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희생은 초자연적인 힘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어떠한 남녀도 해낼 수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이러한 요건들을 제시하시면서 그분의 백성으로 하여금 초자연적인 도움 없이 그러한 것을 따르도록 계획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개념은 다른 어떤 계층에 있는 종교인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런 도움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

이런 요구는 …… 하나님께서 어느 한 백성을 불러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율법을 받아들이게 하신 모든 세대와 시기에 요구되었습니다. 또 그런 요구는 이스라엘 시대에, 그 민족이 시작하던 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도 요구되었습니다. 모세와 그가 애굽의 속박에서 이끌어 낸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아담 시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지자에게도 요구되었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안수를 통해 권세를 받은 사도들에게도, 또한 당시 사도들이 선포하고 가르친 종교를 믿은 사람들에게도 요구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담 시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 즉 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권능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개인이나 집단, 또는 어떤 계층의 사람들도 이 요건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¹⁰ [181쪽 제언 3 참조]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하는 우리에게는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다.

여러분은 시온의 발전과 유익을 위해 어떤 일을 맡든지 주님께 의지해야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¹¹

어떤 일을 시작하든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으로 구해야 합니다.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해력을 밝혀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 머무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힘을 잃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해야 하는 일은 그 성격상 전능하신 분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 세상 사람들에게 큰 혼선이 빚어지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도 그런 일이 매우 잦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며, 성취하겠다고 주님과 약속한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곳에 왔다는 사실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는 이 일은 영광스러운 사업입니다. 이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그분은 과거 경험을 통해 그분의 목적을 성취할 것으로 아는 남녀를 택하셨습니다.¹²

여러분과 제가 참여하는 이 사업은 충실하고 정직한 노력과 더불어 우리가 이 지상에 온 목적대로, 맡은 과업을 완수하겠다는 결의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져야만 번창하고 진척될 수 있습니다. 지난 경험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성취하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노력하며, 가능한 모든 이기심을 없애려고 정직하게 노력했을 때 번영했음을 우리는 쉽사리 알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그래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룩할 발전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결의와 그분께서 주시는 도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믿을 수 있습니다.¹³ [181쪽 제언 4 참조]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제언

본 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다음 제언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v~vii쪽을 참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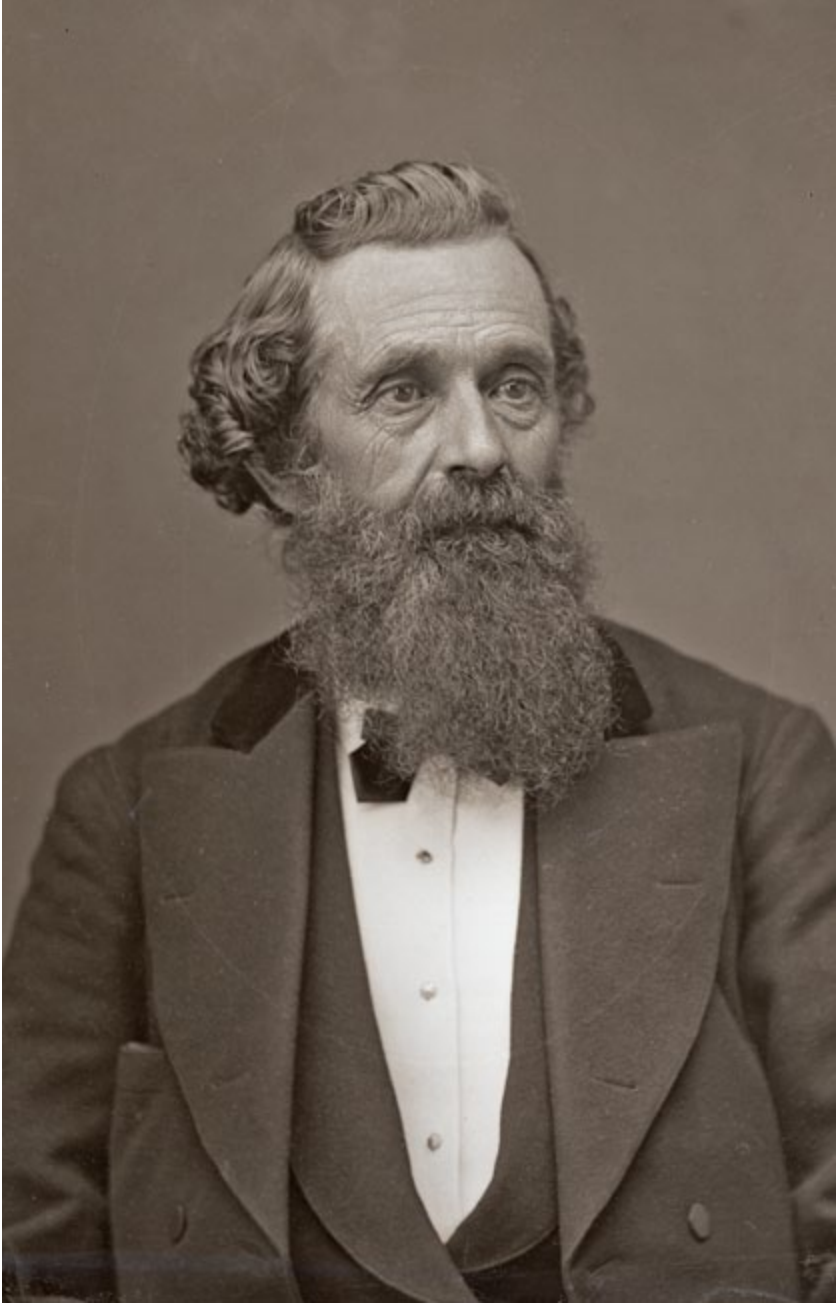
1. 175~176쪽 기사를 다시 살펴본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고난에 닥칠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반응한다고 생각하는가?
2. 구주와 부자 청년 이야기를 깊이 생각해 본다.(176~178쪽)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에 두어 결과적으로 “근심하게” 되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는 왜 주님의 크신 축복을 받기에 앞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생활에서 “몰아내[야]” 하는가?
3. 스노우 회장은 구주조차도 “그분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 “하늘의 도움”이 필요했다고 가르쳤다.(178쪽) 여러분은 복음대로 생활하기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을 돕기 위해 스노우 회장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는가?
4. 본 장 마지막 부분을 읽는다.(180~181쪽) 여러분은 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그분의 도움을 더 많이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관련 성구: 빌립보서 4:13; 니파이후서 10:23~24; 25:23; 야곱서 4:6~7; 모사이야서 24:8~22; 신앙개조 제3조

교사를 위한 도움말: “반원들에게 (개인적으로 또는 작은 조로 나누어) 각 장 끝에 나오는 질문 몇 가지를 읽으라고 한다. 본문에서 그 질문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라고 한 다음, 자신이 생각하고 깨달은 점을 반원들과 나누도록 부탁한다.”(이 책 vii쪽)

주

1. *Deseret News*, Jan. 28, 1857, 371
2. *Deseret News*, Jan. 14, 1880, 786.
3. *Deseret News: Semi-Weekly*, Aug. 15, 1882, 1.
4. *Deseret News*, Oct. 28, 1857, 270.
5. Eliza R. Snow Smith, *Biography and Family Record of Lorenzo Snow* (1884), 116-117.
6. *Biography and Family Record of Lorenzo Snow*, 49.
7. *Journal History*, Sept. 13, 1898, 4.
8. *Deseret News*, Jan. 14, 1880, 786.
9. Conference Report, Apr. 1898, 12.
10. *Deseret News*, Jan. 14, 1880, 786.
11. *Improvement Era*, July 1899, 708.
12. *Deseret Weekly*, May 12, 1894, 638.
13. Conference Report, Apr. 1901, 1.



로렌조 스노우 장로



하나님의 왕국에서 힘을 다하여 충실하게 봉사하여

“우리는 우리의 종교가 참되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받아들인
대업에 온 세상에서 가장 헌신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로렌조 스노우의 생애에서

1851년 말경, 제일회장단은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에게 “각기 선교부에서 하던 일을 정리하고” 1853년 4월까지 솔트레이크시티로 돌아오라는 서한을 보냈다.¹ 따라서 이탈리아에서 선교 사업 중이던 로렌조 스노우 장로는 일을 마무리하기 시작했다. 1852년 2월, 스노우 장로는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존 다니엘 말란 형제에게 일을 맡기고 야베스 우더드 장로와 함께 몰타 제도로 갔다. 스노우 장로는 몰타에서 인도로 가는 배를 탈 생각이었다. 인도에 최초로 파견된 선교사들은 스노우 장로의 감독 아래 일하고 있었으며, 스노우 장로는 그들과 합류하기를 학수고대했다. 스노우 장로는 그곳에서부터 “세계를 일주하며” 태평양을 거쳐 미국 서부에 있는 집으로 돌아갈 계획이었다.²

그러나 스노우 장로와 우더드 장로가 몰타에 도착하면서 계획은 바뀌었다. 증기선이 홍해에서 고장 나는 바람에 몇 주 동안 섬에 머물게 된 것이다. 스노우 장로는 지체된 일로 불평하기보다는 차라리 가서 일하기로 마음먹었다. 1852년 3월 10일자로 보낸 편지에 스노우 장로는 이렇게 썼다. “저는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며, 위대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주변 국가들로 뻗어 나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선교 지역에 있으므로, 지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주님의 인도에 따라 사용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예감이 듭니다.” 스노우 장로는 이탈리아에서 봉사하던 선교사 토마스 오브레이 장로에게 “소책자와 책자 등을 충분히 가지고 즉시 오도록” 했다고 보고했다. 그는 자신과 동료들이 몰타에서 정확히 무엇을 해

야 할지 알지 못했지만, 그곳에 교회 지부를 세우고자 하는 소망을 피력했다. 스노우 장로는 그런 일을 통해 “몰타 사람들이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해안을 따라 곳곳에서 상거래를 해 나갈 때 많은 나라에 채워진 영적 족쇄가 풀릴 것입니다.”라고 말했다.³

1852년 5월 1일, 스노우 장로는 몰타에서 한 일을 편지를 통해 보고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다. “사람들은 이제 이 ‘기이한 종교’에 관해 알아보고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며칠 전 저녁에는 8개국에서 온 신사들이 우리 숙소로 온 적이 있는데, 이들은 우리 교리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이 도시 곳곳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중에는 폴란드와 그리스 사람도 있었는데, 그들은 지금 비상한 관심을 갖고 우리 교회 출판물들을 탐독하고 있습니다. 총명하고 진취적인 이 두 청년은 이 섬에서 성역을 베풀어 거둔 첫 결실로서, 우리가 추구하는 대업을 진척시키는 데 한 몫을 단단히 할 것입니다. 그중 장로에 성임된 사람은 몇 개 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합니다.”⁴

스노우 장로는 인도에서 봉사하고, 지구를 빙 돌아 항해하겠다는 꿈을 실현하지는 못했다. 대신 그는 예기치 않게 몰타에 머무는 동안 주님의 뜻에 따라 선교 사업의 기반을 부지런히 닦았다. 마침내 1852년 5월, 배에 오르게 되었을 때 스노우 장로는 솔트레이크시티로 돌아오라는 지도자들의 지시에 따라 동쪽대신 서쪽으로 향했다. 약 두 달 뒤, 우더드 장로와 오브레이 장로는 몰타에 교회 지부를 조직했다.⁵ [192쪽 제언 1 참조]

로렌조 스노우의 가르침

**우리는 복음을 충만하게 받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대표자로 봉사한다.**

우리는 신성한 계시로, 그리고 성신의 나타나심을 통해 알게 된 지식을 통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간증합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에 고대 사도들에게 나타나셨듯이 조셉 스미스에게 몸소 나타나시어 인류가 구원받을 유일한 길인 하늘의 진리를 알려 주셨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매우 중요하고 책임이 따르는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게 맡기신 이 성스러운 신뢰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도들이 부활하신 구속주로부터 부름을 받은 후, 세상에 나아가 그들의 말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안수를 통한 성신의 은사를 약속하며 온 나라에 왕국의 복음을 전파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나아갑니다. 부름과 권한을 받은 고대 사도들이 박해와 반대 가운데서도, 복음이란 그것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온 마음을 다해 외쳤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외칩니다. 고대 사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한 필수 요소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죄 사함을 위한 침례, 합당하게 권세를 받은 자가 집행하는, 성신을 받기 위한 안수례를 전파했듯이 우리도 그러한 원리와 의식을 전파합니다. 고대 사도들이 성신의 권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온 세상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충실히 전했듯이 우리도 똑같은 성신으로 구주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똑같이 신성하고 거룩한 부름을 받았으므로 우리도 똑같은 책임을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자리를 맡았기에,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모든 책임을 짊어집니다. 우리는 각자 한 행동에 대해, 또 주께서 주신 재능과 능력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해 주께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⁶ [192 쪽 제언 2 참조]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구원받도록 돕는 부름을 받는 것이다.

주께서 이 세상에서 한 개인이나 한 부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는 언제나 그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만 유익을 줄 목적으로 부르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후기 성도라 불리는 소수 백성의 구원만이 아닌 …… 산자와 죽은 자를 망라한 모든 인간의 구원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주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와 그의 후손에게 닥칠 영광에 관해 특정한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은 참으로 주목할 만합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창세기 22:15~18; 아브라함서 2:9~11 참조] …… 주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만이 아닌 온 지상 가족을 축복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

…… 예수께서는 이스라엘, 달리 말씀드리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만이 아닌 온 인간 가족을 위한 희생 제물로 오셨기에 주 안에서 모든 사람이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사명은 온 인류가 영원한 복음의 혜택을 얻도록 준비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이스라엘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포함합니다. 또한 여기에는 지상에 살고 있는 자뿐 아니라 영의 세계에 있는 자들도 포함됩니다. ……

예수께서 지니셨던 것과 동일한 신권을 지닌 우리는 그분이 하셨던 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순교자로 죽기까지는 않겠지만,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희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성스러운 신권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 되어, 세상의 구원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지상에 거하는 자들뿐 아니라 영의 세계에 있는 수많은 자들의 구원자로 삼으려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하는 직분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분의 후손들을 널리 구속하는 일을 돕도록 능력을 갖추게 해주실 것입니다.⁷ [192쪽 제언 3 참조]

주님의 사업에서 모든 부름과 책임은 중요하다.

문제는, 우리가 맡은 직분에 대해 제대로 아는가, 성취해야 하는 일의 본질을 완전히 이해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장로인 우리 형제 중 몇몇이 그들이 맺은 성약과 한때 지녔던 신앙을 거의 소진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교회 회원이라는 허울만으로 조용히 만족하며 너무나 쉽게 의무를 회피하려 한다는 것을 가끔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이름은 별로 알려지지 않았으며, 또 어찌면 ……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으므로, 어떤 습관에 사로잡혀 있든지, 또는 형제들에게 어떤 본을 보이든지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일수록 제일회장단이나 고문 같은 책임 있는 직책을 맡는다거나 십이사도 정원회에 속한다면, 아니면 고등평의회나 대제사, 칠십인 회장으로 부름을 받는다면 어떻게 처신하느냐 하는 문제는 쉽게 볼 문제가 아니라고 여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그들이 지닌 커다란 약점 또는 총체적 무지가 드러납니다. 그들은 복음에 따르는 책임을 맡았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거나, 그들의 등불은 서서히 꺼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한다면, 여러분은 세상이 줄 수도
빼앗아갈 수도 없는 것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주인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과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주인은 한 사람에게게는 다섯 달란트를, 다른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다섯 달란트를 받은 종은 장사를 하여 다섯 달란트를 더 남겨 맡겨진 몫을 두 배로 늘렸으며, 두 달란트를 받은 종도 가서 두 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겨 두었습니다. 그 종은 분명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이 너무나 작아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생각했으며, 그 결과 칠칠치 못하게도 한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마태복음 25:14~30 참조] 이 비유는 바로 우리의 장르 중 몇몇의 상황과 같지 않습니까? 한 장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목사, 혹은 재단사, 혹은 벽돌 통이나 나르는 사람[벽돌공의 조수]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하찮은 위치에 있는 제가 임무를 정직하게

이행하든 이행하지 않든, 또 어떻게 처신하든,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제가 좀 더 책임감 있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앉게 된다면 상황은 매우 달라질 것입니다.”

내 형제여, 그만 하십시오. 그렇게 피어 내는 감상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실제로 벽돌 통을 나르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이스라엘 장로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다면, 여러분은 세상이 결코 줄 수도, 빼앗아 갈 수도 없는 것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맡겨진 일이 크든 작든 간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달란트를 정직하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은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한 개인이나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에 대해 여러분에게는 얼마간의 책임이 따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자신이 깨닫고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임무를 맡았으며,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을 계속하여 받들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그 책임을 계속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까? 주어진 부름을 존중하고, 자신이 받은 신뢰에 충실하다면, 하나님 왕국에서 구원과 승영을 받게 될 가능성은 다른 누구 못지않습니다. 맡은 직분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생활한다면, 여러분은 시조 아담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또한 주어진 위치에서 올바르게 처신하는 것은 좀 더 높은 직분에 부름 받은 사람, 달리 말씀드려, 더 많은 달란트를 맡은 청지기가 올바르게 처신해야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

…… 주님은 한 달란트밖에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더 많이 가진 사람에게 요구하듯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며, 각자가 가진 정도에 따라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두 힘을 내어 각기 자신이 소유한 재능을 발전시키십시오.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땅속에 숨겨 두지 말고 이를 활용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자면, 변변찮은 재능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스스로를 향상시키며, 하늘이 자신보다 더 운 좋은 형제만큼 자신에게 관대하지 않았다 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인생에서 받은 몫에 만족하며, 비록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재능을 부여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부지런히 그 재능을 발전시키십시오. 지상 생활을 하고 있는 축복과 아울러, 특별히 복음에 순종함으로써 받은 하나님의 영에 언제나 감사함을 잃지 맙시다. ……

전에 읽었던 한 일화가 기억납니다. …… 그 일화에 나오는 한 남자는 지혜가 많고 애국심도 투철하여 큰 명성을 얻었으나 주위의 시샘 때문에 매우 부끄러워할 만한 직책으로 좌천되었습니다. 그는 새로 맡은 직무를 시작하면서 이런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 직위가 나를 영예롭게 하지 못한다면 내가 그 직책을 영예롭게 할 것이다.” 우리가 부름 받는 직분을 영예롭게 한다면,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피하게 되고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은 더 나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의 첫 부모를 위해 옷을 만들어 주셨다고, 다시 말해서 재단사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목수이셨다고 들었습니다. 구주께서는 떼떽하고 정직한 목수이셨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분은 이후에 얻은 지위를 차지할 자격이 없었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각기 주어진 부름에서 정직하고 충실하게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면, 지금 우리가 겪는 골칫거리와 괴로움의 태반은 피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업은 그 속도가 배가되고, 그분의 목적은 더 빠르고 신속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 밖에도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지금보다 더 잘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어 여러분이 맡은 일에 항상 현명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⁸ [192쪽 제언 4 참조]

신앙과 힘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분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성공하도록 도우신다.

충실하고 활기 넘치며 즐겁게 하나님을 섬깁시다. …… 즐거운 면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보일만큼 매우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몹시 드뭅니다.⁹

우리는 우리의 종교가 참되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받아들인 대업을 완수하는 일에서 온 세상을 통틀어 가장 헌신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 하며, 우리가 충실할 때, 우리가 받은 복음은 우리의 마음이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을 약속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주께서 그분의 계획과 바라시는 것을 종들을 통해 이따금씩 나타내 보이실 때, 우리는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헌신적이며, 활기 있고, 넘치는 의욕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의무를 행하는 데 미지근하거나 게을러서는 안 되며, 우리가 받은 부름에 담긴 정신과 관여하는 일의 속성을 온 마음과 힘과 영혼을 다해 이해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지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전대나 배낭도 가지지 말며, 미리부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파하되 단순히 나아가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알려 준 것을 간증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은 전능하신 분의 축복을 얻게 되었고, 하는 일마다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전능하신 분의 뜻을 행하고자 그분의 힘으로 나아갔으므로 어떠한 세력도 길을 가로막거나 반드시 성공을 거둔다는 낙관에 찬 그들의 태도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제자들을 뒷받침하고 지원하여 성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일은 그분 몫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첫째 부활의 아침에 나아올 특권과 아울러 영생이란 축복을 공고히 했으며, 자기들이 하는 일은 지상의 어떤 세력도 막지 못한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제가 그들의 직책이나 다른 어떤 직책에 있었다면 이와 같은 기대를 품는 것이 무척 기분 좋았을 것입니다. 어떤 일을 수행하다가 결국은 성공을 거둔다는 것은 사려 깊은 사람이라면 생각만 해도 매우 즐거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명 받은 대로 행하는 대신 다른 식으로 해도 똑같은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면, 하는 일에서 것처럼 훌륭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 것이며, 모든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끊임없는 기쁨과 만족의 원천이 되었던, 성공하리라는 확신도 결코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 만일 예수님 시대의 사도들이나 칠십인들이 노아가 했던 것처럼 방주를 짓는대거나 요셉과 같이 곡물 창고를 짓고 곡물을 저장하는 것으로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다고 생각했다면, 그들은 엄청난 실수를 범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애굽 땅의 요셉은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름 받았습니니다. 전대나 배낭도 없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부름 받지는 않았지만, 곡물 저장고를

짓고 애굽 왕과 귀족과 백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기근을 대비해 곡물을 저장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 요셉이 일을 하러 가서 방주를 짓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는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되며, 애굽 백성이나 아버지의 식구들을 구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방주를 짓도록 명을 받은 노아가 곡물 저장고를 지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는 자신과 가족을 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손에 임무가 주어질 때면, …… 전능하신 하나님 왕국 안에서 어떤 일이 요구될 때면, 하나님의 권능과 영향력을 얻기 위해서 이런 요구에 걸맞은 마음 자세로 걸으며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¹⁰ [192쪽 제언 5 참조]

주님의 사업은 때때로 힘들지만 큰 기쁨을 준다.

우리는 이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유쾌하지 못한 여러 경험을 하지만 그 일에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대업을 위해 헌신하고 성약을 지키기로 결심한 때를 되돌아볼 때, 우리는 크나큰 기쁨을 느낍니다. 우리의 부름에 깃든 영이 우리 위에 강하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왕국과 보조를 맞출 수 없을 것입니다.¹¹

다가오는 해에는 공적, 또는 사적인 생활에서, 행동과 정신면에서, 우리가 발하는 영향력이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면 아무것도 소용없다.”라는 모토와 조화를 이루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과거보다 더욱 충실하게 섬기겠다는 성약을 하나님과 성스러운 천사들 앞에서 새롭게 해야 합니다. 저는 ……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때까지, 지상에서 진리와 의로움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시온을 세우는 데 우리가 전념한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해의 영광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제2의 천성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하여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여 세상을 이기고 가슴속에 해의 영광의 율법을 확립하며, 나아가서는 이 율법을 생활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누구이며, 우리에게는 어떤 특권이 주어졌는지를 이해하게 되어, 해의 왕국의 율법과 관련된 축복과 해의 영광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 중 상당 부분을 이생에서 얻게 될 것입니다.¹² [193쪽 제언 6 참조]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제언

본 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다음 제언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v~vii쪽을 참조한다.

1. 183~184쪽에 나오는 이야기를 다시 읽는다.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는 것에 관한 로렌조 스노우의 자세를 어떻게 묘사할 수 있는가? 그의 모범을 따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2. 184쪽 첫머리를 읽고 생각해 본다. 교회 회원이 된다는 것은 왜 그토록 큰 책임을 동반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리스도의 대표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3. 스노우 회장은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부름이 하나님의 자녀를 “구속하는 일을 돕[는]” 기회라고 가르쳤다.(185~186쪽) 이런 이해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방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4. 스노우 회장은 우리의 책임이 아무리 작아 보이더라도 부지런히 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186~189쪽) 여러분은 작아 보이는 부름이나 임무를 영예롭게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5. 190쪽 앞부분을 읽는다. 신앙과 힘과 즐거움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가?
6. 본 장 마지막 문단을 읽는다.(191~192쪽) 여러분은 주님의 왕국에서 봉사하면서 기쁨을 느낀 적이 있는가? 우리가 맡은 일이 유쾌한 일이 아닐 때에도 어떻게 즐겁게 봉사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주님을 충실하게 섬길 수 있도록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관련 성구: 시편 100:2; 고린도전서 12:12~31; 야곱서 1:6~7; 2:3; 모사이사서 4:26~27; 교리와 성약 64:33~34; 72:3; 76:5~6; 107:99~100; 121:34~36

교사를 위한 도움말: “반원들의 의견에 진지하게 경청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러분의 모범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말에 경청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의견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질문을 해야 한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물어볼 수 있다.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또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64쪽)

주

1. Brigham Young, Heber C. Kimball, and Willard Richards, "Sixth General Epistle of the Presidency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Millennial Star*, Jan. 15, 1852, 25 참조.
2. "Address to the Saints in Great Britain", *Millennial Star*, Dec. 1, 1851, 365 참조.
3. "The Gospel in Malta", *Millennial Star*, Apr. 24, 1852, 141-142.
4. "The Malta Mission", *Millennial Star*, June 5, 1852, 236.
5. Jabez Woodard, "Italian Correspondence", *Millennial Star*, Sept. 18, 1852, 476 참조
6. *Deseret News: Semi-Weekly*, Jan. 23, 1877, 1.
7. *Deseret News: Semi-Weekly*, Jan. 23, 1883, 1.
8. *Deseret News: Semi-Weekly*, Jan. 23, 1877, 1.
9. *Deseret Semi-Weekly News*, Mar. 30, 1897, 1.
10. *Deseret News: Semi-Weekly*, Mar. 31, 1868, 2.
11. *Millennial Star*, Oct. 29, 1888, 690.
12. Conference Report, Apr. 1880, 81.



성도들이 나부를 떠나기 전에 신권 지도자들은 함께 이주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돕기로 성약을 맺었다.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혼란 …… 가운데서 벗어나 단합을 이루고, 아름다운 형제애를 나누며, 그 안에서 자신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외치십니다.”

로렌조 스노우의 생애에서

성도들이 나부에서 쫓겨나기 전, 교회를 이끄는 총관리 역원들은 성전에 모여 “[우리의] 손이 미치지 한, 온갖 방법과 영향력을 동원해서라도 나부를 떠나도록 강요당한 성도들이 특정한 집합 장소에 자리 잡을 때까지 절대로 [우리의]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성약을 맺었다.¹ 이 성약을 지키겠다고 결심한 브리검 영 회장은 1849년, 영구 이주 기금을 설립했다. 이 프로그램으로 교회는 유타에 도착해서 일자리를 찾으면 대출금을 상환한다는 전제로 이주하는 성도들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

영 회장은 로렌조 스노우 장로와 다른 몇 사람들에게 이 일을 위한 기금을 모으라는 부름을 주었다. 성도들은 가난했고 솔트레이크밸리에 정착하기까지 이리저리로 쫓겨 다녔으므로 그들에게 기부를 부탁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스노우 장로는 일지에 이렇게 기록했다. “가진 것을 도둑맞고 약탈당한 후 1,600킬로미터 이상을 힘겹게 여행하여, 광대한 ‘미국 사막’ 속의 건조하고 황량한 지역에 겨우 자리를 잡은 성도들에게 기부를 요청하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나는 힘겨운 일을 맡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들은 극소수를 제외하고 나눌 만한 돈이 얼마 안 되거나 아예 없었다.” 그러나 어느 곳을 가든지 사람들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었다. 스노우 장로는 이렇게 보고했다. “조금이라도 기꺼이 보태려 노력하는 모습을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고, 빈곤 속에서도 마음이 관대한 위대한 영혼들을 어디에서든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극심한 가난에 휩싸여 있는 분들로부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환대를 받으며 제 마음은 큰 기쁨으로 넘쳤습니다. 한 형제는 전에 살던 나라를 떠나 평화의 땅에 오기까지 주께서 자신을

인도하고 축복해 주셨다면 한 마리뿐인 암소를 가져가라고 우겼습니다. 그 형제는 하나밖에 없는 소를 주면서도 이는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며, 입장이 바뀌었다면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해 주길 바랐을 일을 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노우 장로는 유타 북부에서 헌물을 모은 후 이렇게 말했다. “성도들의 마음은 열려 있었으며, 그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관대하고도 풍성하게, 또 굳이 말할 필요도 없지만, 기쁘게 기부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²

사람들은 비록 개인적으로는 줄 것이 거의 없었지만, 단합된 노력으로 많은 이들의 삶에 축복이 되었다. 영구 이주 기금은 본래의 목적을 확대하여 나부에 있던, 교회 회원만이 아닌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다. 이 기금은 38년간 계속되었으며, 여러 나라에서 오는 수십만의 개종자가 성도들과 함께 합류하는 데 기여했다.[202쪽 제언 1 참조]

로렌조 스노우의 가르침

복음 안에서 단합하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 그분이 지니신 성품을 세상에 보이신다.

예수님은 당신과 아버지가 하나이듯이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여 주신 자들도 하나가 되기를 아버지께 간구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여 내가 그들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게 하여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처럼 모든 일에 하나가 될 때까지 스스로를 훈련시켜야 합니다.³

제가 읽은 이 구절[요한복음 17:19~21]을 보면, 주님의 목적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사도들의 단합이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와 사도들을 믿는 사람들이 단합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구주의 사명과 목적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셨음을 세상이 믿을 수 있도록, 당신과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사실 이 일은 주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에서 이끌어 낼 때 그들을 통해 이루려고 하셨던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단합된

백성이자 특별한 나라가 되며, 하나님께서 뿌듯하게 여기시며 존중해 주실 백성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믿음을 얻고, 그분께서 주고자 하시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인류는 모두 하나님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주님이 요구하신 바를 행했다면, 틀림없이 세상은 그 일로 큰 유익을 얻었을 것이며 하나님의 목적은 더욱 온전히 성취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성품과 하늘의 특성을 보여 주기를 바라셨으며, 또한 이스라엘을 통해 그분의 사랑과 축복을 모든 인류에게 전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불순종했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

만일 영적으로든 현세적으로든 우리 가운데 분열이 생긴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백성이 될 수 없으며, 거룩한 신권이 회복되었다는 것과 영원한 복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세상이 믿게 할, 주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한 가지 일뿐 아니라 모든 일에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생활해야 합니다.⁴ [202쪽 제언 2 참조]

단합은 교회와 우리 가족에게 필수이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단합해야 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는 완전하게 단합합니다. 혹 그 정원회에 완전한 단합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틀림없이 모든 사람은 '아니요, 십이사도 정원회에는 완전한 단합이 있습니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 또한 제일회장단 사이에는 완전한 단합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틀림없이 모두가 그렇다고 말할 것입니다. 칠십인 정원회의 일곱 회장들 사이에 완전한 단합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거의 틀림없이 우리 모두는 아니요 라고 답합니다. 시온의 여러 스테이크에 있는 고등 평의회에 완전한 단합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분명히 그래서 안 되며, 단합을 이룰 방법은 있습니다. 그 방법은 여러 다른 조직과 정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혹 스테이크 회장단이 완전히 단합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제가 스테이크 회장이라면, 보좌들과 단합할 때까지 낮이든 밤이든 쉬지 않을 것입니다. 감독과 보좌들은 단합되어 있습니까? 틀림없이 그래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가족은 서로 단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틀림없이 그래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남자들은 남편이나 한 가족의 아버지로서 완전히 단합을 이루지도 않았는데 벌써 노력을 그치고 이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아버지는 한 남자가 이생에서 온전해질 수 있는 만큼 가족 앞에서 온전해야 합니다. 또한 아내는 한 여자가 이생에서 온전해질 수 있는 만큼 온전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그들은 자신이 온전하게 되겠다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 만큼 자녀들도 온전해지게 할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아내는 자녀 앞에서 남편에 관해 무례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잘못했다고 생각되더라도(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 앞에서는 그 점을 절대 거론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는 자녀가 없는 다른 곳으로 남편을 데려가 남편의 잘못에 관해 상냥한 어조로 말해야 하며, 자녀 앞에서는 아버지에 대해 무례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자녀 앞에서 아내에 관해 무례한 말을 할 권리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문제를 스스로 바로잡겠다는 마음과 이해력을 남편과 아내에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는 지금 나타나는 슬한 어려움과, 젊은이들 사이에서 볼 수 있는 신권에 대한 경시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녀 앞에서 어머니가 아버지를, 아버지가 어머니를 무례하게 대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느낍니다. 이러한 일들은 그래서 일어나는 것입니다.⁵ [203쪽 제언 3 참조]

우리는 평화와 행복을 얻도록 서로 도울 때 단합된다.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원리에 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가끔 생각도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많이 실천에 옮기십니까? 또한 어려움이 우리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고나 계십니까? 마음을 합쳐 하나가 되려면 우리를 한 백성으로 결속시켜 주는 특정한 원리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정한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이 일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그 일에는 상당한 노력이 따릅니다.

함께 결속을 다지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일하시겠습니까? 한 사람이 이웃과 단합하려면 어떻게 일해야 할까요? 전혀 만난 적이 없는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하게 된다면, 서로에 대해 우정과 믿음과 애착을 가지려면 어떻



“가족은 서로 단합해야 하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그래야 합니다.”

게 일해야 하겠습니까? 일을 할 때는 왜 한쪽만이 아닌 다른 편에서도 무언가를 해야 할까요? 차라리 혼자 일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해답이 되지 못합니다. 자기만 그러한 감정에 사로잡혀 홀로 일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감정과 애착 면에서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두 사람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 서로 우정을 쌓고 하나의 공동체로 단합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마음을 넓혀 주변 친구들의 권익을 이해하고 지켜 주십시오. 친구가 유익을 얻도록 도울 힘이 있다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친구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혼자만을 위해 애쓸 때보다 필요한 것을 더 빨리 수중에 넣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타당하고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압니다.

..... 우리 주변 사람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며, 이웃의 감정과 권리를 짓밟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서 형제의 권리를 짓밟는다면, 지금까

지 둘 사이에 존재하던 신뢰가 얼마나 빨리 깨져 버리는지 아십니까? 또한 신뢰가 한 번 무너지면 과거에 존재했던 감정을 되살리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대목이 바로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할 때마다, 또 은밀히 명상할 때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유익을 염두에 두십시오.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도 권리와 특권이 있다는 점을 마음속에 굳게 새겨야 합니다.

이제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의 권익을 지켜 주는 한 사람을 선택하여 자신의 형제들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축복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과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 반대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대신, 주변 사람들의 결점을 찾고 깎아 내리라고 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똑같은 발전을 할 수 있을까요?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 만일 신뢰를 얻기 위해 지금까지 일해 온 것보다 더 큰 의욕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의 우정을 더욱 돈독하게 하기 위해 힘을 다하여 현세적 축복과 호의를 가지고 일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를 결속시키고, 다정한 마음과 형제애를 보일 수 있는 길은 오직 이 길 뿐이며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행위로써 그런 마음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 ‘친구여, 하나님의 가호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며 악수까지 해 놓고, 다음날에는 그 말을 까맣게 잊어버림으로써 그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⁶

자기 형제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지 않거나 형제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면, ……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못됩니다. 형제에 대한 그 사람의 사랑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형제를 위해 기꺼이 고통을 겪지 않는다면,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습니까? 형제의 짐을 지려 하지는커녕, 형제가 자기 권리를 무시하면 즉시 보복하고, 발가락을 밟으면 즉시 그들 발가락 위로 뛰어오르는 행위야말로 우리의 어리석음과 약점을 드러내는 행위라고 말씀드립니다. …… 저는 기분이 상한 형제가 돌아서서 기분을 상하게 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본다면, 그가 의무의 길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알려 주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왕국에서 결코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알려 주겠습니다.⁷

교리와 성약에 나오는 몇 문단을 읽어 보겠습니다.

“옛날의 나의 제자들이 서로 대적할 기회를 찾으며, 마음에 서로 용서하지 아니하더니, 이 악으로 인해 그들이 고난을 겪고 심히 징계를 받았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마땅히 서로 용서해야 하느니라. 이는 자기 형제의 과실을 용서해 주지 아니하는 자는 주 앞에서 정죄 받음이니, 더 큰 죄가 그에게 머물러 있음이니라.”[교리와 성약 64:8~9] ……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구주의 제자들이 성취하지 못한 것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제자들은 마땅히 이루어야 할 단합을 이루지 못했으며, 주께서는 이 일로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주님은 서로 용서하되,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비록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자에게는 더 큰 죄가 그에게 머무르게 된다는 말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는 곧 자기 기분을 상하게 한 자보다 그가 더 큰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요구하시지만, 이렇게 하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이라는 지점에 도달해야 하며, 아니 그곳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⁸ [203쪽 제언 4 참조]

복음 안에서 단합함으로써 빛과 예지를 키우고 하나님 면전에 거할 준비를 하게 된다.

우리는 마음이 하나가 되었던 다윗과 요나단처럼 결속하여 행동해야 하며[사무엘상 18:1 참조] 서로에게 상처를 줄 바에는 차라리 우리 몸에서 팔을 잘라 내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결속을 이루어 생활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강한 백성이 되겠습니까? 비록 지금 느끼는 우정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단계에 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면전에서 살기를 바란다면, 이와 같은 단합을 이루어야만 할 날이 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은 그런 단계에서 멀리 있다 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그런 단계에 도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원리를 배우고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이제 저는 이 원리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관해 제 방식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도들의 마음에 이런 원리를 심어 주

어 매일 품는 감정 가운데 그런 원리가 자리 잡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⁹

전능하신 하나님은 혼란, 곧 바벨론 가운데서 벗어나 단합을 이루고, 아름다운 형제애를 나누며, 그 안에서 자신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외치십니다. 우리가 이 목적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영도 그만큼 우리에게서 물러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맺은 성약에 따라 계속해서 행한다면, 그에 상응하여 빛과 예지가 커지며, 다가올 일들을 힘차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맺은 성약에 충실하고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서 있는 토대는 움직이지 않는 천국의 기둥과 같이 될 것입니다.¹⁰
[203쪽 제언 5 참조]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제언

본 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다음 제언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v~vii쪽을 참조한다.

1. 영구 이주 기금에 관한 로렌조 스노우의 경험을 다시 살펴본다.(195~196쪽)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돈이나 물건을 줄 기회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어떤 면에서 이 노력이 우리가 하나가 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가?
2. 주께서 우리가 단합하기를 원하시는 이유에 관한 스노우 회장의 가르침을 깊이 생각해 본다.(196~197쪽) 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볼 때 주님과 그분의 회복된 교회에 관한 간증을 더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가 분열된 것을 본다면,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는가?
3. 197쪽 하단 첫머리를 살펴본다. 이 권고를 여러분의 가정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가족 관계에서 더욱 하나가 되도록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4.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나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상호부조회나 신권 정원회에서 어떻게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가? (더 많은 예를 보려면 198~201쪽을 참조한다.) 여러분의 가족은 단합함으로써 어떤 유익이 있었는가? 교회에서는 어떤 유익이 있었는가? 지역 사회에서는 어떤 유익이 있었는가?

5. 왜 여러분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강한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사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하거나 토론하면서 본 장에 나오는 마지막 두 문단을 다시 살펴본다.(201~202쪽)

관련 성구: 시편 133편; 요한복음 13:34~35; 로마서 12:5; 모사이야서 18:21; 제4니파이 1:15~17; 교리와 성약 51:9; 모세서 7:18

교사를 위한 도움말: “영감 받은 교사가 ‘저는 성신의 권능과, 제 영혼에 대한 성령의 계시에 의해, 제가 가르쳐 왔던 교리가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복음 교육의 가장 높고 확실한 개종의 힘이 명백해졌습니다.”(브루스 알 맥콩키,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43쪽에서 인용)

주

1. Brigham Young, Heber C. Kimball, and Willard Richards, “Important from Salt Lake City”, *Millennial Star*, Apr. 15, 1850, 120에서 인용; 또한 Eliza R. Snow Smith, *Biography and Family Record of Lorenzo Snow* (1884), 107 참조.
2. *Biography and Family Record of Lorenzo Snow*, 108.
3. *Deseret News*, Jan. 14, 1857, 355.
4. *Deseret News: Semi-Weekly*, Jan. 23, 1883, 1.
5. Conference Report, Oct. 1897, 32–33.
6. *Deseret News*, Mar. 11, 1857, 3–4; 원 출처에서, 3쪽이 419쪽으로 잘못 표기됨.
7. *Deseret News*, Jan. 14, 1857, 355.
8. Conference Report, Apr. 1898, 61, 63.
9. *Deseret News*, Mar. 11, 1857, 4.
10. *Deseret Semi-Weekly News*, June 4, 1889, 4.



1850년대 초, 로렌조 스노우 장로가 선교사로 봉사한 이탈리아 피에몬테 지역의 오늘날 모습. 모든 충실한 교회 회원은 신권 의식과 성약을 통해 축복을 받는다.



“인류 가족의 구원을 위한” 신권

“우리가 소유한 이 신권은 인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신권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로렌조 스노우의 생애에서

1849년 2월 12일에 사도로 성임된 로렌조 스노우 장로는 그로부터 8개월 후에 이탈리아에 선교부를 세우라는 부름을 받았다. 1849년 10월 19일, 그는 함께 봉사하도록 부름 받은 다른 형제들과 함께 이런 사명을 띠고 출발했다. 스노우 장로와 동반자들은 걷고, 말을 타고, 배를 타고 가며 긴 여행을 해 나갔다.

1850년 6월, 이탈리아에 도착한 로렌조 스노우와 동반자들은 이탈리아 주요 도시 주민들이 아직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스노우 장로는 발도파라 알려진 사람들에게 마음이 끌렸고, 발도파 가운데에서 일하라는 영감을 받았다. 발도파는 수 세기 동안 이탈리아와 스위스 국경 바로 남쪽과 이탈리아와 프랑스 사이의 국경 동쪽에 있는 깊숙한 산골짜기인 피에몬테 지역에서 살았다. 그들은 종교 개혁을 소망하며 자기들만의 사회를 형성했고, 성경을 공부하고 구주의 사도들이 보여 준 모범을 따르는 데 전념했다.

스노우 장로는 발도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대해 생각이 미치자 “빛이 쏟아져 마음속으로 밀려드는 듯 했다.”¹고 한다. 이러한 확신이 들기는 했지만 교회의 적들이 교회에 관해 거짓을 퍼뜨리는 출판물을 배포하고 있었으므로, 선교 사업을 곧바로 활발하게 시작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느꼈다.² 스노우 장로는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일을 진행하는 것이 영의 뜻이라고 느꼈기에 우리는 하늘의 뜻에 따랐습니다.”³

선교사들은 바로 복음 전파에 나서지는 않았으나 스노우 장로는 이탈리아어와 불어로 된 소책자 출판 작업을 감독했다. 또한 그와 동반자들은 주변 사람들과 친분을 쌓았다. 스노우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 마음에 우호적인 감정을 키워 줌으로써 그들이 언젠가 복음을 받아들일도록 조용히 준비시키며 미래에 유용할 기초를 놓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제가 전하러 온 위대한 원리를 알리는 데 활발하게 공개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채 몇 주씩 혹은 몇 달씩 보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으며 제 인내심을 크게 시험하는 일이었습니다.”⁴

스노우 장로는 심하게 앓아 누운 소년에게 신권 축복을 했는데, 이 일로 발도파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생각을 크게 바꾸었다. 스노우 장로는 일지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9월 6일. 오늘 아침에 나는 집 주인의 막내아들인 세 살배기 조셉 가이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었다. 모두 다 그 아이가 곧 죽을 것이라 생각했기에 여러 친지가 문안을 왔다. 오후에 조셉에게 가 보니 죽음이 아이의 몸을 파괴하고 있었고, 튼실했던 몸은 이제 피골이 상접하여 가까이서 보지 않으면 살아 있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였다.”

복음 전파에 반대하는 무리들과 어린 조셉 가이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산란해진 스노우 장로는 그날 저녁, 주님께 도움을 구했다. 그는 후에 이렇게 회고했다. “저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번 일을 도와주시도록 몇 시간을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때 받은 느낌은 좀처럼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9월 7일. 오늘 아침 나는 동료들에게 …… 금식하고 산에 들어가 기도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했다. 우리는 떠나면서 그 아이에게 들렀다. 아이의 눈동자는 위로 치켜 올라가 있었고, 눈꺼풀은 늘어져 닫혀 있었으며, 얼굴색은 창백한 대리석 색과 같이 옅어져 죽음이 그에게 임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죽기 전에 흘리는 식은땀이 몸을 뒤덮었으며, 생명의 불꽃은 거의 꺼져 가고 있었다. 가이 부인과 다른 여인들은 흐느껴 울고 있었고, 가이 씨는 슬픔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가이 씨는 스노우 장로와 다른 선교사들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아이가 죽습니다. 죽어요.”

스노우 장로의 기록은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우리는 어떠한 것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을 것 같은 산에 올라 조금 휴식한 후, 엄숙한 기도로 주님께 그 아이의 목숨을 살려 주시기를 간구했다. 우리가 하고 싶어 했던 일과 곧 세상에 나아가 전해야 할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니 이 일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여겨졌다. 나는 할 수만 있다면 어떤 희생도 바치기를 마다하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 우리 요청을 들어주실 거라고 믿었다.”

그날 오후 일행은 가이 가족에게로 다시 돌아왔으며, 스노우 장로는 조셉에게 신권 축복을 했다. 몇 시간 후에 그 가족을 보러 갔을 때, 조셉의 아버지는 “고마움에 함박웃음을 지으며” 아이가 많이 나아졌다고 말했다.

“9월 8일. 아이가 많이 회복되자 부모는 좀처럼 가질 수 없었던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게다가 오늘은 아이를 남겨 두고 다른 볼일도 볼 수 있었다.” 아이가 회복되어 조셉의 어머니가 기쁨을 감추지 못하자, 스노우 장로는 이렇게 답례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부인을 위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스노우 장로는 그 일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아이의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제 마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대한 감사로 가득했습니다. 기쁘게도 그 아이는 며칠 후 자리에서 일어나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었습니다.”⁵

그 일 이후 스노우 장로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주님의 사업을 진척시키기 위한 상황이 “더 이상 바랄 수 없을 만큼 호의적”으로 바뀌었다고 느꼈다. 1850년 9월 19일, 이탈리아에서 봉사하기 위해 집을 떠난 지 정확하게 11개월이 지나서야 그는 동반자들에게 “공식적인 복음 전파를 시작”하고자 말했다. 그들은 다시 산으로 올라갔고, 스노우 장로는 회복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그 땅을 헌납했다.⁶

가이 부인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부인을 위해 이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한 말은 신권과 관련하여 로렌조 스노우가 일생에 걸쳐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잘 보여 준다. 그는 신권 소유자들이 하는 일을 통해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나타난다.”⁷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늘 상기시켰다.[213쪽 제언 1 참조]

로렌조 스노우의 가르침

신권 소유자들은 성스러운 의식을 집행하도록 하늘로부터 권세를 받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자들이다.

우리 후기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복음을 충만하게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권세인 성스러운 신권이 있으며, 신권을 통해 그분이 인정하시는 방법으로 의식을 집행합니다.⁸

누구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회개한 뒤 죄 사함을 위해 물속에 완전히 잠기고 나면 안수로써 성신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제가 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단지 권세를 주신 전능하신 이의 사자로서 죄 사함을 위해 침수로써의 [침례]를 집행할 뿐입니다. 그렇게 할 권세를 지녔기 때문에 그 사람을 물속에 잠기게 할 뿐입니다. 저는 단지 그 사람이 성신을 받도록 그의 머리 위에 손을 얹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분 앞에서 제가 소유한 권세를, 그리고 제가 그분의 사자임을 인정하시어 그 사람에게 성신을 주십니다.⁹

제가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성스러운 신권 의식을 집행했을 때, 하나님은 성신을 보내시어 집행된 의식을 확인해 주셨으며, 의식을 집행한 사람들에게 그 권세가 하늘로부터 위임되었다고 확신시키는 지식을 주셨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러 나아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모든 장로는 이 성스러운 의식을 집행함으로써 그들이 집행한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확실하게 임했다는 똑같은 간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간증합니다. 또한 이 간증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죄 사함을 위한 침례를 베풀고 영원한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식을 알려 주는 성신을 받도록 안수할 권세를 주셨으며, 자신에게 그러한 권세가 있다고 사람들 앞에 나아가 [1830년에] 주장한 사람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조셉 스미스입니다. 조셉은 성스러운 천사들로부터 받은 이 권세를 세상에 간증을 전하도록 파송되는 다른 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스러운 의식을 받는 자들은 자신도 이렇게 의식을 집행할 권능이 있다는 간증을 전능하신 분으로부터 얻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며, 이것이 이 백성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전하는 저의 간증입니다.¹⁰



모든 충실한 교회 회원은 신권 의식과 성약을 통해 축복을 받는다.

우리의 장로들이 하는 일과 같은 직분을 자신도 맡았다고 감히 주장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를 이 세상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세상 앞에 나서서, 나는 사람들에게 특정한 의식을 집행할 권세를 받았으며, 사람들은 그 의식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을 수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나 집단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든지 이러한 교리를 공표하는 자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사기꾼임이 곧 드러나며, 그러한 권세 또한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곧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들은 감히 이러한 직분을 맡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그분의 성스러운 천사들을 보내셔서 복음 의식[들]을 집행할 권세를 회복해 주셨습니다.¹¹ [213쪽 제언 2 참조]

우리는 신권을 통해 이생에서, 그리고 영원토록 행복을 얻는다.

신권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권을 통해 사람에게 신권이 부여되므로, 선하고 행복해지려는 사람은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 훌륭하고 선하며 행복해지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담긴 참뜻은 현재와 미래의 복리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러한 목적이 있으며, 우리는 그 목적을 끊임없이 지향해야 합니다. 지난 25년, 아니면 지난 10년 만이라도 뒤돌아보십시오, 그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 우리가 성취한 일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더욱 멀리 보고 사물을 더 잘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또 어떻게 해야 순리대로 일을 처리하는지를 알아야 했던 10년, 15년, 20년, 25년 전보다 지상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더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

…… 신권의 목적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지식을 전파하며, 모든 사람이 돌아가며 똑같은 축복을 받게 하는 데 있습니다.¹²

성신권은 이러한 목적에 따라 우리 시대에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를 인도하고 온전하게 하도록 주어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얻은 예지와 고결성과 충실함은 …… 우리가 회장 저편에서 들리움을 받는 상태에 이르더라도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¹³

주께서는 신권에 속한 맹세와 성약에 따라 소유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84: 33~44 참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내용을 누구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요한계시록 3:21] 이 말씀보다 더 위대한 말씀이 있을까요? 이 말씀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¹⁴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하늘로부터 계시되었으며, 우리가 지닌 신권은 인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생생하게 간직해야 합니다.”¹⁵ [213쪽 제언 3 참조]



고대 사도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멜기세덱 신권을 부여했다.

의로운 신권 소유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도움이 되도록 부지런히 힘을 다해 영적인 은사를 추구한다.

신권을 지닌 형제들에게 몇 마디 지시와 가르침과 훈계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세대뿐 아니라 수많은 과거 세대와 앞으로 올 수많은 세대의 구원과 관련된 고귀하고 성스러운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세상에 세워진 임마누엘 왕국의 영광스러운 깃발이 모든 나라와 왕국과 제국에서 펄럭여야 하며, 경고의 음성이 ……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민족들을 모으는 데 썼던 요셉의 빨처럼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입니다.[신명기 33:13~17 참조] 여러분 자신과 온 인류에게 가장 유용한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지닌 거룩하고 성스러운 직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아무리 노력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¹⁶

이 교회에는 누구 못지않게 선한 마음과 감정을 지녔지만 신앙과 열심히 일할 힘이 부족하여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과 열의와 결심이 자신들이 지닌 호의, 소망, 정직 및 선에 못지않다면, 그들은 진정 이스라엘에서 강한 사람이 되며, 아픔과 질병과 사탄의 힘은 그들 앞에서 바람 앞의 겨와 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선한 사람이며, 다른 사람과 똑같이 일할 뿐만 아니라 의로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상당한 발전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다는 데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는 성신의 도움을 통해 행사할 수 있는 영적 은사를 부여받고도 이를 사용하지 않는 장로들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부지런함과 인내로 복음의 은사를 발전시킵시다. 고대 선지자들은 특별한 축복이나 중요한 지식이나 계시, 혹은 시현을 구할 때,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여러 날, 또 때로는 여러 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¹⁷

젊은 형제 여러분,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강하고 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병자 축복을 하면 질병이 치유되고, 악령들이 여러분으로부터 도망칠 것이며, 죽은 자가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능과 올바른 소망을 통해 아담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사람이 했던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¹⁸

대망을 품고 순결, 덕성, 정절, 경건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자신과 조화를 이루어 체질로 굳어지고 우리 자신의 일부가 되어, 우리를 선하고 훌륭한 모든 진리, 공평, 공의, 자비의 중심이자 샘이 되게 합니다. 그리하여 방황하는 세상을 구하는 일을 인도하고 다스리며 도와줄 빛과 생명, 권능, 율법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대신하는 우리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할 때 신권 권능을 행사하게 되기를 기대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얻은 신권에 따른 의로움과 온전함에 비례하여 그만큼만 그 권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은 구하여 얻을 때에만 갖출 수 있는 것이므로 부활의 아침이 되면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획득한 것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경건은 부여될 수 없으며 획득해야 하는 것인데, 이상하게도, 또 유감스럽게도 종교계에서는 이 사실을 모르는 듯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유익을 구할 것입니다.

위대한 자가 되고자 한다면 선한 사람이 되고, 모든 사람의 관심사를 연구 하며, 만인의 종이 되십시오.¹⁹

우리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여러 부름을 수행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적절한 영적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모든 희생을 하고,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바치고,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주께서 이런 일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알려 주셔서 우리가 순종해 온, 복음에 약속되어 있는 은사와 권능을 부지런히 힘을 다해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²⁰ [아래 제언 4 참조]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제언

본 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다음 제언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v~vii쪽을 참조한다.

1. 205~207쪽에 나오는 이야기를 다시 살펴본다.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들은 신권 축복을 주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준비할 수 있는가? 우리는 신권 축복을 받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는가?
2. 208쪽 아랫부분에 있는 문단을 읽는다. 신권 의식들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가?
3. 신권 의식과 축복은 우리가 이생에서 행복을 찾는 데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는가? 이 의식과 축복은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얻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이 질문과 관련하여 210쪽에 나오는 스노우 회장의 가르침을 깊이 생각해 본다.
4. 211~213쪽에서 스노우 회장이 신권 소유자들에게 발전시키도록 권고한 영적 은사를 살펴 본다. 영적 은사를 발전시킨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권고는 교회의 모든 회원이 하는 노력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관련 성구: 야고보서 5:14~15; 앨마서 13:2~16; 교리와 성약 84:19~22; 128:8~14; 신앙개조 제3조 및 5조

교사를 위한 도움말: “반원들이 질문에 답할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해선 여러분이 그들의 대답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말해 주고 해당

되는 내용을 읽어 주거나 제시한다. …… 예를 들면 여러분은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잘 듣고 무엇이 가장 큰 관심거리인지 함께 이야기하십시오.’ 라든가 ‘이 성구를 읽는 동안 주님이 신앙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유의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69쪽)

주

1. 브리검 영에게 보낸 편지, *The Italian Mission* (1851), 11 참조.
2. “Organization of the Church in Italy”, *Millemlial Star*, Dec. 15, 1850, 371 참조.
3. 브리검 영에게 보낸 편지, *The Italian Mission*, 14 참조.
4. 브리검 영에게 보낸 편지. *The Italian Mission*, 14 참조.
5. “Organization of the Church in Italy”, 371 인용.
6. 브리검 영에게 보낸 편지, *The Italian Mission*, 15 참조.
7. Conference Report, Apr. 1880, 81.
8. *Deseret News: Semi-Weekly*, Jan. 23, 1877, 1.
9. *Deseret News*, Jan. 24, 1872, 598.
10. Conference Report, Apr. 1880, 81-82.
11. *Deseret News: Semi-Weekly*, Dec. 2, 1879, 1.
12. *Deseret News*, May 15, 1861, 81-82.
13. *Deseret Evening News*, Oct. 6, 1880, 2; 1880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로렌조 스노우가 전한 말씀을 상세히 풀어 쓴 기사.
14. “The Object of This Probation”, *Deseret Semi-Weekly News*, May 4, 1894, 7.
15. *Journal History*, July 11, 1865, 2.
16. “Address to the Saints in Great Britain”, *Millemlial Star*, Dec. 1, 1851, 362.
17. *Deseret News: Semi-Weekly*, Aug. 15, 1882, 1.
18. “Anniversary Exercises”, *Deseret Evening News*, Apr. 7, 1899, 9.
19. “Address to the Saints in Great Britain”, 362-363.
20. *Deseret News: Semi-Weekly*, Aug. 15, 1882, 1.



교회의 지도력과 비이기적인 봉사

“우리는 주님의 왕국 안에서 여러분의 종이며,
여러분과 모든 인류가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로렌조 스노우의 생애에서

로렌조 스노우는 1840년 10월부터 1843년 1월까지 영국 런던과 인근 지역에 있는 교회를 감리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편지로 권고를 하기도 하면서 그곳 신권 지도자들을 감독했다. 영국에서 선교 사업을 마치기 바로 얼마 전, 로렌조 스노우는 현재의 지부 회장과 매우 흡사한 역할을 했던 “런던 지부의 [두] 감리 장로”에게 편지를 썼다. 이 편지에서 로렌조 스노우는 그 지역 내 다른 지부 지도자에 관한 경험을 들려주었다.

스노우 장로는 그 지도자가 “겉으로 드러나는 잘못은 없는”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그 지도자는 “대업을 진척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며,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의무를 다하게 하는” 역량 있는 사람이었다. 부지런하고, “일을 할 때면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외관상으로 충실하게 보였으나 지부에는 문제가 끊이지 않았으며 그 중심에는 그가 관련되어 있는 듯이 보였다. 스노우 장로는 한동안 문제의 근원을 밝히려 애쓰면서도 지부 회원들에게 지도자를 지지하지 않는 점에 대해 점점 더 꾸짖었다. 그러다가 스노우 장로는 그 지도자가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며, 밖으로 드러나지도 않는, 어떤 은밀한 동기를 마음속에 품고 있어” 그 때문에 지부 내에 어려움을 야기했는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생겼다. 스노우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따라서 저는 주님께 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분별의 은사를 간구했으며,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형제가 반쯤은 가려진 일종의 자만심을 숨기고 있으며 그런 자만심에서 비롯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알게



충실한 교회 지도자는 구주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내 양을 먹이라”(요한복음 21:16~17)라는 권고를 따른다.

되었습니다. 그 지도자는 형제를 보내어 어떤 임무를 수행하게 하지만 그 일로 자신이 영예를 얻기를 은근히 바랐습니다. 만일 보낸 사람이 임무를 다하지 못하면, 일을 소홀히 했다고 해서 그를 꾸짖었는데, 그것은 주님의 일이 한 치라도 좌절되었다거나 그 형제가 축복을 잃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자기를 무시해서 불순종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형제가 여럿을 침례 주는 경우에도, 사람들이 성약 속으로 들어와서 마음에 기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자기 소관 하에 이루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했으며, 자신의 이름이 덩달아 올라가지 않는 한, 자기 휘하의 어떤 사람도 영예를 많이 얻게 되는 것을 마음속으로 바라지 않았습니다.”

지부 회원이 어떤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하더라도 자신의 권고를 낱알이 따르지 않았다면 그 지도자는 “겉으로는 승인하지만 속으로는 …… 질시하는 마음”을 품는다는 사실을 스노우 회장은 간파했다. 이어 스노우 회장은 덧붙였다. “그런 속내는 감춰져 있었습니다. 상황을 개선하지 않는 한, 그 결과는 공공연하게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분명해질 것이며, 그런 태도는 내재된 악으로서 결국 그가 유능한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그를 쪼먹을 것입니다. 그런 태도 때문에 맡은 일을 수행하는 데 불필요한 문제가 생겨났을 뿐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도 불쾌한 감정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대업을 촉진시키려는 열망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일에서 항상 그런 식으로 자신의 공헌이 분명하게 드러나 보이게 했으며, 바람직한 지침을 주려는 열의는 넘쳤지만 어떻게든 그 지침문 하단에 자신의 성명이 완전히 기입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스노우 장로는 그 현지 지도자를 비난하려고 편지를 쓴 것은 아니었다. 편지를 쓴 까닭은 다른 지도자들이 그가 표현한 교만한 마음을 “보고, 알며, 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였다. 스노우 장로는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이 전혀 없다고 철석같이 믿는 [많은 이들에게] 자신이 어떤 동기에서 일을 하는지, 또 알면 놀라겠지만 자신의 행동이 이런 마음에서 촉발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은지 면밀하게 살펴보라.”고 경고했다.

스노우 장로는 경고를 전한 다음, 이렇게 권고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람이 되려면, 다른 사람들이 번영하는 모습을 자기 일처럼 기뻐하도록 마음을 길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기만 한다면, 그 일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든 간에, 시온의 대업이 전진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자신보다 연약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 더 큰 영예를 얻더라도 가

슴속에 시기심이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작은 직분이라도 영화롭게 하고 더 높은 직분에 부름 받을 때까지 자족하며, 작은 일에도 만족할 줄 알고, 더 큰 일을 하는 데 따르는 영광을 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는 교회를 큰 건물에, 그리고 각 성도를 건물을 구성하는 각 부분에 비유하며, 우리는 “이 영적 건물에 있기에 알맞도록 가끔 베어지고, 네모지게 만들어지며, 선이 그어지고, 깎여지더라도 교만한 마음으로 이를 마다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

스노우 장로는 이런 말로 편지를 마쳤다. “감리 장로는 자신이 될 수 있고 또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이 되려는 데만 힘쓰고, 이기주의를 멀리하며, 늘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행동하고, 겸손하며,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일을 하려 하지 않고, 성숙할 때까지 너무 위대해지려고 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직분을 올바르게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몰라 헤매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며, 하나님의 현명한 목적을 이루는 데 그분의 권능이 부족한 경우도 결코 없을 것입니다.”¹ [222쪽 제언 1 참조]

로렌조 스노우의 가르침

주님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신성한 명령을 주셨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고 성스러운 신권을 받고 공식적인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구주께서 아버지 면전으로 가시기 직전에 십이사도에게 하신 “내 양을 먹이라”[요한복음 21:16~17]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라고 하십시오. 구주께서는 연속해서 이 말씀을 하셨기에 급기야 사도들은 그분이 이런 식으로 계속 요청하셔야 하는 것에 대해 슬픔을 느꼈습니다. 구주께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신 말은 “가서 네 온 마음을 다하여 나의 대업에 전적으로 헌신하라. 세상에 있는 이 백성들은 내 형제요 자매니라. 내 마음은 그들에 대한 걱정으로 차 있노라. 내 백성을 보살피라. 내 양 떼를 먹이라.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나는 네가 치르는 모든 희생에 보상을 주리라. 이 일을 수행하면서 지나친 희생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말지어다.”라는 뜻입니다. 구주께서는 사도들에게 이 일을 하라고 열을 다하여 촉구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신권을 소유한 모든 형제, 스테이크의 감리 역원, 감독, 고등 평의원들에게 가서 양 떼를 먹이라고 요청합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 그들을 위해 일하고,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의 지위를 높이는 데에 두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시의 계시를, 영감에 영감을 주시며, 성도들의 현세적, 영적 복지에 관한 문제와 관련하여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방법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² [222쪽 제언 2 참조]

**지도자와 교사는 구주께서 보이신 모범을
따르고 사랑으로 봉사하도록 부름 받았을 뿐,
스스로를 높이라고 부름 받지 않았다.**

[어떤] 사람을 불러 다른 사람들을 감리하도록 회장 부름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향력을 획득하여 자신의 지위를 높이는 데 그 영향력을 사용하라고 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도리어 그와는 반대로, 신권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어졌을 때와 같은 원리로 그러한 직분에서 희생을 하라고 부름 받은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자신이 감리하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구주께서 하셨던 것처럼 목숨을 바쳐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형제들의 주인이 아닌 종이 되어 그들의 유익과 복리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획득한 영향력을 자신과 가족, 친척과 친구를 위해 행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형제를 자신과 같은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존중하며, 각자 지닌 재능과 합당성의 정도에 따라 모두가 공평하게 축복받고 유익을 얻도록 그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속에 늘 존재하는 부성애가 자기 안에서 발전하게 됩니다. ……

…… 성도들 가운데서 설교하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 신권이 주어졌는지를 깨달으며, 왜 그러저러한 직분에 임명되었는지를 알고 온전히 느끼십시오. 즉, 그들은 모든 사람의 종이라 하신 우리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행해야 하며, 자신의 필요를 돌보듯이 애정 어린 관심으로 모든 이들의 복리를 생각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 그러면 그들은 구주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말씀하신 두 가지 큰 계명, 즉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에 담긴 뜻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마태복음 22:37~40 참조]³



“대체로 재능은 여러 사람에게 분산되어 있고 한 개인에게만 집중되는 경우는 좀처럼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가르치기] 전에 주께 기도를 드리십시오. 즉, 여러분이 말씀하는 동안 듣는 이들에게 유익이 되는 무언가를 말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예를 더해 줄 것인가 하는 점은 개의치 마십시오. 여러분은 단지 청중에게 말씀하라는 부탁을 받았으며, 청중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무언가를 얻기 바란다는 사실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오로지 주님으로부터만 옵니다. 듣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말씀이 훌륭하다고 말하거나 말거나 ……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는 전혀 개의치 말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이기심을 없애면 주님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무언가를 여러분에게 알려 주실 것입니다.⁴ [222쪽 제언 3 참조]

**현명한 지도자는 다른 사람의 재능을 알아보고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사람들은 [지도자가] 그들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을 받고, 고결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알려지며, 하나님과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성향을 지녔고, 자신에게 요구되는 일이라면 어떤 희생이라도 기꺼이 치르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 그 사람을 신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스러운 신임을 받게 된다면, 조금이라도 발전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

그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런 지도자는 매우 유능한 형제들에게 도움을 청하여 책임을 분담시켜야 할 것입니다. 대체로 재능은 여러 사람에게 분산되어 있고 한 개인에게만 집중되는 경우는 좀처럼 없다는 점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형제님, 이 자리 또는 저 자리를 채우는 데는 저보다 형제님이 더 적임자예요.” 또는 다른 사람에게 “형제님은 이 분야에 가장 걸맞은 사람이죠.” 하는 식으로 모든 사람의 재능을 이끌어 낼 때까지 계속하면, 그 지도자는 그런 과정을 통해 자신에 대한 대중의 신임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많은 신임을 얻게 됩니다.⁵ [222쪽 제언 4 참조]

올바른 인도는 겸손, 좋은 본보기, 다른 이들의 복리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다.

권위[적인] 규율은 성도들을 다스리는 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겸손, 지혜, 선으로 보살피며 이론보다는 실천을 통해 가르치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천사와 같이 능란한 화술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올바른 습관, 좋은 본보기, 바람직한 행위, 온 마음을 다해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모습을 한결같이 보이는 것만큼 더 설득력 있고,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⁶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가 충실하고 단합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충실하고 단합하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듯이 여러분도 우리를 따른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의무를 다하고 주님을 섬기며 그분 백성의 유익과 그분의 일을 성취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왕국 안에서 여러분의 중이며, 여러분과 모든 인류가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지상에서 그분의 일을 수행하실 때, 유명하거나 학식이 높은 사람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학이나 신학교에서 훈련과 교육을 받은 사람보다는 대업을 위해 헌신하는 겸손한 이들을 택하여 그분의 교회 일을 맡기십니다. 기꺼이 성령의 인도와 안내를 받으려 하고, 마땅히 영광을 그분께 바치며, 혼자서는 아무 일도 성취할 수 없다는 점을 아는 사람들에게 맡깁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제게 지위된 현재의 책임을 맡아야겠다는 야심을 품은 적이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 책임에서 명예

롭게 벗어날 수단 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구하지 않았으며, 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형제들에게 도움을 청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와 형제들에게 이 일을 맡는 것이 그분의 뜻을 알려 주셨기에 저는 어떠한 책임도 임의로 회피하거나 주님께서 맡으라고 요구하시는 어떤 자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⁷

저는 여러분의 유익과 하나님 왕국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유익과 관련된 여러분의 유익을 촉진하는 일이라면 제가 지닌 지식과 이해력을 모두 발휘하여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도움을 받아 이 일을 하겠습니다.⁸ [아래 제언 5 참조]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제언

본 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다음 제언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v~vii쪽을 참조한다.

1. 로렌조 스노우 회장이 영국 지도자들에게 쓴 편지(215, 217~218쪽)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일례로, 교회 부름에서 “자만심”을 지니면 어떤 결과가 따르는가? 어떻게 하면 자신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부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2. 218쪽에서 시작되는 부분을 공부한다. 지도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양 떼를 먹[일]” 수 있는가? 교회 지도자들은 여러분을 “먹이기” 위해 무슨 일을 했는가? 그런 지도자들이 지닌 성격상의 특징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점을 존경하는가?
3. 자신의 지위를 높이려는 경우에 대해 스노우 회장이 경고한 부분(219~220쪽)을 읽는다. 그런 다음 217쪽에 나오는 두 번째 문단 전체를 읽는다. 왜 우리는 봉사할 때 자신의 동기를 살펴봐야 하는가?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본다.
4. 220쪽 아랫부분의 문단을 숙고한다. 지도자가 다른 회원들과 책임을 분담할 때 와드나 지부는 어떤 영향을 받는가? 각기 다른 재능과 경험을 소지한 교회 회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일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는가?

5. 스노우 회장은 “권위[적인] 규율은 성도들을 다스리는 데 적합하지 않습니다.”(221쪽)라고 권고했다. 교회 지도자가 권위적인 규율을 내세운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가? 또 부모가 그렇다면? 겸손한 지도력은 어떤 결과를 낳는가?

관련 성구: 마태복음 6:24; 20:25~28; 23:5; 마가복음 10:42~45; 요한복음 13:13~17; 니파이후서 26:29; 28:30~31; 모사이야서 2:11~19; 제3니파이 27:27; 교리와 성약 46:7~11; 50:26; 121:34~46

교사를 위한 도움말: “공과 전에 칠판에다 질문을 적어 두는 것은 반원으로 하여금 수업 전에 그날의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효과가 있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93쪽)

주

1. Letter from Lorenzo Snow to William Lewzey and William Major, Nov. 1842, in Lorenzo Snow, Letterbook, 1839–1846, Church History Library.
2. *Deseret News*, Jan. 14, 1880, 787.
3. *Deseret News*, June 13, 1877, 290–291.
4. *Improvement Era*, July 1899, 709.
5. *Deseret News*, June 13, 1877, 290.
6. “Address to the Saints in Great Britain”, *Millennial Star*, Dec. 1, 1851, 362.
7. *Deseret Semi-Weekly News*, Oct. 4, 1898, 1.
8. Conference Report, Oct. 1898, 54.



“사람은 지식을 얻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싶어집니다. 또 그가 행복해지면, 그를 둘러싼 영이 그에게 다른 사람들도 행복해지도록 힘쓰라고 가르칩니다.”



선교 사업: “모든 사람의 마음에 다가[가며]”

“모든 사람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길은 있기 마련이므로 여러분이 할 일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도록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로렌조 스노우의 생애에서

로렌조 스노우는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침례를 받았으며, 그곳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교회 지도자 몇몇이 참석하는 히브리어 강좌를 들었다. 그는 언젠가 미국 동부에 있는 대학에서 “고전”을 공부하고자 하였다.¹ 그러나 그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다른 목적에 마음이 끌리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훗날 그는 이렇게 회상했다.

“나는 열린 마음으로 [복음 진리]를 받아들였으며, 거기에 안주하지는 않겠다고 결심했다. …… 나는 이 놀라운 지식을 얻은 후에 이를 증거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 하는 걱정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 선교 사업을 나갔다 귀환한 젊은이들은 자신이 받은 축복에 대해 간증했다. …… 그러자 동부에 있는 대학이나 대학교에 갈 준비를 하는 대신 주님께서 것처럼 온전하게 주신 지식을 증거하는 일이 내가 마땅히 시작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 왔던 학업 계획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다. 당시 나에게는 그 계획을 이를 기회와 방편이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마음속 갈등이 커지자 그는 미더운 벅에게 조언을 청했다. “제가 원하는 바를 알리자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노우 형제, 그런 상황에 있는 자네에게 다른 누구에게도 하지 않을 권고를 하겠네. 내가 만일 자네 입장이라면 내 뜻대로 학업을 택하겠네.’ 친구에게서 듣고 싶었던 말을 들었기에 저는 흐뭇했습니다. 한동안은 느긋한 마음으로 있었으나 겨울철에 그

젊은 장로들이 복음을 전파하며 거둔 성공에 대해 간증하는 것을 들은 후, 다시금 그 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저에게 알려 주셨기에 저는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분은 제가 간구한 모든 것, 아니 그 이상을 주셨습니다. 성신을 받는 불의 침례와 그 후에 받은 완전한 지식은 차가운 물속에 잠길 때보다 더 생생하고, 더 큰 확신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게 맡겨진 책임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책을 덮고, 라틴어와 그리스어 공부를 접었습니다.”²

이런 결정을 내린 후 로렌조 스노우는 1837년에 오하이오 주에서 선교사로 봉사했다. 나중에는 다른 지역에서 선교 사업을 했는데 처음에는 미주리 주, 일리노이 주, 켄터키 주, 오하이오 주에서, 그 다음에는 영국, 이탈리아, 하와이 제도, 미국 북서부, 와이오밍 주에서 봉사했다. 그는 영국에 머물던 시절에 고모에게 편지를 쓰며 자신이 흔쾌히 집을 떠나 선교사로 봉사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어린 시절을 보낸 집과 일찍이 사귀었던 모든 좋아하는 벗들로부터 6,400에서 8,000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왜 이곳에 있는가? ……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를 통해 영원한 복음과 그에 따른 모든 은사, 권능, 의식, 축복을 충만하게 회복해 주셨으며, 모든 백성에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왔느니라.’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저는 이 땅에 있는 나라들에 이 말씀을 전하도록 대표자로 부름 받았으며, 이로써 저는 전능자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커다란 책임을 맡았음을 느낍니다.”³

스노우 회장은 자신이 선교사로 주님께 봉사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늘 감사했다. 1901년 9월, 87세가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씀했다. “지금도 선교사로 봉사하던 때를 떠올리면 기쁩니다. 이 특별한 경험을 통해 생긴 감정은 제 삶과 피가 되었습니다.”⁴ [234쪽 제언 1 참조]

로렌조 스노우의 가르침

**충만한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는 다른 사람도 같은
축복 안에서 기뻐하도록 돕고 싶어 한다.**

사람은 지식을 얻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싶어집니다. 또 그가 행복해지면, 그를 둘러싼 영이 그에게 다른 사람들도 행복해지도록 힘쓰라고

가르칩니다. ……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지식 없이도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 세상에서 [사람들은] 행복해지려고 애쓰지만, 이루고자 노력하는 일에서 여전히 성공하지 못합니다. 한 가지 원리를 따르는 길 외에는 행복에 이를 방법이 없는데, 이는 바로 충분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복음은 영원한 세상에 갈 때까지 행복해지기를 기다리라고 가르치지 않으며, 이곳에서 자신과 주위 사람들이 전능자의 은총 안에서 기뻐하도록 힘쓰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배우며, 친구들의 구주가 되고, 그들을 구할 방법을 배우며, 우리와 같은 수준의 예지를 얻는 데 필요한 원리를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⁵

가서 주위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친구를 사귀십시오. 아니면 한 사람을 택하여 그 사람의 감정, 신앙, 환경과 심경에 변화를 일으키고 깨우쳐 주기 위해 힘쓰십시오. 그들이 죄인이라면 죄에서 구해 내고자 애쓰며, 그들이 처한 속박에서 여러분이 있는 빛과 자유 속으로 이끌어 내십시오. 이 방법으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전해 주신 지식을 통해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⁶ [234쪽 제언 2 참조]

선교사들은 다른 사람들이 진리의 지식으로 나아오도록 돕기 위해 기꺼이 희생한다.

성도들이 [유타에 있는] 이 분지에 그런대로 정착하자마자 주님의 종들은 교회에 맡겨진 위대한 선교 사업에 다시금 주의를 돌렸습니다.

우리는 빈곤에 처해 있으므로 이 땅을 살 만한 곳으로 만들고자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파하는 책무를 게을리할 수는 없습니다. 주께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명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후기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쫓겨나고 온갖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주께서 내리신 이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하려 했다는 점은 이 사업이 신성하다는 증거 중 하나입니다.

개척자들이 [솔트레이크] 분지에 들어온 지 불과 2년 후인 1849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여러 장로들은 지구 곳곳에 선교부를 개설하도록 부름을 받았었습니다. 십이사도 중 네 분이 이 일을 이끌도록 지명을 받았습니다. 사도

에라스투스 스노우는 스칸디나비아로, 사도 존 테일러는 프랑스로, 저는 이탈리아로, 사도 프랭클린 디 리차즈는 이미 선교부가 설립되어 있는 영국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당시 우리는 적대적인 환경에 처해 있었고, 가족 또한 극도로 궁핍한 처지에 놓여 있었기에 그 일은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부르셨기에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우리는 응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⁷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이해시키려고, 다시 말해 그분이 이 시대에 인간사와 관련이 있으시다는 점을 이해시키려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점점 더 불신앙 쪽으로 흘러갑니다. 인류 가족 가운데 기독교도인 수천 수만의 사람들은 평이 나빠질까 두려워 기꺼이 고백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자녀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 희생물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가 있다는 믿음과 지식을 사람의 자녀들에게 알려야 합니다.⁸

우리가 젊은 선교사들을 불러 지상에 있는 나라들로 가라고 하면 그들은 이 문제를 심사숙고합니다. 이미 세상에 나가 선교 사업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경험담을 듣고, 앞으로 통과해야 할 시련과 난관을 헤쳐 나갈 생각을 하면 기분이 썩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흔쾌히 시작하고, 선교 사업을 나가는 데 필요한 요구를 따르는 미덕을 발휘합니다.⁹

선교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 젊은 장로들에게 전적으로 유쾌한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만나게 될 사람들이 늘 자신이 전해야 하는 말들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은 않는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생명의 씨앗을 지녔으며, 혹 정직한 남자나 여자를 찾으면 주님의 영이 그들 마음에 역사하시어 선교사가 전하는 영광스러운 소식을 받아들일지도 모른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기쁨과 만족을 얻습니다. 장로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미래에 맡게 될 책무를 수행하는 데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얻을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저는 선교 사업을 나가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 그중에서도 대부분 젊은이들에게서 수천 통에 달하는 편지를 받았는데, 이상한 점은 거절하는 내용이 단 한 번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까닭은 사랑



“개인적인 관심사를 떨쳐 버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당당하고 영광스러운 성공을 거둘 것이며, 온 교회가 여러분이 수고한 결과를 느낄 것입니다.”

과 불멸의 영, 즉 전능자의 영이 이 젊은 장로들에게 임하였으며, 그리하여 그들은 그 일을 하도록 고무시켜 주는 현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유인책을 써도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자극을 주지는 못합니다.¹⁰ [234쪽 제언 3 참조]

선교사는 자신이 하늘의 대표자이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도록 장로들을 파송합니다. 누가 그들을 보냈습니까? ……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십니다. 이 일은 그분의 일입니다. 주님은 한 장로가 그분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다른 누구보다도 그 성공 여부에 관심을 두십니다. 그들은 다른 세상에서 그분 자녀였으며, 주님께서 가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¹¹

우리는 여러분[선교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성공을 거두리라 여깁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이런 일을 결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사업의 위대함을 생각하면 놀라움을 금치 못합

니다. 저는 이 일이 이 시대에 필요한 바로 그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이 온 영혼을 다하여 이 사업에 참여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 외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같은 마음 자세를 키우십시오.[요한복음 5:30 참조]

어려움이나 명백한 실패에도 개의치 마십시오. 개인적인 관심사를 떨쳐 버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당당하고 영광스러운 성공을 거둘 것이며, 온 교회가 여러분이 수고한 결과를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 가운데 무관심한 사람이 있더라도, 또 다소 실망스러운 일을 겪게 되더라도 그것에 개의치 마십시오. 주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의 영을 각성시키고 그들의 무관심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 여러분은 수행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일을 이루었다는 사실에 만족할 것입니다. ……

여러분은 충만한 권세를 받았지만, 여러분이 이에 대해 말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주님의 영이 이를 확인해 주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음을 느낄 것이므로 그 일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확인과 느낌이 주어지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권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보다 더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의무를 다한다면, 그들은 여러분이 떠나기 전에 여러분이 자기보다 좀 더 많은 것을 가졌으며, 자기를 축복하고 도움을 주었다고 느낄 것입니다. ……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겸손함을 보이고 주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면, 여러분이 부름 받은 직분에 걸맞은 사람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행복하고 기분 좋게 만들려면 사람들의 성격을 이해하려고 힘쓰고, 그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

모든 사람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길은 있기 마련이므로, 여러분이 할 일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도록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

제 마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은 떠나기 전에 성별받게 되며,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

하고 여러분께 깊은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온화한 마음을 지니며 겸손해지십시오. 여러분이 청중을 바라볼 때, 여러분을 고무시킬 수 있는 동기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잘해서 웅변가로서 청중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 주고 싶은 바람이고, 다음으로는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청중 속에 있는 사람들 마음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려면 이런 기도가 마음에서 우리나라야 합니다. “주님이시여, 이렇게 해 주옵소서. 당신의 영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권능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장로로서 해야 하는 기도는 이 짧은 기도가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이 해야 할 전부입니다. “이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 제가 무언가를 말해도 되겠습니까?” 제일회장단과…… 모든 형제들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일을하기를 바랍니다.¹²

여러분의 주의를 영적인 감주를 손질하는 데 돌리십시오. 저는 세속적인 일을 모두 내려놓을 때 비로소 영적인 일에만 전념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형제들이여, 기도하시고 금식도 마다하지 마십시오. …… 농담이 지나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영을 슬퍼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저는 선교 사업을 나간 지 한두 주가 지나자 집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으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이 저를 떠받들어 준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마음이란 자유와 즐거움 쪽으로 이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지나치게 희희낙락하지는 마십시오. ……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정수리로부터 발끝까지 임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마음을 품으십시오.¹³

포도원에서 일하는 장로들은 자신이 하늘의 대표자이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처음으로 장로들을 외국에 파송하면서 그들이 어떤 대접을 받게 될지를 예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로들에게 비교적 소수만이 그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영접할 것이며 대다수는 배척하고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사 이래 하나님의 종들이 처한 상황도 그러했으므로, 우리를 통해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도, 충실하게 수고했다면 그 결과에 만족해야 합니다. ……

저는 어느 정도 자신을 잊고 일해 온 장로가 …… 세상의 유혹에 희생물로 전락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유혹을 피할 수 있는 방

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악을 피하는 것이며, 심지어 악마가 직접 나타나다 하더라도 이를 피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유혹은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을 가로막는 대적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장로들은 유혹을 딛고 일어서야 하며, 이 일에서 성공하려면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흠 없이 지켜내야 합니다. ……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키우고 이를 소중히 여기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고귀한 부름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부름에 따라 생활하기만 한다면 그들은 사람들의 안내자와 구주로서 우뚝 설 수 있으며, 사람들에게 천국의 빛을 비추어 주고,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대적의 영토에 발을 디디고 세상의 태도를 받아들이면 자신이 지닌 힘이 거두어져서 다른 사람들처럼 되어 버립니다. 그 결과, 낙오자로서 집에 돌아가 고작 슬픔의 잔이나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 자신의 상황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비통함을 안겨 주게 될 것입니다. …… 그렇지만 겸손하게 끊임없이 주님을 찾으며, 그분의 영예와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고, 마음속으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바라며, 인간의 구원을 가져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한다면 그들은 육체로써 수고하는 동안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또 중국에는 필멸의 존재라면 이해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지극히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취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¹⁴ [234쪽 제언 4 및 5 참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충만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도울 때 기쁨을 얻는다.**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 쪽에서 많은 인내, 신앙, 부지런함, 오래 참음, 끈기를 발휘하거나 체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 예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도시에서는 …… 마침내 수천 명이 복음을 받아들였기는 해도, 그런 원리들에 대해 적절한 주의와 순종이 있기까지 여러 달 동안 헛수고를 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 우리는 몇 달뿐이 아니라 어쩌면 여러 해까지도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 기도, 일과 주님의 축복을 통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예와 영광을 위해 그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습니다. 우리는 그 밖에도 *우리 의무를 다했으며* 사람들의 피로부터 우리 옷을 깨끗하게 했다는 만족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¹⁵

저는 이탈리아로 향하기 전에 [어떤] 일로 [영국에 있는] 맨체스터, 메이클즈필드, 버밍엄, 첼튼엄, 런던, 사우샘프턴, 사우스컨퍼런스를 찾았습니다. …… 저는 [8년 전에] 저를 통해 교회로 들어왔던 많은 이들을 만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 분들과 재회하는 일은 말할 필요도 없이 참으로 즐겁고, 생각할수록 기분 좋은 일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시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아느니라]” [요한1서 3:14] 교회의 장로 선교사들 마음속에 담긴 세상 사람들에 대한 사랑, 또 낯선 사람이긴 해도 자신에게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장로들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담긴 사랑은 그 자체만으로도 정직한 이들에게 그 근원이 성스러우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믿음을 심어 주는 간증이 됩니다. 우리는 성신이 일깨워 준 이런 성스럽고 거룩한 느낌으로 나머지 인류 가족과는 구별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느낌으로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친구이자 종임을 확신시켜 줄 것입니다.¹⁶

저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 제 삶을 바쳤으며, 제 모든 것을 희생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로써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뜻을 충실히 행하며, 생명의 원리를 사람의 자녀 가운데 전파합니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면서 놀랍도록 제 길을 열어 주시고 이 선교 사업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기대 이상으로 번성하게 해 주신 주님의 손길을 더듬어 보면, 미래를 향해 더욱 정진해 나가야겠다는 용기가 배가됨을 느낍니다. 또한 그분께서 주신 축복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이 선교 사업에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여 주신 형제들과 성도들에게는 그들이 관대함을 보인 만큼 가장 높으신 분의 축복이 부어질 것입니다. 또한 여러 해가 지나면 그들은 그 나라의 수천 수만 명이 계시의 빛을 밝혀 주신 전능자를 소리쳐 찬양하는 감미로운 음성을 듣게 되며, 그때가 되면 자신이 이 영광스러운 구축 사업을 수행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는 반가운 사실을 깨닫고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¹⁷ [234쪽 제언 6 참조]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제언

본 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다음 제언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v~vii쪽을 참조한다.

1. 225~226쪽을 읽고 “내가 왜 이곳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로렌 조 스노우의 답을 생각해 본다. 이 질문은 어떤 면에서 교회의 모든 회원이 복음을 나눌 기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2. 227쪽 첫머리에 있는 스노우 회장의 권고를 숙고한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도록 돕기 위해 이 권고를 어떻게 따를 수 있겠는지 생각해 본다.
3. 스노우 회장은 복음을 나누기 위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바친 희생에 대해 말씀했다.(227~229쪽) 사람들이 복음을 나누기 위해 희생하는 본보기를 보았다면, 그것은 어떤 것인가? 사람들은 왜 이런 희생을 기꺼이 바친다고 생각하는가?
4. 229~230쪽에 나오는 확신은 전임 선교사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복음을 나눌 때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우리는 선교 사업 나가기를 망설이는 누군가에게 이런 가르침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5. 230~232쪽에 나오는 스노우 회장의 권고를 복습하며 그 권고가 모든 교회 회원의 생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관심사를 떨쳐 버리십시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가? 우리가 “모든 사람의 마음에 다가[가기]” 위해 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6. 스노우 회장이, 선교 사업에 대한 기쁨이 오래 지속됨을 알려 주는 본 장 마지막 문단을 읽는다. 여러분은 언제 선교 사업의 기쁨을 경험했는가? 왜 우리는 이런 기쁨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을 때까지 종종 인내심을 발휘해야만 하는가?

관련 성구: 엘마서 26:1~8, 35~37; 교리와 성약 12:7~8; 18:10~16; 84:88

교사를 위한 도움말: “반원들에게 원하는 부분을 선택하여 마음속으로 읽어 보라고 한다. 같은 부분을 선택한 사람 두세 명을 묶어서 배운 내용을 토론해 보게 한다.”(본서 vii쪽에서)

주

1. Journal and Letterbook, 1836-1845, Church History Library, 33; 또한 “The Grand Destiny of Man”, *Deseret Evening News*, July 20, 1901, 22쪽 참조.
2. “The Grand Destiny of Man”, 22.
3. Eliza R. Snow Smith, *Biography and Family Record of Lorenzo Snow* (1884), 48.
4. “Letter from President Snow”, *Millennial Star*, Sept. 12, 1901, 595.
5. *Deseret News*, May 15, 1861, 82.
6. *Deseret News*, Mar. 11, 1857, 3; 원 출처에는 3쪽이 419쪽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음.
7. “Scandinavians at Saltair”, *Deseret Evening News*, Aug. 17, 1901, 8.
8. Laid to Rest: The Remains of President John Taylor Consigned to the Grave”, *Millennial Star*, Aug. 29, 1887, 549.
9. “Report of the Funeral Services Held over the Remains of Daniel Wells Grant”, *Millennial Star*, June 20, 1895, 386.
10. Conference Report, Apr. 1901, 2-3.
11. *Deseret Weekly*, May 12, 1894, 637.
12. “Instructions to Missionaries”, *Improvement Era*, Dec. 1899, 126-129; 로렌조 스노우는 상호향상회에서 새로 선교사 부름을 받은 형제들에게 이 권고를 전했다. 그의 설교는 *Improvement Era*에도 게재되었는데, 거기에는 이 설교가 “대업에 종사하는 모든 일꾼들의 마음에 도움이 되는 권고와 충고로 가득하다.”는 설명이 곁들여 있다.
13. Journal History, Apr. 9, 1862, 4.
14. “Letter from President Snow”, 595-596.
15. “The Malta Mission”, *Millennial Star*, June 5, 1852, 237.
16. “Letter from President Snow”, 595.
17. “Address to the Saints in Great Britain”, *Millennial Star*, Dec. 1, 1851, 365.



로렌조 스노우 회장은 복음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회복되었다고 간증했다.

하나님의 왕국은 전진해 나간다

“[하나님의]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습니다. ……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로렌조 스노우의 생애에서

1844년, 로렌조 스노우는 미국 동부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그의 형 하이럼이 순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 슬픈 소식은 물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경악과 슬픔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지시에 따라 일리노이 주 나부에 있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¹

후에 그는 이렇게 회상했다. “조셉의 시대에는 조셉이 교회의 운명을 인도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번영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러 있었다. 조셉이 순교하여 이 세상에서 영의 세계로 건너가게 된 날이 닥치자 하나님의 왕국 전체에 걸쳐 커다란 동요가 일었다. 예기치 못한 일이었기에 성도들은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교회를 인도할] 책임이 십이사도 정원회로 넘겨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과 사도들 가슴속에 거하는 영감의 영을 통해, 또한 전능자의 인도로 왕국은 전진해 나갔다.”²

교회 제2대 회장인 브리검 영은 33년 간 교회를 인도하다 1877년에 서거했다.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이었던 로렌조 스노우 장로는 지상에서 교회 지도자가 바뀌는 것을 다시 한번 목격했다. 훗날 그는 영 회장이 “거의 예기치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셨기에 성도들은 어떤 대비도 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왕국은 전진해 나갔다.”라고 말했다.³

1887년, 제3대 교회 회장인 존 테일러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스노우 장로는 다시금 성도들을 안심시켰다. “주님께서는 친애하는 형제 테일러 회장을 이 괴로움 많은 세상, 순교의 세상에서 부르시기에 지금이 적절하다고 보셨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여전히 전진해 나갑니다.”⁴

테일러 회장 장례식에 참석한 성도들을 안심시킨 후, 약 11년이 지난 1898년에 로렌조 스노우는 자신에게도 그런 재확신이 필요함을 알았다. 당시 그는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었는데, 교회 회장인 월포드 우드럽 회장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스노우 회장은 만일 자신이 우드럽 회장보다 오래 살면, 이미 확립된 계승선에 따라 자신이 교회를 감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그에게는 그런 가능성에서 비롯된 부담감이 밀려왔다. 교회 지도자로서 임무를 맡기에는 자신이 부적합하다고 느낀 그는 솔트레이크 성전 안에 있는 방에 홀로 들어가 기도를 드렸다. 스노우 회장은 하나님께 우드럽 회장의 생명을 구해 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면 어떤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우드럽 회장은 스노우 회장이 성전에서 간절한 기도를 드린 지 얼마 안 된 1898년 9월 2일에 세상을 떠났다. 스노우 회장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북쪽으로 약 100킬로미터 떨어진 브리검시티에 있었다. 그는 당일 저녁 기차로 솔트레이크시티로 떠날 준비를 했다. 도착 후, 그는 다시금 성전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 기도했다. 스노우 회장은 자신이 부적합하다고 느꼈지만 기꺼이 주님의 뜻을 따르겠노라고 말씀드렸다. 인도를 구하고 답을 기다렸으나 아무런 응답도 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방을 나왔다.

커다란 복도에 들어서자 스노우 회장은 비로소 구하던 응답과 재확신을 받았다. 스노우 회장 앞에는 부활하신 구주께서 서 계셨으며, 그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 주셨다. 스노우 회장은 훗날 손녀인 앨리스 폰드에게 그 경험을 들려주었다. 앨리스는 할아버지와 함께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나누는 대화를 기록했다.

“나는 할아버지보다 몇 발짝 앞서서 커다란 복도를 따라 해의 왕국실을 향해 걷고 있었다. 그때 할아버지가 나를 세우시며 말씀하셨다. ‘잠깐만 엘리, 너한테 말해 줄 게 있구나. 우드럽 회장이 돌아가셨을 무렵,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나타나신 곳이 바로 여기란다. 그분께서는 나에게 즉시 가서 교회 제일회장단을 다시 조직하고, 이전에 교회 회장들이 사망했을 때처럼 기다리지 말고 우드럽 회장의 뒤를 이으라고 지시하셨단다.’

그런 후 할아버지는 한 걸음 더 다가와 왼손을 내미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바로 이곳에서 바닥으로부터 약 1미터쯤 위에서 서 계셨단다. 마치 순금으로 만든 발판 위에서 서 계신 듯이 보였지.’

할아버지는 구주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말씀하시며 손, 발, 얼굴, 그리고 아름답고 새하얀 그분의 옷을 묘사하셨고, 그 모든 모습이 너무나 희고 밝은 영광에 싸여 있어서 바라보기가 힘들 정도였다고 말씀하셨다.

그런 후 [할아버지는] 한 발짝 더 다가오시더니 내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다. ‘얘야, 이 할아버지가 이곳 성전에서 실제로 구주를 뵈었으며 그분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내 입으로 말해 준 이 간증을 잘 기억하기 바란다.’”⁵

스노우 회장은 구주를 뵈게 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여러 해 동안 알아온 진리를 성스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진리에 고취된 스노우 회장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끊임없이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수시로 간증했으며, 주께서 하시는 후기의 사업을 진척하는 일에 참여하는 기회에 대해 감사해했다. 교회 회장으로 지지받은 1898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그는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는 다음 대회를 맞이할 때까지 지금보다 더 나은 백성이 되며, 더욱 단합하는 백성이 되겠다고 마음속으로 선언하고 이를 개인적으로 주님께 입증합니다. 이 엄숙한 회합에 참여한 모든 남녀는 그렇게 느끼고 결의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 왕국의 이익과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과거보다 더욱 힘써 헌신하겠노라고 마음으로 다짐합니다.”⁶ [246쪽 제언 1 참조]

로렌조 스노우의 가르침

주님께서는 예언의 성취로서 이 땅에 그분의 교회를 회복하셨다.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19세기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계시해 주셨음을 간증드립니다. 그 계시는 하늘로부터 온 그분 음성으로, 그분 아들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또 거룩한 천사의 성역을 통해 주어졌습니다. 그분은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백성이 회개해야 하며, 악행과 불의한 소망으로부터 돌이켜 죄 사함을 얻기 위한 침례를 받아 성신을 받고 그분과 교감을 나누도록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와 인종을 막론한 모든 거룩한 선지자, 성인, 선전자들이 말해 온 그 구속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⁷

후기 성도들이 믿는 진정한 종교의 별칭인 몰몬이즘은 이 세대에게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몰몬이즘은 그 자체가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하늘에서 세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여러 세대에 걸쳐 계시된 구원의 계획을 원형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담,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고대에 살았던 여타 합당한 사람들은 우리가 한 백성으로서 진정으로 믿는 이 신앙을 여러 경륜의 시대를 거치면서 계속 지녀 왔습니다. …… 한 마디로 몰몬이즘은 초기 기독교 신앙이 회복되고 고대 복음이 다시 돌아온 것으로서, 이번에는 마지막 경륜의 시대를 안내하여 복천년을 맞이하고, 이 지구에 관한 구속 사업을 마무리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⁸

우리는 오랜 세월 전에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왕국을 세우시는 전능자의 손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왕국은 계속 성장하고 퍼져 나가 온 땅을 채울 것이며[다니엘 2:44 참조], 그때가 되면 빛과 예지가 널리 퍼져 어떤 사람도 동료에게 “너는 여호와를 알라 ……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예레미야 31:34] 하고 더는 말할 필요가 없으며, 주님의 영이 만민에게 임하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입니다.[요엘 2:28 참조] 그때가 되면 주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입니다.⁹[이사야 11:9 참조] [246쪽 제언 2 참조]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류 가족의 유익과 축복을 위해
..... 이 땅에 그분의 교회와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확실한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진해 나갈 것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류 가족의 유익과 축복을 위해 진리의 길 안에서 그들을 인도하며, 그들이 그분 면전에서 승영을 얻도록, 그리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강림과 그분의 지상 왕국을 맞도록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이 땅에 그분의 교회와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사악한 자와 어둠의 세력이 일으킬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될 것이며, 이 사업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이 제거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그분의 권능에 대항하지 못하며, 그분이 선포한 것은 모두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분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깃들며, 백성들은 그분 힘 안에서 승리할 것입니다.¹⁰

이제 이 왕국이 파괴되겠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 어찌면, 하늘에서 별을 따거나 해나 달을 그 궤도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전능자가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¹¹

하나님의 왕국은 힘과 권능으로 크고 영광스러운 성공을 거두며 앞으로 나아간다.¹²

이 사업은 확실한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만년 반석 위에 기반을 둡니다. …… 도중에 길을 잃고 신앙이 깨지는 사람이 있더라도 교회는 계속 나아갑니다.¹³

이 교회는 굳건한 기초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것입니다. 이 교회는 사람이 만든 교회가 아니며, 구약 또는 신약을 연구하여 만든 교회도 아닙니다. 또 대학이나 신학교 같은 데서 받은 교육을 통해 세워진 교회도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으로부터 직접 온 교회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이를 성령의 빛이 밝혀 주는 원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 주셨으며,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은 영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우리가 기꺼이 우리 삶을 희생하고, 주어진 지식에 반하는 길을 가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 주십니다. 해의 왕국의 비밀을 알려 주시며, 우리가 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것들을 끊임없이 전해 주십니다. 이런 지식과 예지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 우리는 정말 많은 지식을 얻었기에 우리의 목적은 좌절되지 않습니다. 물몬이즘을 박해하거나 타도하려는 자가 있다면 가서 그렇게 해보라고 하십시오. ……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자라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충실하고 계속 성장하여 미래를 향해 전진하면서 더욱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¹⁴ [246쪽 제언 3 참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나아가 그분이 명하시는 모든 일을 하면 그분은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많은 경우, …… 하나님의 백성이 파멸에 봉착한 듯싶고 탈출할 길이 보이지 않을 때면, …… 임박한 파멸을 피하도록 이런저런 구원의 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을 때 이런 경우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홍해에 다다랐을 때, 애굽 군대가 뒤에서 그들을 멸하려고 하자 달아날 길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절실했던 바로 그 순간, 보십시오, 길이 열려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출애굽기 14:10~25 참조]

지금까지 우리는 그래 왔으며 앞으로도 늘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어려움이 몹시 크게 보이긴 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지워진 의무를 다한다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편이 마련될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제가 강조하려는 점은 바로 이것인데, 향후에 몇몇 성도들은 여왕 에스더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하고, 후기 성도들에게 구원을 가져오기 위해서라면 요구되는 일이 무엇이든지 다 기꺼이 희생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아야 합니다. ……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에스더가 그랬듯이 앞으로 나아가 백성의 구원을 위해 모든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임무를 맡으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에스더 4:3~16 참조]라고 말했습니다. ……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수풀에는 숫양이 언제라도 걸려들 것입니다.[창세기 22:13 참조] ……

…… 주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가 합당한 자로 나타날 수 있도록 참으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나의 성약에 거하려 하는지 모든 일에 내가 너희를 시험하기로 내 마음에 법령으로 정하여 놓았음이다. …… 이는 만일 너희가 나의 성약에 거하려 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내게 합

당하지 아니함이니라.”[교리와 성약 98:14~15] 우리에게는 삶의 목적이 되는 무언가가 있으며, 목숨을 걸 만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죽음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서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 보시기에 받아들여질 만한 일을 한다면, 바로 그곳에 구원과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전능자께서는 그분 백성이 파멸되도록 용납할 의향이 전혀 없으십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계명을 지킨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¹⁵ [246쪽 제언 4 참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어 그분께서 맡기신 일을 성취해야 할 때이다.

하나님의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 불평 없이, 그리고 재촉을 받지 않더라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 걸음이라도 더 내디딜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¹⁶

이제 후기 성도들은 전능자 앞에 자신을 낮출 때가 되었습니다. …… 후기 성도들이 스스로 무엇을 다짐했는지를 알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은 후기 성도들이 자신의 죄와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전능자를 불러야 할 때입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도움을 얻고, …… 앞으로 나아가며 우리에게 돌보도록 맡겨진 위대한 일을 성취해야 합니다.¹⁷

우리는 하나님 사업에 종사합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며 그분 뜻을 행한다는 점을 잊지 맙시다. 고결함이 손상되지 않게 하며,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신앙을 키우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제가 어느 직분에서 행하든 저는 만족할 것이며,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을 돕기 위해 무슨 일을 하면 되는지, 또 생계를 꾸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할 것입니다.¹⁸

우리는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지식과 힘,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 또한 부지런함과 겸손, 그리고 우리가 맺은 성약에 충실함으로써 이룰 수 있습니다.¹⁹

주님의 방법과 그분의 의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주님이 마련하신 계획을 수행하는 데에서 이해가 부족하면 우리는 한동안 멈춰야 하는

곳에 다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할 일을 계속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을 잃지 않는 한, 주님의 계획에서 그런 지점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으며, 또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

…… 모든 사람이 충실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데 매우 부지런하며, 주위 사람에게 선을 행하려는 소망을 키우게 하십시오. 지난 날을 뒤돌아 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양심의 지시에 따라 철저하게 행동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앞으로 일 어날 모든 일을 대비하도록 합시다. 성전과 예배의 집을 짓는 일을 계속해 나가며, 끊임없이 [우리] 자녀를 가르쳐 주님께 대해 경외심을 느끼게 하고, 복음을 먼 나라에까지 계속 전해 나갑시다. ……

이 일은 주님의 사업이며, 그분께서는 지상에서 이 사업이 나가야 할 방향과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알려 주십니다. 우리는 늘 이 사업을 마음속에서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는 한, 우리는 분명히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며, 목적을 이루려는 결의를 다질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밝혀 주신 진리의 원리에 대한 우리의 신앙과 헌신을 세상에 보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압박을 가하실 공산이 큰데, 그렇게 되면 그분 백성에게는 엄청난 희생이 요구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희생을 치를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이 사업은 전능자의 사업이므로, 우리가 찾는 약속된 축복은 자신을 입증하고 호된 시련을 통과한 후에야 주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 백성이 통과해야 할 불 같은 시험이 그들 앞에 놓여 있다, 또는 놓여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에게 드는 의문은 과연 제가 주님께서 저나 그분 백성을 위해 마련하신 축복을 한 가지라도 받아서 올바르게 적절하게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과연 저는 주께서 요구하시는 희생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고 자문합니다. 저는 삶의 목적이 될 만하거나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없는 종교라면 타서 재가 된 짚 한 오라기라도 바치지 않겠습니다. 또한 자기가 믿는 종교를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주지 않겠습니다.

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 구주께서 주시는 구원을 바라봅시다. 가만히 서 있지 맙시다.²⁰ [246쪽 제언 5 참조]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제언

본 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다음 제언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v~vii쪽을 참조한다.

1. 237~239쪽에 나오는 이야기를 다시 살펴본다. 하나님의 왕국이 전진해 나간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이 전진해 나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가?
2. 240쪽 마지막 문단에서 스노우 회장은 구약에 나오는 네 가지 예언을 언급한다. 이런 예언들은 오늘날 어떤 방법으로 성취되고 있는가?
3.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 전진해 나갈 것이라는 스노우 회장의 가르침을 공부한다.(242~243쪽) 이런 가르침은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우리를 박해할 때 우리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간증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했는가?
4. 243쪽 셋째와 넷째 문단을 살펴본다. 희생을 치르도록 요구받을 때 우리는 에스테르의 사례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아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5. 본 장 마지막 부분에서 스노우 회장은 회원들에게 주님이 그들을 어느 위치에 두든지 간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라고 권고했다. 가정에서 하는 부모의 노력은 어떤 면에서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을 돕는 것인가? 가정 복음 교사와 방문 교사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관련 성구: 마태복음 24:14; 이디서 12:27; 모로나이서 7:33; 교리와 성약 12:7~9; 65:1~6; 128:19~23

교사를 위한 도움말: “해당 공과를 가르친 후 다음 번 공과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때도 많다. 여러분이 반원들에 대해, 그리고 그들의 필요 사항과 관심사에 대해 가장 많은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때는 아마도 그들과 시간을 함께한 직후가 될 것이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97쪽)

주

1. Eliza R. Snow Smith, *Biography and Family Record of Lorenzo Snow* (1884), 79-82 참조.
2. "Laid to Rest: The Remains of President John Taylor Consigned to the Grave", *Millennial Star*, Aug. 29, 1887, 549.
3. "Laid to Rest: The Remains of President John Taylor Consigned to the Grave", 549.
4. "Laid to Rest: The Remains of President John Taylor Consigned to the Grave", 549.
5. Alice Pond, in LeRoi C. Snow, "An Experience of My Father's", *Improvement Era*, Sept. 1933, 677; 또한 1945년 10월 30일 및 1946년 11월 12일 존 에이 윗소 장로와 앨리스 아메다 스노우 영 폰드의 남편인 노아 에스 폰드 사이에 오갔던 편지 참조, 교회 역사 도서관. 스노우 회장이 성전에서 이 경험담을 들려주었을 때 앨리스는 20대 초반이었으며, 엔다우먼트를 받고 남편에게 인봉된 상태였다.
6. Conference Report, Oct. 1898, 55.
7. "Greeting to the World by President Lorenzo Snow", *Deseret Evening News*, Jan. 1, 1901, 5.
8. "'Mormonism' by Its Head", *Land of Sunshine*, Oct. 1901, 252.
9. *Deseret News*, Jan. 24, 1872, 597.
10. *Deseret Semi-Weekly News*, Oct. 4, 1898, 1.
11. *Deseret News*, Jan. 24, 1872, 598.
12. *Deseret Weekly*, Nov. 4, 1893, 609.
13. *Millennial Star*, May 12, 1890, 293; 로렌조 스노우가 1890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전한 말씀을 상세하게 풀어서 쓴 기사를 발췌함.
14. Conference Report, Apr. 1900, 3-4.
15. *Deseret News*, Nov. 22, 1882, 690.
16. *Deseret News: Semi-Weekly*, June 27, 1882, 1.
17. *Deseret News*, Nov. 22, 1882, 690.
18. *Journal History*, July 11, 1865, 2.
19. *Deseret News*, May 15, 1861, 82.
20. *Deseret News: Semi-Weekly*, June 27, 1882, 1.



커틀랜드 성전에서서의 놀라운 나타나심이 있은 후에도, 많은 커틀랜드 성도들이 배도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세상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우리는 …… 더 높은 차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로렌조 스노우의 생애에서

로렌조 스노우가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침례와 확인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무렵, 교회의 몇몇 지도자를 포함하여 후기 성도 상당수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등을 돌렸다. 로렌조 스노우에 따르면 투기, 달리 말하자면,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으로 정상적이지 못한 사업상의 위험을 감수하려는 데서 그러한 배도가 촉발되었다고 한다. 일시적인 세상 것들을 얻으려는 욕망에 눈이 멀어 사람들은 그만 복음의 영원한 축복에서 돌아서고 말았다.

그로부터 약 50년 후,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로렌조 스노우는 유타 주 로건에서 일단의 후기 성도들에게 말씀했다. 그는 커틀랜드에서 목격한 곤경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들도 곧 비슷한 시험을 겪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어쩌면 결코 경험한 적이 없는 것일지 모르는 무언가가 여러분을 시험하기 위해 급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잘못과 약점이 있다면 그런 것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는 일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전에 충실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과 맺은 성약을 새롭게 하고, 금식과 기도로 우리 죄를 용서받겠다고 결심합시다. 그리하여 전능자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다가오는 강력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합시다. 떡구름이 시꺼멓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투기로 물든 마음이 커틀랜드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압니다. 그러므로 경고를 새겨 들으십시오.”¹

스노우 회장의 경고는 오늘날 후기 성도들에게도 줄곧 적용되므로, 그가 로건에 살던 성도들에게 한 설교 중 상당 부분을 본 장에 실었다. 스노

우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당시 [커틀랜드에] 있던 상황에 관해 몇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유용하고 유익한 교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² [255쪽 제언 1 참조]

로렌조 스노우의 가르침

사람들이 마음과 정신에 스며드는 속된 생각을 그대로 두면 그들은 영원한 원리로부터 등을 돌리게 된다.

저는 커틀랜드에서 있었던 뒤숭숭한 시절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 그곳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살았던 곳이며, 여호와, 즉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친히 나타나시어 자신을 드러내셨던 곳입니다. 예수께서는 계명에 따라 지어진 성전 설교단 흉벽에서 계셨습니다. 그분 발 아래에는 호박 같은 순금이 퍼 있고, 머리털은 깨끗한 눈같이 희었으며, 얼굴은 해처럼 밝게 빛나고, 음성은 큰 물의 격류 소리 같았습니다.[교리와 성약 110편] 그분을 영예롭게 하기 위해 세워진 바로 그 성전 안에서 이처럼 놀라운 나타나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커틀랜드에 있던 시기에 그런 일들을 겪었는데, 이제 우리가 다시 그런 일을 되풀이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당시 성도들의 주변 상황은 보통 때와는 달랐는데, 적어도 사람들에게 끼친 영향만큼은 그러했습니다. …… 그 시절에는 투기 바람이 이 나라 국민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화폐, 은행, 땅, 도시 구역에 대한 투기 등 사방에서 술한 투기가 횡행했습니다. 세상에 붙어 닥친 이 투기 바람은 마치 거센 파도나 급류처럼 성도들 마음을 휩쓸어 버렸고, 많은 이들이 쓰러지고 배도하게 되었습니다.³

그들[커틀랜드 성도들] 중 일부는 투기를 시작했습니다. 종교를 망각하고, 그들에게 계시된 원리들을 잊었으며, 상당수가 그 당시에 팽배했던 시대적 분위기에 빠져 투기라는 물살 속으로 휩쓸려 갔습니다. 그러나 질투와 다툼 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그들을 불쾌히 여기신 주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파멸을 일으켜 그들 사이를 갈라놓음으로써 그 사건을 마무리 지으셨습니다.⁴

이런 대배도가 있기 전에 주님께서는 놀라운 복을 백성들에게 부어 주신 바 있습니다. 영원한 부라고 할 수 있는 복음의 은사들이 엄청날 정도로 쏟아졌습니다. 천사들이 그들을 방문했으며, 앞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아

들께서 그분의 종들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성전을 헌납했을 때, 백성들이 받은 축복 또한 경이로웠습니다.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던 시절, 저는 성전에서 열린 여러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기도 모임과 간증 모임을 했는데, 형제 자매들이 나누는 간증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예언을 하고, 방언으로 말하며, 방언을 통변하는 정도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커틀랜드 백성들은 이런 축복을 거의 보편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들은 당시 마음을 바쳤으며, 자신이 가진 것은 무엇이라도 희생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 면전에 거하고 있다고 생각될 정도였는데, 것처럼 놀라운 영향력 아래에서 그렇게 느끼는 것은 지극히 당연했습니다.

그 투기 바람이 백성들 마음속에 몰아치기 바로 전까지만 해도, 제가 시간상 일일이 열거하지 못하는 이런 모든 축복과 그 밖의 여러 축복을 성도들은 누렸습니다. 이런 놀라운 현시가 주어졌기에 혹자는 성도들이 어떤 유혹에도 쓰러지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어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유혹을 받아 사방으로 흩어졌던 것입니다.

이상하게 여길지는 모르나 그 투기 바람은 십이사도 정원회와 일곱 회장으로 구성된 칠십인 정원회에도 스며들었습니다. 실제로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지 않은 교회 정원회는 없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확대되자 내분이 뒤따랐습니다. 형제 자매들은 이해관계가 얽혀 서로 비방하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후기 성도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눈앞에 다가오고 있어서 걱정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그런 일이 닥친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상황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쩌면 여러분이 꼭 경험해야 할 일일지도 모릅니다.

…… 커틀랜드 시절, 십이사도 정원회 중 절반이 그 사악한 영향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투기, 즉 세상의 신인 황금에 대한 애착이 것처럼 애석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높은 신권을 지녔던 그네들에게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다면 예지와 지식, 경험 면에서 그들에 못 미치는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

지금 여러분은 선한 백성입니다. ……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의로움을 기뻐하시며, 커틀랜드에서 있었던 …… 그런 일

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어하지 않으십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커틀랜드 성도들을 분열시키고 십이사도 절반을 쓰러뜨렸던 그런 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시기에 다시금 그런 일을 목격하고 싶어하지 않으십니다.⁵

이런 뒷에 빠지지 않으려면 후기 성도들은 지혜와 예지 면에서 매우 뛰어나야 합니다. 그런 뒷 속에는 아무런 유익도 없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율리와 영원한 세상으로부터 얻은 것들을 외면하면, 다시 말해 이런 것들로부터 등을 돌려 혼란에 빠지고 세상의 하찮은 것들에 몰두한다면, 아무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또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유혹이 닥치거나 그런 유혹에 노출될 때, 우리는 과거 역사에 귀를 기울여 결코 굴복 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몹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⁶ [255쪽 제언 2 참조]

우리는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왕국에 헌신하기로 성약을 맺었다.

세상의 신은 금과 은입니다. 세상은 이 신을 숭배합니다. 비록 혼쾌히 시인하지는 않을지언정 세상 사람들에게 전능한 존재는 바로 이 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는 후기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와 힘을 많이 얻어서 세상의 신에게 굴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위치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표준, 더 높은 차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또 금이나 은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해야 합니다.⁷

만일 …… 우리가 맺은 성약, 즉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 역량을 바치겠다는 성약을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첫째 부활의 아침에 나와 위대한 구속 사업의 수혜자가 되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태도, 습관, 거래 면에서 …… 세상 사람들을 본받아 그들처럼 행한다면, 형제 여러분, 우리가 상속받기 바라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 같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시지 않을 것입니다! …… 우리는 스스로 천국의 의를 세우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를 심어야 합니다. 주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예레미야 31:33]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른다면 그분께서는 우리에게서 이 일을 성취하실 것입니다.”⁸

세상이 타락하고 사악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뛰어난 재능을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드리는 데 바칠, 거룩하고 의로운 남녀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더 나아가, 주께서 여러 나라에서 모으신 유덕하고 고귀한 남녀 수천 명이 있으며,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분 사업을 성취하는 일을 돕기 위해 시간과 재능을 기꺼이 바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⁹ [255쪽 제언 3 참조]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세상의 부와 바꾸기를 거부할 때 구주의 모범을 따르게 된다.

여러분은 인생길에서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 예상할 것입니다. 그 장애물은 여러분의 결심을 최고 한도까지 시험하게 되므로, 여러분 중 일부는 진리와 명예의 길에서 벗어나 금세 사라져 버릴 만족과 기쁨을 얻기 위해 영원한 영광을 내던지고 싶은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창세기 25:29~34 참조] 그럴 때에는 …… 그 기회를 붙잡아,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이 세상의 영광을 주겠다는 사탄의 제안을 받으셨을 때 구주께서 보이신 모범을 따르십시오. 그분은 유혹하는 자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개역개정판 성경에는 이 부분 번역이 누락되어 있음-옮긴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¹⁰ [누가복음 4:5~8 참조]

인생에 대해 생각하면 이 세상이 영원에 비해 너무도 짧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 예지, 곧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은 늘 존재했으며, 결코 창조되지 않았고, 영원을 통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느낍니다.[교리와 성약 93:29 참조]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면, 우리는 이지적인 존재로서 인생이 며칠 만에 끝나며 그런 다음 영원한 삶이 오고, 계명을 지켜서 그만큼 발전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유리하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¹¹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복음을 통해 결속됩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으며, 부자나 가난한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마치 한 사람인 양 하나로 묶였습니다. …… 이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누가 무엇을 가졌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엄밀히 말해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 소유라 주



오늘날 일부 사람들은 구주와 대화를 나누는 그 부자 청년처럼(마태복음 19:16~22 참조) 궁핍한 사람들로부터 등을 돌리도록 미혹된다.

장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제가 무엇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청지기로 지내는 것에 불과하며, 하나님께서는 그 재화를 어떻게 사용하고 처분했는지 제게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후기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복음의 법을 받았으며, 그것은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매우 분명하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려고 침례를 통해 복음 성약을 맺을 때 어떤 약속을 했는지를 깨닫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 법이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고, 우리의 시간과 재능, 역량을 그 왕국의 유익을 위해 바치도록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마태복음 6:33; 제3니파이 13:33 참조] 그렇지 않다면, 후에 이 지구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 거하는 장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상속받고, 또 그분과 함께 통치하는 삶을 누리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 축복을 받는 데 부자나 재능이 많은 사람이 가난하거나 재능이 하나뿐인 사람보다 더 나은 희망이나 잠재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상점에서 일하는 재단사이든, 목수이든, 제화공

이든, 또는 어떤 산업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간에 복음의 법에 따라 생활하고, 부름에 정직하고 충실하면 다른 사람과 똑같이 새롭고 영원한 성약에 따르는 이 모든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충실함을 통해 보좌와 통치권, 권능을 소유하게 되며,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또는 바닷가 모래알과 같이 무수할 것입니다. 저는 묻습니다. 누가 이보다 더 큰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까?¹² [아래 제언 3과 4 참조]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제언

본 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다음 제언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v~vii쪽을 참조한다.

1. 249~250쪽에 나오는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 사람이 자신의 종교를 망각하게 만드는 세속적인 것들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세속에 물들지 않고 현세적인 필요를 돌볼 수 있는가?
2. 250쪽에서 시작되는 부분을 숙고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세속에 물드는 것을 피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3. 스노우 회장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 역량을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데 사용하기로” 성약을 맺었다고 가르쳤다.(252쪽) 여러분은 이 성약을 지키기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본다.
4. 본 장 마지막 부분을 복습한다. 다음 진리들은 우리가 성약을 지키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이 세상[은] 영원에 비해 너무도 짧다.” “엄밀히 말해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진정 자기 소유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관련 성구: 마태복음 6:19~24; 요한복음 17:15; 요한1서 2:15~17; 야곱서 2:13~19; 몰몬서 8:35~39; 교리와 성약 38:39; 63:47~48; 104:13~18

교사를 위한 도움말: 소단위 즉석 토론은 “많은 수의 사람들이 공과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준다.] …… 일반적으로 참여를 꺼리는 사람들도 큰 집단 앞에서의 발표가 아닌 소단위 그룹에서는 의견을 나눌 수 있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166쪽)

주

1. *Deseret Semi-Weekly News*, June 4, 1889, 4.
2. *Deseret Semi-Weekly News*, June 4, 1889, 4.
3. *Deseret Semi-Weekly News*, June 4, 1889, 4.
4. *Deseret News*, Apr. 11, 1888, 200; 로렌조 스노우가 1888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전한 말씀을 상세하게 풀어서 쓴 기사를 발췌함.
5. *Deseret Semi-Weekly News*, June 4, 1889, 4.
6. *Deseret News*, Apr. 11, 1888, 200.
7. *Deseret Semi-Weekly News*, June 4, 1889, 4.
8. *Deseret News: Semi-Weekly*, Jan. 23, 1877, 1.
9. *Deseret Semi-Weekly News*, June 4, 1889, 4.
10. Eliza R. Snow Smith, *Biography and Family Record of Lorenzo Snow* (1884), 486.
11. *Brigham City Bugler, Supplement*, Aug. 1, 1891, 2.
12. *Deseret News: Semi-Weekly*, Jan. 23, 1877, 1.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며

“자애로운 태도를 함양하십시오. 서로 입장이 바뀔 때 상대방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것보다 상대방에게 더 잘해 줄 준비를 갖추십시오.”

로렌조 스노우의 생애에서

일 리노이 주 나부를 떠난 초기 후기 성도들 가운데에는 로렌조 스노우 가족도 있었다. 여러 가족이 함께 무리를 이룬 그들은 1846년 2월, 아이오와 주 서부로 향했다. 기상 여건 때문에 여정이 어려워져, 성도들은 나날이 비와 눈, 진창 속을 뚫고 나아가야 했다.

그 여정 중 어느 날, 일행 한 명이 스노우 가족에게 도움을 청해 왔다. 로렌조 스노우는 일지에 어떤 이가 “다른 곳에는 실을 수가 없다면서 자기 짐 가방을 우리 마차에 실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적었다. 마차가 “짐을 실을 만한 곳은 모두 빼곡히 들어차 있었으나 나는 가방을 올려 놓고 함께 가자고 말했다.”고 로렌조는 회상했다.

다음 날 밤 그 가족은 로렌조가 “몹시 유쾌하지 못한 사건”이라 말한 일을 겪었다. 마차 차축이 부서지고 만 것이다. 로렌조는 이렇게 술회했다. “그때는 비가 세차게 내리고 몹시 추웠다. 우리는 곧장 천막을 치고 히커리 나무로 불을 피웠다. …… 진흙탕 물이 깊어서 우리는 진창 속을 헤치고 나가야만 마차에 다다를 수 있었다. …… 야영지까지는 아직도 24킬로미터 가량이 남았으며, 가장 가까운 집도 14킬로미터에서 16킬로미터 정도나 떨어져 있었다. 우리 중에는 수리공도 없었기에 마차를 수리할 가망은 몹시 희박했다.”

예기치 않게 구조는 전날 도움을 준 사람으로부터 왔다. “나는 운도 없으면서 탄식하고 있을 때였다.”라고 로렌조는 말했다. “그이는 내게 오더니 자기 직업이 마차를 만드는 일이라며 마차를 고치는 건 손쉬운 일이라



스노우 가족은 아이오와 주를 가로질러 여행하면서
전날 도움을 준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고 말했다. …… 날씨가 허락하자마자 월슨 형제(앞서 말한 사람의 이름임)는 일을 시작하여 부서진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차축을 만들어 주었다. 마차가 수리되자 우리는 비와 진창 때문에 여러 날을 머물러야 했던 그곳에서 벗어났다.”

이 경험에서 로렌조 스노우는 봉사와 동료애에 관한 값진 교훈을 얻었다. 그는 일지에 이렇게 썼다. “한 가지 친절을 베풀면 다른 것을 얻게 되는 때가 종종 있다.”¹ [264쪽 제언 1 참조]

로렌조 스노우의 가르침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서로에게
선행을 베풀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천상에서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 만일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바대로 서로를 안다면, …… 서로에 대한 동정심이 지금보다 더욱 커질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형제를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슬픔을 덜어 주며, 진리 안에서 일으켜 세우고, 그들의 어두운 마음을 없애 줄 수 있을지를 마음속으로 연구하고 싶은 소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서로 간의 진정한 관계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지금과는 다른 감정을 느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지식은 생명의 영이 우리와 함께할 때, 그리고 의로운 가운데 서로를 강화하고 싶은 소망을 지닐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²

우리는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기 위해 이 세상에 왔으며, 남에게 좋은 일을 함으로써 자신에게 좋은 일을 하게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해, 아내는 남편에 대해, 자녀는 부모에 대해, 부모는 자녀에 대해 늘 이런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남에게 선행을 베풀 기회는 늘 있기 마련입니다.³

저는 여러분이나 제가 매일같이 좀 더 충실하도록 힘쓰며,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마태복음 22:37~40 참조] 들은 바와 같이, 우리가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고 애정을 쏟고자 힘쓰기를 기원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

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곧 율법과 선지자를 따르는 것입니다.[마태복음 7:12 참조] 우리는 모름지기 이런 원리들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 어디에서나, 또 누구에게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는 후기 성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친구이며, 그들에 관한 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인류의 유익을 위해 우리의 사랑과 수고를 베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후기 성도의 사명으로서, 우리 자신에게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로 뻗쳐서 온 인류에게까지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⁴

강직하고, 공정하며, 자비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어떤 일을 피하거나 결의를 다질 때마다, 또 어떤 행동이나 거래를 하더라도 언제나 고상한 정신을 발휘하십시오. 자애로운 태도를 함양하십시오. 서로 입장이 바뀔 때 상대방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잘해 줄 준비를 갖추십시오. 세속적인 마음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도록 마음을 품으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우리 자신 같이 사랑하는” 면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십시오. 인류는 여러분의 형제이자 하나님의 자손이므로 여러분은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런 박애 정신, 이런 의식과 감정을 키우고, 메시아 왕국의 유익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과 역량을 키우도록 부지런히 기도하십시오.⁵ [264쪽 제언 2 참조]

다른 사람이 행복을 찾도록 도우면 우리 행복도 커진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선을 행하려는 강한 소망을 지녀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느 정도 자신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그들이 좀 더 주님께 나아가도록 이끈다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 기분이 다소 우울해지면 주변을 둘러보며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가서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알아낸 다음, 주께서 주시는 지혜를 써서 그 어려움을 제거해 주도록 힘쓰십시오. 그렇게 하면 무엇보다 여러분의 우울함이 가시고, 빛을 느끼며, 주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 모든 것이 밝아질 것입니다.⁶ [264쪽 제언 3 참조]

다른 사람의 관심사를 먼저 살피면 우리 자신이 더욱 빠르게 발전한다.

젊은 남자나 여자가 염두에 둘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며, 다른 사람도 훌륭하게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 남을 돕기 위해서라면 얼마간 시간을 쓰는 것쯤은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을 위해 열심히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늘 명심하십시오.⁷

학문을 탐구할 때에는 어떤 학문이든 간에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한 가지 과정을 마친 다음에는 다른 과정을 거쳐야 하며 과목들을 통달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학문 습득에 열중할 때에는 자신이 아는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만큼 잘 통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 친구들을 모아, 자신이 얻은 지식을 힘써 전해 보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이 얻은 지식을 남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과정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알 수 없는 것들을 스스로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학교 교사로 일해 본 분이라면 이 점을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

어둠 속을 헤매는 이들이 있는데, 이들은 지식과 지혜, 예지 면에서 아직 진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십시오. 그들보다 멀리 앞선 사람으로서 그런 지식과 예지, 힘을 친구와 형제에게 전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마음이 넓어지며, 얻은 지식과 빛이 더 빠르게 늘어나고 증가한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친구들에게서 우정과 사랑을 얻고 싶으면, 가서 여러분이 받은 빛으로써 친구들을 다독여 주십시오. 그런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여러분이 하는 일은 못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크고 고귀한 축복을 얻고, 전능자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또 의에 관한 일에서 끊임없이 발전하려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잘 해내야만 합니다. 가서 친구들의 유익을 위해 일하고 기꺼이 희생하십시오. 스스로 강해지고 싶다면 친구들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원리입니다.



“마음을 넓혀 주위 친구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관심사를 돌보십시오.”

…… 마음을 넓혀 주위 친구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관심사를 돌보십시오. 친구의 유익을 도모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이 친구의 유익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애쓰며 일할 때보다 더 빨리 여러분 손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타당하고 중요한 원리임을 압니다.⁸ [264쪽 제언 4 참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
우리 안에 천국을 얻게 된다.**

우리는 우리 외에 다른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심정과 기분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하며, 지금보다 더욱 경건해야 합니다.

…… 우리는 우리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주와 조셉 형제에게서 이런 모습을 보며, 우리 [브리검 영] 회장님에게서도 이런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 조셉 형제, 브리검 형제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늘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브리검 형제가 하나님과 더불어 사람들로부터 힘을 얻게 된 이유입니다. 그는 항상 자기를 희생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만큼 자기 안에 하나님이 거하게 되며, 또 그만큼 영원한 세상의 축복이 깃들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마땅히 얻을 수 있는 것을 획득할 뿐 아니라 영원한 축복도 얻습니다. 여러분은 서로를 위해 희생한 …… 정도에 비례하여 하나님에 관한 면에서 그만큼 진보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천국을 얻고, 또 여러분이 원하는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란다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가는 길을 추구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알고자 한다면, 저는 여러분 안에 신성을 밝힘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주변에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주위에 악이 횡행하고 악마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더라도 나아가 지상에 천국을 세워야 합니다. 또 사악함이 항상 주위를 맴돌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지상에 천국을 세우는 일에 착수하여 이를 이루어 내야만 합니다.

천국을 얻는 방법을 배우고 그 원리에 따라 행동할 때까지는 결코 천국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몇 사람을 택하여 20년 전, …… 형편은 좋지 않았지만 얼마간 기쁨과 평화와 행복을 누렸던, 당시 그들의 환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들은 현세적인 면에서 자신들이 바라고 필요로 하는 것들을 돌볼 수 있는 안락한 환경과 물질을 얻었을지라도, 친구들을 얻고 형제들에 대해 좋은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면 20년 전보다 더 행복한 게 아닙니다.

…… 형제 자매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얻을 때까지 자신을 고양시키는 생활을 하기를 소망합니다.⁹ [264쪽 제언 5 참조]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제언

본 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다음 제언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v~vii쪽을 참조한다.

1. 257쪽 및 259쪽에 나오는 이야기를 다시 살펴본다. 여러분은 “한 가지 친절을 베풀면 다른 것을 얻게 되는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을 언제 알았는가?
2. 스노우 회장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깨워 주었다.(259~260쪽) 이런 지식은 서로에 대한 우리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끼쳐야 하는가? 상호부조회는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여성들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가? 신권 정원회는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남성들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가?
3. 260쪽 마지막 문단을 깊이 생각해 본다. 다른 사람이 행복을 찾도록 도울 때, 왜 우리의 행복이 늘어나는가? 부모는 자녀가 이 진리를 배우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4. 우리가 지닌 지식을 다른 사람과 나누면 지혜 안에서 성장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몇 가지 예로, 261~262쪽 참조) 여러분은 이 원리가 진리임을 알게 된 어떤 경험을 했는가?
5. 262쪽 첫머리를 공부한다. 왜 단순한 봉사는 우리가 천국에 더 다가가는 데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하는가? 본 장에 나오는 내용을 곱씹어 생각하며, 가정을 더 천국과 같은 곳으로 만들 방법을 생각해 본다.

관련 성구: 마태복음 25:31~45; 누가복음 6:36~38; 모사이야서 2:17; 4:14~27; 교리와 성약 81:5; 82:3

교사를 위한 도움말: “훌륭한 몇 가지 생각을 골라서 유익한 토론을 전개하여 효과적으로 배우도록 유도하는 것이 교재에 나오는 모든 것을 가르치려 애쓰는 것보다 좋습니다. …… 교실에 주님의 영이 임하게 하려면 절대로 서두르는 분위기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제프리 알 홀런드, “교회에서의 가르침과 배움”, *리아호나*, 2007년 6월호, 59쪽)

주

1. Journal of Lorenzo Snow, 1841-1847, Church History Library, 39-42.
2. *Deseret News*, Jan. 28, 1857, 371.
3. Conference Report, Apr. 1899, 2.
4. *Salt Lake Daily Herald*, Oct. 11, 1887, 2.
5. Eliza R. Snow Smith, *Biography and Family Record of Lorenzo Snow* (1884), 486-487.
6. Conference Report, Apr. 1899, 2-3.
7. *Improvement Era*, July 1901, 714.
8. *Deseret News*, Mar. 11, 1857, 3; 원 출처에는 3쪽이 419쪽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음.
9. *Deseret News*, Mar. 11, 1857, 4.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름을 완수하겠다는 결의가 넘[쳤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

“저는 조셉 스미스가 정직하고 진실하며 존경할 만하고 충실한 사람임을 압니다. 그는 자신이 인류에게 진리를 전했다는 사실을 하늘과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과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기꺼이 희생하려 했습니다.”

로렌조 스노우의 생애에서

“**지**금 살아 있는 사람 중에서 조셉 스미스를 저만큼 잘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1900년, 로렌조 스노우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자주 그와 함께했습니다. 그 가정에 찾아가 함께 식사도 했으며, 여러 상황에서 어울리며 가까이 지냈고, 그의 조언을 들으려고 면담을 한 적도 있습니다.”¹

이러한 개인적인 교분 외에도, 로렌조 스노우는 성역 기간 동안 조셉 스미스가 성도들의 친구이자 회복의 선지자임을 대중 앞에서 증거했다. 그는 일부만 완공된 나부 성전에 조셉 스미스가 참석했던 모임에 관해 들려주었다. 선지자는 다른 교회 목사를 대동하고 연단으로 올라왔다. 그 목사는 “몹시 근엄하여 사람들 사이에 흥을 돋우거나 웃음을 유발하는 말이 나올 때에도 표정에 미동조차 없이 철저하게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에 비해 조셉 스미스는 “그날 아침이 몹시 유쾌한 듯” 모임이 시작되기 전부터 “사람들에게 웃음을 자아내는” 말을 건넸다. 로렌조는 그 일을 이렇게 썼다. “개회 순서가 끝나자 스미스 회장은 일어나 언제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힘 있는 말씀을 했다. 사람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으며,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매우 힘차고 유창하게 말했다.”²

스노우 회장은 조셉 스미스와 함께하는 경험을 통해 감명을 받았지만,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사명에 대한 간증이 그런 경험에서 생긴 것은 아니었다. 그는 간증을 성신으로부터 얻었다고 되풀이해서 말했다. “[조셉 스미스]를 아는 사람이라면 저를 포함하여 어느 누구도 그가 진리와 신의를

존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한시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복음 원리를 전파하려 나아갔을 때, 조셉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 얻은 지식에만 의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셉의 말을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분으로부터 오는 진리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 모든 사람이 받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인 성신은 …… 조셉이 말한 진리를 확인해 주었으며, 그것은 아무도 저에게 주거나 제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지식이 되었습니다.”³ [274쪽 제언 1 참조]

로렌조 스노우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는 성스러운 부름을 받았을 때,
순수하고, 진지하며, 정직한 젊은이였다.**

이 사업을 일으키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조셉 스미스는 가난하고 교육도 받지 못했으며, 대중적인 기독교 종파에도 속하지 않았다. 그는 정치가나 종교적 위선자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 동원하는 속임수나 간계, 꾀변 따위와는 거리가 먼, 순박하고 정직하며, 매우 고결한 소년이었다. 그는 전혀 알려지지도 않은 위치에서,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를 받아 온 가장 심오한 신학적 지식에 대항하여 싸워야 하는 종교 개혁자로 나서기에는 고대에 모세가 그랬듯 능력도 부족하고 자격도 없다고 느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모든 나라에 있는 심령이 가난하고 정직한 사람들을 영적, 현세적 노예 상태[속박]에서 구출하도록 하셨다. 또한 하나님은 누구든지 조셉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정직한 의도를 지니고 죄 사함을 위한 침례를 받으면 신성한 나타나심을 받게 되며, 고대 사도들이 전파하던 복음을 통해 약속되었거나 얻을 수 있었던 것과 똑같은 복음의 축복인 성신을 받게 되리라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승인 받은 사자인 장로들이 전하는 이 메시지와 약속은 어디에서든, 또 누구에게든 유효하다. 학식도 없고 단순하며, 솔직하고 소박하며 정직한 소년이었던 조셉 스미스는 그렇게 말했다.⁴

제가 처음 조셉 스미스를 본 것은 열여덟 살쯤 되었을 때인 1832년 가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조셉이 제 부친의 집에서 3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오하이오 주 포트지 카운티 하이럼에서 모임을 개최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들었던 터라 저는 호기심이 발동하여

이번 기회에 그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 쪽 친척들과 함께 하이럼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도착해 보니 백오십에서 이백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그늘진 조그만 공터에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모임은 벌써 시작되었으며, 조셉 스미스는 [존] 존슨 씨 집 문간에 서서 공터 쪽을 바라보며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셉의 말을 들으면서 얼굴 표정, 입은 옷, 태도를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하는 말은 천사의 방문과 같이 자신이 경험한 일에 주로 국한되었으며, 그러한 놀라운 나타나심에 관해서 힘차고 설득력 있는 간증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조심스러운[망설이는] 듯 약간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단호하고 강력해져서 모든 청중은 그가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듯이 보였습니다. 조셉이 한 말은 것처럼 제 마음을 움직였고, 제 마음속에는 아직까지도 그 감동이 남아 있습니다.⁵

[그날 처음] 조셉을 바라보고 말씀을 듣게 되자 저는 속으로 것처럼 놀라운 간증을 전하고 그런 표정을 지닌 사람은 거짓 선지자일 리가 만무하다고 생각했습니다.⁶ [274쪽 제언 2 참조]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온 생애를 통틀어 정직성과 높은 도덕성을 견지했다.

저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여러 해 동안 친형제처럼 가깝게 지냈습니다. 저는 조셉이 고결한 사람이며, 삶이 허락된 날까지 인류의 유익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에 헌신한 사람임을 압니다. 조셉 스미스만큼 높은 수준의 고결함을 지니고 인류의 유익에 헌신한 사람은 없었습니다.⁷

저는 조셉 스미스가 정직하고 진실하며 존경할 만하고 충실한 사람임을 압니다. 그는 자신이 인류에게 진리를 전했다는 사실을 하늘과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과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기꺼이 희생하려 했습니다.⁸

저는 조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름을 완수하겠다는 결의가 넘치며 나무랄 데 없는 고결함을 지닌, 모든 일에 정직한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저처럼 가까이 지낸 사람조차도 아무런 흠도 찾을 수 없었으며, 도덕성에 관한 한 …… 저는 조셉 스미스 형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종으로

서 정직하고, 충성스러우며, 신실하고, 관대하며, 자비로운, 선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⁹ [274쪽 제언 2 참조]

조셉 스미스는 가식 없이, 천진난만한 놀이를 즐기면서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르칠 수 있었다.

나는 성전에서 열리는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여 원대한 원리들에 대한 선지자의 설교를 들었다. 가끔 그는 성신으로 충만하여 천사장의 목소리로 말하는 듯싶었으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하여 몸 전체에서 빛이 났고, 얼굴에서도 광채를 발했다. ……

이따금 선지자는 가벼운 주제에 대해 말을 하다가도, 또 어떤 때는 왕국의 비밀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런 변화는 눈에 떨 정도여서 마치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면서 잠시 천국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익숙한 주제로 돌아오는 듯 보였다. ……

조셉 스미스는 언제나 꾸밈없고 차분했으며, 주위 사람이나 주변 일로 마음이 휘둘리거나 역정을 내는 일도 없었다. 여러 목사들이 찾아와 그가 경계를 늦추고 있을 때 책잡을 만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찾아내려고 애썼으나 조셉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지 않을 때에도 행동이 달라지는 법이 없었고, 위선이라는 탈을 쓰는 법이 없었다. 건강에 좋은 모든 운동을 즐겼으며, 구기와 도보 경주, 그 밖의 어떤 야외 운동경기를 하더라도 이를 부적절하다고 생각지 않았다. 선지자의 집에 머물던 어느 목사는 선지자가 뜰에서 한 친구와 레슬링을 하는 장면을 우연히 창문 밖으로 보게 되었다. 다른 천진난만한 놀이와 더불어 그 모습을 본 목사는 선지자가 진솔하고 가식이라곤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

또 다른 경우는 조셉 스미스가 나부 청소년들 몇몇과 함께 구기에 열중하던 때를 들 수 있다. 그의 형 하이럼은 이를 보고 그러한 행동은 주님의 선지자에 걸맞지 않은 행동이라면서 선지자가 잘못을 시정하기를 바랐으며, 조셉을 나무라기까지 했다. 선지자는 유순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이럼 형, 해로울 게 없는 운동을 하면서 소년들과 어울리는 것은 제게 조금도 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도 이런 걸 하면서 즐겁게 되고, 저와도 가까워지게 돼요.”¹⁰ [274쪽 제언3 참조]



조셉 스미스는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천진난만한 놀이”를 즐겼다.

성신으로 강화된 조셉 스미스는 영적 권능과 영향력이 커졌다.

위대한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께 선택되어 자신의 사명을 알게 되었을 당시,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학식이 없는 이들에게 영적인 은사와 지식을 부어 주시어 성신의 권능으로 왕국의 위대함을 알려 주시고, 그들이 점차 하나님의 일에 관한 지식에 뛰어난 사람이 되도록 만드십니다.¹¹

생애 말엽에 조셉 스미스는 동료들에게 미치는 힘과 영향력 면에서 거장과 같은 수준이 되었다. 유럽에서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온 나는 그 사

실에 크게 주목했다. 내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조셉을 본 이래로 그는 많이 변화되어 더 강하고 설득력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으며, 나는 그 사실을 그에게 이야기해 주기도 했다. 조셉 스미스는 이를 인정하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그분의 영을 더 많이 부어 주셨다고 말했다.

어느 날 조셉은 십이사도 형제들과 교회의 주요 장로들을 불러 여러 가지 일과 임무를 맡기려 했다. 그들은 앉아서 각자 앞으로 맡게 될 책임에 대해 선지자의 말을 들으려고 조바심 속에 기다렸다. 그들은 마치 초월적 존재 앞에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커틀랜드 시절에는 선지자에게서 그만한 힘과 권능을 느끼지 못했으나 …… 나중에는 주님의 권능 면에서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 힘과 권능이 강력해졌다. 바로 이날도 그러했다. 장로들은 그에게 초월적인 힘이 있음을 깨달았다. “브리검 형제님.” 하고 조셉은 말문을 열었다. “동쪽으로 가서 동부 주에서 교회 일을 돌보십시오. 김볼 형제님이 함께 갈 것입니다.” 다른 이에게는 이렇게 일렀다. “형제님은 신문 발행에 힘을 써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한 사람씩 지명하여 특별한 임무를 맡겼으며, 모두 조셉의 말을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 ……

선지자에게는 놀라운 방법으로 자신을 찾는 사람들을 모두 감동시키는 힘이 있었으며, 가슴속을 파고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임무를 받는 형제들에게 특히 그랬다. 그에게서 흘러나오는 영감은 영혼을 사로잡았으며, 그의 말은 마음속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다. 그들은 선지자를 사랑하고 믿었으며, 하나님의 사업을 진척하기 위해 선지자가 명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조셉은 그 자신에게서 나오는 권능으로 그들의 심령을 채웠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선지자의 소명에 대한 간증으로 그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세상에는 만나는 사람마다 범상치 않은 우정과 따스함을 느끼게 하는 마음을 지닌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 보았지만,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함께 있을 때 느꼈던 것처럼, 독특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느끼게 하는 사람은 결코 만나 보지 못했다. 이는 주로 그가 지닌 하나님의 영 때문이었는데, 단지 악수만 하더라도 이런 영향력으로 가득 찼으며, 또 민감한 사람이라면 자신이 비범한 사람과 악수하고 있다는 것을 곧바로 느꼈을 것이다.¹² [274쪽 제언 4 참조]

**우리는 각자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였으며, 그를 통해
복음이 회복되었다는 간증을 얻을 수 있다.**

저는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진리를 알고자 하였기에 [조셉 스미스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 교리에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가장 실제적이고 만족스러운 방법으로 약속된 축복인 성스러운 나타나심을 받아 이 사업에 관한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증거를 받은 사람이 저 혼자뿐 일까요? 지금 제 말씀을 듣고 계신 수천 분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증인이지 않습니까?¹³

우리의 간증은 어떤 성격을 띠고 있을까요? 말씀드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은 때가 찬 경륜의 시대입니다. 바로 계시자 요한이 지상에 거주하는 사람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공중을 날아가는 천사를 보았다고 말한 때입니다. 그 천사는 이미 모습을 드러내어 이 세상에 복음을 회복했으며, 조셉 스미스는 복음을 회복한 도구가 되었습니다.¹⁴[요한계시록 14:6 참조]

조셉 스미스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자신을 방문하여 성스러운 복음 의식을 집행하도록 권세를 부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복음 의식을 통해 정직한 마음을 지닌 모든 남녀는 성신과 아울러, 교리에 관한 완전한 지식을 약속받았습니다.¹⁵

조셉 스미스는 사람이 이런 일들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고 설계도를 작성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선지자들의 간증이나 고대 사도들의 간증, 또는 오늘날 사도들의 간증, 물문경, 또는 과거에 했거나 말했던 것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으로 얻는 지식입니다.¹⁶

저는 조셉 스미스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였음을 압니다. 저는 그가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대화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살아 있는 간증을 주셨으며, 그 이후로 이 간증은 제 영혼 안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간증을 온 세상에 전하려 합니다. 저는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며, 그를 통해 확립된 일이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것을 모든 인류에게 증거할 뿐 아니라 선지자가 예언한 것들에 관해 세상 모든 나라에 경고합니다. 또 그것들이 참되다는 것을 엄숙하게 간증합니다.¹⁷ [275쪽 제언 5와 6 참조]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제언

본 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다음 제언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v~vii쪽을 참조한다.

1. 267쪽에 기술된 사건을 마음속에 그려 본다. 이러한 이야기는 조셉 스미스에 대하여 무엇을 전해 주는가?
2. 스노우 회장이 조셉 스미스의 성품에 대해 기술한 내용을 다시 살펴 본다.(268~270쪽) 조셉 스미스의 성품은 그가 주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는 데 어떤 방식으로 기여했다고 생각하는가?
3. 여러분은 선지자 조셉이 “천진난만한 놀이”에 시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가?(270~271쪽) 우리가 하는 오락이 성신으로 충만하게 되는 능력을 해치기보다는 도리어 기여한다는 것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는가?
4. 어떤 방법으로 조셉 스미스는 “점차 하나님의 일에 관한 지식에 뛰어난 사람이” 되었는가?(몇 가지 예로, 272~273쪽 참조) 우리는 영적 성장을 구하면서 선지자의 모범을 따르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5. 273쪽 첫 문단 전체를 스노우 회장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하는 것처럼 읽는다. 여러분은 그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6. 273쪽에서 시작하는 부분을 탐구한다.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통해 복음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야 할 필요성을 느꼈는가? 이런 간증을 얻기 원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여러분은 어떤 조언을 해 주겠는가?

관련 성구: 교리와 성약 1:17; 5:9~10; 35:17~18; 135:3; 조셉 스미스-역사 1:1~26

교사를 위한 도움말: “어떤 사람이 질문할 때, 그 해답을 여러분이 말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에게 그 대답을 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그것은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또는 ‘누가 이 질문에 대해 답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64쪽)

주

1. Conference Report, Oct. 1900, 61.
2. "Reminiscences of the Prophet Joseph Smith", *Deseret Semi-Weekly News*, Dec. 29, 1899, 1.
3. *Deseret News: Semi-Weekly*, June 27, 1882, 1.
4. *Deseret News: Semi-Weekly*, Mar. 9, 1886, 1.
5. "Reminiscences of the Prophet Joseph Smith", 1.
6. "The Grand Destiny of Man", *Deseret Evening News*, July 20, 1901, 22.
7. Conference Report, Apr. 1898, 64.
8. *Millennial Star*, Nov. 25, 1889, 738; 로렌조 스노우가 1889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전한 말씀을 상세하게 풀어서 쓴 기사를 발췌함.
9. *Millennial Star*, June 27, 1895, 402.
10. "Reminiscences of the Prophet Joseph Smith", 1.
11. *Journal History*, Nov. 14, 1898, 4; 로렌조 스노우가 1898년 11월 박스엘더 스테이크 대회에서 전한 말씀을 상세하게 풀어서 쓴 기사에서 발췌함.
12. "Reminiscences of the Prophet Joseph Smith", 1.
13. *Deseret News: Semi-Weekly*, Mar. 9, 1886, 1.
14. *Deseret News*, Nov. 22, 1882, 690.
15. *Deseret News: Semi-Weekly*, Mar. 9, 1886, 1.
16. *Deseret News*, Nov. 22, 1882, 690.
17. "Reminiscences of the Prophet Joseph Smith", 1.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성스러운 계시와 성신의 현시를 통해 안다고 온 세상에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되새기며

“우리는 모두 세상에 오셔서 길을 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화평과 행복, 승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로렌조 스노우의 생애에서

1872년 10월, 브리검 영 회장은 제1보좌인 조지 에이 스미스 회장에게 유럽과 중동의 일부 지역을 돌아보라는 임무를 주었다. 영 회장과 제2보좌인 다니엘 에이치 웰스 회장은 스미스 회장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우리는 형제님이 방문하는 여러 나라에 복음을 소개하기 위해 무엇이 지금 개방되어 있고, 또 앞으로 개방될 소지가 있는 분야는 어떤 것인지를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행은 스미스 회장이 성지(이스라엘)를 방문하여 “그 땅을 성별하고 주님께 헌납하는” 것으로 마치게 되어 있었다. 영 회장과 웰스 회장은 이어서 이렇게 적었다. “우리는 형제님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여행하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거룩한 복음에 관한 대화를 하실 때마다 풍성한 축복을 받아, 지혜로운 말씀과 유창한 언변으로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 백성 사이에 의의 씨앗을 뿌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¹ 스미스 회장은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이었던 로렌조 스노우 장로를 위시한 소규모 후기 성도 일행을 대동했는데, 그 일행 속에는 당시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스노우 회장의 누나, 엘리자 알 스노우 자매도 있었다.

스노우 장로는 여행하는 도중에 지형과 건축물, 그리고 주민들의 풍습과 생활환경을 묘사한 편지를 수시로 보냈다. 그런데 그와 일행들이 성지를 방문하자 편지의 어조는 사뭇 달라졌다. 스노우 장로의 생각은 여러 세기 전,

같은 곳에 자주 들르셨던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향했다. 한 예로 그는 1873년 2월, 일행이 예루살렘 시로 향하면서 겪은 일을 다음과 같이 적었다.

“한 시간 말을 타면 …… 예루살렘에 다다를 것입니다. 계속 가다가 이윽고 높은 지대[또는 언덕]에 올라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황홀히 바라봅니다. 멀리 오른쪽에는 다윗의 도시인 시온 산이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한때 구주께서 즐겨 찾으셨으며, 그분이 아버지 면전으로 올라가기 전 마지막으로 서 계셨던 감람 산이 황량한 자태를 우뚝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흥미로운 역사적 장소들을 보면서 그곳과 연관된 모든 성스러운 사건들을 떠올리며 감개무량하고도 엄숙한 생각과 감상에 젖습니다. 그렇습니다. 저기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셨고 배움을 얻으신 곳,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시며 머리를 숙이고 세상을 떠나셨던 예루살렘입니다! 생각에 잠긴 채 천천히 구불구불한 언덕길을 내려오다 보니, …… 마침내 그 도시에 이르렀습니다.”²

스노우 장로는 요단 강에 다녀온 후 이렇게 썼다. “우리는 감미롭고 시원한 그 강물을 마시고 그 성스러운 시내에서 몸을 씻다 보니, 성경을 펼치고 이 지방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에 대해 읽었던 어린 시절이 생각나 그때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그 성스러운 경전에는 제사장들이 성스러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흐르는 물로 들어가자 물이 끊겨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간 일, 엘리야가 물을 가르고 마른 강 위를 건넌 후 맞은편 들판에서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일, 엘리사가 돌아오면서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겹옷으로 물을 치며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말하자 세 번째로 요단 강이 갈라진 사건 등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장소와 관련하여 가장 깊은 관심을 자아내는 다른 사건은 다음 성구에 언급된 구주의 침례였습니다.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 강으로 오셔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셨습니다.’[마태복음 3장 참조] 우리는 이 모든 기억할 만한 사건들이 일어난 바로 그 지점, 아니면 그 근처에 있었으며, 강둑에 서서 골짜기를 내려다보고, 그처럼 지고한 사건들을 말없이 증거하는 강물 속에 몸을 담가 보기도 했습니다.”³ [283쪽 제언 1 참조]

로렌조 스노우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우리에게 화평과 행복, 승영에 이를 길을 열어 주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

이 복음은 여러 시대에 걸쳐 세상에 전해졌으며, 선지자들이 이를 알려 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창세 이전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요한계시록 13:8; 모세서 7:47 참조]이시며, 그분은 적절한 때에 자신을 사람의 자녀에게 보이시고, 사람들의 짓값을 치르고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리라는 것을 분명하고 명백하게 이해했습니다.⁴

예수께서는 힘이 없는 아기로 구유에 누워 계실 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전에 지구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헤롯이 칙령을 내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으며, 스스로를 구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그 칙령의 효력이 미치는 곳으로부터 예수를 보호하기 위해 애굽으로 [피했습니다.] …… 예수는 자라서 어른이 되었으며,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누구이고, 또 무슨 목적으로 이 세상에 왔는지를 계시 받았습니다. 또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지냈던 영광과 권능이 그에게 알려졌습니다.⁵

예수께서는 지상을 다니시며 그분의 사명을 수행하시는 동안 자신이 백성 사이에서 일으킨 기적은 자신의 힘이나 지혜로 행한 것이 아니며, 자신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곳에 있는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의 영광이나 영예를 구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의 영예와 영광을 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요한복음 5:43]

예수님의 사명은 다른 사명과는 구별되는 특수성을 띠는데, 말하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영광과 영예를 구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의 영예와 영광을 구하고 아버지의 사업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분께서 성공하신 비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원리로 일하는 사람 모두가 번영을 이루는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⁶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수많은 자녀를 구원하는데 필요한 일을 이루기 위해 극도의 노력을 해야 하는 상태에 처한 적이



1872년 말부터 1873년 초까지 로렌조 스노우 장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지를 여행했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필요한 시련을 통과하고 희생을 치르기 위해 그런 극도의 노력과 결단이 요구되었습니다.⁷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이런 특별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지닌 힘과 동원할 수 있는 신앙을 모두 다 기울여야 했습니다. …… 고난이 너무 극심하여 엄청나게 피를 쏟았으나 그분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 그분의 심정은 말로는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교리와 성약 19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께서는 너무나 큰 그 고통이 자신마저도 “고통으로 말미암아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하였으며, 육체와 영이 모두 고난을 겪게 하여 -내가 그 쓴 잔을 마시지 않고 물러서려 하게 하였다.”라고 알려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께서는 마음으로 “아버지여, 제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끊임없이 되풀이하셨습니다.⁸[교리와 성약 19:15~19 참조]

우리는 모두 세상에 오셔서 길을 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화평과 행복, 승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런 분투를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를 통해 복음 안에서 보장된 이런 축복과 특권을 결코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필요한 일을 이미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

…… 비록 예수께서 자신을 희생하여 인간을 구속하는 계획에서 그분의 역할을 다하셨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분과 연합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구원은 절단코 성취될 수 없습니다.⁹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곳에 거하셨으며 이제는 영화롭게 된 육신 속에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축복, 똑같은 승영, 똑같은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¹⁰
[283~284쪽 제언 2 및 3 참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후기에 지상을 방문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늘의 진리를 알려 주셨다.

세상이 있기 전부터 하늘을 통치하셨으며, 지구를 창조하시고, 절정의 때에 자신이 창조한 이들을 온전하게 하고 구원하기 위해 내려오셨던, 하늘에 거하시던 그분께서 이 시대에 인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¹¹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성스러운 계시와 성신의 현시를 통해 안다고 온 세상에 증거합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무덤에서 일어나신 후 고대 사도들에게 하셨듯이 조셉 스미스에 게도 친히 모습을 보이셨으며,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하늘의 진리를 그에게 알려 주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¹²

커틀랜드 성전에서 주님을 본 사람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 유대인에게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타나셨으며, 그 일에 대해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휘장이 우리의 마음에서 걷히고 우리의 이해의 눈이 열렸더라. 우리가 보니, 주께서 우리 앞 설교단 흥벽 위에 서 계시는데” 그 발 아래에는 …… 순금이 퍼 있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해보다 더 밝게 빛났고, 그분의 음성은 큰 물의 격류 소리 같았으니, 곧 여호와와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나는 살아 있는 자요, 죽임을 당하였던 자니, 나는 아버지께 대한 너희의 변호자니라. 보라, 너희 죄는 사함 받았으니, 너희는 내 앞에서 깨끗하도다. 그러므로 너희 머리를 들고 기뻐하라. [너희는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집을 지었도다. 나는 이 집을 받아들이겠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나의 영을 부여주겠으며, 이 거룩한 집이 더럽히지 않게 하리라.]”[교리와 성약 110:1~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유대인이 배척한 바로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친히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참되신 것처럼 이런 일

들이 참되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이 지상의 만국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오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으며,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이러한 원리를 믿고 따를 모든 이들에게 성신을 약속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이 원리들이 참되다는 지식을 얻어야 합니다.¹³ [284쪽 제언 4 참조]

구주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므로 우리는 그분의 오심에 대비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오셔서 통치하실 것이라는 간증이 있습니다.¹⁴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머지않아 오셔서 우리 가운데 모습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먹고 마시며 말씀하시고, 왕국의 신비를 설명해 주시며, 지금은 감히 입밖에 낼 수도 없는 것들을 알려 주실 것입니다.¹⁵

여러분이 달리는 기차에 타고 있다면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는 한, 기차는 여러분을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입니다. 객차에서 내리면 위험할 뿐 아니라 다음 기차가 오기까지는 오래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고 해야 할 일을 한다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약을 지키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영예와 영광 가운데 오시는 때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께서는 충실함을 입증한 이들에게 그들이 기대하는 모든 축복을 천 배가 넘도록 부어 주실 것입니다. ……

…… 후기 성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중 누구라도 줄임에 취해 있다면 구주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 열 처녀에 관해 하신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중 다섯은 지혜로워서 등잔에 기름이 있었으며, 그렇게 해서 신랑이 왔을 때 나가서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은 다섯뿐이었습니다.[마태복음 25:1~13; 교리와 성약 45:56~59 참조] 후기 성도는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가 맺은 영원한 성약에 충실하고 또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후기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그분의 영을 부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충실하고 가족에게 충실하며, 모든 일을 신중하게 행하고, 하나님 왕국의 유익을 위해 일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리



스노우 회장은 성도들에게 열 처녀에 대한 구주의 비유 속에 나오는 다섯 처녀의 모범을 따르라고 권고했다.

석은 처녀들 사이에 포함되지 않고 합당한 자들 가운데에 속해서, 왕과 왕 후로서 면류관을 쓰고 영원을 두고 통치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¹⁶
[284쪽 제언 5 및 6 참조]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제언

본 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다음 제언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v~vii쪽을 참조한다.

1. 스노우 회장이 성지에서 겪은 경험담(278쪽)을 꼼꼼이 생각해 본다. 왜 스노우 회장은 그곳에 있었을 때 “감개무량하고도 엄숙한” 생각과 감상에 젖었다고 생각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성지를 방문하지 않고도 구주에 대한 비슷한 느낌을 발전시킬 수 있는가?
2.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 주셨는지를 생각하며 279쪽 서두 부분을 공부한다. “아버지의 영예와 영광을 구하려는” 구주의 소망을 숙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지 생각해 본다.

3. 279쪽에서 스노우 회장은 “번영을 이루는 비결”을 들려준다. 우리에게 이 비결이 어떻게 통하는가?
4. 281쪽 첫머리를 읽는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깊이 생각해 본다. 예컨대, 우리는 가족에게 간증을 나누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가정 복음 교사나 방문 교사로서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웃들에게는? 하루하루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5.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비할 수 있는가?(몇 가지 예로 282~283쪽 참조) 다른 사람도 대비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6. 스노우 회장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가?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간증을 나눌 방법을 찾아본다.

관련 성구: 누가복음 12:31~48; 고린도후서 8:9; 니파이후서 2:7~8; 25:23, 26; 엘마서 7:11~13; 교리와 성약 35:2; 조셉 스미스-역사 1:17

교사를 위한 도움말: “반원들에게 원하는 부분을 선택하여 마음속으로 읽어 보라고 한다. 같은 부분을 선택한 사람 두세 명을 묶어서 배운 내용을 토론해 보게 한다.”(본서 vii쪽)

주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브리검 영과 다니엘 에이치 웰스가 조지 에이 스미스에게 보낸 편지, <i>Correspondence of Palestine Tourists</i> (1875) 1-2. 2. <i>Correspondence of Palestine Tourists</i>, 205. 3. <i>Correspondence of Palestine Tourists</i>, 236-237. 4. <i>Deseret News</i>, Jan. 24, 1872, 597. 5. Conference Report, Apr. 1901, 3. 6. <i>Deseret News</i>, Dec. 8, 1869, 517. 7. Conference Report, Oct. 1900, 2 8. <i>Millennial Star</i>, Aug. 24, 1899, 531. 9. <i>Deseret News</i>, Mar. 11, 1857, 3; | <p>원 출처에는 3쪽이 419쪽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0. <i>Deseret News</i>, Nov. 22, 1882, 690. 11. <i>Journal History</i>, Apr. 5, 1884, 9. 12. <i>Deseret News: Semi-Weekly</i>, Jan. 23, 1877, 1. 13. <i>Millennial Star</i>, Apr. 18, 1887, 245. 14. <i>Deseret News</i>, Apr. 11, 1888, 200; 로렌조 스노우가 1888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전한 말씀을 상세하게 풀어쓴 기사에서 발췌함. 15. Conference Report, Apr. 1898, 13-14. 16. <i>Millennial Star</i>, Apr. 18, 1887, 244-246. |
|---|--|



시각 자료 목록

- 표지: 로렌조 스노우, 존 윌라드 클로슨; 대리석 무늬지 © Artbeats.
- iv쪽: 사진, 교회 역사 도서관 제공.
- 2쪽: 판화, 교회 역사 도서관 제공.
- 5쪽: 사진, 교회 역사 도서관 제공.
- 8쪽: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 1853년의 세부, 판화, 프레드릭 호킨스 피어시.
- 13쪽: 시온으로 가는 배, 글렌 에스 홉킨슨. © Glen S. Hopkinson. 복사 금지.
- 15쪽: 다친 사람에게 병자 축복을 주는 로렌조 스노우, 브라이언 콜. © Brian Call.
- 18쪽: 개척자 마차, 미네르바 테이체르트. 교회 역사 박물관 제공.
- 36쪽: 로렌조 스노우, 루이스 램세이. 교회 역사 박물관 제공.
- 42쪽: 사진, 교회 역사 박물관 제공.
- 46쪽: 예수께 침례를 베푸는 요한, 해리 앤더슨. © IRI.
- 50쪽: 오순절 날, 시드니 킹. 교회 역사 박물관 제공.
- 60쪽: 사진, 프랭크 헬리히. © 2009 Frank Helmrich.
- 62쪽: 기도하는 로렌조 스노우, 브라이언 콜. © Brian Call.
- 70쪽: 사진, 윌리엄 알레이 콜.
- 72쪽: 로렌조 스노우에게 병자 축복을 주는 윌리엄 클러프와 엘마 스미스, 샘 롤러. © Sam Lawlor.
- 75쪽: 사진, 스티브 번더슨. © 2000 Steve Bunderson.
- 82쪽: 사진 © Corbis.
- 88쪽: 사도 바울, 제프 워드. © Jeff Ward.
- 92쪽: 산상수훈, 칼 하인리히 블로흐. 덴마크 힐레티드에 있는 프레데릭스보르 국립 역사 박물관의 허가를 받아 사용.
- 96쪽: 마므레의 아브라함, 그랜트 롬니 클로슨, 해리 앤더슨의 원작에 기초함. © IRI.
- 106쪽: 슈거 크리크, 1846의 세부, 그레고리 시에버스. © Gregory Sievers.
- 109쪽: 드로잉, 피터 오 헨슨, 히버 시 킴블의 일지.
- 122쪽: 요나, 로버트 티 배렛. © Robert T. Barrett.
- 146쪽: 켈셋마네의 그리스도 세부, 하인리히 호프만. C. Harrison Conroy Co., Inc. 제공.
- 152쪽: 홍해를 가르는 모세, 로버트 티 배렛. © 1983 IRI.
- 163쪽: 사진, 아이번 오티스 폰세. © 2002 Ivan Ortiz Ponce.
- 174쪽: 맹인을 고치시는 그리스도, 월터 레인. 교회 역사 박물관 제공.
- 182쪽: 사진, 교회 역사 도서관 제공.
- 194쪽: 나부를 떠남, 글렌 에스 홉킨슨. © Glen S. Hopkinson.
- 199쪽: 사진, 스티브 번더슨. © 2006 Steve Bunderson.
- 204쪽: 사진 © Getty Images.
- 211쪽: 멜기세덱 신권의 회복, 월터 레인. © IRI.

236쪽: 첫번째 시현, 미네르바 테이체르트.
레이 엠 및 라폰드 포프 홀 제공. 복사
금지.

241쪽: 계시를 받는 조셉 스미스 이세,
대니얼 에이 루이스. © 2007 Daniel A.
Lewis.

248쪽: 커틀랜드 성전에 나타나신 주님, 델
파슨. © 2001 IRI.

254쪽: 그리스도와 젊은 부자 관리, 하인리히
호프만. C. Harrison Conroy Co., Inc.
제공.

258쪽: 길에서 도움을 받는 로렌조 스노우와
그의 가족, 샘 롤러. © Sam Lawlor.

266쪽: 조셉 스미스, 작가 미상. 이 그림은
미주리 주 인디펜던스에 있는 그리스도
공동체 기록 보관소에서 제공함.

271쪽: 자녀들과 함께 놀고 있는 조셉,
로버트 티 배렛. © 1991 Robert T.
Barrett.

276쪽: 붉은 옷을 입으신 그리스도, 미네르바
테이체르트. © IRI. 교회 역사 박물관
제공.

280쪽: 예루살렘, 제임스 페어맨. 교회 역사
박물관 제공.

283쪽: 열 처녀의 비유, 댄 버. © IRI.



색인

ㄱ

가정

가족 참조

가족 역사, -를 하기 위해 희생함, 143

가족

- 간의 화합, 131~132, 198

- 안에서 복음을 가르침, 132~134

- 안에서 성스럽고 영원한 관계, 129~130

-의 축복은 모든 충실한 자들이 받을 수 있음, 130

상호부조회는 -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침, 170

성전에서 인봉됨, 140

간증

-은 훌륭한 출발점이 됨, 62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 61, 184~185, 281~282

조셉 스미스와 회복에 대한 -, 273

개종

간증으로 시작됨, 62~63

신앙을 키워야 함, 63~65

로렌조 스노우의 -, 6~7, 59, 61~62

결혼

-으로 하나임을 느낌, 131~132

상호부조회는 - 생활에 충실하도록 격려함, 170

성전에서 영원한 -, 140

영원한 -을 권해야 함, 129

이생에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영원한 -, 130

검손

영을 지니는 데 필요함, 79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함, 244~245

지도자는 -이 필요함, 221~222

경전, 우리의 신성한 잠재력을 일깨워 줌, 86~89

계시

-를 위해 검손이 필요함, 79

교회는 -의 반석 위에 세워짐, 74

역경 속에서 도움을 줌, 73~74

교사

다른 사람들을 가르침으로써 교훈을 얻음, 261

사랑으로 봉사해야 함, 219

어린이에게 십일조를 내도록 가르침, 164

영의 인도를 필요로 함, 41~43, 219~220

교육

로렌조 스노우에게 -의 중요성, 3~4, 37~39

신앙, 노력, 인내가 필요함, 38~39

영적 -, 40, 63~64

교회에서의 봉사

각 부름은 중요함, 186~189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도움, 185~186

상호부조회는 -를 위한 기회를 제공함, 170~171

충실하고 활기차게, 190~191

힘들지만 기쁜 일, 191

다른 사람에게 봉사함 참조

구원의 계획

복음은 -임, 240

세상이 있기 전에 세워짐, 240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은 -의 일부임, 279~281

색인

기쁨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뻐함, 89~90, 114~115
진리의 대업에 헌신하면 -을 얻음, 191

L

낙담, -을 이겨냄, 101, 171~172

C

다른 사람에게 봉사함

-을 통해 우리 자신이 향상됨, 261~262
-을 통해 축복이 옴, 257, 259
개인적인 동기를 살펴야 함, 217~218
우리 안에 천국을 얻게 해 줌, 262~263
우리의 행복이 커짐, 260
재능을 사용함, 220~221
또한 교회에서의 봉사 참조

단련, 완전해지기 위해 필요함, 96

단합

가족 안에서의 -, 198
교회에서의 -, 197~198
빛과 예지를 가져옴, 202
서로에게 봉사할 때 이루어짐, 198~201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성품을 보임, 196~197
우리가 강한 백성이 되게 함, 201
정원회와 조직 내의 -, 197~198
하나님의 면전에서 거하도록 우리를 준비시킴, 201

데이비드 더블유 패튼, 로렌조 스노우에게 간증을 전함, 1, 3

R

로렌조 스노우

-와 성전 사업, 24~25
-의 개종, 6~7, 59, 61~62
-의 교육, 4~6
-의 어린 시절, 3~4
-의 침례, 6, 47
가족 모임을 감독함, 127, 129

간증을 얻음, 6~7

개혁하라는 브리검 영의 부름에 응함, 117, 119

교회 회장으로 지지됨, 238~239

교회 회장이 됨, 27~28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친구가 됨, 29~30

다친 선원에게 병자 축복을 줌, 13~16

대중 연설에 대한 초기의 어려움과 성공을 말함, 93~95

도움을 준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음, 257, 259

런던에 있는 신권 지도자들에게서 서한을 보냄, 215, 217~218

마운트 피스가에서 성도들을 인도함, 19

몰타에서 교회를 세움, 183~184

발도파 소년에게 병자 축복을 줌, 206~207

배움에 대한 갈망, 3~4, 37~38

복수결혼을 행함, 17

브리검 영의 아내에게 돈을 주고 떠남, 10

브리검시터에서 성도들을 인도함, 23~24

상호부조회 활동에서 말씀함, 167

성지를 방문함, 277~278

신권을 영예롭게 함, 117, 119

십이사도 정원회로 부름 받음, 19~20

십일조의 법을 가르침, 31~32, 157~160

엘라 켄슨에게 병자 축복을 줌, 26~27

영구 이주 기금을 모금함, 195~196

영국으로 가는 도중에 폭풍우를 만남, 175~176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게 나타나심, 27, 238~239

이탈리아 선교부를 설립함, 20~23

전임 선교사, 7~16, 20~23, 71~73, 205~207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기로 결정함, 225~226

조셉 스미스와 함께 했던 경험, 267~269

하와이 제도에서 선교사로서 목숨을 구함 받음, 71~73

로제타 리어노라 페티본 스노우(로렌조 스노우의 모친), 3~4

ㄹ

마운트 피스가

-에서의 오락, 108~110

로렌조 스노우가 감리함, 19, 107~110

모범

-은 설득력 있는 교사임, 221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 -을 보임, 132~133

지도자와 교사는 구주의 -을 따라야 함, 219~220

몰타, 로렌조 스노우가 -에서 봉사함,

183~184

ㅂ

박해, 교회를 파괴하지 못할 것임, 242~243

반대, 하나님 왕국을 멸하지 못할 것임, 242~243

발도파, 21~23, 205~207

배도

세속적인 것을 따름, 250~252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의 -, 249~250

배움

반복이 도움이 됨, 40~41

신앙으로 -, 38~39

영으로 -, 41~43

인내가 필요함, 38~39

또한 지식 참조

변영, -의 비결, 279

복리, 다른 사람들의 -를 위한 헌신, 221~222

복천년, - 동안의 성전 사업, 143

부름

-을 수행하기 위해 주님의 도움이 필요함, 150~154, 175~176

-을 존중함, 186~189

하나님의 사업에서 모든 -은 중요함, 186~189

부모

가정에서 사랑과 친절을 복돋움, 131~132

삶과 구원의 원리들을 함양함, 134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함, 132~134

자녀들에게 십일조를 내도록 가르침, 164 또한 가족 참조

브리검시티, -에서의 로렌조 스노우, 23~24

ㅅ

사도, -의 책임, 19~20

사랑

모든 사람에게 베풀, 259~260

상호부조회 회원들이 본을 보임, 169

사랑

사람들에 대한 선교사들의 -, 233

서로 간의 -, 198~202, 259~260

선교 사업에서의 -, 229

세상보다 하나님에 대한 -, 252

상호부조회

-의 사명, 169

가정에서의 선한 영향력, 170

봉사할 더 많은 기회를 받기 위함, 170~171

신권 소유자들과 함께 일함, 169~170

어머니 역할을 강화함, 170

참된 사랑과 순수한 신앙의 본이 됨, 169

하나님의 왕국을 진척시킴, 169~170

회원들이 해의 영광을 목표로 삼도록 도움, 172

선교 사업

-과 이웃에 대한 사랑, 233

-에 참여하는 기쁨, 226, 232~233

-에서 봉사하는 회원들, 184~185

-에서 주님의 도움을 받음, 225~226

-을 하기 위해 희생함, 227~229, 233

-을 하는 방법에 관한 조언, 230~232

색인

다른 사람들이 복음 축복을 받도록 도움,
227~229
전임 -을 하는 이유, 226~227
좋은 소식과 기쁜 소식을 가져다 줌,
230~231
하늘의 대표자로 봉사함, 231

성공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에서 -을 거둠,
190~191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거둠, 148~153

성신
-의 속삭임으로 로렌조 스노우의 목숨을
구함, 71~73
-의 은사, 신앙 및 회개와 연관됨, 49~50
-의 은사, 합당한 권세로 집행됨, 54
-의 인도, 축복으로 인도함, 54~56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줌, 79
구도자들의 마음에 작용함, 228
권고를 줌, 76
모든 진리로 인도함, 73~75
시련을 견디도록 도와줌, 77~79
안수례로 부여됨, 52~53
우리의 친구가 됨, 75~76, 79
의무를 수행하도록 도와줌, 77~78
특별한 상황에서 도움을 줌, 71~73, 78
평안과 행복을 가져옴, 76~77
하나님의 일을 알려줌, 75~76
해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킴,
77~78
회원들에게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속삭임,
229

성약
-을 지키면 기쁨을 얻음, 191
-을 지키지 못함, 252~253
침례 -을 지키면 축복이 옴, 54~56

성전
-과 죽은 자를 위한 의식, 140~143
-에서 봉사하기 위해 희생함, 143
-에서 봉사하는 축복, 143~144

-에서 인봉된 가족, 140
-으로 오라는 권유, 140
로렌조 스노우에게 -의 중요성, 24~25
복천년 동안의 주된 일, 143
순결한 마음으로 -에 들어감, 143
우리가 구주가 될 수 있는 곳, 143
우리가 유혹에 저항하도록 준비시킴,
143~144
하나님의 축복을 배우는 장소, 140

성품
경전에서는 -을 키우는 것에 관해
가르침, 120~121
올바른 -을 확립함, 119~121
의로운 -을 유지함, 123~124
의로운 -은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게
해 줌, 123~124
차츰차츰 계발됨, 122~123
회개는 -을 강화함, 123

세속적임
-에 대한 경고, 249~252
-에서 우리 자신을 분리시킴, 101~103,
176~178, 252~253
영원한 영광을 세상의 부와 바꾸기를
거부함, 253~255
우리에게 영원한 율리로부터 등을 돌리게
함, 250~252

순종
축복을 가져옴, 48
하나님의 뜻에 -하면 능력을 얻게 됨,
150~153

승영
-할 수 있는 잠재성, 84~89, 130~131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함, 280~281

시련
-을 겪는 동안 기쁨을 찾음, 89~90,
107~110
-을 겪는 동안 충실함, 107~110, 112
-을 극복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강화시키심, 113~114

- 성신은 우리가 -을 견디도록 도움, 77~79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이게 해
줌, 112
우리가 해의 영광을 얻도록 준비시킴,
110~111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됨,
114~115
- 신권
- 소유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해야
함, 211~213
- 소유자는 상호부조회 자매들과 함께
일함, 169~170
- 소유자는 영적 은사를 추구하고
행사해야 함, 211~213
- 소유자는 의의 원리를 따라야 함,
211~213
우리가 행복을 얻도록 도움, 210
우리를 인도하고 온전하게 함, 210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됨, 208~209
하늘에서 위임된 권세, 208~209
- 신뢰
주님의 약속에 대한 -, 244~245
하나님에 대한 -, 171~172, 175~176
- 신앙
-으로 임무를 수행함, 190~191
-을 확립하면 성품이 강화됨, 122~123
노력은 -을 키움, 63~65
영의 은사, 73~75
영적 지식은 -을 키움, 63~64
침례 및 확인으로 이어짐, 49~50
- 십이사도 정원회, 로렌조 스노우가 -로 부름
받음, 19~20
- 십일조
-를 내면 영적 및 현세적 축복을 받음,
159, 162~163
-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 생활하는 데
어려운 율법이 아님, 160~161
교회가 부채에서 자유로워짐, 32,
159~160
땅을 성결하게 함, 162~163
로렌조 스노우가 -에 관해 설교하도록
영감 받음, 31, 157~158
모든 후기 성도는 완전한 -를 내야 함,
157~158, 161
부모와 교사는 -를 내는 모범을 보여야
함, 164
성전 비용을 지불함, 162~163
자녀는 -를 내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함,
164
-
- 엘마 엘 스미스, 로렌조 스노우의 목숨을
구하도록 도움, 71~73
엘라 겐슨, 로렌조 스노우의 병자 축복을
통해 다시 살아남, 26~27
엘리자 알 스노우(로렌조 스노우의 누나)
로렌조 스노우와 함께 성지에 감,
277~278
자녀가 없는 상태, 130
제2대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167
여성, 주님의 사업에서의 -, 167
또한 상호부조회 참조
- 역경
시련 참조
- 열 처녀, -의 비유, 282~283
영구 이주 기금, 195~196
- 영국
로렌조 스노우가 -으로 선교 사업을
나감, 10~16, 215, 217~218
로렌조 스노우의 - 항해, 175~176
영원, -의 영광은 세상의 부보다 더 위대함,
253~255
영적 은사, -를 구함, 211~213
예수 그리스도 교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진함, 237~240,
242~244
확실한 기초 위에 세워짐, 242~243

색인

또한 하나님의 왕국 교회에서의 봉사
참조

예수 그리스도
-를 통한 승영, 87~88, 280~281
-에 대한 간증, 61, 184~185, 281~282
-의 사명, 279~281
-의 속죄 피를 통한 용서, 53
-의 속죄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 186
-의 예임, 110
-의 침례, 51, 278
-의 탄생, 279
교회의 머리, 238~239
로렌조 스노우에게 나타나심, 27,
238~239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심,
196~197
신권 봉사의 모범, 186
아버지의 뜻에 순종, 148~150, 279~281
유혹에 저항하는 것의 모범, 253
지상을 다스리기 위해 오실 것임,
282~283
커틀랜드 성전에 나타나심, 250~251,
281~282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282~283

온전함
-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하늘의 도움,
95~97
-에 필요한 회개, 98~101
-을 추구하라는 계명, 95~97
고난을 통해 -에 이룸, 111
매일의 과정, 98~101, 103
우리의 범위 내에서의 -, 97~98

올리버 스노우(로렌조 스노우의 부친), 3~4
용서, 201

우정
양쪽 모두의 노력이 필요함, 199
종교가 다른 사람들과의 -, 227

윌리엄 클러프, 로렌조 스노우의 목숨을
구하도록 도움, 71~73

유혹
-에 굴복되지 않음, 250~252
-을 극복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강화시키심, 113~114
-을 받는 동안 충실하게 남음, 112
-을 피하는 방법, 249~250
선교사는 -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함,
232
성전 사업은 -에 저항하는 데 도움이 됨,
143~144

은혜, 175

의식
신권에 의해 집행됨, 54~55, 208~209
영원한 은사와 축복을 가져옴, 54
죽은 자를 위한 -, 140~141, 143

이탈리아 선교부, 로렌조 스노우가 설립함,
20~23, 205~207

인내, 온전해지기 위해 필요함, 96

인생의 목적, 154

일
우리에게 맡겨진 -을 성취함, 244~245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 175
친구의 유익을 위한 -, 261~262

ㅈ

자녀
소중한 유산, 129
십일조의 법을 배워야 함, 164

자만, 한 교회 지도자의 예, 215, 217~218

재능
-에 대한 비유, 187~189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을 사용함,
220~221

정원회, -에서의 단합, 197~198

조셉 가이, 로렌조 스노우의 병자 축복으로
치유됨, 206~207

조셉 스미스

- 를 처음 본 로렌조 스노우, 269
- 를 통해 신권이 회복됨, 208~209
- 에 대한 로렌조 스노우의 간증, 268~273
- 의 성스러운 부름, 268
- 의 순교, 237
- 가식이 없음, 270~271
- 고결한 도덕적 품성, 269~270
- 나부 성전에서 권능으로 말씀함, 267
- 로렌조 스노우가 -와 함께 했던 경험, 267~269
- 부름을 받았을 때 진지한 젊은이였음, 268~269
- 영적 능력과 영향력이 커짐, 272
- 천진난만한 놀이를 즐겼음, 270~271

주님의 사업

- 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함, 180
- 기쁨을 가져옴, 191
- 번영을 가져옴, 180
- 힘들 수 있음, 191

지도자

- 다른 사람들의 복리를 염려해야 함, 215, 217~222
- 사랑으로 봉사해야 함, 219~220
- 영의 인도가 필요함, 221~222
- 자기 자신의 명예를 구하지 말아야 함, 215, 217~218
- 주님의 양을 먹이라는 명을 받음, 218~219
- 책임을 위임해야 함, 220~221

지식

- 다른 사람과 -을 나눔, 261
- 영적 -을 얻으려면 노력이 필요함, 63~65
- 영적 -을 키움, 63~64
- 또한 배움 참조

진리, 성신의 은사는 모든 -로 인도함, 73~75

츠

충실한 자의 운명, 83~86

침례

- 로렌조 스노우의 -, 6, 47
- 성신의 은사에 선행됨, 49~50
- 성약을 지키면 축복을 받음, 54~56
- 예수 그리스도의 -, 51, 278
- 죄 사함을 위해 필요함, 49~50, 51~52
- 침수로 집행됨, 50~52
- 합당한 권세에 의해 집행됨, 53~54

ㅋ

커틀랜드 성전

- 의 헌납식에서 받은 축복, 250~251
-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 나타나심, 137, 250~251, 281~282

ㅌ

투기, - 바람이 커틀랜드를 배도로 이끔, 250~252

ㅍ

평안

- 성신은 -을 가져다줄 수 있음, 76
-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 280~281

ㅎ

하나님 아버지

- 와 같이 되는 잠재성, 83~89
- 의 뜻을 행함, 148~150
- 의 영광을 구하면 성공이 보장됨, 148~150
-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심, 243~244
- 모든 사람은 -의 자녀임, 259~260
- 예수 그리스도는 -의 뜻을 행함, 279~281
- 우리가 하는 선한 일에서 -의 손길을 인정함, 153
- 우리는 -의 도움으로 요구받은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음, 176~178

색인

- 충실한 자들을 위해 놀라운 것들을
준비해두심, 140
- 하나님의 뜻, -을 구하고 따름, 148~153
- 하나님의 영광, -에 전념함, 180
- 하나님의 왕국
-에 대한 헌신, 252~253
-은 멸망될 수 없음, 242~243
-을 먼저 구함, 254
-을 세움, 244, 254~255
계속 전진함, 237~239
상호부조회 회원들은 -을 진척시킴,
169~170
또한 예수 그리스도 교회 교회에서의
봉사 참조
-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조
- 하이럼 스미스, -의 순교, 237
- 해의 왕국
-을 위해 노력함, 90
성신은 -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킴, 78~79
- 해의 왕국의 율법, 우리 삶에서 -을 확립함,
191
- 행복
고난 속에서의 -, 107~110
다른 사람이 -을 찾으도록 도울 때 커짐,
260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 옴, 227
- 성령의 빛 안에서 행하면 -이 옴, 76~77
신권을 통해 옴, 210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음, 280~281
- 호산나 외침, 138~139
- 확인
성신 참조
- 활기, - 있게 봉사함, 191
- 회개
실패를 극복함, 98~101
십일조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한 -,
161~162
우리의 대업을 진척시킴, 123
참례 및 확인으로 이어짐, 49~50
- 회복
-에 대한 로렌조 스노우의 간증, 273
예언됨, 240
조셉 스미스를 통해 성취됨, 208~209,
273
- 회장단 계승, 237~239
- 희생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 200~201,
262~263
선교사들에게 요구됨, 227~229
성전 사업을 행하기 위한 -, 143
주님께서 -을 요구하실 수 있음, 245
하나님의 도움으로 -함, 178~179
현세적인 구원을 위해 필요함, 243~244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KOREAN



4 02367 87320 2

36787 320